

딤편 강해 1: 디모데전서 개요: 교회란 무엇인가?

딤편3:14-15

오늘부터 디모데전후서 강해를 시작하려 한다. 지금까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여러 책들 구절구절 강해, 성경 전체를 보게 하는 맥잡기 등, 성경 자체 강해

디모데전후서, 디도서는 목회 서신이다. 교회란 무엇이고 목사 집사 등 교회의 리더들, 성도들이 어떻게 지역 교회를 이끌고 섬겨야 하는가를 보여 주는 완결판

오늘 < > 기록자: 바울, 기록 시기: 주후 65년경, 성격: 목회 서신

수신자: 일차적으로는 디모데이며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의 모든 사역자들, 성도들

이름: 이 서신의 이름은 편지의 수신자인 디모데에게서 유래하였다(1:2). 바울과 바나바는 1차 선교 여행 중에 루스드라에 갔다가 거기서 디모데라는 청년을 만났다(행14:5-6; 16:1).

디모데 뜻: 하나님을 공경하다.

그는 루가오니아의 더베나 루스드라 출신으로(행16:1; 14:6) 그의 아버지는 그리스 사람이며 어머니는 유대인이었다(딤편1:5; 3:15). 그는 자기 할머니와 어머니의 기도와 교육 그리고 루스드라에서의 사도 바울의 선포를 통해 회심하였고 주의 군사로 사역을 시작하였다. 사도 바울이 몇 년 뒤 루스드라에 왔을 때 그곳의 형제들은 그를 높이 평가했으며 이에 사도는 그를 데리고 가기로 하고 유대인들로 인해 그에게 할례를 주었다(행16:3). 디모데는 복음 사역에 전념하면서 바울의 선교 여행에서 그를 섬기며 중요한 일을 감당했다. 그는 사도 바울의 고난을 목격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를 아버지처럼 섬겼다(딤편1:2; 딤편3:10-11). 바울은 그를 아들로 형제로 불렀고 또 동역자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했으며 그보다 자기에게 더 가까이 연합된 사람이 없다고 말하였다(롬16:21; 고전4:17; 골1:1; 딤편1:2, 18). 그는 복음 선포 중에 옥살이도 한 것으로 보인다(히13:23). 후에 바울은 그를 에베소에 남겨 두어 자기가 시작한 일을 완수하게 하였다(딤편1:3; 3:14). 그는 바울을 확신하고 사랑하였으며 그래서 자기의 스승인 바울로부터 많은 칭찬을 들었다(행16:1; 17:14-15; 18:5; 19:22; 20:4; 딤편3:10; 4:5)

기록 목적: 하나님의 종들에게 하나님의 교훈과 경고를 주어 바르게 교회를 이끌도록 하는 것

내용: 바울은 디모데와 함께 에베소에 갔다가 그를 사역자로 남겨 두고 떠났으며(딤편1:3) 후에 이 젊은 목사의 사역을 위해 조언할 필요가 있어서 이 글을 기록하였다. 사도는 그가 자기의 교리와 생활 방식 등에 주의를 기울이면서 하나님의 집에서 바르게 처신할 것을 자상하게 가르쳐 주었다. 또한 사도는 교회의 유일한 두 직분인 목사와 집사의 자격에 대해 가르치며 과부를 돌보고 모든 사람의 귀감이 되는 목사가 될 것을 권면하였다. 루터는 이렇게 말하였다. “사도는 목사들을 위한 모델 편지로서 이것을 기록하여 그들이 무엇을 가르칠지 또 모든 상황에서 어떻게 교회를 다스릴지 알려줌으로써 그들이 사람의 지식으로 다른 성도를 인도하지 못하게 하였다.”

디모데전서는 6장, 113절로 구성되어 있다.

핵심 절: “혹시 내가 오랫동안 지체하면 네가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처신해야만 하는지 네가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 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3:15)

디모데전서 개요

I. 교회와 그 메시지 (1장)

- A. 건전한 교리를 가르침 - 1:1-11
- B. 복음을 선포함 - 1:12-17
- C. 믿음을 수호함 - 1:18-20

II. 교회와 그 구성원들 (2-3장)

- A. 기도하는 남자들 - 2:1-8
- B. 복종하는 여자들 - 2:9-15
- C. 자격 있는 목사들 - 3:1-7

- D. 자격 있는 집사들 - 3:8-13
- E. 경건하게 행하는 신자들 - 3:14-16

III. 교회와 그 사역자 (4장)

- A. 말씀을 전하는 선한 사역자 - 4:1-6
- B. 말씀을 실천하는 경건한 사역자 - 4:7-12
- C. 말씀 안에서 성장하는 사역자 - 4:13-16

IV. 교회와 그 사역 (5-6장)

- A. 연로한 성도들에게 - 5:1-2
- B. 연로한 과부들에게 - 5:3-10
- C. 젊은 과부들에게 - 5:11-16
- D. 교회의 직분자들에게 - 5:17-25
- E. 종(노예)들에게 - 6:1-2
- F. 거짓 교사들에게 - 6:3-10
- G. 목사에게 - 6:11-16, 20-21
- H. 부자들에게 - 6:17-19

교회란 무엇인가?

디모데전후서는 목회 서신이다. 목회란 말씀으로 교회를 돌보는 것이다. 따라서 본격적인 디모데전후서 강해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성경이 말씀하시는 교회에 관해 살펴보고자 한다.

1. 교회의 본질적 정의:

-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살과 뼈다 (골 1장, 엡 5장)
-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신랑이자 남편이 되신다
- 교회는 주님의 유일한 신부이고 주님도 교회의 유일한 신랑이다
- 주님은 교회를 자신의 피로 사셨다 (행 20:28)
-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교회 안으로 들어온다

2. 교회의 구성:

- 그리스도의 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게 된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다 (고전 1:2)
-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은 모두 성령님으로 침례를 받았다 (고전 12:12-13)
- "우리가 유대인이거나 이방인이거나 매인 자나 자유로운 자나 모두 한 성령에 의해 침례를 받아 한 몸 안으로 들어왔으며 모두가 마시게 되어 한 성령 안으로 들어왔다"

3. 교회에 대한 두 가지 견해와 성경적 진리

A. 논쟁의 배경과 양극단

첫째 견해: 우주적인 교회만 인정하는 입장

- 어떤 사람들은 성경이 "교회"라고 말씀하실 때,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을 의미한다고 생각한다.
- "구원받아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사람들 전체"라고 주장한다
- 교회를 보이지 않는 유기체로서 예수님이 머리인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한다
- 지역교회의 중요성을 경시하는 경향이 있다

둘째 견해: 지역교회만 인정하는 입장

- 또 다른 사람들은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 "특정한 지역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인 지역교회를 의미한다고 한다.
- 지역교회의 회원이 아니면 구원을 받았든 받지 않았든 상관없이 교회의 회원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 "뱃티스트 브라이드"같은 강성 "지역교회주의자들"은 "우주적인 교회"라는 말과 개념이 모두 천주교에서 나온 것이라고 비난한다
- 참된 교회는 오직 지역교회이며 성도라면 반드시 그 안에 속해 있어야만 하고, 지역교회에서만 침례를 받아야 하며, 지역교회를 떠나면 휴거를 받지 못하게 된다고 주장한다

B. 성경적 진실: 두 개념 모두 성경적이다

중요한 사실:

성경에는 "지역교회(Local Church)"라는 말이 나오지 않는다

"우주적인 교회(Universal Church)"라는 말도 나오지 않는다

이 두 용어는 모두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개념은 모두 성경에 나온다

(1) 우주적인 교회의 성경적 증거:

성령침례를 통한 한 몸

성경은 믿는 자들이 한 성령에 의해 침례를 받아 한 몸 안으로 들어왔다고 말씀한다 (고전 12:13)

여기서 말씀하시는 침례는 물침례가 아닌 성령침례다

어느 특정한 지역교회에서 주는 침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고린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과 우리가 같은 물 침례를 받지 않았지만 같은 성령침례를 받았기 때문에 한 몸을 이루고 있다

끝없는 영광

"이제 우리 안에서 일하는 권능에 따라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 이상으로 심히 넘치도록 능히 행하실 분에게 곧 그분에게 영광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교회 안에서 모든 시대에 걸쳐 끝없는 세상까지 있기를 원한다" (엡 3:20-21)

성경은 영광이 교회에 끝없이 있기를 원한다고 말씀한다

그러나 신약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있던 교회들은 오늘날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데살로니가 교회, 에베소 교회, 필라델피아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빌립보 교회는 모두 사라지고 지금은 존재하지 않는다.

지역 교회만 주장하면 안 된다.

(2) 지역교회의 성경적 증거:

특정 지역의 교회들

"그때에 이 일들에 관한 소식이 예루살렘에 있던 교회의 귀에 들어가매" (행 11:22)

건물은 귀를 가지고 있지 않다. 사람이 귀를 가지고 있다

안디옥 교회의 구성

"안디옥에 있는 교회에 어떤 대언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의 루기오와 사분영주(四分領主) 헤롯과 함께 양육받은 마나엔과 사울이더라(행 13:1)

바나바와 유대인식 이름을 가진 니게르와 아프리카 출신의 구레네 사람 루기오가 있었다

그들은 더 이상 인종이나 국적을 상관하지 않았다

유럽 출신인지 소아시아 출신인지 아프리카 출신인지도 중요하지 않았다

가말리엘에게 교육을 받았는지(바울) 헤롯과 함께 교육을 받았는지(마나엔)도 중요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들은 함께 교회의 일부를 이루고 있었기 때문이다

성경에는 여러 지역의 교회들이 나온다. 고린도,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등

II. 지역교회만이 할 수 있는 실제적 사역

A. 함께 모이는 것

실제적인 모임: 안디옥 교회

"그를 만나매 안디옥으로 그를 데려오니라. 그들이 만 일 년 동안 그 교회와 함께 모이며 많은 사람들을 가르쳤는데" (행 11:26)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모이려면 특정한 지역에서 모여야 한다

"인터넷 교회"는 교회로 모인 것이 아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어떤 사람의 설교를 읽거나 기독교 방송을 보는 것은 교회로 모인 것이 아니다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실제로 모여야 교회로 모인 것이다

주의 만찬과 애찬:

"그러므로 너희가 한 곳에 함께 모일 때에 이것이 주의 만찬을 먹는 것이 아니니" (고전 11:20-22)
다른 그리스도인과 함께 먹고 교제를 나누는 것은 유기체인 교회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로는
할 수 없는 일이다

이것은 오직 지역교회에서만 할 수 있는 일이다

B. 선교와 사역 보고

선교사 파송과 보고:

"그들이 도착하여 교회를 함께 모아 하나님께서 자기들과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또 그분께서 이방인들
에게 믿음의 문을 열어 주신 것을 되풀이하여 말하고" (행 14:27)

"그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들과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께서 자기들과 함께 행하신
모든 일을 밝히 말한다" (행 15:4)

이 본문들에서 말하는 교회는 이 세상에 있는 우주적인 교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서로 돕고 지원하기:

"교회가 그들을 그들의 길로 내보내매" (행 15:3)

지역교회는 할 수 있지만 우주적인 교회는 할 수 없는 일이다

특정한 지역에서 모여 함께 예배를 드림으로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만나게 되고 교제를
나누게 된다

성경은 우리가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도와야 한다고 말씀한다

우리는 우리가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돈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람을
지원해야 한다

어떻게 주님을 섬겼고 앞으로 어떻게 주님을 섬길지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을 지원해야 한다

헌금과 구제:

"이제 성도들을 위한 모금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의 교회들에 지시한 바와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주의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신 대로 자기 곁에 모아 두어 내가
갈 때에 모으는 일이 없게 하라" (고전 16:1-2)

이것은 특정한 지역교회에 주신 명령인 동시에 전체 교회에 주신 명령이기도 하다

C. 감독들의 목양 사역

특정 지역의 양떼를 돌봄:

"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로 사람을 보내어 교회의 장로들을 부른다" (행 20:17)

바울은 에베소 전 지역에 있던 장로들을 부른 것이 아니라 에베소에 있던 한 교회(단수)에 있던 장로들
(복수)을 부른 것이다

장로들은 특정한 지역에서 일하며 특정한 지역에 있는 양떼를 돌보는 일을 해야 한다

병자를 위한 기도:

"너희 가운데 고난을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시편을
노래할지이다. 너희 가운데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약 5:13-14)

이것은 특정한 지역에 있는 지역교회에 대한 말씀이다

기도 제목이 있으면 그것을 자신이 다니고 있는 지역교회의 장로들에게 알리라는 것이다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목사들에게 이메일을 보내라는 말씀이 아니다

D. 권징과 분쟁 해결

그리스도인들 간의 분쟁: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사람과 문제가 있을 때에 감히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소하고 성도들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고전 6:1-4,7)

성경은 구원받은 두 사람이 서로 논쟁을 벌이고 대립하고 있을 때 교회에서 그 일을 해결하라고 말씀한다

이것은 우주적인 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교회를 말하는 것이다

교회의 권징:

"또한 만일 네 형제가 네게 범법하거든 가서 너와 그만 따로 있을 때에 그의 허물을 그에게 일러 주라.
만일 그가 네 말을 들으면 네가 네 형제를 얻었느니라. 그러나 만일 그가 네 말을 들으려 하지 아니하거든
너와 함께 한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모든 말을 확증하라. 만일 그가 그들의
말도 무시하여 듣지 않거든 교회에 그것을 말하되 그가 교회의 말도 무시하여 듣지 않거든 너는 그를
이교도나 세리같이 여기라" (마 18:15-17)

그리스도인들 간의 분쟁은 그들이 속한 지역교회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
그리스도인들 간의 분쟁을 가지고 우주적인 교회 앞에 나아갈 수는 없다
그것은 불가능하다
특정한 장소에 모인 특정한 교회에서만 해결할 수 있다

E. 예배와 질서

온 교회가 한 곳에 모임:

"그러므로 온 교회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모두 타언어들로 말하면 배우지 못한 자나 믿지 않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가 미쳤다고 하지 아니하겠느냐?" (고전 14:23)

우리는 한 몸 안으로 침례를 받았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 안에 있다
우리는 우주적인 교회인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이다
그러나 고린도전서 14장에서 말하고 있는 교회는 지역교회다
그렇지 않다면 사도 바울은 "교회가 다 한 곳에 모여"와 같은 표현은 쓰지 않았을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인 우주적인 교회에 언제나 모여 있기 때문이다

III. 균형 잡힌 성경적 교회론

A. 우주적인 교회의 특징

본질적 속성: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로 구성
성령침례로 한 몸에 연합
그리스도가 유일한 머리
영원히 존속하는 교회
구원받지 못한 자는 단 한 사람도 없음
우주적인 교회의 의미:

하나님께서 신약성경을 통해 교회에 관해 말씀하실 때, 그것은 항상 성령님으로 침례 받아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온 구원받은 사람들을 의미한다
교회가 처음 시작되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항상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는 사람들만이 교회였다
그리스도의 몸은 하나지만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 지역에 있는 모든 믿는 사람들이
휴거되기 전에는 한 자리에 모일 수가 없다

B. 지역교회의 특징

정의와 구성:

특정한 지역에서 믿는 자들이 모여 있는 것도 교회라고 부른다
이것은 교단이나 건물과는 상관없는 것으로 특정한 지역에 함께 모이는 사람들을 의미한다
지역에 따른 구분: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믿는 사람들이 모두 같은 장소에서 만날 수 없기 때문에 각 지역별로 나뉘고
모여서 만났다
성경에서는 "어디에 있는 교회(church at such and such)"라는 식으로 특정한 지역에 있는
성도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부른다
고린도전서와 디모데전서 등 신약성경에는 하나님의 집인 교회(우주적인 교회와 지역교회 모두)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 나와 있다

우리는 우주적인 교회 안에 있지만 동시에 지역교회 안에 있을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역교회의 머리이시며 동시에 우주적인 교회의 머리이시다
 우주적인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지역교회의 머리는 목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역교회든 우주적인 교회든 모든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IV. 결론: 균형과 진리

A. 양극단의 위험

우주적인 교회만 강조하는 오류:

지역교회의 실제적 중요성을 무시하고, 모임과 섬김을 경시하며 개인주의적 신앙으로 흐른다.
 → “나는 우주적인 교회에 속해 있으니 지역교회는 필요 없다”는 잘못된 생각.

지역교회만 강조하는 오류:

교파주의·분파주의로 빠지고, 그리스도의 몸 전체를 무시하며 배타적 교만에 빠진다.
 → “우리 교회만이 참된 교회”라는 비성경적 태도.

B. 성경적 균형의 필요성

성경의 가르침:

그리스도께서는 하나의 교회를 위해 죽으셨다.
 그러나 그 교회는 여러 지역교회들로 나타난다.

C. 실천적 적용: 우리의 정체성: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 즉 우주적인 교회의 일원이다.
 동시에 자신이 속한 지역교회에 충성되게 참여해야 한다.
 우주적인 교회 소속이라는 이유로 지역교회를 무시해서는 안 되고,
 지역교회에 속했다고 해서 다른 교회를 배척해서도 안 된다.

D. 최종 결론

성경에는 우주적인 교회와 지역교회가 모두 존재한다.
 이 둘은 모두 성경적이며, 하나만 강조하면 진리를 왜곡하게 된다.
 교회란 항상 ‘믿는 자들의 모임’을 의미한다 — 규모나 위치와 상관없이.

회원 자격의 원리:

우주적인 교회와 지역교회 모두 거듭난 자들만이 참된 구성원이다.
 구원받지 않은 자는 그 어떤 교회의 진정한 회원도 아니다.

E. 핵심 메시지

디모데에게 주는 말씀, 3:14 내가 곧 네게 가기를 바라면서 이것들을 네게 쓰는 것은
 (3:15) 혹시 내가 오랫동안 지체하면 네가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처신해야만 하는지 네가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 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디모데전서 3:14-15
 예수님의 몸 된 교회를 바르게 이끌고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한다.

딤편 강해 2: 목사는 굳건히 서서 건전한 교리를 가르쳐야 한다

딤편1:1-4

3주 전에 디모데전후서 강해를 시작하였다. 딤편후는 목회 서신, 즉 목회자가 교회를 어떻게 섬기고 이끌어갈 것인가를 보여 주는 말씀,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교회가 무엇인지 설명하였다.

오늘부터는 딤편 1장 강해 시작. 늘 그러하듯이 우리가 강해 페이스를 정하기 위해 어떤 참고서나 교과서 같은 것이 필요하다. 너무 자세히 강해하다 보면 너무 시간이 많이 들고, 대충 하다 보면 강해 설교로서의 의미가 희석된다. 그래서 이번에도 성경 강해 설교를 위해 마련된 <위어스비 목사님의 주석>을 참고서로 삼고 맥아더, 매튜 헨리, 반즈 등의 주석과 나 자신의 이해를 모아서 약 1년에 걸쳐 디모데전후서를 설명하려 한다. 왜 1년? 이 안에는 교회, 목사, 집사, 성도, 구원, 성화, 재림 등 성경의 다양한 주요 주제가 죽음을 앞둔 사도 바울이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이해한 바에 의거하여 성령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래서 늘 그러하듯이 디모데전후서 강해지만 신구약 성경 전체를 아우르는 통전적인 강해 설교 시리즈가 될 것이다.

딤편 1장은 교회와 교회가 전해야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 주고 있다.

그런데 이 메시지는 목사가 주로 전한다. 그래서 오늘 < >, 목사의 책무인 건전한 교리를 선포하고 가르치는 것의 목적에 대해 설명하려 한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 사람들의 글을 읽으며 나도 많이 배운다. 그것이 배움의 기쁨이 아닐까 생각한다.

디모데와 목회자에게 요구되는 일들

위어스비, 맥아더 등이 훌륭한 설교자, 타고난 설교자라는 것은 설교를 시작할 때 설교의 핵심을 알려주기 위해 사용하는 예화가 매우 적절하다는 것을 통해 알 수 있다.

위어스비의 설교 시작 전 예화를 소개한다.

지금부터 120년 전쯤에 영국 런던의 한 신문에 다음과 같은 광고가 실렸다.

“위험한 여행을 함께할 사람을 모집합니다. 보수는 적고, 혹독한 추위와 몇 달간 지속되는 완전한 어둠과 끊임없는 위험이 앞에 있으며 따라서 안전한 귀환은 불확실합니다. 다만 성공할 경우에는 명예와 인정을 받게 됩니다.”

이 광고를 보고 수천 명의 남자들이 지원했다! 그 광고를 낸 사람은 영국의 유명한 남극 탐험가 어니스트 새클턴 경이었다. 바로 이런 탐험가의 요구 조건이 수많은 사람들을 움직이게 했다.

새클턴은 1901년부터 1922년 남극 근처 킹조지 섬에서 죽을 때까지 여러 차례 남극을 탐험하였다.

1914-1917년 세 번째 탐험에서 새클턴과 27명의 대원은 얼음 위에 고립된 채로 1년 반 이상 생존 투쟁을 벌였고 그의 리더십을 통해 대원 중 단 한 명도 죽지 않고 모두 구조됨.

만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교회를 이끌 일꾼을 모집하는 광고를 내신다면 아마 이런 식으로 광고를 내실 것이다.

“나의 교회를 세우는 어려운 일을 할 목사/리더를 구함. 이 일을 하는 동안 동역자들조차 너를 종종 오해할 것이다. 너는 보이지 않는 원수, 사탄 마귀의 지속적인 공격에 직면할 것이다. 너는 네 수고의 열매를 당장 보지 못할 수도 있으며, 네 온전한 보상은 모든 일을 마친 후에야 주어질 것이다. 목회 사역은 네 집, 네 야망, 심지어 네 생명까지도 대가로 요구할 수 있다.”

이것이 목회자에게 요구되는 조건이다.

그런데 새클턴의 광고 결과처럼,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헌신이 힘든 일인데도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기꺼이 자신을 모두 드리며 그분께 “지원서”를 내밀었다.

왜? 예수 그리스도는 그 누구보다 위대한 주인이시며, 그분의 교회를 세우는 일은 신자가 자신의 생애를 바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도전이기 때문이다. 딤편3:1, 본인이 원해도 임명은 교회가 한다.

디모데

디모데전후서의 수신자 디모데는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교회를 세우는 일에 동참한 젊은이 중 하나였다. 그는 사도 바울의 특별한 조력자 중 한 사람이었다. 디도와 함께, 디모데는 바울이 세운

여러 교회들 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과제들을 맡았다. 디모데는 할머니와 어머니가 믿음을 가진 경건한 집안에서 자라났으며(딤후 1:5), 바울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게 되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를 “믿음 안에서 나의 아들”이라 불렀다(딤후 1:2).

디모데는 혼혈 가정에서 태어났다. 그의 어머니는 유대인이었고, 아버지는 그리스인이었다. 그는 그리스도께 헌신된 삶을 살았고, 지역 교회의 지도자들로부터 추천을 받아 바울의 선교 팀에 합류했다(행 16:1-5). 바울은 종종 디모데에게 그가 목회 사역을 위해 선택받았음을 상기시켰다(딤후 1:18; 4:14). 디모데는 주님께 신실하였으며(고전 4:17),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빌 2:20-22).

하지만 그가 부르심을 받았고, 바울과 가까운 관계에 있었으며, 영적 선물(은사)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디모데는 쉽게 낙담하는 성향이 있었다. 바울이 마지막으로 디모데를 만났을 때 그는 디모데에게 에베소에 머물러 그곳의 사역을 마무리하라고 권면했다(딤후 1:3).

이 시점 두 견해, 1. 사도행전 20장, 2. 사도행전 28장 이후

사도행전은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가택 연금된 채(행 28:30-31) 복음을 전하는 장면으로 끝난다. 이때는 대략 AD 60-62년경이다. 그 후 바울은 석방되어 자유의 몸이 되었고 디도서와 디모데전서의 기록은 바로 이 시기 이후의 사역을 반영한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돌보라는 바울의 권고(3절)는 아마도 주후 62-63년경에 주어졌을 것으로 보인다. 당시 디모데는 30대 초중반이었을 것이다.

디모데는 육체적인 질병(딤후 5:23)과 함께 종종 낙심의 시기를 겪은 듯하다. 또한 교회의 일부 성도들이 그의 연소함으로 인해 그를 존중하지 않는 분위기였던 것으로 보인다(딤후 4:12; 딤후 2:6-8).

에베소

에베소는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약 3년간(행 20:31) 사역하며 강력한 복음의 중심지로 세운 곳이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단적 가르침(딤후 1:3-7; 4:1-3)과 거짓 교사들이 교회 안에 침투했다. 그래서 에베소는 결코 목회하기 쉬운 곳이 아니었다. 그 도시는 당시 세계 5대 도시 중 하나(로마, 알렉산드리아, 안디옥, 에베소, 고린도)였고 에베소는 다이애나(아르테미스) 여신 숭배로 유명했는데, 그녀는 성적 본능의 수호신으로 여겨졌다. 다이애나 신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 바울은 에베소에서 약 3년 동안 사역하면서 큰일을 이루었고, 그 결과 “아시아에 거하는 모든 자들은 유대인이나 그리스인이나 다 주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다.”(행 19:10)고 기록되어 있다.

그러니 디모데가 그런 위대한 바울의 뒤를 이어 사역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물론 사탄은 그 도시에 자기 일꾼들을 두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영적인 기회가 있는 곳에는 언제나 사탄의 방해가 있기 때문이다(고전 16:8-9).

바울이 디모데전서를 쓴 이유는 디모데를 격려하고, 지역 교회가 어떻게 운영되어야 하는지를 가르치며, 하나님의 종으로서 바울 자신의 권위를 확립하기 위해서였다. 디모데전서 1장에서는 바울이 지역 교회 안에서 목회자와 성도들이 감당해야 할 몇 가지 책임을 설명하고 있다.

목사가 해야 할 일: 건전한 교리를 선포하고 가르치는 것(딤후1:1-11)

목사는 행정가, 사업가, 정치가, 상담가가 아니다.

목사는 엡4:11-15, 11절 목사 겸 교사, 성도들을 완전하게 하고 섬기는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고 부르심을 받은 자이다. 이 모든 것을 그는 말씀 선포와 가르침을 한다. 목사(Pastor), 말씀의 꼴로 먹고 물을 주는 자, 교사(Teacher), 설명하고 이해시키는 자

바울과 디모데의 권위(1-2)

1절: 서신의 인사말에서부터 바울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가진 권위를 분명히 밝혔다. 바울의 권위는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였다.

바울은 “사도”(apostle), 곧 하나님이 특별한 사명을 맡기고 보내신 자였다.

그의 사도직은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commandment)에 의해 주어졌는데 명령이라는 단어는 본래 “왕의 위임(royal commission)”을 뜻한다.

2절: 디모데를 아들이라 부름, 영적 아버지와 아들 관계, 디모데의 권위를 세워 줌. 그래서 디모데를

괴롭히던 사람들은(교회 내 성도들), 자기들의 목회자가 그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했다.

즉, 바울은 자신과 디모테가 만왕의 왕 하나님에 의해 파송된 사람들임을 보여 주려 하였다.

거짓 교사들과의 싸움(3)

3절: 목사들과 리더들이 주님의 사역을 멈추지 말아야 하는 이유 중 하나는, 거짓 교사들이 성도들을 미혹하기 위해 쉬지 않고 활동하기 때문이다.

바울 시대에도 오늘날처럼 거짓 교사들이 있었고, 우리는 그들을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

그들은 잃어버린 죄인들에게 기쁜 소식(복음)을 전하지 않는다.

오히려 성도들을 빗나가게 하여 자기들의 주장과 목적에 끌어들여 한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테에게 에베소에 머물며 목회를 하라고 하였다.

디모테가 해야 할 일: 거짓 교사들, 악한 자들에게 명령을 주어 어떤 일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

바울은 디모테와 교회가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이해하도록 군사적 언어를 사용했다(딤후 1:3).

“명하라”(Charge)는 말은 본래 “상급 장교가 내리는 엄격한 명령”을 뜻한다.

바울은 디모테전·후서에서 이 단어(혹은 ‘명령’)을 여러 차례 사용했다(딤후 1:3,5,18; 4:11; 5:7; 6:13,17; 딤후 4:1).

그 의미는 이렇다: “디모테야, 너는 단지 목회하기 어려운 도시의 목회자가 아니다. 너는 왕의 명령을 받은 그리스도의 군사다. 그러니 이 명령을 교회의 다른 군사들에게도 그대로 전하라!”

명령의 내용(3-4)

1. 그들이 다른 교리를 가르치지 못하게 명령하라.

어떤 것이 다른 교리인가? 바울이 가르친 것과 다른 것은 다 다른 교리이다. 딤후2:2

목회 서신(딤후, 딤후)의 특징: 교리(doctrine) 가르침(teaching), 교사(teacher), 가르치다 (teach) 등이 30여 번이 나온다. 그래서 목사 겸 교사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초 교리를 바울과 디모테, 디도 등으로부터 철저히 배웠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는 강단과 찬양대가 계시와 진리의 자리보다 오락과 감정의 자리가 되어 버렸다. 감성팔이 설교와 팽팡대는 음악, 신비주의, 상담, 드라마, 연극 등

목사도 성도도 교리라는 말 자체를 싫어한다. 이것이 가장 큰 문제

2. 그들이 꾸며 낸 이야기와 끝없는 족보에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게 명령하라.

우리가 초대 교회를 보면서 이해해야 할 것: 사도들이 세운 이방인들의 교회에서는, 여러 해 동안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 그들의 제자들과 랍비들의 전통을 따르는 유대인 제자들 사이에 생사권 영적 투쟁이 계속되었다. 바울의 목회서신에 나오는 간절한 경고들 속에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사도 바울은 다음 사실을 분명히 보여 준다.

즉 그는 유대인들의 신화들과 랍비 교사들의 주석들이 새로 세워진 교회들의 가르침 속에 섞이게 된다면, 머지않아 그리스도의 교회는 점점 축소되어, 유대교의 좁고 배타적인 한 종파로 전락할 것임을 명확히 내다보았다는 것이다.

꾸며낸 이야기는 fable, 이솝 우화

꾸며낸 이야기는 유대인 랍비들의 쓸데없는 미신이나 공상

이런 이야기들은 가볍고 근거 없는 꾸며낸 전설들로 이루어져 있었는데 거짓 교사들은 그것들을 대단히 중요한 것처럼 여기며, 기독교의 가르침 속에 섞어 넣으려는 시도를 했던 것으로 보인다.

바울은 자신이 이런 미신들 속에서 자라났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들이 어떻게 사람들의 마음을 진리에서 멀어지게 하고, 참된 신앙을 부패시키는지 즉시 알아차렸다.

우리 영혼의 원수 사탄 마귀가 사용해 온 가장 교묘한 술책 중 하나는 바로 이것이다 —

진리 속에 거짓을 섞는 것.

그는 진리를 정면으로 무너뜨릴 수 없을 때, 거짓되고 가벼운 것들을 섞어 넣어 그 힘을 무력화시키려 한다.

족보: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지파/족속 구분을 유지하기 위해 매우 철저하게 족보 기록을 보존했다. 세월이 흐르며 이러한 족보 표들은 점점 많아지고 복잡해지고 광범위해졌기 때문에 바울이 그것을 “끝없는 족보(endless genealogies)”라고 부르는 것도 과장이 아니었다. 유대인들은 이러한 족보를 매우 중요하게 여겼고 그것을 세심하게 보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제 메시아께서 오셨고, 유대 민족의 제도적 체계도 끝나게 되었으며,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구분도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되었으므로, 이런 족보상의 구분을 그리스도인들이 계속 붙들 이유는 전혀 없었다.

더 나아가, 이러한 족보 중심의 체계는 기독교의 본질과 정반대되는 것이었다. 왜냐하면 그것은 결국 혈통과 출생의 자랑을 유지시키는 역할만 했기 때문이다. 거짓 교사들은 구약의 율법과 족보를 이용해 새로운 사상을 만들어내며 사람들을 진리에서 벗어나게 했다.

그들은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질문만 던졌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 즉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 주는 일(4절)을 방해했다. 그 결과 교회 안에 끝없는 논쟁이 일어났다(4절).

디도 역시 크레타에서 같은 문제를 겪었다(딤후 1:14; 3:9).

결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몸 된 교회를 세울 일꾼들을 찾으신다. 힘든 일이지만 영원한 보상이 있는 일이다. 목사가 해야 할 일: 교회에서 거짓 교사들이 다른 교리를 가르치지 못하게 하는 것 그래서 교회 강단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강해는 설교와 가르침이 있어야 한다. 그것이 목회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고 성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다, 그 결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성령님을 사랑하고 성도들과 이웃들을 사랑하는 일이 자연적으로 생긴다. 고전 13장 말씀

이런 선한 일이 풍성하게 일어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한다.

딤편 강해 3: 목사의 설교 목적과 율법의 목적, 한계, 효용성

딤편1:5-11

지금 디모데전후서 강해. 딤편후는 목회 서신, 즉 목회자가 교회를 어떻게 섬기고 이끌어갈 것인가를 보여 주는 말씀, 지난주 1:1-4 딤편 강해 2, 바울의 권고: 거짓 교사들이 다른 교리를 가르치지 못하게 명하라.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올바른 교리이다. 교회는 건전한 교리를 가르치고 실행하는 모임이다. 당시 다른 교리는 주로 유대교 랍비들의 전통과 가르침, 1. 유대주의자들의 믿음 + 행위(할례 등 구약식 규례 등), 2. 꾸며 낸 이야기와 끝없는 족보(4)

이런 것들은 성도들을 세워 주지 않고 논쟁만 일으킨다(4). 따라서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서로 조심해야 한다.

오늘 딤편 강해 3, < >, 바울이 이런 명령을 내린 목적, 율법의 목적, 한계, 효용 설명
바울의 명령의 목적(5)

바울은 편지 서두에서 다짜고짜 거짓 교사들이 다른 교리를 가르치지 못하게 명해야 한다고 말한다(3).

그리고 3절에서 명하는 것을 5절에서 분명히 명령이라고 말한다. 군사 용어, 반드시 따라야 한다. 어떤 분들은 5절의 명령이 율법이라고 말하지만 앞뒤 문맥상 여기의 명령은 하나님의 율법을 가리키기보다는 목사의 설교와 가르침의 사명 곧 사람의 구원과 관련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일을 가리킨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

따라서 목사의 말씀 선포/가르침의 사명은 잘못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명령해서 잘못된 것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명령의 목적은 크게 사랑이다.

5절: 한편 명령의 목적은 순수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인데

여기의 사랑은 charity이다. KJV만 품고 있는 귀한 단어

그리스어 아가페를 번역한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나타내는 고귀한 단어

고전8:1부터 계2:19까지 총 28번

고전8:1 지식은 우쭐대게 하며 사랑은 세워 주느니라.

고전14:1 사랑을 따르라

고전16:14, 너희의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할지니라.

계2:19, 내가 네 행위와 사랑과 섬김과 믿음과 네 인내와 네 행위를 안다

딤편1:5, 2:15, 4:12(3회), 딤편후2:22, 3:10(2회) 딤편2:2

우리 교회 이름, Charity Baptist Church

고린도저서 13장은 사랑(charity)에 대해 가장 잘 설명하므로 늘 읽어 보기 바란다.

고전13:4-7

따라서 설교 및 가르침을 통해 명령하는 일의 참된 목적은 사랑이 무엇이지 알리고 실천하는 것이다. 즉 사랑은 설교자가 일하며 추구해야 할 목적이며 또한 설교를 통해 성도들 안에 실제로 이루어져야 할 결과이다.

이런 설교와 가르침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사랑을 낳는다.

하나님의 가장 큰 명령 마22:36-39

핵심: 그런데 이런 목적은 결코 사람들이 헛된 이야기나 쓸데없는 질문/답변을 듣는 것으로는 달성될 수 없다. 그런 것들은 논쟁만 일으킨다.

이런 사랑이 나오는 데는 세 가지 원천이 있다.

1. 이 사랑은 순수한 마음에서 나와야 한다.

하나님과 사람을 향한 참된 사랑은 거룩하고 진실하고 깨끗한 마음에서 흘러나온다. 자기의 야망이나 포부를 이루려고 교회에 오면 안 된다. 자연스럽게 되어야 한다.

2. 이런 사랑은 선한 양심에서 나와야 한다.

우리는 양심이 죄로 인해 우리 자신을 정죄하지 않는 삶, 거룩하고 올바른 삶을 살아야 한다.

양심은 심히 중요한 주제이므로 시리즈 중에 한 번 다시 설교할 것이다.

3. 이 사랑은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와야 한다.

이 사랑은 진실한 믿음에 뿌리내리고 그 믿음과 함께 유지되어야 한다.

믿음이란 하나님의 계시에 확고히 동의하는 것이며,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하고, 그분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신뢰하며 사는 것이다.

4. 이런 사랑을 알고 이루도록 설교하고 가르치는 것이 복음 전파를 맡은 목사/교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의 목적이다.

5. 그런데 거짓 교사들은 꾸민 낸 이야기와 끝없는 족보 이야기만 한다.

그 결과 그들은 사람들의 머릿속을 쓸모없는 사상과 논쟁으로 가득 채워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하게 만들기는커녕 분쟁과 다툼만 남게 된다(4절).

사실 그런 가르침은 마음을 정결하게 하지 못하고, 거룩한 삶에도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한다.

6절: 왜 이런 일이 생길까? “어떤 자들(거짓 교사들)은 이것들에서 벗어나”(6절)는 말은, 여기서 이것들은 복수, 즉 어떤 자들이 순수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벗어났다는 뜻이다.

“벗어나”는 목표에서 빗나가다, 표적을 벗어나다라는 의미다.

다시 말해 거짓 교사들은 설교나 복음 선포를 순수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으로 하지 않았다.

그 결과 그들의 복음 선포/가르침의 목적은 하나님의 의도와 달리 교회에 논쟁만 일으켰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이다. 순수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을 늘 점검해야 한다.

여기서 벗어나면 6절의 “헛된 말다툼(vain jangling)”이 나온다.

이 말은 어리석고 쓸모없는 말, 건설적 열매가 없는 잡담을 뜻한다(딤후1:10 참조).

결국, 목사의 설교와 가르침이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으로 성도들을 세우고 성화의 길로 인도하지 않는다면 다 헛된 논쟁과 헛된 말다툼이 된다. 감성팔이, 신문 이야기, 자기 일상생활 등

율법의 선생이 되기를 바라는 자들적, 한계, 효용성

6-7, 거짓 교사들의 문제:

거짓 교사들은 하나님의 율법의 내용과 목적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서도 율법의 선생이 되기를 원한다 (7). 즉 목사와 교사가 되기를 갈망한다(desire). 그러다 보니 그 결과는 성도들을 은혜가 주는 해방의 자유(갈 5:1)에서 율법주의의 속박으로 끌어들이는 것이다.

갈5:1 그리스도께서 해방의 자유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으니 그러므로 그 자유 안에 굳게 서고 다시 속박의 멍에에 얽매이지 말라.

이런 비극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 육신(옛 본성)은 율법주의를 좋아한다.

왜냐하면 율법주의는 마음이 실제로 변화되지 않아도 겉으로만 거룩한 것처럼 보이게 만들기 때문이다.

특히 한국 교회, 주일 성수, 십일조, 새벽기도 등 외적인 모양에 치중한다. 믿음의 척도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목사와 교회 문화가 성도들을 이런 것들의 속박 속으로 밀어넣는다.

거기에 빠진 성도들은 우월감과 자기만족에 빠진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책망하신 율법주의를 부수고 하나님 앞에 투명하게 나와야 한다.

즉 늘 하나님을 의식해야지 주변 사람들, 목사를 의식하면 안 된다. 그제 양심이 하는 일이다.

딤후 1장이 보여 주는 율법의 목적

그러면 율법이 나쁜 것이냐? 아니다. 8절 우리가 적법하게 쓰면 율법은 좋은 것이다.

그러려면 율법의 제정 목적, 한계, 효용성을 알아야 한다.

딤후1:9-10절이 제정 목적을 말한다.

목사와 교사들은 반드시 다음 사실을 알아야 한다.

사실: 율법은 의로는 사람이 아니라 그 뒤에 나오는 자들 즉 악행을 하는 자들을 위해 제정되었다.

여기의 율법은 당연히 모세의 율법, 특별히 악행을 하는 자들의 명단을 보면 율법 중 도덕법을 명기한 십계명을 어기는 자들에 대한 것이다. 이런 도덕법은 구약이나 신약의 모든 자들을 향한 것이다.

앨버트 반즈의 명쾌한 주석: 율법의 목적은 의로운 자들 곧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자신의 의무를 다하려는

자들을 속박하거나 혼란스럽게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

율법은 두려움과 속박의 마음을 만들어 내도록 주어진 것이 아니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율법을 그렇게 해석했다. 그들은 율법을 끝없는 규칙과 의식으로 해석함으로써, 결국 사람들을 자유에서 속박으로 몰아넣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거짓 교사들을 지적할 때 바로 이런 율법 해석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

그들의 가르침 전체의 경향은 사람의 영혼을 속박의 상태로 끌어들이는 것, 즉 신앙을 노예의 의무로 전락시키는 것이었다.

하지만 바울은 정반대를 가르쳤다. 그는 신약 시대의 신앙이란 자유의 상태라고 말했다.

율법의 본래 목적은 의로운 자들의 마음을 수많은 의식과 규례로 얽매기 위한 것이 아니라(종교이다), 죄인들을 죄로부터 억제하고 제어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것은 모든 법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선한 사람은 결코 건전한 법 때문에 구속당하거나 얽매었다고 느끼지 않는다.

그는 법이 자신을 노예로 만드는 것이라고 느끼지 않는다.

그러나 악한 자는 그렇다. 그는 법을 억압으로 느끼며, 이런 의미에서 율법은 악을 행하려는 자들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악행을 하는 자들의 명단: 9-10, 법을 무시하는 자들부터 무엇이든지 건전한 교리에 역행하는 것
십계명의 구조: 1-4, 하나님과의 관계, 5-10 사람들과의 관계

바울의 행악자 명단은 이런 구조를 반영한다.

1. 법을 무시하는 자와 불순종하는 자와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않은 자와 속된 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있는 자들, 처음 네 가지 명령, 너는 내 앞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우상숭배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취하지 말라. 아식이르 즉 창조의 하나님을 기억하라.
2.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사람을 죽이는 자와 음행을 일삼는 자와 남자와 더불어 자기를 더럽히는 자와 사람을 납치하는 자와 거짓말쟁이와 위증하는 자
출20:12-16, 5-9번째 명령
3. 그 밖의 무엇이든지 건전한 교리에 역행하는 것
출20:17

성경 전체가 보여 주는 율법의 목적, 한계, 효용성

1. 서론 - 율법은 끝났는가?

사람들은 “신약 시대 성도인 우리는 이제 율법에서 자유로워졌다”라고 말한다.

그러나 그 말이 ‘율법이 쓸모없게 되었다’는 뜻이 되면 안 된다.

율법은 하나님이 친히 주신 것이며 그분의 성품과 거룩함이 담긴 거울이다.

문제는, 사람이 그 율법을 자신의 의로 삼으려는 데 있다.

바울은 유대인들이 율법을 통해 의를 얻으려 한 것을 보며 한탄했다(롬10:1-3).

그렇다면, 율법은 왜 주어졌는가?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율법은 어떻게 완성되었는가?

2. 율법의 목적 - 죄인들에게 죄를 드러내고 죄인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것

첫째, 율법은 죄를 드러내기 위해 주어졌다.

로마서 3장 20절은 말한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들로는 어떤 육체도 그분의 눈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없나니 율법에 의해서는 죄를 알게 되느니라.”

율법은 마치 거울과 같다.

얼굴에 묻은 더러움을 거울이 보여주지만, 거울이 그 더러움을 닦아주지는 못한다.

율법은 우리에게 죄를 보여주되, 죄를 해결하지 못한다.

둘째,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감독 교사이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서 바울은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감독 교사였으니 이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받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한다.
 율법은 인간이 스스로 의로워질 수 없음을 깨닫게 하여 복음의 필요성을 느끼게 한다.
 이것이 율법의 거룩한 목적이다.

3. 율법의 한계 - 구원을 줄 수 없음

그러나 율법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 율법은 구원을 줄 수 없다.

갈 2:16,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육체도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없느니라.

율법은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고 명령하지만 우리에게 그 일을 완전히 행할 능력은 없다.

결국 율법은 우리를 정죄하게 된다.

로마서 8장 3절은 이렇게 말한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하셨나니 곧 죄로 인해 자신의 아들을 죄 많은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사 그 육신 안에 죄를 정죄하셨느니라”

율법은 외적인 규범일 뿐, 내면을 변화시키는 힘이 없다.

사람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은 오직 성령님뿐이다.

4. 율법의 효용 - 하나님의 거룩함을 보여줌

그렇다고 율법이 무가치한 것은 아니다.

율법은 여전히 하나님의 거룩함과 공의의 기준을 보여주는 귀한 역할을 한다.

시편 19편 7-10은 이렇게 말한다.

“주의 율법은 완전하여 혼을 회심시키고, 주의 증언은 확실하여 단순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율법은 구원의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는 거울이다.

또한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삶의 기준이 된다.

“우리는 사람이 율법을 적법하게 쓰면 율법이 선하다는 것을 아노라.”(딤후 1:8)

그래서 율법 폐기론자가 되면 안 된다. 이스라엘의 의식법, 시민법 등은 폐기되었지만 십계명의 도덕법은 지금도 유효하다.

이것을 바르게 알지 못하면 구원받았으니 무슨 죄를 지어도 좋다는 죄의 면허로 착각하게 된다.

이것이 거짓 교사들이 율법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행하는 악한 일이다.

5. 율법의 완성 - 예수 그리스도

로마서 10장 4절은 이 모든 논리를 한 문장으로 요약한다.

“그리스도께서는 믿는 모든 자에게 의가 되시기 위해 율법의 끝마침이 되시느니라.”

여기서 ‘끝마침’(telos)은 ‘폐기’가 아니라 완성, 목적의 성취를 의미한다.

예수님은 율법(도덕법)을 폐기하신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의 모든 요구를 완전히 이루셨다.

그분의 순종과 희생을 통해 율법의 의로운 요구가 우리 안에 이루어졌다(롬 8:4).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

하지만 그 은혜는 방종이 아니라 “성령님 안에서 율법의 의로운 요구를 이루는 삶”(롬 8:4)으로 인도한다.

6. 결론 - 율법에서 복음으로

율법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를 구원할 수 없고, 오직 그리스도께 인도할 뿐이다.

복음은 율법이 시작한 일을 완성한다.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의 목적은 이루어졌다.

이제 우리는 두려움이 아니라 사랑으로, 율법 아래서가 아니라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섬긴다.

“우리를 붙들던 것 안에서 우리가 죽었으므로 이제 우리가 율법에서 구출되었나니 이것은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고 글자의 낡은 것으로 섬기지 않게 하려 함이라.”(롬 7:6)

결론

교회 강단에서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강해하고 가르쳐야만 한다.

그것이 목회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고 성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다.

그 결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성령님을 사랑하고 성도들과 이웃들을 사랑하는 일이 자연스럽게 생긴다. 이것이 설교와 가르침의 목적이다.

또한 율법의 목적, 한계, 효용성을 알아야 한다.

하나님의 십계명(도덕법)은 여전히 유효하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보여 준다.

그래서 구원받으면 더욱 더 거룩한 사람을 살기 위해 애를 써야 한다.

성화를 이루기 위해 애를 쓰는 저와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한다.

딤편 강해 4: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의 의미 영광스러운 복음의 산 증거 사도 바울

딤편1:11-17

디모데전후서 강해. 지난주 1:5-10 딤편 강해 3, 목사는 거짓 교사들이 교회에서 논쟁을 일으키는 것들을 가르치지 못하게 명해야 한다. 목사의 설교와 가르침의 최종 목적은 사랑이다. 사람을 살리는 것이 죽이는 것이 아니다. 거짓 교사들의 특징: 율법을 강조하지만 율법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 율법의 목적, 하나님의 공의와 거룩함을 드러내고 그리스도의 은혜와 믿음으로 인도하는 것이다.

따라서 구약 시대 율법 중 의식법, 시민법, 족보, 자기 자랑 등에 매이면 안 된다.

특히 율법 십계명의 도덕법은 신구약시대 모든 이들에게 해당된다. 구원받았으니 무슨 죄를 지어도 된다는 방종은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위배된다. 구원받으면 더 죄에 민감해져야 한다.

오늘 < > 건전한 교리를 담은 하나님의 복음, 은혜와 긍휼을 담은 복음이 사람을 어떻게 변화시키는가?
사도 바울의 개인 간증, 우리를 살펴보는 시간

찬송받으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

6-10절 바울은 율법 선생들의 헛된 말장난과 도덕법 폐기 등의 주장에 철퇴를 가하면서 최종적으로 10절에서 율법의 목적을 말한다. 율법은 십계명의 도덕법을 위반하는 자들과 무엇이든지 건전한 교리에 역행하는 것으로 인해 존재한다.

즉 9-10절에 언급된 행악자들(부모 대적, 살인, 음행, 동성애, 거짓 증언 등), 모든 자를 언급하지 못하니까 한 마디로 그 악이 무엇이든지 건전한 교리에 역행하는 자들이라고 못을 박음

11절: 십계명은 출20(신5)장에 있는데 그러면 건전한 교리는 어디에 들어 있는가?

찬송받으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에 들어 있다.

영광스러운 복음: 하나님의 모든 완전하심(거룩함, 공의, 사랑, 신실하심, 지혜)의 영광(찬란함, 뛰어난,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복음

그러니까 영광스러운 복음 즉 바울에게 맡겨진 복음은 당연히 건전한 교리 포함, 당연히 구원과 성화를 포함한다. 따라서 구원받은 자들은 십계명의 도덕법과 복음에 담긴 건전한 교리에 따라 성화의 삶을 살아야 한다. 그래야 복음이 제대로 일을 한 것이다.

다시 말한다. 구원받으면 이전보다 더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있으면 당연히 그렇게 된다.

롬6:1-2, 12-15, 22절 설명

바울의 개인 간증: 구원과 성화

12-16절에서 바울은 자신이 영광스러운 복음에 의해 구원받은 뒤 어떤 사람으로 바뀌었는지 증언한다.

즉 복음이 어떻게 사람을 구원하고 바꾸는지 자신을 예로 들어 설명한다.

한 마디로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실제로 어떻게 일하는지를 보여 주는 “살아 있는 증거”였다. 바울의 간증(행 9:1-22; 22:1-21; 26:9-18 참조)을 읽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그분의 구원 능력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깨닫게 된다.

1. 바울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는가?(13절 전반)

바울은 신성 모독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하도록 강요한 자 즉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였다. 극심한 죄인

그는 핍박하는 자, 즉 교회를 파괴하기 위해 폭력을 사용했던 박해자였다.

그는 “위협과 살기름”(행 9:1) 내뿜은 사람이었다. 즉 그의 숨결 자체가 위협과 살기름이었다.

그는 스테반을 죽이는 일에 동의했고(행 8:1)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에 앞장섰다(행 8:3).

그는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다(고전 15:9)

바울은 “해를 끼치는 자”였는데, 이 단어는 교만해서 폭력을 휘두르는 자를 뜻한다.

오늘날의 말로 하자면 그는 “거만한 폭군” 또는 “남을 짓누르는 자”라 할 수 있다.

2. 왜 바울은 여기서 “불신”과 “무지”를 언급할까?(13)

바울은 자신이 “믿지 아니하는 가운데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행하였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불신과 무지는 구원받지 못하는 데 대한 변명거리가 될 수 있을까?

물론 아니다.

바울의 이 말은 자신의 죄를 가볍게 하거나 변명하려는 말이 아니다.

왜? 그는 다음 절(15절)에서 자신을 “죄인들 중의 우두머리”라고 부르기 때문이다.

무지는 죄에 대한 변명이 될 수 없고 오히려 죄를 더 무겁게 만드는 요인이다.

특히 배울 기회가 충분했는데도 그 기회를 무시하거나, 진리의 증거를 받아들이지 않고 거절할 때는 더욱 그렇다.

바울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

그는 스테반이 전한 복음의 진리를 들었고, 스테반의 지혜를 능히 대적할 수 없었지만(행 6:10),

그가 말한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히려 그의 죽음에 동의했다(행 8:1).

그러므로 불신앙은 바울을 변호해 줄 이유가 될 수 없다.

모든 죄는 무지에서 나오며 또한 불신앙으로 인해 더 악화된다.

바울의 이 표현은 단지 그의 이전 영적 상태를 묘사한 것이다.

그는 눈먼 자요, 무지한 열성분자였으며, 믿지 않는 완고한 자였다. 과거의 우리도

그렇기에 그는 하나님의 긍휼과 불쌍히 여김을 받을 대상이었다.

히5:2, “하나님은 알지 못한 자들과 길에서 벗어난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분”(히 5:2).

바로 그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긍휼을 베푸셨던 것이다.

바울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알지 못했고, 그분의 제자들이 하나님의 참된 교회라는 사실도 몰랐다.

그는 자신이 하는 일이 옳다고 믿었고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을 섬긴다고까지 생각했다(행 26:9).

그는 열심은 있었지만 그것은 지식에 따른 열심이 아니었다(롬 10:2).

그러므로 그는 의도적으로 빛과 양심을 거스르며 고의적으로 죄를 짓지 않았다,

그의 무지와 불신앙은 다만, 그에게 주어진 긍휼이 얼마나 풍성한 긍휼이었는데 보여 주는 증거일 뿐이다.

하나님은 바울이 신성모독자요, 박해자요, 폭력적인 자로, 무지한 가운데 불신앙 속에 있을 때에 그를 붙잡으셨고, 그에게 긍휼을 베푸셨다. 그의 선행 때문이 아니다.

그의 과거와 현재의 은혜 사이에는 아무런 인간적 공로나 준비도 존재하지 않았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만이 그를 구원하신 것이다.

알지 못하고 죄를 지었다는 표현은 유대 율법의 한 규정을 염두에 둔 것으로도 볼 수 있다(레 5:15-19; 민 15:22-31).

이스라엘에서 어떤 사람이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여 죄를 지으면, 그는 백성 가운데서 끊어졌다.

그러나 알지 못하여 무지 가운데 죄를 지은 경우, 범법 헌물을 드려 죄를 용서받을 수 있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위에서 기도하실 때 이 원리를 적용하셨다.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눅 23:34)

그들의 무지가 그들을 구원한 것도 아니었고 그리스도의 기도 자체가 그들을 자동적으로 구원한 것도 아니었다.

그러나 그 두 가지가 합쳐져서 하나님의 심판을 유예시키고 회개의 기회를 주었다.

또한 바울이 자신의 무지를 언급한 것은, 하나님의 긍휼이 오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이기도 했다.

사람들이 그의 예를 보고 “바울도 성도를 박해했으나 나중에 긍휼을 받았으니 우리도 죄를 짓고 살다가 마지막에 긍휼을 받으면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바울은 자신의 무지를 강조함으로써, 깨달은 진리를 고의로 거역하며 죄를 짓는 자는 결코 긍휼을 얻지 못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했다.

그의 회심은 무지에서 비롯된 죄에 대한 하나님의 긍휼이 일한 결과이지 고의적인 악행에 대한 면허가 아니었다.

13절 그는 과거에 자신이 믿지 아니하였다고 말한다. 이 말의 의미

바울은 모든 유대인들이 그렇듯이 살아 계신 한 하나님 즉 참 하나님을 믿었다.

그리고 그는 유대인의 방식대로 그분을 예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을 “믿지 아니한 자”라고 부른다.

복음의 관점에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원자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비록 “한 하나님이 계심”을 믿는다 할지라도 여전히 불신자이다. 행10의 고넬료

이게 바울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된 계기이다.

성육신, 처녀탄생,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죽음, 매장, 부활, 승천, 재림까지 가야 한다.

3. 바울은 어떻게 구원받았는가?(13절 후반-15절)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기 의에 빠진 이런 죄인을 구원하고 용서하실 수 있었을까?

그 해답은 두 단어 — 은혜(grace, 14절)와 긍휼(mercy, 16절) — 에 있다.

하나님은 은혜를 통해 그가 전혀 받을 자격이 없는 구원의 복을 주셨고(14)

 긍휼을 통해 바울에게 그가 마땅히 받아야 할 형벌을 주지 않으셨다(16).

 은혜 명사만 총 170회, 긍휼 총 276회

 즉, 은혜와 긍휼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랑을 구체적인 행동으로 표현하는 수단이다.

하나님은 잃어버린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그 사랑의 대가를 직접 치르셨다.

그러나 사람은 단지 하나님의 사랑만으로는 구원받지 않는다.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시지만(요 3:16) 구원은 오직 믿음을 통해 은혜로 받는다(엡 2:8-9).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서 드디어 구원을 받았다(빌 3:1-11).

4. 넘치도록 풍성한 은혜(14)

바울은 자신이 구원받은 것이 “넘치도록 풍성한 은혜”때문이었다고 고백한다.

그는 왜 “넘치도록 풍성한 은혜”라고 했을까?

물론 자기 같은 불신자를 구원하는 은혜니까. 그런데 문맥은 더 큰 것을 보여 준다.

이 구원은 자기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를 위한 것이다(딤후 1:15).

모든 죄인들을 위한 것

 예수님께서 “죄인들 중의 우두머리”인 사울을 구원하셨다면, 그분은 누구든 구원하실 수 있다!

 요3:16, 그래서 넘치도록 풍성한 은혜이다. 누구든지

5. 이렇게 은혜를 입은 사람의 자기 평가

바울은 자신을 “사도들 중에 가장 작은 자”(고전 15:9), “모든 성도들 중에 가장 작은 자”(엡 3:8)라 불렀다.

심지 그는 “내가 죄인들 중의 우두머리.”(딤후 1:15) 라고 말한다.

그는 여기서 자신이 죄임임을 과거형이 아니라 현재형으로 말했다.

구원받은 뒤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말하면 가장 천박한 자들 중 하나가 된다.

 신분으로 보면 우리는 영원토록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칭함을 받은 자들이다.

그러나 현 세상에서는 바울 같은 그리스도인도 죄를 지으며 산다.

 죄인들 중의 우두머리라는 표현은 그가 자신의 현실의 죄를 얼마나 중하게 여기는지를 잘 보여 준다.

6. 바울은 구원받은 뒤 어떤 사람이 되었는가(12절)

하나님의 은혜는 박해자를 설교자로, 살인자를 선교사로, 교회를 파괴하던 자를 교회를 세우는 사역자로 바꾸셨다.

그의 삶의 변화가 너무 극적이어서, 예루살렘 교회는 처음에 그를 의심하며 받아들이기를 주저했다(행 9:26-31).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직접 사역을 맡기셨다.

그는 자신의 소명과 위임을 베드로나 다른 사도들로부터 받은 것이 아니라(갈 1:11-24), 부활하신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하늘에서 받았다.

높은 부르심(빌3:14),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높은 부르심의 상을 받기 위하여 핏대를 향해 밀치며 나아가노라.

7. 왜 바울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는가?

하나님은 바울이 신실한 자임을 보셨기 때문에 그에게 복음을 맡기셨다.

비록 바울이 복음을 알지 못하던 유대교 지도자였을 때에도 그는 양심을 따라 살며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신실함을 보였다.

하나님은 항상 신실한 자들을 사용하신다. 아니 신실한 자들만 사용하신다.

아브라함, 요셉, 모세, 여호수아, 다니엘 등

고전4:1-2, 신실한 자

나를 능력 있게 하셨다는 말. 하나님은 바울에게 복음을 맡기셨을 뿐 아니라 그 복음을 전할 능력도 함께 주셨다(고전 15:10; 빌 4:13).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분은 반드시 능력으로 준비시키신다.

그러므로 목사(리더)가 되기 전에 신실한 사람이 되기 위해 자신을 늘 살펴야 한다.

결론

건전한 교리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에 들어 있다.

그 복음의 핵심은 구원과 성화이다. 구원만이 아니라 구원과 성화이다.

구원받은 뒤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

사도 바울의 간증: 구원과 성화의 모범

이런 삶을 살 때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돌아간다(17).

이런 삶을 살기 위해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한다.

딤편 강해 5: 영광스러운 복음의 핵심
예수님은 의인이 아니라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셨다

딤편1:15-17

지난주 1:11-15 딤편 강해 4, 율법의 목적(십계명), 각종 악을 행하는 자들, 그 밖의 무엇이든지 건전한 교리에 역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 주기 위한 경고

불신자뿐만 아니라 신자에게도 경고를 준다.

그러면 건전한 교리를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 건전한 교리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에 들어 있다.

이 복음의 핵심은 구원과 성화이다. 구원만이 아니라 구원과 성화이다.

구원받은 뒤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간증을 통해 구원과 성화의 모범을 우리에게 진솔하게 보여 준다.

이런 삶을 살 때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돌아간다(17).

오늘 < >, 의인이 아니라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셨다는 말의 의미, 구원받은 뒤 본이 되는 삶,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의 의미

이것은 신실한 말이다(15).

바울의 목회 서신에만 자주 나오는 말: 이것은 신실한 말이다. 확실히 믿을 만한 말이다.

딤편3:1, 4:9, 딤편후2:11, 딤편3:8

계21:5, 22:6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없느니라, 하시므로(요3:3), 요한복음에만 25구절

존 길 청교도: 15절은 한 위대한 죄인이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너무 놀라워서 혹시 그것을 믿기 어려워할 사람들을 위해 덧붙여진 것이다. 동시에, 바울이 말은 영광스러운 복음의 핵심 요약이기도 하며, “꾸며 낸 이야기와 끝없는 족보, 헛된 말다툼”(딤편 1:4,6)에 대한 복음적 반박이다.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구원하러 세상에 오셨다는 이 교리는 복음의 본질이며, 이것이야말로 “신실한 말씀”이다. 즉 믿을 만한 말씀이다. 왜 신실한 말씀일까?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드러나기 때문이다.

그분의 성품— 거룩함, 공의, 사랑, 은혜, 긍휼—이 모두 복음 안에서 완전히 신실하게 나타난다.

이 복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신실하게 이루어지고,

그분의 아들은 그 사역을 신실하게 완수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입증하셨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은 아버지께 대한 신실함으로 자신의 복음 선포 사역을 이루셨다.

이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들의 신실함과

또 그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성도들의 신실함이 바로 이 진리를 통해 나타난다.

이 말씀은 참되고 의심할 여지없는 진리이다.

그리스도 자신도 “나는 의로운 자들을 부르러 오지 아니하고 죄인들을 불러 회개하게 하려고 왔노라”(마 9:13)고 친히 말씀하셨다. 이것은 당시 유대인들에게 매우 파격적인 말

그분의 행적과 기적들은 모두 그것을 증언한다.

수많은 죄인들이 그분을 통해 구원받았다는 사실은 이 진리의 가장 강력한 증거다.

또한 이 말은 “모든 사람이 전적으로 받아들이기엔 합당한 말”이다.

배운 자든 배우지 못한 자든, 부자든 가난한 자든, 큰 죄인이든 작은 죄인이든, 모두가 받아야 할 복음이다.

그것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므로 모두가 전적으로 마음의 기쁨과 사랑, 겸손과 믿음으로 받아야 한다.

따라서 우리는 이 말씀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전심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왜 바울은 이것을 강조했을까? 유대인들의 문제 때문에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율법이 “시나이산에서 모세에게 전달되고,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가 장로들에

계, 장로들이 대언자들에게, 세대를 따라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그래서 그들은 율법을 강조하고 율법주의가자가 되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겼다.

그러나 바울은 이렇게 말한다.

“만일 너희가 진짜로 여러 세대에 걸쳐 전달된 참된 하나님을 말씀에 원한다면, 이 복음이 바로 그것이다 — 이것이 참되고, 확실하며, 영원히 받아들여야 할 진리이다.”

유대인들의 구전 전통은 불확실하고 사람의 말이었지만, 이 복음은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이며, 거짓이 전혀 없는 참된 말씀이다.

이 말은 모두가 수용해야 할 진리이다(15).

15절 후반부,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는 말이다. 내가 죄인들 중의 우두머리니라. 왜 모두가 이 말을 받아들여야만 할까?

1.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이다

모든 사람은 죄를 지었고, 따라서 구원자가 필요하다(롬 3:23).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자신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지를 보여 주는 이 교리를 기꺼이 받아들여야 한다. 죄인임을 깨닫고 인정해야 구원의 길이 열린다.

2.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셨기 때문이다

만일 그분이 인류 중 일부만을 위해 죽으셨다면, “모든 사람이 전적으로 받을 만하다”는 말은 온전히 성립되지 못했을 것이다.

예를 들어 병원에서 환자 일부만을 위한 약이 준비되었다면, 그 사실은 그 일부에게만 의미가 있을 뿐, 다른 이들에게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그러나 그 약이 모든 환자를 위한 것이라면, 모든 사람은 당연히 그것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구원이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라면 모든 사람은 그 복음을 가장 깊은 관심으로 받아야 한다.

그것이 나를 위한 것이라면, 그것은 내 인생에서 가장 중대한 일이 된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

3. 복음의 방식 자체가 모든 사람이 전적으로 받아들일 만하기 때문이다

복음은 죄들의 완전한 용서와, 우리 영혼이 하나님께로 회복되는 것을 제공한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와 율법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그분의 사랑과 긍휼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통해 죄 없는 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루어졌다.

또한 복음은 사람을 하나님의 친구요 생명의 상속자로 대우한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타락에서 일어나 창조자 하나님의 호의를 다시 누리게 된다.

벧후1:4 우리는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

만일 인간이 스스로 구원의 방법을 제시한다 해도, 하나님의 방식보다 더 영광스럽거나 공의롭고 은혜로운 방법은 없을 것이다.

4. 구원의 본질 자체가 모든 사람이 받아들일 만하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왕관이나 금은보화 같은 선물에는 기꺼이 손을 내민다. 얻기 위해 노력을 한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천국에 비하면 티끌에 불과하다. 이것은 거저 주어진다.

모든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면 영원히 비참해질 것이다.

그러므로 천국의 복음은 모든 사람이 전적으로 받아야 할 가장 가치 있는 소식이다.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딤후 1:15)

1. 이것은 복음의 핵심 진리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에 오셨다” — 처녀 탄생, 성육신을 통해

그분이 이 세상에 오신 데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다.

그분은 오실 의무가 없으셨지만, 자발적으로 오셨다.

심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하시기 위해, 멸망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긍휼을 나타내기 위해, 죄인을 회복시키고 하나님과의 관계로 다시 이끄시기 위해 오셨다.

2. “내가 죄인들 중의 우두머리니라.”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명할 본보기로 자신을 예로 든다.

바울은 자신이 죄인들 가운데 우두머리 즉 으뜸가는 죄인이라고 고백한다.

이 말은 그가 모든 면에서 가장 큰 죄를 지었다는 뜻이 아니라, 특정한 점에서 볼 때, 자기보다 더 큰 죄인은 없다고 자기가 느꼈다는 뜻이다.

특히 그는 성도들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자신을 떠올린다(행 8:1-3).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교회를 극도로 핍박했던 일

그런데 나 같은 극심한 죄인이 은혜로 저저 구원을 받았다.

그의 구원에 그가 일조한 것은 단 하나도 없다

그의 논리: 만일 예수님께서 죄인들 중의 우두머리 죄인인 나를 은혜로 구원하실 수 있었다면 그분은 누구라도 구원하실 수 있다!

3. 왜 그는 자기가 죄인들 중의 우두머리니라 라고 현재형을 썼을까?

그는 과거에 자신이 악행을 저지른 자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본성적으로도 죄로 기울어지는 마음을 깊이 자각하고 있었다(롬 7장).

청년 시절의 다소 사람 사울은 외적으로 매우 도덕적인 인물이었다.

율법의 기준으로 보아도 흠잡을 데 없는 삶을 살았다(빌 3:6, 행 26:4-5).

그러나 회심 후 그는 결코 자신의 과거를 변명하지 않았다.

오히려 언제나, 어디서나, “나는 죄인이었고 지금도 으뜸가는 죄인이다”라고 가장 철저히 인정했다.

그는 자기가 구원 받은 이후에도 여전히 은혜 없이는 설 수 없는 존재라는 자각을 품고 살았다.

그래서 그는 “내가 죄인들 중의 우두머리였다”라고 말하지 않고 “내가 죄인들 중의 우두머리이다라”라고 말했다. 롬7:18-25, 8:1

4. 참된 그리스도인은 과거의 악한 삶을 언제나 인정한다.

그것은 일시적 감정이 아니라, 영혼 속에 남는 지속적인 확신이 된다.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은 경건함이나 성숙과 모순되지 않는다.

오히려 가장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마음 깊은 곳의 부패를 가장 잘 알고,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붙든다.

바울은 단지 사역자만 된 것이 아니라 본이 되는 자가 되었다(16절)

1. 이런 까닭으로, 이런 목적으로, 목적은 그 뒤에 나온다.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얻어 구원받은 데는 여러 가지 목적이 있을 수 있다.

앞뒤 문맥상 바울은 여기서 자신의 구원이, 가장 흉악한 자도 구원하셔서 자신의 일꾼으로 삼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에 대한 본보기임을 보여 주려 한다.

즉 나같이 극심한 신성모독자도 구원받아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으니 다른 사람들도 당연히 그렇게 될 수 있다. 나는 바로 그 일이 가능함을 보여 주는 본보기이다.

즉 바울은 죄인들 중의 우두머리였던 자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전형적 모델이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죄인이라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는 산 증거였다.

2. 그런데 이 일을 위해 하나님께서 오래 참아 주셨다. long suffering

여기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longsuffering) 은 바울의 구원 속에서 특별히 드러난다.

바울은 신성모독자요, 박해자요, 폭력배였지만 하나님은 그를 즉시 심판하지 않으시고 기다리셨다.

이 오래 참으심은 단순한 인내가 아니라, 구원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긍휼의 지연된 심판이다.

하나님은 바울에게 오래 참으심을 보이심으로써, 세상에서 가장 큰 죄인도 구원하실 수 있음을 세상에 증언하셨다.

즉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은 심판을 미루시는 사랑이며, 죄인을 회개로 이끄는 구원의 긍휼이다.

벧후3:15, 벧후3:9

결론: 이런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돌아간다(17).

17절, 이 구절은 단순한 찬양문이 아니라, 앞선 바울의 간증(1:12-16절) 과 밀접하게 연결된 신학적 절정이다.

즉, 이것은 바울이 자신 같은 죄인이 공홀을 입고 구원받은 일을 회상하다가, 그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본성을 목상하며 터져 나온 찬양이다.

따라서 “영원하신 왕, 죽지 아니하시고, 보이지 아니하시고, 홀로 지혜로우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바울이 체험한 하나님의 구원의 성품을 요약하는 신학적 고백이다.

1. “영원하신 왕”(the King eternal)

바울은 자신이 섬겼던 일시적 종교 체계(유대교) 와 달리, 하나님은 시대와 민족을 초월하여 다스리시는 통치자임을 선언한다.

바울의 회심은 단지 한 개인의 변화가 아니라, 영원한 왕국의 권세가 한 죄인의 마음에 임한 사건이었다. 따라서 바울은 자신이 속한 율법주의 체계가 아니라, 영원한 통치자의 공홀 아래 살고 있음을 고백한다.

2. “죽지 아니하시고”(immortal)

이는 하나님의 불멸성(incorruptibility)을 가리킨다.

바울이 섬기던 율법의 제사제도, 인간 제사장, 성전은 모두 죽음과 부패에 속해 있었다.

그러나 그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죽음을 초월하신 분이시다.

3. “보이지 아니하시고”(invisible)

이는 하나님이 물리적 형상이나 제도 속에 제한되지 않으신 분임을 뜻한다.

율법과 성전 중심의 종교는 보이는 제도에 의존했지만, 복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를 강조한다.

바울은 다마스쿠스 도상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에게 나타나신 것”을 경험했다. 그래서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골 1:15 참조).

4. “홀로 지혜로우신 하나님”(the only wise God)

구원 계획은 인간의 이성이나 종교적 지혜로는 결코 도달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에 근거한다.

바울은 자신이 과거 율법의 지식에 정통했지만, 그것이 오히려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리게 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만이 참으로 지혜로우시다”고 고백하며, 인간의 논리나 공로가 아니라 지혜로운 하나님의 계획(은혜를 통한 구원) 을 찬양한다.

결론

결론적으로 바울은 지역 교회 혹은 목사나 교사가 감당해야 할 세 가지 사명을 제시한다.

1. 진전한 교리를 가르치는 것, 2. 복음을 선포하는 것, 3. 복음이 이루는 변화의 증거가 되는 것, 바울의 삶은 그 세 가지 사명을 완벽히 증명하는 하나님의 작품이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영광과 존귀를 받으신다. 이것이 진정한 의미의 예배이다.

우리의 업적을 자랑하면 안 된다. 고전15:9-10

영광스러운 복음이 이루는 변화의 증거가 되는 사람이 되도록 우리를 살피자. 성화에 초점을 두면서

딤편 강해 6
선한 싸움을 위한 무기:
믿음과 선한 양심

딤편1:18-20

지난주 1:15-17 딤편 강해 5, 바울은 극심히 신성모독 하던 자, 교회를 핍박하던 자, 그러나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통해 구원받음,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 같은 죄인들을 구원하러 이 세상에 오셨다는 말은 신실한 말, 전적으로 받아들이기에 합당한 말, 구원과 성화 사역자,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가 돌아간다. 이것이 진정한 의미의 삶의 예배이다.

오늘 < >, 구원받은 성도는 다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한다. 이 싸움에는 믿음과 선한 양심이라는 무기가 필요하다. 특별히 양심이 망가지면 구원 이후에도 배도의 길을 가며 파멸에 이른다.

하나님의 명령과 디모데의 책무(18)

12-17절 간증을 마친 뒤 바울은 다시 군사적 언어를 사용해 디모데에게 명령한다.

명사 '책무'(charge, 1:18)는 3절의 동사 명하다와 같은 뜻,

"상급 장교가 부하에게 내리는 긴급한 지시"를 의미한다(1:3-4절).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의 사역이 하나님의 명령심에 의한 것임을 상기시킨다.

'너에 관하여 전에 주어진 대언들', 성령님의 인도하에 어떤 대언자들이 디모데를 사역자로 세웠던 것으로 보인다(행 13:1-3 참고). 행11:27-28, 행21:8-10

딤편4:14, 그의 목사 임명 시에도 대언으로 주어진 선물이 있었다.

지금 이런 특별 대언(직통 계시)을 구하면 안 된다.

방언, 대언, 통역, 병 고침 등은 AD 90년경 신약 성경의 완성 이후 중지되었다.

지금은 누군가가 목사가 되기를 원하면 교회가 판단해서 사역자로 세운다.

세계 5대 도시 중 하나인 에베소는 우상 숭배와 세속 문화가 가득한 이방의 도시였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러나 디모데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군사'였고(책무 수행자), 따라서 순종해야 했다.

바울의 말: 만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명령을 주셨다면 그는 끝까지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

이 사실이 그에게 어려운 날에도 확신과 담대함을 주었다.

이러한 확신이 디모데로 하여금 '선한 싸움'을 싸우게 했다(1:18).

선한 싸움(18)

바울은 자기의 사역, 디모데의 사역(목사의 사역)을 종종 싸움으로 보았다.

여기의 싸움은 전쟁(warfare)을 말한다. 딤편6:12, 딤편후4:6

그리스도인의 삶 또한 자주 전쟁 혹은 승리를 위한 싸움으로 비유된다(고전 9:7).

당연히 모든 신자는 구원의 대장이신 그리스도 아래 자원입대한 병사들로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싸운다(엡 6:10-17). 이것은 모두에게 해당되는 영적 싸움(세상, 육신, 마귀에 대한 싸움)이다. 그러나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싸움은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역자가 치러야 할 전쟁이다.

목사, 교사, 선교사 등 사역자들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하고,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서 고난을 견디며 복음과 주를 위해 헌신해야 한다(딤편후 2:3).

이들의 싸움에는 일반 성도들이 겪는 세상적 유혹 외에도, 거짓 교사들과의 싸움, 거짓 복음과 마귀의 교리와와의 싸움이 포함된다.

사역자의 전투는 단지 방어적인 싸움이 아니라, 복음을 선포하고 수호하며, 사탄의 왕국을 약화시키고, 그리스도의 왕국을 확장하는 일이다.

그들에게 주어진 무기는 이런 싸움을 위해 특별히 준비된 영적 무기이며(고후 10:4), 하나님은 그 무기를 사용할 때마다 놀라운 열매를 맺게 하신다. "(우리의 전쟁 무기는 육체에 속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통해 강력하여 강한 요새들도 무너뜨리느니라.)"

따라서 복음의 사역자들이 이런 목적을 가지고 믿음과 충성, 용기와 정직으로 사역을 감당할 때 참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는 자들’이 된다.

선한 싸움의 첫째 무기: 믿음(19)

그러면 사역자든 성도든 무슨 무기를 가지고 선한 싸움을 해야 할까?

두 가지 무기가 필요하다: 믿음과 선한 양심, 딤편1:5의 반복

첫째 무기는 믿음인데 이 믿음은 건전한 교리 체계를 말한다.

구원의 도구로서의 믿음이 아니라 Christian faith

그리스도인으로서 반드시 알고 따라야 할 교리 체계, 복음 진리의 내용

조직 신학 성경,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천사들, 천국, 지옥, 구원과 성화, 교회, 재림 등
목회 서신에서 바울은 자주 이런 의미로 ‘믿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딤편 3:9 참조).

‘믿음을 붙들라’(holding faith)는 말은 단순히 신앙을 입으로 고백하고 흔들림 없이 유지한다는 의미를 넘어서, 말씀 사역을 하면서 그 믿음을 드러내고 선포해야 함을 의미한다.

1. 사역자는 복음을 숨기거나 일부를 타협하거나 버리는 것이 아니라, 전부를 담대히 전해야 한다(행 20:27). 회피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밝히 말해야 한다.
2. 또한 어떤 압박이나 반대 앞에서도 두려워하거나 물러서지 않고 끝까지 진리를 굳게 붙잡아야 한다. 목사가 흔들리면 교회가 크게 영향을 받는다.

선한 싸움의 둘째 무기: 선한 양심(19)

믿음과 함께 반드시 ‘선한 양심’이 결합되어야 선한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

사람의 양심은 본래 선하지 않다. 죄로 인해 더럽혀지고 감각을 잃었다.

구원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뿌려진 양심, 즉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된 양심만이 하나님 앞에서 ‘선한 양심’이 될 수 있다(히 9:14).

이 선한 양심의 결과는 거룩하고 바른 행실이며 특히 복음 사역자에게는 성실하고 정직하게 직분을 수행하는 삶으로 나타난다(고후 1:12). “우리가 세상에서 생활할 때에 단순함과 하나님께 속한 순전함으로 하였고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였으며 너희를 향해서는 더욱더 그리하였노니 이것이 우리의 기쁨이요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라.”

이 두 가지 — 변함없는 진리에 대한 확신과 거룩한 양심에 따른 삶 — 가 사역자가 선한 싸움을 싸우는 데 가장 중요한 무기이다.

바울은 비유를 군대에서 배로 바꾸며 디모데에게, 또 우리 모두에게 경고를 준다.

경고 내용: ‘선한 양심을 붙들지 않으면’ 배가 깨진다.

목회자의 사역이나 성도의 삶이 망가지는 이유: 선한 양심 단수

선한 양심을 버리면 반드시 배가 깨진다.

왜 ‘믿음이 아니라 선한 양심’일까?

믿음은 마치 매우 귀한 액체와 같고, 선한 양심은 그것을 담은 깨끗하고 맑은 유리병과 같다.

그러므로 유리병이 깨지면 그 안의 믿음 체계, 성경 지식, 좋은 교리, 킹제임스 성경 등이 다 땅으로 흘러내리고 더럽혀져서 아무짝에도 쓸모없게 된다.

따라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귀한 증인이 되려면 양심이라는 유리병이 깨지지 않도록 늘 유의해야 한다. 이것이 깨지면 20절의 후메네오와 알렉산더처럼 된다.

후메네오와 알렉산더(20)

이 두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들로 보인다. 그런데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고 말았다.

구원 이후 크리스천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악행을 저지름

구원을 잃은 것이 아니라 크리스천 간증을 잃음, 구원받은 자들임을 보여 주는 증거

1. 사탄에게 넘긴다. 불신자는 이미 사탄의 수하에 있어 넘기 필요가 없다.
2. 가지고 있던 배가 깨진다. 구원받아 이미 배를 가지고 있다.
3. 선한 양심은 구원받은 자들에게만 있다.

사도 바울의 판단: 그들은 징계를 받거나(출교) 죽는 것이 더 낫다. 그래서 사탄에게 넘겨 줌

목적: 그들이 교육을 받고 더 이상 신성모독하지 못하게 하려고

후메내오(딤후2:16-18),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고 거짓 교리를 가르침

알렉산더(딤후4:14), 구리 세공업자, 바울에게 악독한 일을 행함

이 두 사람이 여기 나오는 두 사람이지만 100% 확신할 수는 없지만 가능성이 매우 크다.

바울은 주님께서 그들을 처리해 주시기를 기도하였다.

이런 사례, 고전5장, 자기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한 사람(고전5:1,3-5)

또 다른 사례, 사도행전 5장의 아나니아와 삽비라, 구원받은 사람들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 거짓말을 하다가 즉사함

바울의 조치: 회개하지 않는 성도는 사탄의 공격에 노출되도록 교회의 교제에서 제외해야 한다.

선한 양심의 중요성

목회자로서 선한 싸움을 하기 전에 내게 선한 양심이 있는지 늘 확인해야 한다.

성경 지식을 늘리는 것과 함께 꼭 선한 양심을 유지하려고 애를 써야 한다.

교회 내의 문제: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고도 많은 성도들, 목사들이 “나는 선한 양심으로 한다”고 말한다.

기억해야 한다: 성경적으로 보면 ‘사람의 양심’ 자체는 신뢰할 수 있는 절대 기준이 아니다.

“내 양심은 선한 양심이에요”라고 말한다 해서 선한 양심이 되는 것이 아니다.

우리 양심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교정되고 조명 받을 때만 ‘선한 양심’이 된다.

1. 양심은 원래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도덕적 경보 장치이지만 그 자체가 진리의 기준은 아니다. 즉, 양심은 계기판이다 — 잘못된 정보로 조정되면 잘못된 신호를 낸다.

잘못된 정보는 죄이다. 즉 인간의 양심은 탐욕, 시기, 질투 등의 죄로 인해 오염되고 왜곡될 수 있다.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양심이 잘못된 신호를 낼 수 있다.

이 경우 누가 봐도 죄를 짓는데도 본인은 선한 양심이라고 말할 수 있다.

2. 선한 양심은 자기 감정의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 말씀에 의해 정화된 양심을 의미한다. 즉,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비추실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동기를 판단하고(히 4:12), 그 결과로 하나님 앞에 거리낌이 없는 상태가 된 것이 ‘선한 양심’이다.

3. 양심의 객관적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고 권능이 있으며 양날 달린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 및 관절과 골수를 찢러 돌로 나누기까지 하고 또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하는 분이시니 그분의 눈앞에서 드러나지 아니하는 창조물이 하나도 없고 모든 것이 우리와 상관하지는 분의 눈에 별거벗은 채 드러나 있느니라.(히 4:12-13)

우리의 양심은 말씀의 빛에 비추어 판단을 받아야 한다.

말씀을 떠난 “양심의 평안”은 자기기만일 수 있다.

따라서 “나는 양심에 거리낌이 없다”고 말할 때, 그 양심이 말씀의 빛에 의해 조명된 양심인가를 확인해야 한다. 하나님은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보시는 분”(히 4:13)이시기 때문이다.

선한 양심의 실질적 기준

1.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가? (계시된 진리의 원칙과 반대되지 않는가?)
2. 이 일을 하려는 동기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는가, 아니면 나 자신을 위한가? (고전 10:31, 골 3:23)
3.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이 일을 확증하시는가, 아니면 경고하시는가? (롬 9:1)
4. 이 일이 같은 믿음의 공동체 내 형제자매들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는가? (롬 14:21)
5. 나는 두려우신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도 정직하게 행하고 있는가? (행 24:16)
6. 따라서 단순히 ‘내 양심에 거리낌이 없다’는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거리낌이 없다”는 고백이 참된 선한 양심의 증거다.
7. “이 소망 속에서 나는 하나님과 사람들을 향해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없는 양심을 항상 가지려고 스스로 힘쓰고 있나이다.” (행 24:16)

이것이 바로 바울이 말한 선한 양심의 성경적 기준이다.
그러므로 성도는 초지일관 동일해야 한다, 집, 직장, 교회에서
위선자가 되면 선한 양심을 가진 것이 아니다.
특히 목사의 경우, 1. 특히 자기 배우자나 자식들에게 내가 투명한가?
2. 세상 상식에 비추어 내가 상식적인 일을 하고 있는가?

결론

교회는 끊임없이 영적인 전투를 벌이고 있다.

각 지역 교회는 거짓 교사, 거짓 그리스도, 거짓 교리와의 싸움 속에 있다.

사탄은 '처음부터 거짓말쟁이'(요 8:44)로서 모든 거짓 교리의 근원이다.

따라서 교회는 단지 건전한 교리를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는 데서 멈추지 말고 거짓을 폭로하고 마귀의 교리를 대적해야 한다(딤후 4:1).

균형 잡힌 사역의 중요성

우리는 건전한 교리를 가르쳐 성도들이 성장하게 해야 하고(딤후 1:10),

복음을 전파하여 잃어버린 자들을 구원해야 하며,

믿음을 지켜 교회를 부패시키려는 세력을 막아야 한다.

이 싸움은 끊임없이 계속되어야 한다.

모든 성도에게 주는 교훈(디모데에게 주는 교훈)

성도의 임무 혹은 사명은 오직 하나이다.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고, 구원받은 자를 세우며, 믿음을 지키는 일.”

이 세 가지와 관계없는 일은 버려야 할 것들이다.

오늘날 많은 교회가 어려움을 겪는 이유 중 하나는, 목회자와 지도자들이 본래의 사명보다 '부차적 활동'에 너무 얽매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늘 영적 점검을 해야 한다.

“우리는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 믿음을 지키고 있는가? 선한 양심을 유지하고 있는가?”

“아니면 부르심의 본질을 잃어버린 채 바쁘게만 움직이고 있는가?”

저와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질문에 정직하게 답해야 한다.

그래야 우리의 믿음 생활이 우리 모두에게 유익이 되고 하나님께 기쁨이 될 것이다.

딤편 강해 7
주일 예배의 필수 요소:
남자 형제들의 합당한 기도

딤편2:1-8

지난주 1:18-20 딤편 강해 6, 목사든 성도든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한다. 선한 싸움의 두 무기는 믿음과 선한 양심, 믿음은 마치 매우 귀한 액체와 같고 선한 양심은 그것을 담은 깨끗하고 맑은 유리병과 같다. 선한 양심 유리병이 깨지면 그 안의 믿음 체계, 성경 지식, 좋은 교리, 킹제임스 성경 등이 다 땅으로 흘러내리고 더럽혀져서 아무짝에도 쓸모없게 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한 양심을 지키기 위해 애를 써야 한다.

오늘 < >, 딤편 2장은 선한 싸움의 구체적인 두 요소를 말한다. 하나는 기도, 특히 남자들의 기도, 다른 하나는 여자들의 복종, 이게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목사의 책무와 교회의 책무를 잘 보여 준다.

왜 딤편 2장을 기록했을까?

딤편후는 교회를 치리하고 감독하는 목사에게 보낸 글,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의 목사 바울은 그 교회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대응책을 주고 있다(약 3년 간 직접 목회함). 서신서들은 노련한 사역자 목회자 바울이 직접 쓴 것이다.

그는 30여년 많은 교회를 세우고 고린도, 에베소 등에서 2-3년씩 목회를 함

교회의 여러 문제를 직접 보고 해결함

교회 활동, 운영에 대한 그의 충고, “모든 것을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할지니라.”(고전 14:40)

디모데는 지금 에베소 교회에서 이 원칙을 적용하는 데 여러 문제를 겪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공예배와 교회 사역이 질서를 잃고 힘을 잃어가고 있었는데 그 이유는 남들과 여자들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계시록 2장의 에베소 교회, 불순종으로 첫 사랑을 잃은 교회(계2:4-5)

위어스비(1929-2019), 무디 교회 담임(1971-1978), 대단히 훌륭한 목사

영혼의 자유를 강조하는 침례교회, 성경 신자들의 모임의 많은 사람들의 주장

“교회는 조직체가 아니라 살아 있는 유기체이기 때문에 조직을 너무 강조하면 안 됩니다. 성령님께 자유를 드려야 합니다.” “이 말은 교회에서 마음대로 질서 없이 해도 되지 않는냐?”는 말이다.

그러나 성경과 역사가 말해 주는 사실

“그러나 유기체가 무질서해지면 죽는다. 물론 성령님의 자유를 인정해야 하지만 성령님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슬러 일하시지는 않는다.”

여러 사람들이 ‘성령님의 자유’라고 포장해서 말하는 것들 가운데 많은 부분은 실제로는 성령님을 따라 걷지 않는 어떤 성도들의 육신적 생각일 때가 많다.

결국 이런 ‘자유’는 교회의 무질서로 변하고, 교회가 점차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멀어질 때 성령님께서 근심하게 된다. 결국 교회의 파멸로 이어질 수 있다.

에베소 교회의 이런 경향을 바로잡기 위해 바울은 교회의 남들과 여자들에게 권면하며 그들의 영적 책임을 다시 상기시킨다. 첫 부분은 1-8절은 주로 남자들, 9-15절은 여자들에 대한 권면

남자들—기도하라는 권면(2:1)

사도 바울을 포함해서 사도들은 공예배 혹은 교회 사역의 두 가지 주요 부분을 ① 말씀 사역, ② 기도에 두었다(행6:4).

1장에서 그는 디모데에게 다른 교리를 가르치지 말라고 명령하고, 자신의 사도 직무와 복음의 중요성 설명했으며, 디모데에게 맡겨진 사역을 그가 신실하게 수행하라고 격려했다.

즉 바울은 건전한 교리를 가르치는 말씀 사역의 중요성을 가장 먼저 1장에서 말하였다.

이제 바울은 2장에서 공예배의 두 번째 요소인 기도로 넘어가면서 권면을 시작한다.

에베소 교회를 향한 그의 마음속의 부담이 된 주제가 바로 이것이었기 때문이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정해진 기도문을 보내지 않았다.

만일 사도 바울이 목회자들이 반드시 한 형식에 묶여 기도해야 한다고 의도했다면 그는 분명히 정식 문구를 보냈을 것이다.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고, 네 가지 큰 기도 범주만 제시한다.

✓ 간구, ✓ 기도, ✓ 중보, ✓ 감사

바울이 이렇게 큰 제목만 제시한 이유는 성도들에게 이미 성경이라는 기도의 기준이 있고 성령님께서 기도의 영을 부어 주시기 때문이다.

기독교 신앙의 목적 가운데 하나는 바로 ‘기도’를 촉진하는 것이다. 바르게 기도하는 것이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하라”(엡 6:18).

또한 기도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특권이다.

◆ ‘무엇보다 먼저’(first of all)의 의미

이 표현은 단순히 “아침 일찍, 다른 일보다 먼저 기도하라”, 혹은 “설교보다 먼저 기도하라” 는 식의 시간적 순서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바울의 의도는 시간적인 순서가 아니라 중요성의 우선순위이다. 말씀 사역 혹은 선포 다음에 내가 말해야 여러 가지 중에 이것이 최우선이다. 그러니 너와 에베소 교회가 공예배에서 가장 먼저 또 가장 중요하게 실천해야 할 일은 올바른 기도이다.

◆ ‘모든 사람을 위해’(for all men)의 의미

모든 사람에는 먼저 기도하는 사람 자신이 포함된다. 그래서 먼저 자신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

또 동시에 우리는 주변의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2:1).

2절 등을 보면 이는 단순히 성도들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부모 형제자매, 친구와 지인, 우리가 사는 도시와 국가의 모든 주민, 나아가 원수들, 박해자들까지 즉, 사회 모든 계층 — 유대인과 이방인, 부자와 가난한 자, 높은 자와 낮은 자, 선한 자와 악한 자 — 모두 포함한다.

즉 공예배 기도에는 이런 포괄적인 대상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예외가 있다.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지은 자들을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요일 5:16).

또한 ‘모든 사람으로 인해 감사하라’고 했을 때, 그것은 네로 같은 박해자나 후메네오, 알렉산더 같은 거짓 교사들 자체에 대해 ‘감사하라’는 뜻이 아니다.

따라서 ‘모든 사람’의 의미는 ‘모든 종류’의 사람들, 즉 모든 계층·민족·부류의 사람들을 가리킨다.

◆ 공예배 중 기도의 네 가지 요소: 바울은 공예배 기도를 네 가지 단어로 구분한다.

1) 간구(Supplications)

구체적인 필요, 부족함, 재앙의 제거 등을 하나님께 아뢰는 기도.

육체적 필요(의식주)뿐 아니라 영적 필요(용서, 은혜, 화평, 위로)까지 포함한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저희가 필요로 하는 것들을 아시는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지혜와 힘이 부족한 자리마다 주의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교회가 해야 할 일들을 감당하도록 하늘의 능력과 사랑을 부어 주시며,

성도들의 마음과 가정과 일터에 주의 도우심이 임하게 하옵소서.

병든 자에게는 치유를, 연약한 자에게는 위로를, 방황하는 자에게는 회복과 인도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저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모든 필요를 오직 주님의 긍휼에 맡깁니다.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2) 기도(Prayers)

하나님께 드리는 경건한 기원 전반을 의미하며 기도 자체의 거룩함을 강조한다.

즉 “무엇을 주세요”가 아니라 우리의 진실한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기도는 단순한 요청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배하며 주의 뜻을 구하는 거룩한 행위임을 기억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깨끗하게 하셔서 우리가 정결한 양심으로 주 앞에 서게 하옵소서.
저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우리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인도하셔서 주께 합당한 향기로운 희생물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 가운데 드리는 모든 기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고 우리의 삶을 주의 뜻 안에 묶어 두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3) 중보(Intercessions)

다른 사람을 위해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

때로는 억울함을 아뢰거나, 남에게 닥친 재앙을 막아 달라고 구하는 의미도 있다.

아버지, 이제 저희는 다른 이들을 위해 주 앞에 나아가 중보합니다.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기억하시고 상한 마음을 싸매 주옵소서.
길을 잃은 영혼들에게 빛을 비추셔서 구원의 은혜로 이끌어 주옵소서.
가정과 자녀들을 붙드시고, 병상에 있는 성도들에게는 회복을 주시고,
시험과 유혹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는 믿음을 지킬 힘을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나라와 도시의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정의로운 마음을 주셔서
모든 백성이 조용하고 평안한 삶을 누리게 하옵소서.

4) 감사(Giving of thanks)

이미 받은 은혜에 대해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 모든 기도에는 감사가 동반되어야 한다(빌 4:6).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살리시고 예배의 자리로 불러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구원의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시고,

확신 가운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저희를 인도하시고, 성령님으로 저희를 깨우시며,

하루하루를 붙들어 주시는 은혜에 감사합니다.

가정과 교회를 지켜 주시고, 함께 믿음을 나누는 성도들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눈에 보이는 복과 보이지 않는 은혜 모두가 주로부터 왔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받은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를 섬기게 하옵소서.

회중을 대표하는 기도, 목사의 목회 기도 등에는 이런 요소들이 들어가야 한다.

따라서 바르게 기도하려면 공적 기도를 위해 준비해야 한다.

그래야 그들의 기도가 형식적이지 않고 따분하지 않고 반복되지 않는 진실한 기도가 된다.

우리 교회, 대표 기도하는 분이 기도문을 써서 하고 있다.

좋은 일이다. 무엇을 위해 기도할지 미리 깊이 생각하며 준비하는 것이므로

이것이 공적 기도를 생동감 있게 하며, 그저 지난주에 했던 말을 반복하는 일이 되지 않게 한다.

개인 기도도 마찬가지이다. 기도하려면 마음이 하나님과 형제들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어 있어야 한다.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기도해서는 안 된다(마 6:5). 그저 종교적 의무감을 채우기 위해 하는 기도도 안 된다. (*) 개인 기도에 대해서는 추후에 시리즈로 하려고 한다.

여하튼 교회가 기도 의존을 멈추면, 하나님은 그 교회의 사역에 대한 축복을 멈추신다.

특별히 세상 통치자들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2:2).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바는, 비록 모든 사람을 위해 우리가 기도해야 하지만, 특히 세상 권세 잡은 자들을
특별히 기억하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별히 공예배에서.

왜냐하면 통치자들의 성품과 정책에 따라 국가의 분위기가 크게 좌우되고 국민의 생명, 자유, 재산의
안전이 그들에게 달려 있기 때문이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공의롭고 바른 방향으로 마음을 기울게 하실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통치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기도해야 한다.

왕의 영혼이 농부나 종의 영혼보다 본질적으로 더 귀한 것은 아니지만, 수천, 수만 명의 삶이 그 한 사람에게 달려 있기 때문에 통치자는 특별히 기도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권위를 가진 모든 자들: 단순히 공직자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정치적으로 높은 위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포함한다.

그들 아래에 놓여 있는 사람들의 행복이 그들의 태도와 선택에 크게 달려 있기 때문에 그들이 구원받도록, 또 그들이 바르고 선한 일을 기꺼이 행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

당시 로마 황제 네로는 극도로 악한 통치자였지만, 성도들은 그를 위해 기도해야 했다.

우리가 그 사람을 존경하지 못할지라도 그의 직분은 존중해야 한다(롬13장).

1. 그가 회개하고 구원받도록 기도해야 한다. 예를 들어 대통령의 경우

“주여, 그의 마음을 찢어 회개하게 하시고, 구원의 진리를 깨닫게 하옵소서”

2. “주여, 그의 불의한 정책과 악한 계획을 막아 주옵소서. 진리를 대적하는 모든 일을 좌절시키소서.”

3. “주여, 그가 국민의 자유를 억압하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양심의 자유를 파괴하는 권세를 그에게 허락하지 마옵소서.”

4. “주여, 이 나라에 의로운 지도자들을 세우시고 악한 통치자를 견제하도록 세워 주소서.”

5. “주여, 교회가 두려움 속에서도 담대하게 진리를 증언하게 하시고 박해의 시대에도 복음이 결박되지 않게 하옵소서.”

6. “주여, 불의한 권세가 오래가지 못하게 하시고 주의 공의가 땅에 서게 하옵소서.”

7. “주여, 악한 시대에도 성도들에게 보호와 담대함을 주시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게 하옵소서”

권세 잡은 자들을 위한 기도의 목적(2:2)

“목적은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따르며 정직한 가운데 조용하고 평화로운 삶을 살려 함이다.”

바울은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 “그들 밑에서 우리가 높은 지위에 오르고 부자가 되고 권력을 얻게 도와 주소서.” 아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의 소망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따르며 정직한 가운데 조용하고 평화로운 삶을 사는 것이다.

즉 우리는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드리고 사람들에게 바르게 행해야 한다.

이 둘은 결코 분리될 수 없다.

즉, 우리는 하나님께서 통치자들의 마음을 바른 방향으로 기울게 하셔서 우리가 신앙의 자유를 누리게 하시고 박해 없이 종교 생활을 하도록 보호해 달라고 기도해야 한다.

본래 그리스도인들은 스스로 평화롭고 질서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자들이며, 통치자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단 하나, “우리의 정당한 권리와 신앙생활을 방해하지 말아 달라.” 이뿐이다.

그리스도인은 정부로부터 이런 수준의 보호를 기대한다.

교회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3-4)

바울은 모든 사람을 위한 기도가 선한 일이며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일이라고 말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은 분명하다.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가장 사악한 죄인, 악인도 회개하고 돌이켜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그를 구원하려면 죄를 보여 주고 돌이키게 해야 한다.

이것이 우리가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 이유다.

기도의 근거 1: 한 하나님이 계신다(5)

개역처럼 하나님이 한 분이시기 때문이 아니다. 한 분이 아니라 한 하나님이시다.

기도의 근거: 모든 인간이 최종적으로 회개 보고해야 할 분 즉 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다.

여러 신이 아니라 한 하나님이시다. Many gods, one God

그 하나님의 특성:

하나님은 모든 인류에 대해 선한 뜻을 가지시며 악인의 죽음을 기뻐하지 않으신다(겔 33:11).

그러나 이것이 모든 사람의 구원을 작정하셨다는 뜻은 아니다.

구원을 거절하는 책임은 사람 자신에게 있다(마 23:37).

그럼에도 악한 행위가 죄라는 것을 보여 주어야 그가 깨달을 수 있다.

기도의 근거 2: 한 중재자가 계신다(5)

중재자가 있다는 것은 죄로 인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갈등이 생겼다는 것을 뜻한다.

그런데 부처, 공자 등 인간이 만든 여러 중재자는 소용이 없고 단 한 중재자가 필요하다.

절대적 진리는 매우 길이 좁다. 한 하나님, 한 중재자

그분이 바로 처녀 탄생으로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이다. 이 분 외에 다른 구원자, 중재자는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6)

하나님의 공의와 진노를 만족시키며 인간의 모든 죄를 속죄하려면 중재자가 필요하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사람이시기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완전한 중재자(대제사장)가 되신다.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피를 흘리고 죽고 묻히고 다시 사는 것, 다른 길은 없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이루어진 것이며 인류 모두를 위한 충분한 대속이다.

구원받은 자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다.

그러나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만 구원을 받는다,

기도는 단지 우리의 신앙적 활동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증보 구속 사역 위에 세워진 행위이다.

그분께서 친히 모든 사람의 대속물로 자신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수

있다.

바울의 사명, 성도들의 사명(7)

바울은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을 선포하기 위해 유대인들의 모든 것을 버리고 믿음과 진리 안에서 이방인들의 교사가 되었다.

목사라고 하지 않고 교사라고 한 이유, 마28: 19-20, 가르쳐야 깨닫고 구원받을 수 있다.

그래서 목사는 목사 겸 교사이다(엡4:11, 딤후3:2, 가르치는 재능이 있고).

공예배 기도의 태도 (8)

바울은 남자들이 공예배에서 기도할 때 세 가지가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

1. 진노하지 않고 — 형제들과 화목해야 한다.

평화를 만들지 않고 다툼을 일삼는 사람은 공예배 기도할 자격이 없다.

2. 의심하지 않고 — 다투지 않고 화평하게, 마음에 분쟁이 있으면 기도가 막힌다.

3. 거룩한 손—거룩한 삶

죄 가운데 있으면서 기도하는 것은 응답을 기대할 수 없다(시 66:18).

당시 유대인들은 구약의 예들에 따라 공적인 장소에서 손을 들고 기도하였다. 지금 우리는 그렇게 해도 좋고 안 해도 좋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들어 올리면 된다.

4. 효과적인 기도란 하나님과 바른 관계 + 형제들과의 바른 관계에서 나온다.

5. 이런 기도는 공예배뿐만 아니라 모든 곳에서 드려야 한다. 꼭 교회나 성전이나 신전에서만이 아니다.

결론

말씀 사역과 함께 공예배에서는 남자들의 기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공예배 기도에는 모든 사람을 위한 기도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기도의 근거: 심판하시는 하나님, 대속 희생물 : 증보자 그리스도 예수님

그분은 모든 사람을 위해 자신을 대속물로 주셨다.

그러므로 교회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에 동참해야 한다.

공예배 기도를 바르게 실천하고 사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

딤편 강해 6
건강한 교회의 필수 요소:
자매님들의 고상함과 복종

딤편2:9-15

지난주 2:1-8. 딤편 강해 7, 에베소 교회 공적 모임에 두 가지 문제가 있어서 공예배와 교회 사역이 질서를 잃고 힘을 잃어가고 있었는데 그 이유는 남자들과 여자들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남자들이 공예배에서 올바르게 기도하지 않음.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되 특별히 통차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

가능하면 그들이 구원받고 신앙의 자유를 억압하지 않도록

공 예배 중 기도의 네 가지 요소:

- 1) 간구: 구체적인 필요, 부족함, 재앙의 제거 등을 하나님께 아뢰는 기도.
육체적 필요(의식주)뿐 아니라 영적 필요(용서, 은혜, 화평, 위로)까지 포함한다.
- 2) 기도: 하나님께 드리는 경건한 기원 전반, 하나님의 은혜, 거룩함, 영광 찬송 즉 “무엇을 주세요”가 아니라 우리의 진실한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다.
- 3) 중보: 다른 사람을 위해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
때로는 억울함을 아뢰거나, 남에게 닥친 재앙을 막아 달라고 구하는 의미도 있다.
- 4) 감사: 이미 받은 은혜에 대해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

모든 기도에는 감사가 동반되어야 한다(빌 4:6).

회중을 대표하는 기도, 목사의 목회 기도 등에는 이런 요소들이 들어가야 한다.

따라서 바르게 기도하려면 공적 기도를 위해 준비해야 한다.

그래야 공예배 기도가 형식적이지 않고 따분하지 않고 반복이 없는 진실한 기도가 된다.

오늘 < > 현시대에 다루기 힘든 주제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편견 없이 설교하려고 한다.

여인들의 복종, 어려운 주제

오늘날 이른바 ‘여성 해방’과 각종 페미니즘 운동의 시대에, 11절처럼 ‘여자는 전적으로 복종하며 잠잠히 배울지니라.’는 말은 많은 사람들을 즉각적으로 반발하게 만든다.

일부 선의의 저술가들조차 바울을 ‘여성을 싫어한 고집 센 독신 노인이라고 비난하기도 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영감과 권위를 믿는 우리는 바울의 가르침이 그의 개인적 견해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안다.

베드로 역시 뵤전 3:1-7에서 자매님들의 처신에 대해 말한다. 참조

만일 교회 안에서 여자들의 처신이나 복종에 대해 성경이 말하는 바에 문제가 있다고 느낀다면, 그 문제는 바울이나 베드로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주신 주님께 있다.

딤편후 3:16-17.

자매님들의 외치 혹은 처신에 대해서는 바울이 에베소서 5장 22절과 골로새서 3장 18절 아내들아, 너희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것이 주 안에서 합당하니라(골3:18).

복종의 의미

디모데전서 2장 11절의 ‘복종’(subjection)은 에베소서 5장 22절, 골로새서 3장 18절의 ‘복종’과 동일하다.

이 말의 문자적 의미는 “권위 아래 두다, 질서 안에 두다”이다.

군대에서 복무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듯이 계급은 가치나 능력의 우열이 아니라 질서와 권위의 문제다.

대령이 이등병보다 계급이 높다고 해서 더 나은 사람이라는 뜻은 아니다.

단지 더 높은 권한을 가진 직분에 있을 뿐이다.

교회에서 “모든 것을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하라” (고전 14:40)는 원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창조 세계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원리이다. 가정, 직장, 군대 등

군대에 계급 질서가 없다면 혼란에 빠지듯, 사회 역시 복종의 질서가 없다면 무질서에 빠질 수밖에 없다.

1. 가정에서 자녀는 부모에게 복종해야 한다.

이는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자녀를 훈련하고 사랑으로 징계할 권위를 주셨기 때문이다.

2. 회사에서 종업원은 고용주에게 복종해야 한다(엡 6:5-8).

이 본문은 원래 가정 내 종들을 가리키지만 오늘날의 노동관계에도 적용될 수 있다.

고용주 위에 서려고 하면 기업이 망하고 일자리를 잃는다.

3. 사회에서 시민은 통치자들에게 복종해야 한다.

비록 그 통치자들이 그리스도인이 아닐지라도 그렇다(롬 13장; 벧전 2:13-20).

질서 유지, 다만 예외,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할 때에는 따라서는 안 된다.

복종은 굴종(subjugation)이 아니다.

1. 복종이란 가정과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인정하고, 그 질서에 기쁨으로 순종하는 것이다.

복종의 대상은 궁극적으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질서의 근원도 하나님이며, 권위의 정당성도 하나님에게서 나온다.

그래서 성경적 복종은 강요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두려움이나 위협에서 나오지 않고, 믿음과 신뢰에서 나온다.

질서를 세우신 분이 선하시며 지혜로우시다는 확신이 있을 때, 복종은 자발적이고 기쁨이 된다.

2. 굴종은 힘의 불균형에서 나온다.

권위가 아니라 권력에 의해 강요된다.

굴종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다.

굴종은 침묵하지만 마음은 무너진다.

겉으로는 순종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면에는 분노·체념·자기 상실의 쌓인다.

성경은 어느 곳에서도 굴종을 미덕으로 가르치지 않는다.

3. 성경이 말하는 복종은 질서(order)의 문제이지 중요성의 문제가 아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한다고 해서 남편보다 덜 귀한 존재가 아니다.

교회 안에서 직분의 질서가 있다고 해서 어떤 성도가 더 존귀한 것도 아니다.

바울이 말하는 “복종”은 굴욕이 아니라 역할이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위치에서, 하나님을 향해 책임 있게 살아가는 태도다.

그래서 성경적 복종은 항상 상호 책임을 전제로 한다.

남편에게 아내의 복종이 요구된다면, 남편에게는 그리스도처럼 사랑할 책임이 주어진다.

교회 안에서 권위를 맡은 자가 있다면, 그는 지배자가 아니라 섬기는 종이다.

이 균형이 무너지면 복종은 즉시 굴종으로 변질된다.

4. 그러므로 교회와 가정은 복종을 가르치되, 굴종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질서를 말하되, 인간의 욕망을 그 질서 뒤에 숨겨서는 안 된다.

“모든 것을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하라”는 말씀은

사람을 누르라는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질서 안에서 서로를 살리라는 부르심이다.

5. 복종은 영적 성장과 사역의 핵심이다.

남편은 주님께 복종해야 하고,

그리스도인들은 서로에게 복종해야 하며(엡 5:21),

아내는 주님과 자기 남편에게 복종해야 한다.

오늘 딤후 2:9-15의 초점은 지역 교회 안에서 여성의 위치와 복종이다.

바울은 믿는 여자들에게 여러 방식으로 복종의 증거를 나타내라고 권면한다.

1. 단정한 옷차림 (9절)

여기서는 세상의 인위적인 화려함과 경건한 삶에서 나오는 참된 아름다움이 대비된다.

또한 이런 식으로 여자들도 단정한 옷으로 자기를 꾸미되 얌전하게 맑은 정신으로 하고 장식한 머리카

금이나 진주나 값비싼 옷으로 하지 말며

오해: 금은보석 장신구 하지 말라는 것인가? 아니다.

바울은 외적 화려함, 사회적 과시 대신 선한 행위, 경건한 성품이라는 말의 구조를 사용한다.

이건 금은보석 장신구의 절대적 금지가 아니라 우선순위의 교정이다.

즉 여기서 핵심은 “무엇을 하지 말라”가 아니라 “어떻게 꾸미라”**는 것이다.

경건을 드러내야 할 자리에 외적 화려함으로 자신을 세우지 말라.

바울은 보석이나 아름다운 옷 자체를 금하지 않았고 다만

그것들을 ‘유하고 조용한 영’(벧전 3:1-6)의 대체물로 과도하게 사용하는 것을 경계했다.

에베소는 당시 매우 부유한 상업 도시였다.

무역과 금융이 발달했고, 그만큼 사치 문화도 자연스럽게 퍼져 있었다. 특히 여성들 사이에서는 외적인

모습으로 신분과 부를 드러내려는 사회적 경쟁이 치열했다.

바울이 말한 ‘장식한 머리’는 단순히 단정하게 머리를 꾸민 것을 뜻하지 않는다. 금실과 보석을 머리카락에 엮어 복잡하게 장식한 헤어스타일로, 자신의 부와 지위를 과시하는 수단이었다.

이러한 세속적 문화가 교회 안으로 들어오면서 문제가 생겼다. 예배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경건한 자리
가 아니라, 외모와 치장을 드러내고 서로를 의식하는 전시와 경쟁의 공간으로 변질될 위험이 있었던
것이다.

바울의 권면은 외모 자체를 금지하려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중심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리려는 목회적
경고였다.

‘단정함’(modest)이라는 말은 본래 ‘품위 있고 질서 있다’는 뜻이다.

옷차림은 단정하고 질서 있으며 좋은 취향을 반영해야 한다.

‘얌전하게’(shamefacedness)는 극단을 피하는 절제를 말한다.

부끄러움을 파악할 줄 알아야 한다.

‘맑은 정신’(sobriety)은 건전한 판단력과 자기 절제를 의미한다.

우리 교회 모든 자매님들이 이런 고상한 분들이 되기를 원한다.

2 선한 행실 (10절)

바울은 “옷 대신 선행을 입어라”라는 식의 극단적인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다.

즉, “외모는 신경 쓰지 말고 아무 옷이나 입어도 된다”거나

“선행만 있으면 단정한 차림은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금·진주·값비싼 옷 자체의 금지가 아니라,

그것들이 자기 과시와 경쟁의 수단이 될 때, 교회와 예배의 본질을 흐릴 수 있다는 경고다.

복음으로 인한 여인들의 위치 변화

복음은 여성들의 가치를 하나님 앞에서 회복시켰고,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의 동등함을 확증했다(갈 3:28).

로마 사회에서 낮은 위치에 있던 여성들의 삶은 복음으로 인해 변화되었다.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 그분을 섬긴 여성들이 있었고(눅 8:1-3), 십자가와 장사, 부활의 첫 증인은
여성이었다.

사도행전에는 도르가, 루디아, 브리스길라 등 경건한 여성들이 등장한다.

로마서 16장에는 최소 여덟 명의 여성이 언급된다.

뵈비는 지역 교회를 섬기는 종이였다(롬 16:1). 여자 집사가 아니라 섬기는 중.

그러므로 바울이 강조한 것은 이것이다.

하나님을 따른다고 고백하는 여인들의 참된 장식은

머리의 화려함이나 보석의 값비싼 빛이 아니라, 선한 행위로 드러나는 경건한 삶이다.

3. 여인들의 위치: 조용히 배워야 한다(11절)

‘잠잠함’(silence)이라는 번역은 오해를 낳기 쉽다.

같은 단어가 딤후 2장 2절에서는 ‘조용한’(quiet)으로 번역된다.

일부 여성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자유를 오용하여 예배 중에 방해를 일으키는 문제가 있었고 바울은 바로 이 문제를 다루고 있다.

고전14장 대언과 타 언어, 타 언어 통역 등 ,

대언은 예언이 아니다. 타 언어는 모두 다른 나라 말이다.

그런데 대언과 타 언어 모두 남자가 했다. 14:27, 14:29

여자들에 대한 것 14:34-35, speak, say나 tell이 아니라

즉 나서서 교회 성도들 위에 군림하지 말라는 말이지 절대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다.

그리고 끝에 40절이 나온다. 모든 것을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할지니라.

그러므로 자매님들이 얼마든지 교회에서 이야기하고 의견 내도 된다.

다만 교회를 다스리려고 스피커가 되면 안 된다.

구체적인 사례와 이유가 12-15절에 나온다.

4. 권위 존중 (12-15절)

여자들도 가르칠 수 있다.

연로한 여자들은 젊은 여자들을 가르쳐야 한다(딤후 2:3-4).

디모데 역시 어머니와 외조모에게 배웠다(딤후 1:5).

그러나 그들의 가르침 사역은 남자들 위에 군림하려는 방식이어서는 안 된다.

경건한 여성이 개인적으로 남자를 가르치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다(사도행전 18:24-28).

그러나 교회 안에서 권위를 행사하며 남자의 자리를 대신하려 해서 안 된다.

여자들은 '조용함'을 실천하며 교회의 질서를 지키는 데 기여해야 한다.

바울은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인 남자들이 영적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는 이 권면을 뒷받침하기 위해 몇 가지 논거를 제시한다.

첫째는 창조에 근거한 논거다. 아담이 먼저 지어졌고 그 다음에 이브가 지어졌다(디모데전서 2:12-13).

바울은 같은 논거를 고린도전서 11:1-10에서도 사용한다.

여기서 기억해야 할 점은 먼저 창조되었다는 것이 더 우월하다는 뜻은 아니라는 것이다.

남자와 여자는 모두 하나님에 의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

문제는 가치가 아니라 권위의 질서다.

남자가 먼저 창조되었다는 사실이 그 질서를 말해 준다.

둘째 논거는 인간의 타락과 관련된 논거다.

사탄은 여자를 속여 죄를 짓게 했고(창세기 3장; 고린도후서 11:3), 남자는 분명히 알면서도 죄를 지었다.

아담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거부하고 아내의 말을 들었으며,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죄와 죽음을 세상에 들여왔다.

아내가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은 창조의 본래 질서에 속한 것이다.

오늘날 사회에 나타나는 무질서는 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를 거부한 결과다.

목사가 된 지 25년이 되었다. 내 목회 사역에서도 내 아내를 비롯해서 경건하고 지혜로운 자매님들의 격려와 조언으로 큰 유익을 얻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렇다 해도 여자들이 교회 안에서 남자를 지배하는 권위를 차지하도록 허용하면 안 된다.

사실 성경대로 믿는 자매님들이라면 나서서 교회를 지배하거 운영하려는 욕망 자체가 없다.

벧전3:5-6

인간의 창조와 타락은 여성을 열등한 위치에 두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리하지 아니하셨다.

이것과 관련해서 바울은 여기서 매우 실제적인 교훈을 준다(디모데전서 2:15).

개역성경 등: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절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질문: 여자들은 아이들을 나오면(적어도 한 명 나오면) 구원받을까?

아니다. 역사와 경험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 준다.

앞뒤 문맥상 여기의 구원은 지옥에서 천국으로 가는 영원한 구원을 뜻하지 않는다.

KJV: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맑은 정신으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 안에 거하면 그녀가 수태와 해산을 거칠 때에 구원을 받으리라. She shall be saved in childbearing. (*)

15절에 나오는 구원을 설명하자면, 과연 여자가 어디에서 구원받는 것인지를 가장 먼저 이해해야 한다. save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대개 죄와 심판과 사망에서 구원받는 것을 가리킨다.

그런데 좀 더 구체적으로 어디에서 구원받는 것인지를 표현하려면 save 다음에 from이라는 단어가 나와야 한다.

예를 들어 마태복음 1장 21절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들에서 구원할 것이기 때문이라, 하니라.

And she shall bring forth a son, and thou shalt call his name JESUS: for he shall save his people from their sins. (*)

그런데 딤후전2:15에는 여자가 어디에서 구원받는 것인지 알 수가 없어서 문제가 생긴다.

하지만 앞뒤 문맥을 보면 어디에서 구원받는 것인지 판단해 볼 수 있다.

먼저 여자가 아이를 낳음으로 죄나 혹은 사망에서 구원받을 수는 없음을 알기에 일단 여기의 구원은 그런 구원이 아님을 이해해야 한다. 아이를 낳아야만 구원받는다면 남자들이나 아이를 낳지 못한 여자들은 구원받지 못한다.

13-14절을 보면 이브는 마귀에게 속아 넘어가서 범법하였다. 그리고 15절이 나온다.

15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맑은 정신으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 안에 거하면 그녀가 수태와 해산을 거칠 때에 구원을 받으리라.

Notwithstanding she shall be saved in childbearing, if they continue in faith and charity and holiness with sobriety.

여기서 영어 in childbearing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번역이 달라진다.

childbearing은 우리말로 '아이를 지낸다'인데 이것은 수태와 해산 그리고 심지어 교육과 훈련까지를 다 포함하는 포괄적인 말입니다.

여기의 in은 수단의 의미도 있고 기간의 의미도 있다.

수단의 의미로 in을 해석하면 '수태와 해산을 통해'(개역성경의 해산함으로)가 될 것이고 기간의 의미로 in을 해석하면 '수태와 해산의 기간에'로 볼 수 있다.

흠정역 마제스티 에디션은 in을 후자의 의미로 보고 '그녀가 수태와 해산을 거칠 때에 구원을 받으리라.'라고 번역하였다.

그러므로 15절은 그들(3인칭 복수(남성인지 여성인지 알 수 없음, 1. 성경적 정의에 따른 선한 여인들을 가리키거나, 2. 남편과 아내, 즉 부부를 가리킴)이 사랑하고 거룩함 가운데 거하면 그녀가(1. 그런 선한 여인이나, 2. 아내가) 수태와 해산을 거칠 때에 (마귀에게 속아 넘어가 범법하는 것에서) 구원받을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여자에게 가장 힘든 시기는 수태와 해산하는 시기(그리고 그 이후의 양육 시기이고) 이때 즉 수태와 해산을 거치는 때가 마귀의 공격을 받아 이브처럼 실족하기가 가장 쉬운 때이다.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고통과 수태를 크게 늘리리니 네가 고통 속에서 자식들을 낳을 것이며 또 너의 열매가 네 남편에게 있겠고 그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며(창3:16)

따라서 여성이 가장 연약해지고, 창 3장의 결과가 가장 현실적으로 드러나는 그 시기— 수태와 해산, 그리고 그 이후의 삶 속에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과 절제 안에 거할 때 사탄의 미혹과 범법에서 보호받고 하나님이 주신 질서 안에서 안전하게 지켜진다는 뜻이다.

결론

교회 모임, 공예배서 여인들의 위치와 모습과 처신

1. 여인들은 질서를 위해 복종해야 한다.
2. 겉모습이 아니라 경건한 내면이 아름다운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3. 여자들의 사역은 교회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을 돌보고 자녀를 낳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양육하는 것이다.
4. 경건한 여성들은 지역 교회 안에서 매우 중요한 사역을 감당한다. 비록 목회 사역의 의미에서 말씀의 교사나 목사로 부름받지는 않았지만 그들의 역할은 결코 작지 않다. 그들이 모든 일을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주신다.
5. 특히 여인들이 가장 연약해지는 때 , 수태와 해산, 그리고 그 이후의 삶 속에서 남편과 아내가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과 절제 안에 거할 때 아내는 사탄의 미혹과 범법에서 보호받고 하나님이 주신 질서 안에서 안전하게 지켜진다.
6. 하나님의 뜻을 알고 연약한 그릇인 아내들을 위해 도와주는 좋은 남편들이 되기를 원한다. 그래야 기고가 막히지 않는다.

딤편 강해 4
목사의 필요성과 중요성:
가장 중요한 것은 인격이다

딤편3:1

지난주 2:9-15. 딤편 강해 8, 에베소 교회의 공적 모임에는 두 가지 문제가 있어서 공예배와 교회 사역이 질서를 잃고 힘을 잃어가고 있었다. 그 이유는 남자들과 여자들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남자들이 공예배에서 올바르게 기도하지 않음. 여자들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시하며 교회를 흔들, 지난 시간 자매님들을 향한 바울의 권고

1. 여인들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위해 복종해야 한다.
2. 겉모습이 아니라 경건한 내면이 아름다운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3. 여자들의 사역은 교회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을 돌보고 자녀를 낳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양육하는 것이다.
4. 하나님의 뜻을 알고 연약한 그릇인 아내들을 위해 도와주는 좋은 남편들이 되기를 원한다. 그래야 기도가 막히지 않는다.

오늘 < >, 딤편3:1, 목사의 필요성과 중요성

딤편3:2-7은 목사의 조건과 자격 등을 설명한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설명하기에 앞서 목사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해, 또 리더십의 중요성에 대해 말하는 것이 필요하다. 목사가 되려는 의도 혹은 욕구는 좋은 것이다. 그런데 이를 위해서는 좋은 인격이 있어야 한다. 이것은 주변 사람들에게 드러나게 된다. 이것이 없이는 좋은 목사가 될 수 없다. 인격은 한 사람의 도덕적 중심과 책임성을 말한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알고, 그에 따라 선택하고 책임지는 내적 기준이다.

가치관, 양심, 판단 기준, 하나님 앞에서의 태도, 권한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유혹과 압력 앞에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

인격은 상황이 바뀌어도 쉽게 변하지 않는 중심이다.

그래서 성경은 목사에게 인격을 먼저 묻는다.

오늘 어쩔 수 없이 부족하지만 목사에게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양해해 주기 바란다. 나를 돌아보는 설교
목사의 필요성과 중요성

가정이든 지역 교회든 모든 것은 지도력에 따라 세워지거나 무너진다.

이것은 단지 교회에만 해당하는 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 사회 전반에 두신 보편적인 질서다.

가정이 무너질 때 그 중심에는 언제나 가장의 책임 상실이고, 공동체가 방향을 잃을 때 그 배후에는 지도자의 판단 실패가 있다.

교회도 예외가 아니다. 교회는 살아 있는 유기체이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 질서와 책임 구조를 부여하신 조직체다. 조직된 질서가 무너지면 유기체도 오래 유지될 수 없다. 지도력은 영적 조직의 한 부분이 아니라, 그 조직을 지탱하는 핵심이다.

성령님께서서는 지역 교회 사역을 위해 성도들에게 다양한 선물들을 주신다. 성경은 그 선물들 가운데 “목사 겸 교사”(에베소서 4:11)를 분명히 언급하며, 또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의 선물도 함께 말한다(고린도전서 12:28).

엡4:11-12,

고전12:28,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몇 사람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들이요, 둘째는 대언자들이요, 셋째는 교사들이요, 그것 다음은 기적들이요, 그다음은 병 고치는 선물들과 돕는 것들과 다스리는 것들과 여러 가지 타 언어들이니라.

이는 교회가 단순히 모든 사람이 각자 움직이는 공동체가 아니라, 지도자의 인도를 받아야 할 공동체임을 분명히 보여 준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무질서한 집단으로 두지 않으시고, 말씀을 맡은 지도자를 통해 세우신다. 따라서 지도력은 선택 사항이 아니라 하나님의 설계다.

이 원리는 신약 교회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구약 전체를 관통하는 흐름 역시 하나님께서 백성을 지도자를 통해 인도하신 역사다.

모세와 아론

모세는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이끌어 낸 지도자였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공동체의 방향을 붙드는 중보자였다. 모세의 지도력은 완벽함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는 것과 책임 의식에서 나왔다. 그는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았고, 오히려 끊임없이 하나님께 묻고 의존했다.

특히 출애굽기 32장, 모세가 율법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가 있는 동안 지도력이 공백 상태가 되었을 때 벌어진 금송아지 사건은 매우 상징적이다. 백성은 단순히 우상을 만든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지도력의 부재를, 보이는 우상으로 대체했다.

모세에게는 그의 형 아론이 있었다. 아론은 대제사장 직무를 맡은 사람이었고, 말도 잘했고, 백성 앞에 설 수 있는 위치에 있던 사람이었다. 그러나 그는 백성을 이끌 리더십을 가진 사람은 아니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는 동안, 아론은 백성 앞에 남아 있었지만, 그들을 인도하지 못하고 그들에게 끌려갔다.

백성은 불안해했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대상을 요구했다. 그때 아론은 백성을 붙들어 세우지 못했다. 그는 “기다리라”고 말하지 못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고 선포하지도 못했다. 오히려 그는 백성이 하자는 대로 귀고리를 모으게 했고, 그 요구에 순응하여 금송아지를 만들었다. 더 나아가 그는 그것을 단순히 허용한 정도가 아니라, 제단을 쌓고 절기를 선포함으로써 그 일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우상 숭배 사건이 아니다. 이것은 리더십이 부재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다. 아론은 악한 의도를 가진 사람이었기보다, 사람을 두려워한 사람이었다. 그는 하나님보다 백성의 반응을 더 의식했고, 진리를 지키기보다 갈등을 피하려 했다. 그 결과 그는 백성과 하나가 되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까지 서게 되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본다. 지도자가 중립을 지킨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는 이미 잘못된 편에서 있는 것이다. 백성을 이끌지 못한 지도자는 결국 백성에게 끌려가게 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지도자는 결국 사람의 요구를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게 된다. 아론의 실패는 능력의 부족이 아니라, 영적 리더십의 부재였다.

출32장 사건은 지도력의 공백이 얼마나 빠르게 영적 타락으로 이어지는지를 보여 주는 분명한 사례다. 하나님 백성에게 지도력의 문제는 언제나 신앙의 문제와 직결된다.

여호수아

모세 이후 여호수아의 지도력도 같은 원리를 보여 준다. 여호수아는 군사적 능력으로 선택된 인물이 아니라, 모세 곁에서 말씀과 순종을 배운 사람이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반복해서 하신 말씀은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한 자가 되라”는 권면이었다. 그러나 그 담대함의 근거는 결코 여호수아 자신의 결단이나 자신감이 아니었다.

“너는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밤낮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모든 것에 따라 지켜 행하라. 그러면 내가 네 길을 순탄하게 할 것이며 그러면 내가 크게 성공하리라.”(수1:8) 지도자의 담대함은 능력에서 나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에서 나온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살아 있는 동안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겼다는 성경의 평가는 결코 우연이 아니다(삿2:7).

“백성이 여호수아가 살아 있는 모든 날 동안과 여호수아보다 더 오래 산 장로들 곧 주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행하신 그분의 모든 큰일을 본 자들이 살아 있는 모든 날 동안 주를 섬겼더라.”

느헤미야

바빌론 포로 생활 이후의 느헤미야 역시 지도력의 본질을 잘 보여 준다. 느헤미야는 제사장도, 대언자도 아니었지만, 무너진 성벽을 보고 마음이 먼저 무너졌다. 그는 행동에 앞서 기도했고 계획에 앞서 말씀을 붙들었다. 느헤미야의 지도력은 권한에서 나오지 않았다. 그는 왕의 신임을 받았지만, 그보다

더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의 사명을 인식하고 있었다. 그래서 외부의 방해와 내부의 분열 속에서도 그는 끝내 방향을 잃지 않았다. 느헤미야의 지도력은 사람들의 반응이나 상황의 압박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끝까지 붙드는 집중력에서 흘러나왔다. 그는 비난과 조롱, 위협 앞에서도 자신이 왜 이 자리에 서 있는지를 잊지 않았다. 느헤미야는 외부의 방해가 거세질수록 본질에 더욱 집중했다. 그는 문제에 반응하며 움직인 사람이 아니라, 사명을 기준으로 상황을 판단한 지도자였다. 그래서 방해는 있었지만 방향은 흐려지지 않았고, 위기는 있었지만 목표는 바뀌지 않았다. 느헤미야의 집중력은 냉혹함이 아니라 책임감에서 나온 집중이었고, 그의 결단은 독단이 아니라 공동체를 끝까지 붙드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그래서 느헤미야의 지도력은 능력보다 신실함, 기술보다 사명 의식이 드러나는 지도력이었다. 이처럼 성령의 지도자들은 공통된 특징을 가진다. 그들은 조직을 장악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먼저 다스린 사람들이었다. 지도력의 실패는 대부분 외부 환경 때문이 아니라 지도자의 영적 중심이 흔들릴 때 시작된다.

목자의 마음과 교회를 향한 책임

신약에서도 사도 바울은 교회를 향한 권면에서 언제나 지도자의 책임을 가장 앞에 두었다. 그는 교회에 문제가 생길 때 제도나 구조를 먼저 고치라고 말하지 않았다. 새로운 프로그램을 도입하거나 외형을 바꾸라고 권면하지도 않았다. 대신 디모데와 디도에 가장 먼저 요구한 것은 감독과 장로, 곧 목사의 자격이었다. 바울에게 있어서 교회의 문제는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문제, 그중에서도 지도자의 문제였다.

바울은 교회의 건강이 회중의 열심이나 헌신, 숫자나 재정에 달려 있다고 보지 않았다. 그는 교회의 방향과 안전이 지도자의 인격과 삶, 다시 말해 그 사람의 신실함에 달려 있음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교회를 세우는 방법으로 언제나 먼저 지도자의 삶을 점검하라고 명령했다. 이것은 교회의 모든 책임을 지도자에게 떠넘기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교회를 사람을 통해 다스리신다는 성경적 원리에 근거한 것이다.

사도행전 20장

이 사실은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불러 마지막으로 권면한 장면에서 가장 분명하게 드러난다. 에베소 교회는 현재 디모데가 목사로 있는 교회이다. 사도행전 20장은 단순한 작별 인사가 아니라, 바울 목회의 자기 해석이자 지도자들에게 남긴 유언과도 같은 말씀이다. 바울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한다.

“그러므로 너희 자신과 온 양 떼에게 주의를 기울이라. 성령님께서 너희를 그들의 감독자들로 삼으사 하나님의 교회 곧 그분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를 먹이게 하셨느니라.” (사도행전 20:28)

이 말씀에서 가장 먼저 주목해야 할 것은 명령의 순서다. 바울은 “양 떼를 살피라”고 말하기 전에, 먼저 “너희 자신을 살피라”고 말한다. 지도력의 출발점은 언제나 자기 점검이다. 자신을 살피지 않는 지도자는 결국 교회를 자신의 욕망과 성향으로 이끌게 된다. 바울은 지도자의 무너짐이 곧 교회의 흔들림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바울은 또한 교회를 이렇게 정의한다. 교회는 사람이 세운 단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이다.

이 표현은 목회의 무게를 단번에 드러낸다. 교회는 노력이나 열심의 산물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 실제 죽음의 대가로 세워진 공동체다. 그러므로 그 교회를 맡아 돌보는 일은 결코 가벼울 수 없다. 바울은 장로들에게 교회를 “관리하라”고 말하지 않고, “먹이라”고 말한다. 이것은 목자가 양을 살리는 책임을 지고 있다는 뜻이다.

바울은 이 권면을 하기 전에, 자신의 목회가 어떠한지를 먼저 상기시킨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내가 온전히 겸손한 마음과 많은 눈물로 주를 섬기고 숨어서 기다리는 유대인들로 말미암아 내게 닥친 시험들을 겪으며 주를 섬겼고”(행20:19)

바울의 목회에는 겸손이 있었고, 눈물이 있었으며, 시험과 고난이 있었다. 그는 사역을 즐기지만 한 사람이 아니었다. 오히려 그는 수없이 오해받았고, 배척당했으며,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견뎌야 했다. 고후6, 11장 참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사명을 가볍게 여기지 않았다. 바울의 지도력은 편안함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감당하는 자리에서 형성되었다.

그는 또 이렇게 고백한다.

“너희에게 유익한 것은 어떤 것도 숨기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보여 주었으며 공중 앞에서 가르치고 집집마다 다니면서 너희를 가르쳤으며”(20:20)

바울은 양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 말썽을 조절하지 않았다. 그는 듣기 싫은 진리도 숨기지 않았다. 왜냐하면 진리를 감추는 것은 양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양을 위협에 빠뜨리는 일이기 때문이다. 참된 목자는 양의 반응보다 양의 생명을 먼저 생각한다. 이것이 바울 목회의 핵심 태도였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이와 동일한 목회 심정이 데살로니가전서 2장에서 더 구체적으로 드러난다. 바울은 자신의 사역 방식을 설명하면서, 자신을 권위적인 지도자로 묘사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는 이렇게 말한다.

(살전 2:6-7)

바울은 자신을, 명령하는 존재가 아니라, 아이를 품고 돌보는 유모로 표현한다. 이것은 연약함의 고백이 아니다. 바울은 권위를 내려놓았지만, 책임을 내려놓지는 않았다.

그는 이어서 이렇게 말한다.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다정하게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의 혼도 너희에게 기꺼이 나누어 주려 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우리에게 소중하였기 때문이라.” (2:8)

여기서 바울은 목회의 본질을 가장 깊이 있게 드러낸다. 그는 복음만 전달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혼까지 함께 내어주었다고 말한다. 이것은 단순한 감정 표현이 아니다. 그는 시간과 체력, 명예와 안전, 심지어 생명까지 내어놓을 각오로 성도들을 섬겼다. 바울의 목회는 이론이 아니라, 삶 자체였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말할 수 있다. 목회는 기술의 문제가 아니다. 전략의 문제가 아니다. 목회는 사랑의 문제이며, 인격의 문제다.

예수님의 목회 사역

바울의 목회는 예수님의 선한 목자 사역을 이 땅에서 구체적으로 구현한 목회였다. 바울은 예수님을 전하는 데서 멈추지 않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목자가 되셨는지를 자기 삶과 사역 속에서 그대로 재현했다.

예수님께서서는 자신을 이렇게 선언하셨다.

“나는 선한 목자니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주느니라.”(요10:11)

예수님은 목자의 역할을 돌봄이나 보호 정도로 축소하지 않으셨다. 선한 목자의 본질을 자기 생명을 내어주는 희생으로 정의하셨다. 이 말썽은 비유가 아니라, 십자가에서 실제로 성취된 선언이었다.

예수님은 양들을 위해 말 그대로 생명을 주셨다.

바울의 목회는 바로 이 예수님의 목자상에 뿌리를 두고 있었다. 그는 자신을 교회의 주인이나 통치자로 여기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자신을 양들을 위해 내어주는 사람으로 이해했다. 그래서 그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해 “하나님의 복음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의 혼도 너희에게 기꺼이 나누어 주었다”고 말할 수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감정적 표현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적 목자상을 따르겠다는 고백이었다.

예수님께서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도 나를 아느니라..”(요10:14)

여기서 ‘안다’는 것은 정보의 차원이 아니라, 관계와 책임의 깊이를 의미한다. 바울의 목회가 바로 그러했다.

그는 성도들을 숫자로 보지 않았고, 사역의 결과물로 취급하지도 않았다. 그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알고 있었고, 그들의 믿음과 연약함을 자기 마음의 부담으로 안고 있었다.

또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세 번이나 “내 양들을 먹이라”고 명령하셨다(요21:15). 이 명령은 단순히 말썽을 가르치라는 의미를 넘어서, 양들의 생존과 성장을 책임지라는 부르심이다. 바울은 이 명령을

매우 진지하게 받아들였다. 그래서 그는 “유익한 것은 아무것도 숨기지 않고” 말씀을 전했으며, 때로는 눈물로, 때로는 경고로, 때로는 부드러운 권면으로 성도들을 먹였다.

바울의 목회는 예수님의 선한 목자 사역을 설명한 이론이 아니라, 그 사역을 살아낸 증거였다. 그는 예수님을 흉내 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랐다. 그는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고, 양들을 앞세웠으며, 끝까지 자신을 내어주는 자리에서 물러서지 않았다.

이 원리는 목사에게만 해당되지 않는다. 목사를 비롯해 집사, 지역 인도자, 교사 등 교회 안의 모든 참된 지도력은 권한이나 직함에서 나오지 않는다. 그것은 말씀에 대한 충성, 양들을 향한 책임,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의 두려움에서 나온다.

특히 교회가 서느냐 넘어지느냐의 문제는 결국 목사의 능력 이전에 목사의 신실함, 기술 이전에 목사의 마음과 인격에 달려 있다. 이 기초가 분명할 때, 비로소 목사의 자격과 목회의 원칙들이 제자리를 찾게 된다. 디모데전서 3장의 기준은 완벽한 사람을 찾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목사를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표준이다.

귀감이 되는 목회자들이 강조한 지도력과 목사의 중요성

교회가 서느냐 넘어지느냐의 문제를 이야기할 때, 우리는 흔히 시대를 탓하고 환경을 탓한다. 세상이 약해졌다고 말하고, 사람들이 변했다고 말한다. 그러나 교회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목회자들은 한결같이 다른 지점을 바라보았다. 그들은 교회의 문제를 회중에게서 찾지 않았고, 시대에게서 찾지도 않았다. 언제나 그들의 시선은 강단, 그리고 목사에게로 향해 있었다.

먼저 우리는 스펀전(1834-1892)을 떠올릴 수 있다. 스펀전은 수많은 사람을 모은 설교자였지만, 교회의 능력을 숫자나 열거에 두지 않았다. 그는 교회의 영적 상태와 강단의 상태를 분리할 수 없다고 보았다. 교회가 약해질 때 그 원인은 대부분 강단이 약해졌기 때문이며, 강단이 흐려질 때 교회는 반드시 함께 흐려진다고 보았다.

스펀전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것이었다.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게 선포되고 있는가?”

그는 프로그램이나 조직보다 설교자의 양심과 거룩함을 더 중요하게 여겼다. 설교자가 하나님 앞에서 무너지면, 그 설교가 아무리 유창해도 교회는 결국 병들게 된다고 보았다. 그래서 그는 설교 기술보다 설교자의 인격을 먼저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으로 마틴 로이드 존스(1899-1981)를 보자. 마틴 로이드 존스는 20세기 교회의 위기를 누구보다 날카롭게 진단한 인물이다. 그는 교회가 점점 세속화되고 약해지는 이유를 문화나 사회 변화에서 찾지 않았다. 그의 진단은 분명했다.

“강단이 말씀의 권위를 잃었기 때문이다.”

로이드 존스에게 있어서 교회의 중심은 언제나 강단이었고 그 강단을 책임지는 이는 목사였다. 그는 교회가 설교를 하나의 종교적 강연이나 동기부여의 수단으로 바꿀 때, 이미 영적 방향을 잃기 시작했다고 보았다.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이 아니라, 종교 행사를 관리하는 사람이 되는 순간, 교회는 더 이상 교회답지 않게 된다는 것이다.

그는 목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서지 않으면, 회중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없다고 보았다. 그래서 로이드 존스는 항상 이렇게 강조했다.

“교회의 위기는 목회의 위기이며, 목회의 위기는 곧 강단의 위기다.”

이러한 인식은 오늘날에도 그대로 이어진다. 존 맥아더(1939-2025) 역시 현대 교회의 혼란을 진단하면서, 그 책임을 목사의 역할에서 찾았다. 그는 교회가 진리를 타협하고 세상의 기준을 받아들이는 과정을 이렇게 설명한다. 교회가 방향을 잃는 것은 회중이 원해서가 아니라, 목회자가 분명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맥아더는 교회의 문제를 구조나 시스템의 문제로 축소하지 않았다. 그는 언제나 그것을 지도력의 문제로 보았고, 그 지도력의 핵심에 목사가 있다고 보았다. 목회자가 말씀을 분명히 가르치지 않을 때, 교회는 자연스럽게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게 된다. 이것은 목사를 높이기 위한 말이 아니라, 목사에게 맡겨진

책임의 무게를 말하는 것이다.

이 세 사람은 시대도 다르고 환경도 달랐지만, 놀라울 정도로 같은 결론에 도달했다.

“교회가 서느냐 넘어지느냐는 결국 강단에 달려 있고, 강단이 서느냐 무너지느냐는 목사에게 달려 있다.” 그들은 교회의 문제를 회중의 문제로 돌리지 않았다. 회중이 연약해지는 이유는, 먼저 목회자가 흐리멍덩해졌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그래서 그들은 언제나 목사의 인격, 목사의 양심, 하나님 앞에서 목사의 두려움을 강조했다.

이것은 인간 중심적 사고가 아니다. 오히려 성경적인 사고다. 사도 바울이 디모테와 디도에게 교회를 세우라고 말할 때, 그는 프로그램을 가르치지 않았다. 대신 감독과 장로의 자격을 길게 설명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제도보다 사람을 통해 다스리시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교회의 소망은 새로운 방법에 있지 않다. 교회의 소망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목사에게 있다. 말씀이 살아 있고, 양심이 깨어 있으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목사가 있을 때, 교회는 흔들리는 시대 속에서도 서 있을 수 있다. 이것이 고전 목회자들이 한 목소리로 증언한 지도력의 본질이다.

결론

“남자가 감독의 직무를 사모하면 선한 일을 사모한다”는 이 말씀은 참으로 옳은 말이다.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양 떼를 돌보려는 마음 자체는 분명 선한 소원이다. 그러나 성경은 사모함 자체만으로 감독이 된다고 말하지 않는다. 그 사모함에는 반드시 삶으로 검증된 인격이 동반되어야 하고, 그 인격은 교회 회중 앞에서 시험과 판단을 받아야 한다.

목사의 직무는 개인의 열망으로 취하는 자리가 아니라, 공동체가 보고 인정하여 맡기는 직무이다. 그러므로 목회는 “내가 하고 싶다”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회가 합당하다고 인정하는가”라는 질문 앞에서 결정되는 일이다.

하나님의 귀한 일을 잘 감당하는 좋은 목사들이 이 땅에 많이 나오기를 기도한다.

딤편 강해 10
목사의 조건과 자격:
16가지 표준 지침

딤편3:2-7

지난 시간: 딤편3:1,

교회에는 방향을 제시하고 책임을 지는 지도력이 필요하며, 바로 그 때문에 목사가 필요하다.

교회는 단순한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공동체이기에, 누군가는 말씀으로 인도하고 그 결과에 책임을 져야 한다.

그래서 “남자가 감독의 직무를 사모하면 선한 일을 사모한다”는 말씀은 분명히 참된 말이다.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양 떼를 돌보려는 소원 자체는 귀하고 선한 마음이다.

그러나 성경은 그 사모함이나 지도력의 열망만으로 목사의 직위가 주어진다고 말하지 않는다.

그 사모함에는 반드시 삶으로 검증된 인품과 신실함이 동반되어야 하며,

그 지도력은 개인의 바람뿐만 아니라 교회 회중의 분별과 판단 속에서 확인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목회는 “내가 하고 싶다”에서 시작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과 교회가 함께 인정할 때 맡겨지는 직무다.

이번 시간 < >

목사

신약 성경에 따르면 ‘감독’(bishop), ‘장로’(elder), ‘목사’(pastor)는 같은 직분을 가리킨다.

감독은 ‘감시하고 다스리는 자’(overseer)라는 뜻이며, 교회의 사역을 감독할 책임을 맡았다(사도행전 20:17, 28; 베드로전서 5:1-3).

‘장로’는 ‘나이 든 사람’을 뜻한다. 바울이 디모데전서 4:14에서 사용한 ‘장로회’(presbytery)라는 표현은 어떤 교단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디모데를 안수한 그 지역 교회의 장로 공동체를 의미한다.

장로와 감독은 같은 직분의 다른 명칭이며(디도서 1:5, 7), 이들은 영적으로 성숙하고 지혜와 경험을 갖춘 사람들이었다.

마지막으로 ‘목사’는 ‘목자’라는 뜻으로, 하나님의 양 떼를 인도하고 돌보는 사람이다(엡4:11).

디모데전서 3장의 감독 자격과 디도서 1:5-9의 장로 자격을 비교해 보면, 그 둘이 동일한 직분을 설명하고 있음을 쉽게 알 수 있다. 사도 시대의 교회 조직은 매우 단순해서, 목사(장로·감독)와 집사만 있었다(빌립보서 1:1). 각 교회에는 여러 명의 장로들이 있었고, 어떤 이들은 다스림(행정)을, 어떤 이들은 가르침을 맡았다(디모데전서 5:17).

여자 목사?

성경은 감독, 곧 목사의 직무에 대해 단수로도, 복수로도 말한다. 한 교회에 한 명의 목사가 있을 수도 있고, 여러 명의 목사가 함께 섬길 수도 있다. 이 부분에서 성경은 유연하다. 그러나 한 가지에 대해서는 매우 분명하다. 여자는 목사의 직무를 맡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것은 문화의 문제가 아니라 본문의 흐름 자체가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디모데전서 2장 11-12절에서 바울은 여자가 가르치거나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한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3장에 들어가 감독의 자격을 설명하면서 “남자가 감독의 직무를 사모하면”이라고 말하고, 3장 2절에서는 “한 아내의 남편”이라고 명시한다. 문맥상 이것은 우연이 아니다. 교회 직분에 대한 연속된 가르침이다.

그래서 성경대로 하려는 교회들은 이 문제에서 타협하지 않는다. 미국의 침례교회들, 남침례교회를 포함한 침례교 전통 전체는 여자를 목사로 세우지 않는다. 이것은 여성을 낮추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선택이다.

시대가 변했다고 해서 이 기준을 바꾼다면, 그것은 시대에 맞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것이 된다. 실제로 이 문제는 오래전부터 논쟁의 대상이었다. 지미 카터는 여자를 목사로 세우지 않는다는 이유로 침례교회를 탈퇴하며, 이를 인권 침해와 성차별의 문제로 보았다. 그러나 문제는

거기에 있다. 이것을 인권의 문제, 성 평등의 문제로만 보는 시각 자체가 하나님의 성품과 질서를 이해하지 못한 결과다.

성경이 말하는 역할의 구분은 가치의 차별이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동일한 존엄으로 창조하셨지만, 역할은 다르게 맡기셨다. 교회에서 목사의 직무를 남자에게 맡기신 것은 문화적 산물이 아니라, 창조 질서와 구속 역사 속에서 세워진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므로 이 문제에서 교회는 세상의 기준으로 변명할 필요가 없다. 우리는 사람을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교회는 시대의 압력 앞에서 방향을 바꾸는 곳이 아니라, 말씀 앞에서 자신을 굽히는 공동체다. 이 질서를 지킬 때, 교회는 세상과 다르되 왜곡되지 않고, 사랑하되 타협하지 않는 공동체로 서게 된다.

목사의 자격과 조건

나를 포함해서 3:2-7절에 있는 자격과 조건을 다 갖춘 목사는 없다. 다만 이것이 표준이기에 거기에 도달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감독은 지역 교회의 목사, 목사로 하겠다. 위어스비 주석 참조

1. 반드시 책망받을 것이 없고 (3:2)

이 말은 문자적으로 “붙잡을 만한 것이 없다”는 뜻이다. 즉 사탄이나 불신자들이 목사의 삶에서 어떤 한 부분을 붙잡아 교회와 복음을 공격할 수 있는 결정적인 약점이 없어야 한다는 의미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았다는 완전무결이 아니다. 성경은 그런 사람은 이 땅에 없다고 분명히 말한다. 그러나 목사는 반복적이고 고의적인 죄, 또는 공적인 수치가 되는 삶의 흔적을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된다.

목사는 개인 신앙인으로만 사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를 대표하는 위치에 서 있는 사람이다. 그의 말과 행동, 가정생활과 인간관계는 자연스럽게 교회 전체의 모습으로 비쳐진다. 그러므로 사소해 보이는 습관 하나, 말버릇 하나, 돈 문제 하나가 교회 전체를 향한 비방의 통로가 될 수 있다.

“책망받을 것이 없다”는 것은 사람들이 흠을 잡으려 해도 정당하게 잡을 수 없다는 뜻이다. 비난이 전혀 없다는 말이 아니라 비난이 근거를 갖지 못한다는 말이다. 목사는 세상 앞에서 방어적인 삶이 아니라, 검증을 견딜 수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것이 목사 자격의 출발점이며, 다른 모든 조건의 기초가 된다.

2. 한 아내의 남편이며 (3:2)

이 표현은 목사 직무가 남자에게 맡겨진 직분임을 전제하면서 동시에, 그의 가정생활이 정결하고 안정되어 있어야 함을 요구한다. 이는 단순히 결혼 여부를 묻는 말이 아니라, 결혼이라는 언약을 어떻게 대하고 지켜 왔는가를 묻는 말씀이다.

한 사람하고만 결혼하면 목사 자격이 있다는 말이 아니다.

또 이 말은 아내와 사별한 뒤 합법적으로 재혼한 것을 문제 삼기 위한 말이 아니다. 바울의 관심은 결혼의 횡수가 아니라, 결혼에 대한 태도와 현재의 삶의 상태에 있다.

성경 전체의 결혼 교리와 조화를 이루어 볼 때, 그 의미는 분명하다. 목사는 결혼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 사람이어야 하며, 가정을 책임 있게 지켜 온 사람이어야 한다.

가정을 끝까지 책임지지 못한 사람이 교회라는 더 큰 공동체를 책임질 수 있느냐는 질문 앞에서, 성경은 매우 엄격하다. 가정은 목사의 첫 번째 사역지이며, 그곳에서의 신실함은 결코 사소한 문제가 아니다.

3. 깨어 있고 (3:2) vigilant,

“깨어 있다”는 말은 잠에서 깨어나 낮에 열심히 활동한다는 뜻이 아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잠들어 있지 않은 상태, 즉 자신과 상황을 분별하며 늘 경계하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 목사는 사탄의 역사와 인간의 연약함을 모두 아는 사람이어야 하며, 특히 자기 자신에 대해 무지하지 않아야 한다.

깨어 있지 않은 지도자는 작은 타협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반복되는 경고 신호를 무시하다가 결국 큰 무너짐으로 이어진다. 많은 실패는 한순간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깨어 있지 않은 상태가

오래 누적된 결과다.

깨어 있음은 다른 사람을 감시하는 태도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살피는 태도다. 자신의 동기, 감정, 판단을 점검하며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지키는 사람이 깨어 있는 사람이다.

4. 맑은 정신을 가지고 있으며 (3:2)

원래 이 말은 술 취하지 않은 상태를 말한다. 술 취하면 분별력을 잃는다. 따라서 이 표현은 감정이나 분위기에 휘둘리지 않는 분별력을 말한다. 목사는 순간적인 감정, 사람들의 반응, 외부 압력에 의해 판단을 바꾸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 모든 상황에서 중심을 잡고 차분하게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

교회 사역에는 복잡한 상황과 어려운 결정이 끊임없이 찾아온다. 이때 맑은 정신을 잃으면, 옳은 판단보다 쉬운 판단을 택하게 된다. 목사는 급하게 말하지 않고, 성급하게 결정하지 않는 사람이어야 한다.

5. 행실이 바르고 (3:2)

이 말은 삶이 질서 있고 정돈되어 있다는 뜻이다. 신앙 고백과 일상의 삶 사이에 큰 간극이 없어야 하며, 말하는 진리와 사는 모습이 서로 충돌하지 않아야 한다. 가정과 교회에서 동일해야 한다. 행실이 바르다는 것은 외적인 단정함만을 말하지 않는다. 시간 사용, 인간관계, 말의 절제, 삶의 구조 전체가 질서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목사의 삶은 교훈 이전에 본이 된다.

6.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며 (3:2)

이 표현은 문자적으로 '낯선 이를 사랑하는 것'을 의미한다. 초대교회에서 이는 매우 중요한 덕목이었고, 오늘날에도 공동체를 세우는 데 필수적인 태도다.

목사의 가정과 삶은 닫힌 공간이 아니라 열린 공간이어야 한다. 이는 단순히 집을 자주 개방하라는 말이 아니라, 사람을 품고 받아들이는 마음의 자세를 말한다. 교회는 이런 환대 속에서 건강하게 자란다.

교회의 리더가 되려는 분들은 자기 집을 오픈하고 잘 초대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자기를 오픈할 줄 아는 사람, 신비에 갇힌 사람은 안 된다.

7. 가르치는 재능이 있고 (3:2)

말씀을 가르치는 것은 목사 직무의 핵심이다. 목사는 본질적으로 말씀의 교사이며, 말씀을 떠난 지도력은 성경이 말하는 목사가 아니다.

가르치는 재능은 말재주를 뜻하지 않는다.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바르게 전하며, 바르게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말씀 연구에 게으른 목사는 결국 교회를 약하게 만든다.

8. 자기를 술에 내주지 아니하며 (3:3)

목사는 개인의 자유를 주장하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를 대표하고 양 떼 앞에 서는 사람이다. 목사는 성도들의 양심과 교회의 덕을 먼저 고려해야 하는 위치에 있다. 술로 인해 판단력이 흐려질 가능성, 실족의 본이 될 가능성, 그리고 세상 앞에서 비방의 빌미가 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목사는 그것을 기꺼이 내려놓아야 한다. 강단에서 절제를 말하면서 삶에서는 술을 허용한다면, 말과 삶 사이에 간극이 생기게 된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단순한 개인 윤리 규정이 아니라, 목회자의 삶이 얼마나 철저히 절제와 분별 위에서 서 있어야 하는지를 보여 주는 기준이다. 목사는 자유를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기꺼이 자유를 내려놓고 교회를 지키는 사람이다. 이 점에서 "자기를 술에 내주지 아니하며"라는 말씀은, 목사에게 매우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요구다.

9. 구타하지 아니하고 (3:3)

이는 육체적 폭력뿐 아니라 공격적인 성향 전체를 포함한다. 말과 태도에서 위협적이거나 거친 모습이 드러나서는 안 된다. 목자는 양을 다루는 사람이지만, 힘으로 제압하는 사람이 아니다.

권위는 폭력에서 나오지 않는다. 참된 권위는 온유함과 신뢰에서 나온다.

10. 더러운 이익을 탐내지 아니하며 (3:3)

목사는 사역을 돈벌이의 수단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물질 문제는 지도자의 인격을 가장 쉽게 드러내는 영역 중 하나다.

돈을 대하는 태도는 곧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를 드러낸다. 목사는 이익보다 양심을, 소득보다 사명을 앞에 두는 사람이어야 한다. 목사의 사례비 등도 나이, 교육, 경륜, 가족 수 등을 고려하여 상식 수준에서 결정해야 한다.

11. 인내하고 (3:3)

교회 사역은 사람을 다루는 사역이기에 오래 참음이 반드시 필요하다. 목사는 즉각적으로 반응하기보다,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어야 한다.

비판과 오해, 느린 변화 속에서도 참고 견디는 태도는 지도자의 성숙을 보여 준다.

날이 갈수록 이것이 중요함을 느낀다.

12. 말다툼하지 아니하며 (3:3)

목사는 논쟁을 즐기는 사람이 아니라, 평화를 이루는 사람이어야 한다. 진리를 지키되 싸우는 태도로 지켜서는 안 된다. 딤후2:24

말다툼은 이기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결국 공동체를 약하게 만든다. 목사는 사람을 이기는 사람이 아니라, 공동체를 세우는 사람이다.

13. 탐욕을 부리지 아니하고 (3:3)

이 표현은 단순히 돈에 대한 욕심만을 말하지 않는다. 여기에는 명예에 대한 욕심, 영향력에 대한 욕심, 인정받고자 하는 욕심까지 포함된다. 목사는 무엇인가를 더 가지려는 사람이라기보다, 맡겨진 것을 충실히 관리하려는 사람이어야 한다.

탐욕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욕심은 판단을 흐리게 하고, 사람을 공정하지 못하게 만든다. 교회 안에서의 결정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목사 자신의 유익을 중심으로 내려지기 시작할 때, 그 교회는 이미 위험한 길로 들어선 것이다.

목사는 자기 확장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의 유익을 구하는 사람이다. 자신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보다,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을 기뻐할 수 있어야 한다. 탐욕을 다스리지 못한 지도자는 결국 사역보다 자신을 앞세우게 된다.

14.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기 자녀들을 모든 위업으로 복종시키는 자라야 할 것이며 (남자가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볼 수 있겠느냐?) (3:4-5)

성경은 목사의 자격을 말하면서 교회보다 먼저 가정을 본다. 이는 가정이 교회의 축소판이기 때문이다.

가정에서 질서와 사랑, 책임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면, 교회에서도 그것을 기대하기 어렵다. 자기 집을 잘 다스린다는 말은 권위적으로 억누른다는 뜻이 아니다. 사랑과 책임, 훈육과 본이 함께 있는 상태를 말한다. 자녀들이 완벽하다는 뜻도 아니다. 그러나 가정 안에 분명한 방향과 중심이 있어야 한다.

성경은 분명히 묻는다. “남자가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볼 수 있겠느냐?” 교회를 돌보는 일은 말과 행정 이전에, 삶으로 증명되는 일이다. 가정에서 실패한 리더십은 교회에서도 반복되기 쉽다. Steven Anderson 에

15. 초신자는 아니 되나니 (3:6)

목사는 충분한 시간 속에서 검증된 사람이어야 한다. 신앙의 연수가 곧 성숙을 보장하지는 않지만, 영적 성숙에는 반드시 시간이 필요하다. 급하게 세운 지도자는 쉽게 교만해질 수 있고, 교만은 곧 무너짐의 시작이다.

성경은 초신자가 목사가 될 경우 “마귀의 정죄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 마귀의 정죄는 교만 때문에 생겼다. 이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영적 전쟁의 문제다. 사탄은 특별히 지도자의 교만을 통해 교회를 무너뜨리려 한다.

그러므로 목사는 은사가 앞선 사람이 아니라, 인격이 먼저 다듬어진 사람이어야 한다. 눈에 띄는 재능보다, 오래 검증된 신실함이 더 중요하다.

16. 밖에 있는 자들로부터 좋은 평판을 받아야 하리니 (3:7)

목사의 삶은 교회 안에서만 평가되지 않는다. 성경은 분명히 교회 밖에 있는 자들의 시선까지 고려하고 말한다. 이는 세상의 눈치를 보라는 말이 아니라, 복음의 증언이 훼손되지 않게 하라는 뜻이다. 불신자들 사이에서 신뢰를 잃은 지도자는 교회 안에서 아무리 경건해 보일지라도, 교회의 공적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다. 사업 관계, 이웃 관계, 사회적 책임 속에서 드러나는 모습은 모두 복음과 연결된다.

성경은 이것이 “비방과 마귀의 울무”를 피하기 위함이라고 말한다. 지도자의 실족은 개인의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 그것은 교회 전체에 상처를 남긴다. 그러므로 목사는 교회 안팎에서 일관된 삶을 살아야 한다.

표준은 완벽한 사람을 찾기 위함이 아니라, 바른 방향을 제시하기 위함이다

디모데전서 3장 2절부터 7절까지 나오는 목사의 자격을 차분히 읽어 보면, 한 가지 분명한 사실에 이르게 된다. 이 모든 조건을 완벽하게 충족시키는 사람은 이 땅에 없다는 것이다. 책망 받을 것이 없고, 가정이 완전하며, 언제나 깨어 있고, 말과 행동에 조금의 흠도 없는 사람은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만약 이 기준을 “이 정도면 합격, 이 정도면 탈락”이라는 식의 체크리스트로만 이해한다면, 우리는 모두 좌절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성경이 이 기준을 주신 목적은 완벽한 사람을 찾아내기 위함이 아니다. 성경은 결코 “이 모든 조건을 이미 갖춘 사람만 목사가 될 수 있다”고 말하지 않는다. 오히려 성경은 교회 앞에 하나님께서 보시는 지도자의 표준을 분명히 세워 주신다. 이것은 시험 문제가 아니라, 방향 표지판이다.

하나님께서서는 교회를 아무 기준 없이 맡기지 않으신다. 동시에, 흠 없는 사람만 찾으시지도 않는다. 성경의 관심은 “완성된 사람”이 아니라, 어느 방향을 향해 가고 있는 사람인가에 있다. 이 자격들은 “너는 이만큼 완벽해야 한다”는 요구가 아니라, “이 방향으로 자신을 다듬어 가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의 자격들은 한 번에 충족되는 조건이 아니라, 목사나 교회 리더가 평생 붙들고 살아야 할 기준이다. 오늘 완벽하지 않더라도, 이 기준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다시 정렬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지도자다. 반대로 이 기준을 부담스럽다며 무시하거나, 시대에 맞지 않는다며 낮추어 버리는 순간, 교회는 기준을 잃게 된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다.

이 기준은 우리를 정죄하기 위해 주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 주어진 기준이다. 지도자가 이 기준을 잃으면, 교회는 반드시 흔들린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그러나 매우 엄격하게 이 기준을 제시하신다. 이 자격들은 교회를 억압하는 족쇄가 아니라, 교회를 지키는 울타리다. 그러므로 목사를 포함해서 우리는 다 이렇게 고백해야 한다.

“나는 이 모든 자격을 완벽하게 갖추지 못했다. 그러나 나는 이 기준을 버리지 않겠다.”

이것이 성경 앞에 서는 바른 태도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흠 없는 사람이 아니라, 표준 앞에 무릎 꿇는 사람, 그리고 그 표준을 향해 자신을 계속 다듬어 가는 사람이다.

디모데전서 3장 2-7절은 우리에게 불가능한 이상을 던져 좌절시키기 위한 말씀이 아니다. 그것은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를 보여 주는 하나님의 선명한 기준이다. 이 기준이 살아 있을 때, 교회는 사람을 높이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지 않으며,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 안에서 안전하게 세워진다.

딤편 강해 11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진리

딤편3:14-16

2025년 가장 의미 있는 일: 맥아더 목사님의 책 예배를 중심으로 23번에 걸쳐 예배에 대해 강해한 것, 시29:2, 주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분께 드리며 거룩함의 아름다움으로 주께 경배할지이다. 그 뒤 디모데전후서 강해 시작, 교회가 무엇인지 살펴보고 있다.

요즘 내가 바르게 교회를 인도하고 있는지 자문하고 있다.

나도 사람인지라 일주일에 세 번 설교를 준비하는 것이 버거울 때가 있다. 설교 주제가 정해지지 않을 때 힘이 든다.

그래도 창32:10을 기억하며 신실하게 살려고 노력한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보여 주신 모든 공훈과 모든 진리 중 가장 작은 것도 내가 감당할 수 없사오니 이는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르단을 건넜으나 지금은 두 떼나 이루었기 때문이니이다.

오늘 2026년 새해 첫 주일, < >, 교회, 진리, 예수 그리스도

교회란 무엇인가?

우리는 지금 사랑침례교회에 나오며 이 교회를 같이 하고 있다.

목사, 집사, 직책을 맡은 모든 분들, 교회 성도들은 지역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 계속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 짧은 단락에서 바울은 디모데를 만나러 가려는 소망과 함께(14) 그가 목회하는 에베소 교회를 세 가지 그림으로 설명한다.

1. 하나님의 집 (15절 상반절)

하나님의 교회는 한 가족이다. 여기서 ‘집’은 ‘가족’ 혹은 ‘가정’, ‘가문’이라는 말이다.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는 순간, 그는 즉시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요 1:11-13; 뵤전 1:22-25).

바울이 자주 사용하는 표현 가운데 하나는 ‘형제들’이다(딤편 4:6).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마1:1): 모두가 형제자매,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난 자들

바울은 디모데에게 지역 교회의 성도들을 자기 가족을 대하듯 대하라고 권면했다(딤편 5:1-2).

a. 지역 교회가 가족이기 때문에, 가정의 아이들처럼 성도들은 반드시 양육을 받아야 한다.

교회와 목사가 줄 수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영적인 음식과 음료이다.

이 음식과 음료는 성도들을 자라게 할 수 있는 양식이고 그것은 한 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말씀은 우리의 빵이며(마 4:4), 젖과 단단한 음식이며(고전 3:1-2; 히 5:12-14), 꿀과 같다(시 119:103). 목사는 다른 사람들을 먹이기 전에 먼저 자신이 말씀으로 양육받아야 한다(딤편 4:6).

교회는 각종 프로그램을 돌려서 단순한 숫자 증가로 자라는 것이 아니라, 영적 양육으로 성장한다(엡 4:11-16). 현재 릭 워렌의 새들백, 빌 하이블스의 윌로우 크릭, 조엘 오스틴의 레이크우드 교회, 힐송 교외 등 모두 무너지고 있다. 양식이 없어서

따라서 목사는 한 주 내내 시간과 에너지를 이 일에 써야 한다. 성도들에게 유익이 되는 것들을 공급하기 위해 애를 써야 한다.

성경 강해, 책 저술, 기도문, 교회 챗봇, 미디어 사역, 내부 문제 처리, 외부 투쟁

b. 가족의 아이들에게 징계가 필요한 것처럼 교회에도 사랑 안에서의 징계가 필요하다. 징계를 받지 않는 아이는 반역자나 폭군이 된다. 교회의 영적 지도자들은 반드시 징계를 시행해야 한다(고전 4:18-5:13; 고후 2:6-11). 어떤 때는 책망이면 충분하지만, 때로는 더 엄중한 징계가 필요하다.

c. 아이들에게는 격려와 본도 필요하다(살전 2:7-12). 영적 지도자들은 젖 먹이는 어머니의 온유함과, 사랑하는 아버지의 강함을 함께 지녀야 한다.

2. 이 집은 하나님의 교회(15절 중반절)

‘교회’라는 말은 헬라어 에클레시아(ekklesia)에서 나온 말로 그 뜻은 ‘모임’이다. 신약에서 이 말은

약 100회 가량 지역 교회, 곧 믿는 자들의 모임을 가리키는 데 사용된다. 이 단어의 본래 의미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다.

세상에는 다양한 종류의 ‘모임’이 있지만, 교회는 살아 계신 하나님의 모임이다. 교회가 하나님의 모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교회가 어떻게 다스려져야 하는지를 말씀하실 권리가 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로 값 주고 사신 기관이므로(행 20:28), 우리는 우리의 행실을 매우 조심해야 한다. 그래서 교회의 직분자들은 자기 이익을 위해 성도들을 억압하는 종교적 독재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벧전 5:3-5; 요삼 9-12의 디오드레베).

15절: 바울은 젊은 디모데가 하나님의 교회인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로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알기를 원했다. 목회서신들은 지역 교회의 질서를 위한 지침서이다. 최근 수십 년 동안 교회를 어떻게 시작하고, 세우고, 성장시킬 것인가를 말하는 수많은 책들이 출판되었고, 그중 일부는 유익한 조언을 담고 있다. 그러나 지역 교회를 다스리는 데 가장 뛰어난 조언은 바로 이 세 권의 영감받은 서신서, 즉 디모데전후서, 디도서 안에 있다. 젊은 목회자들, 사역의 연륜이 깊은 목회자들, 바울이 디모데와 디도에게 전한 가르침으로 자신을 충분히 적셔야 한다.

3.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 (15절 후반절)

에베소에는 127개의 기둥을 가지고 있던 다이애나 신전이 있었다. 기둥의 지름 1.2m(사람 두세 명이 팔을 벌려야 감쌀 수 있는 규모), 높이가 18m, 신전 크기 길이 137m, 너비 69m(축구장 105m, 68m, 이것의 약 1.3배), 고대 7대 불가사의 중 하나, 에베소 교회의 목사인 디모데에게 이 말은 특별한 의미가 있었을 것이다.

집을 지으려면 견고한 터(기초)가 있어야 하고 집을 지탱하는 기둥들이 있어야 한다.

지역 교회는 이러한 기초와 기둥이 되어야 한다.

그러면 교회는 무엇을 지탱해야 하는가?

진리이다. 그래서 이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다.

교회가 ‘기둥’이라 불리는 것은 진리를 드러내 보이는 사역과 관련되어 있다. 마치 기둥들에 진리로 여겨지는 글이 새겨져서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한 것처럼, 교회는 생명의 말씀을 높이 들어 세상에 보여 주어야 한다(빌 2:16). 지역 교회는 신실한 성도들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낸다.

‘터’로서의 교회는 진리를 세우는 기초 역할을 한다. 지역 교회들이 진리에서 떠나 타협하기 시작하면(딤후 4장 이하), 마귀는 그 틈을 타 전진한다. 때로는 교회의 지도자들이 죄와 배도에 맞서 단호한 태도를 취해야 한다. 이것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지는 못하지만, 주님을 기쁘게 한다.

참된 그리스도의 교회는 이 땅에 존재하는 한 반드시 교회는 진리를 지탱하고 유지하는 기능을 해야 한다. 더 엄밀히 말하면, 진리 자체가 교회의 기둥이며 터이다. 왜냐하면 진리가 사라지는 순간,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니기 때문이다.

가장 핵심적인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바울은 15절에서 교회를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규정한다.

그리고 16절에서 교회가 떠받치고 드러내야 할 ‘진리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말한다.

따라서 16절은 ‘그 진리가 무엇인가?’를 설명하는 정의문이다.

성경 문제: 개역: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은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리우셨음이니라

킹제임스: 논쟁의 여지가 없이 하나님의 성품의 신비는 위대하도다.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시고 성령 안에서 의롭다 인정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이방인들에게 선포되시고 세상에서 사람들이 믿는 분이 되시고 들려서 영광으로 들어가셨느니라.

이 문맥에서 개역성경처럼 ‘경건하게 사는 법’이 갑자기 튀어나올 여지가 없다.

교회가 붙들고 증언해야 할 객관적 진리가 나와야 한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서 말하는 'the mystery of godliness'는 흔히 생각하듯이 인간의 경건한 삶이나 윤리적 경건성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다. 여기서 godliness는 행위로서의 경건함을 뜻하는 단어가 아니라, 'godly'라는 형용사의 본래 의미대로, 하나님께 속한 성품과 특성, 곧 하나님다움 자체를 가리킨다.

바울은 이 '하나님다움'이 무엇인지를 바로 다음 문장에서 정의한다. 그것은 인간이 하나님을 닮아가야 할 경건의 모범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어떻게 자신을 계시하셨는가에 대한 선언이다. 그래서 그는 곧바로 이렇게 말한다.

"1.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시고, 2. 성령 안에서 의롭다 인정받으시고, 3.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4. 이방인들에게 선포되시고, 5. 세상에서 사람들이 믿는 분이 되시고, 6. 들려서 영광으로 들어가셨느니라.

이 여섯 문장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가리키며, 그분의 도덕적 삶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신적 정체성과 역사적 사역을 요약한다. 다시 말해, '하나님다움'의 내용은 곧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다.

1. 성육신의 신비, 요1:14,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특히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시고"라는 선언은 이 6 문장의 중심이며, 하나님의 성품의 신비가 무엇인지를 단번에 규정한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육신을 취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 곧 성육신이야말로 '하나님의 하나님다움'이며, 이것이 바로 위대한 신비이다.

'신비'라는 말은 본래 이방인들도 잘 아는 말로서, 그들은 자기들의 미신적이며 우상숭배적인 종교 안에 여러 신비들을 가지고 있었다. '신비'란 본래 기록하며 감추어진 것을 뜻한다. 이방인들은 또한 큰 신들과 작은 신들, 큰 신비들과 작은 신비들을 구분하였다.

그런데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이교도들의 신비와는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한 신비라고 말한다. 이 신비는 인간의 행위로 설명되거나 재현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자기 계시와 역사적 개입으로만 주어진 것이다.

그러므로 디모데전서 3장 16절의 핵심은 "우리가 어떻게 경건해질 수 있는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누구이시며, 그 하나님이 어떻게 자신을 드러내셨는가"에 있다.

바울이 "논쟁의 여지없이 이 성육신의 신비가 위대하다"고 말한 것은 인간의 종교적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이 사실,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실체적 계시가 너무도 위대하고 설명을 초월하기 때문이다.

요컨대, "하나님의 성품의 신비"의 포인트는 경건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하나님으로서 참 사람이 되어 오셨다는 사실이 바로 이 구절이 말하는 "위대한 신비"이다. 성육신의 이 교리는 한 하나님 안에 아버지, 아들, 성령님이 계신다는 삼위일체 교리 다음으로, 혹은 그에 못지않게 위대한 신비이다.

그러므로 이 신비, 진리는 모든 논쟁과 의심을 넘어서는 것이며, 확고하고 분명한 진리이다.

NIV, 개역 성경의 문제,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오신 것을 부인한다. (*)

'그는'과 '하나님은' 완전히 다르다.

2. '성령 안에서 의롭다 인정받으시고'라는 말: 비록 자기 백성인 유다 민족은 그분을 거절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령 안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으셨다. 이는 성령님께서 그분에게 능력을 주셔서 기적들을 행하게 하셨고 심지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자신을 일으키게 하셨기 때문이다(롬 1:4). 이런 분은 없으므로 이것 역시 위대한 신비이다.

3. '천사들에게 보이셨다'는 말은, 천사들이 그분의 수태를 선포했고(눅 1:32-33), 그분이 탄생하셨을 때 노래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눅 2:10-11), 시험받으신 후에 그분을 섬겼으며(마 4:11), 수난 가운데서 그분을 위로했고, 그분의 부활을 선포했으며(마 28:1-20), 승천하실 때에도 그분과 함께했음을 가리킨다(행 1:10). 이것 역시 위대한 신비이다.

4. '이방인들에게 선포되었다'는 것은 또한 하나의 큰 신비였다. 이 신비가 얼마나 컸던지, 사도 베드로조차도 환상으로 확증을 받기 전까지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믿지 못했다(행 10:1-48). 만국에게가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다(*).
5. '세상에서 사람들이 믿는 분이 되시고'라는 말은, 몇몇 어부들의 사역과, 예수님께서 유대 땅에서 행하신 일들에 대한 소문만을 통해, 온 세상이 그분을 자기들의 구원자로 받아들이고 믿게 되었다는 사실을 뜻한다. 이것 역시 다른 어떤 것 못지않게 큰 신비이다. 특히 그리스도의 교리는 인간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인간 본성의 성향과 욕망에도 전혀 맞지 않는 내용이었음을 생각하면 더욱 그러하다.
6. '들려서 영광으로 들어가셨느니라'는 말에서 그리스도의 부활이 따로 언급되지 않은 것은 부활이 그분의 승천에 필연적으로 전제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분이신지가 최종적으로 선언된 사건으로서, 그분의 승천을 마지막에 언급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 역시 위대한 신비이다.

결론

오늘 우리는 새해 첫 예배를 드린다.

앞으로 1년 동안, 아니 우리의 평생토록 우리가 교회로서, 하나님의 아이들로서 지키고 유지해야 할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이다.

이분은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지닌 유일한 분
그래서 이 신비는 모든 신비 중에 가장 위대한 신비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나?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신 성경, 바르게 번역된 성경을 통해서
그 성경이 바로 1611년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다.

올해 우리 앞에 여러 가지 난관이 놓여 있다.

1. 나라가 위협하다.
2. 교회와 성경 사역이 위협을 받고 있다.
3. 개인이 가지고 있는 특정한 어려움이 있다.
4. 이 모든 것 뒤에 우리의 원수 마귀가 도사리고 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길

인간의 모든 어려움을 알고 계시는 유일한 진리이신 예수님께 간구하고 그분을 신뢰하는 것
요14:6

우리가 교회로서 진리이신 예수님을 붙잡고 그분의 말씀들을 지키고 보존할 때
히13:5-6이 우리에게서 이루어지리라 확신하다.

- 5 너희의 행실을 탐욕이 없게 하고 너희가 가진 것들로 만족하라. 그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 6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분이시니 사람이 내게 무엇을 행하든지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하노라.

딤편 강해 1권
집사의 조건과 자격:
16가지 표준 지침

딤편3:8-13

지난 시간: 딤편3:1-7, 목사의 인격, 자격과 조건

세상적인 지식이 아니라 좋은 인품, 선한 양심을 가진 사람이 목사를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

내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의 교회, 회계보고 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고 목회해야 한다.

오늘 < >, 지난 주 위어스비 주석 참조, 위어스비는 훌륭한 목사. 목사의 16가지 자격과 조건
오늘, 집사도 위어스비를 참조해서 전하려고 한다.

집사 (디모데전서 3:8-13)

집사는 영어로 deacon이고 이것은 그리스어 ‘디아코노스’(diakonos)를 음역한 것으로, 그 뜻은 단순히
“섬기는 자, 종”이다.

집사는 구약 성경에는 없고 신약에만 나온다.

집사의 기원은 사도행전 6장에 기록된 것으로 보인다. 예루살렘 교회의 배급 문제,

예루살렘 교회는 오순절 이후 급속히 성장하여 많은 성도들이 공동체 안에서 생활하게 되었다. 사도들은
매일 가난한 성도들과 특별히 과부들을 위해 음식과 필요한 것을 나누어 주는 구제 사역을 시행하고
있었다. 그런데 히브리말을 하는 유대인 과부들에 비해 그리스어를 하는 유대인 과부들이 매일의
배급에서 소외되고 있다는 불평이 제기되었다.

이 문제로 사도들이 직접 음식 배급까지 맡게 되면, 하나님께서 맡기신 말씀 사역과 기도에 집중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이었다. 그래서 사도들은 온 회중을 불러 모아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두고 상을 섬기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고 밝히고, 공동체 안에서 ‘정직하다는 평판이 있고 성령님과 지혜가 충분한 일꾼
사람을 골라내서 이 일을 맡기자’고 제안했다. 교회는 이 제안에 동의하여 일꾼 사람을 선택했고,
사도들은 그들에게 인수하여 공식적으로 그 직무를 맡겼다.

그 결과 배급 문제로 인한 불평은 해소되었고 교회 안의 질서와 연합이 회복되었다. 동시에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념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 퍼지며 제자의 수가 예루살렘에서 크게 늘어났
다. 이 사건은 교회가 성장하면서 발생하는 실제적인 필요를 지혜롭게 해결한 사례이며, 목사를 돕는
직분이 말씀 사역을 보호하고 교회의 섬김 사역을 담당하기 위해 세워졌음을 보여 준다.

사도행전은 이들을 집사라고 명시하지는 않지만 그들의 직무를 보면 딤편 3장이 말하는 집사의 직무와
거의 같음을 알 수 있다.

집사들은 목회자와 교회를 돕는 사람들로서, 성도들의 삶의 행실을 살피고, 성도들 사이의 갈등을 조정하
며, 병든 자들과 가난한 자들을 방문하고, 교회 회의를 위해 필요한 사안들을 미리 준비하는 역할도
맡는다.

집사에게 목사와 같은 권위가 주어지지 않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충족해야 할 자격 요건들이
있다. 이런 자격을 다 만족시키는 집사는 없다. 따라야 할 표준으로 여기면 좋을 것이다.

1. 신중하며

집사는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어야 하며 본받을 가치가 있는 그리스도인의 성품을 지닌 사람이어야
한다. 그래서 집사는 자신의 책임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직분을 ‘신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grave’라는 말. gravity(중력), 사람이 무거워야 한다. 딤편3:4 목사의 자격, 자기 자녀들을
모든 위엄(gravity)으로 복종시키는 자라야 할 것이며,

신중하다, 중후하다는 말은 말과 행동, 몸가짐과 태도 전반에서 가벼움이 없고, 무게와 위엄이 있으며,
직분의 엄숙함을 드러내는 인격을 뜻한다. 사람들 앞에서 신뢰를 주는 품격이 있고, 말과 행동에
절제가 있으며, 경솔하지 않은 삶의 태도를 지닌 사람이라는 의미가 이 단어 안에 담겨 있다.
그러므로 말과 행동, 처신이 가벼운 사람은 집사를 하면 안 된다.

2. 한 입으로 두말하지 아니하고

집사는 이 집 저 집을 다니며 말을 옮기는 사람이 아니며 험담으로 관계를 흐트러뜨리는 사람이 아니다. 그는 한 사람에게에는 이렇게 말하고 다른 사람에게에는 정반대로 말하는 이중적인 언어 습관을 가진 사람이 아니다. 집사의 말은 언제나 일관성과 진실성을 지니며, 그래서 사람들이 그의 말을 신뢰할 수 있어야 한다.

이 점이 중요한 이유는, 집사의 사역이 단순한 행정이나 육체적 섬김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는 말을 통해 사람들을 설득하고 조정하며 이끄는 역할을 포함하기 때문이다. 집사는 성도들 사이의 오해를 풀고 갈등을 중재해야 하며, 가난한 자를 위로하고, 낙심한 자를 격려하며, 때로는 성도들에게 책임을 권면해야 한다. 이 모든 일은 권위가 아니라 신뢰받는 말을 통해 이루어진다.

만일 집사의 말이 상황에 따라 바뀌고, 사람마다 다르게 전달된다면, 그는 어느 누구에게도 신뢰를 얻지 못하게 된다. 그런 사람의 말은 설득력이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교회 안에 불신과 분열을 심을 위험이 있다. 반대로, 말에 있어서 정직하고 일관된 집사는 굳이 목소리를 높이거나 직분을 내세우지 않아도, 그의 말 자체가 무게를 지니게 된다.

그러므로 집사에게 요구되는 “한 입으로 두말하지 않음” 조건은 단순히 거짓말을 하지 않는 수준을 넘어, 사람을 세우는 언어를 사용하고, 공동체를 하나로 묶는 언어를 책임 있게 사용하는 성품을 의미한다. 집사는 말로 사람을 조종하는 사람이 아니라, 말로 신뢰를 쌓고 진리를 전달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이런 사람만이 교회 안에서 설득력을 가지고 섬길 수 있다.

3. 자신을 많은 술에 내주지 아니하며

집사 역시 목사처럼 교회를 대표하고 양 떼 앞에 서는 사람이다. 술은 판단력을 흐리게 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비방의 빌미를 줄 가능성이 크므로 집사는 술 마시는 것을 기꺼이 내려놓아야 한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단순한 개인 윤리 규정이 아니라, 집사의 삶이 얼마나 철저히 절제와 분별 위에 서 있어야 하는지를 보여 주는 기준이다.

집사는 특히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의 사정을 옹호하는 자이므로 가장 엄격한 절제의 본을 보여야 하며, 따라서 먹고 마시는 쾌락에 집착하지 않는 삶의 모범을 분명히 드러내야 한다.

4. 더러운 이익을 탐하지 아니하고 (8절)

집사들은 헌금을 관리하고, 교회 내에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재정을 분배하는 일을 맡는다. 이 과정에서 유혹이 따를 수 있으며, 돈을 훔치거나 사적인 목적에 사용할 위험도 있다. 교회의 재정 위원회는 반드시 돈에 대해 올바른 태도를 가져야 한다.

교회가 커지므로 목사, 사무원 등에게 교회 법인 카드가 주어진다.

법인 카드 사용 시 늘 주의해야 한다. 아들딸에게 카드를 주어 쓰게 하거나 교회 돈으로 자기의 것을 구매하는 일은 양심을 거스르는 행위이다. 도둑질이다. 그러므로 목사, 집사, 교회 행정 사무원 등 이런 데서 깨끗함을 유지해야 한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하며 두려운 심정으로 해야 한다.

OOO와 그 부인을 보라. 교회 목사나 집사, 성도는 이런 불신자들보다는 나아야 한다.

5. 순수한 양심 속에 믿음의 신비를 간직한 자라야 할지니라(9).

이것은 교리적으로 건전함을 뜻한다.

‘신비’라는 말은 ‘한때 감추어져 있었으나 이제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진리’를 뜻한다(구약과 신약).

믿음의 신비는 믿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숨겨져 있지만,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에게는 이해될 수 있는 진리를 말한다. 집사들은 기독교 교리를 이해해야 할 뿐 아니라, 순수한 양심으로 그것을 지켜야 한다.

위어스비의 말: 교회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회의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모든 결정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야 하며, 경건한 삶으로 그 결정을 뒷받침해야 한다.

나는 교회 헌법은 잘 알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잘 모르는 교회 직분자들을 종종 보아 왔다.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규칙과 정관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교회의 모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초대 교회의 ‘헌법’ 혹은 정관은 바로 성경이었다.
따라서 성경을 알지 못하는 집사는 지역 교회의 성장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집사는 하나님의 교회를 다스릴 수 없다.
여기에 또다시 순수한 양심이 등장한다.
양심이 더러워진 집사는 하나님의 교회를 맡을 수 없다. 어떤 사람이 인기가 많다거나, 사업에 성공했다
거나, 현금을 많이 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집사 자격이 있는 것은 아니다.
양심이 투명하고 순수해야 한다.

우리 교회 다수의 집사들, 나이가 55세 정도
사회에서 이사, 사장 등 중역을 맡아 사회 물정을 알고 있다.
상식적인 판단을 할 줄 알아야 한다.

6. 시험을 거쳐 입증됨 (10절)

이는 그들의 삶을 지켜보며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확인해야 함을 의미한다. 대부분의 교회에서 새
신자나 새로 등록한 성도는 시간이 지나면서 안내, 주차, 주방 봉사, 주일학교 봉사 등 여러
섬김으로 사역을 시작한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지도자들도 먼저 종으로 시험을 받았다. 요셉은 이집트에서 13년 동안 종으로
섬긴 후 나라의 두 번째 통치자가 되었다.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기 전 40년 동안 양을
쳤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종이었고, 다윗은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기 전 아버지의 양을 치고
있었다. 우리 주 예수님도 종으로 오셔서 목수로 일하셨고, 사도 바울은 천막을 만드는 사람이었다.
순서가 확실하다. 먼저 종이고 그다음에 지도자였다.

검증되지 않은 성도를 교회의 직분자로 세우는 것은 교회의 증언을 약화시킨다.

“누구를 집사로 세우면 교회에 더 잘 나오고 잘 섬길지도 몰라.”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무지함을 드러내는 말이다.

시험받지 않은 그리스도인은 준비되지 않은 그리스도인이다.

그런 사람에게 직무를 맡기면, 유익보다 해를 끼칠 가능성이 크다.

즉 한 사람의 과거 행적이 지금의 그를 나타낸다.

서리 집사가 있고 안수 집사가 있는 문제: 그렇게 해도 되지만 여기서의 검증은 집사를 세우기 전
그의 행적에 대한 검증을 뜻한다.

또 집사는 종신직인가? 목사는 종신직인가?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

교회의 필요와 개인의 사정에 따라 상식적인 수준에서 정하면 된다.

7. 경건한 가정 (11-12절)

집사든 목사든 아내는 그의 사역의 일부이다. 경건함은 반드시 가정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집사는 한 아내의 남편이다. 즉 남자만 된다.

어떤 사람들은 겐그레아 교회의 뵈뵈가 여집사였다(로마서 16:1, 디아코논)고 주장하는데 이 말은
사실이 아니다. 뵈뵈는 교회를 섬기는 종이였다.

시대가 변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불변한다. 딤후 2장 여자에 대한 명령 이후에 목사 집사가 나온다.
직분을 가졌느냐의 여부와 상관없이, 지역 교회는 경건한 여성들의 섬김 사역을 통해 발전되고 유지된
다. 주방 섬김, 교사 등, 우리는 직분이 없어도 섬길 수 있고, 은사를 사용할 수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한다.

집사 자매의 첫 번째 조건: 신중하며, 맑은 정신

‘한 아내의 남편’이라는 말은 또한 경건한 결혼 생활을 말한다.

집사의 아내 역시 그리스도인이어야 하며, 섬김 사역을 신중하게 여기고, 험뜯지 아니하고(힘담하지
않으며(문자적으로는 ‘마귀가 아닌 자; 곧 증상모략하는 자나 거짓 고소하지 않는 자), 모든 일에
신실해야 한다.

목사나 집사의 아내가 험담과 증상으로 교회에 끼치는 피해를 볼 때마다 마음이 아프다.

8. 일하려는 마음과 보상 (13절)

집사는 직무를 ‘취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용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여기서 ‘좋은 지위’로 번역된 그리스어는 군대의 계급, 기초, 사다리의 한 단계를 의미한다.

즉 집사는 이런 기초 혹은 계급을 직무를 수행함으로써 획득하는 사람이다. purchase라는 말 적극적으로 희생하고 섬겨서 그 지위를 구매하는 사람

사람들에게 인정받는다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 보상을 받는다라는 말이다.

신실한 집사들에게 큰 격려가 되는 말이다. 즉 하나님께서 그를 영적으로 “승진”시키시고, 성도들 사이에서 더 큰 존경을 받게 하시며, 더 많은 사역의 기회를 주신다.

신실한 집사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좋은 평판을 얻고, 교회를 세우는 데 하나님에 의해 쓰인다.

그는 자기의 섬김 사역을 가능하게 하는 영적인 담대함도 획득한다.

이 복에는 ‘영적인 승진’의 가능성도 포함될 수 있다. 집사가 목사가 되는 일도 얼마든지 가능하고 이것은 교회와 목사에게 큰 기쁨이다. (신약 교회에서는 목사들이 외부에서 수입된 인물이 아니라, 지역 교회 안에서 세워진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최초의 일곱 명 중에는 스테반과 빌립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고 선포하는 자들이 있었다.

우리 교회의 집사들 중에서도 이런 사람들이 나오고 심지어 목회를 하는 사람들도 나오기를 바란다.

목사는 직무 수행 전에 주변 사람들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집사로 선택되어 인정을 받으면 영적인 진보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집사에 대한 존중

집사 deacon은 직책을 말하지 호칭이 아니다.

김 집사님 대신, “우리 교회에서 집사 직무를 수행하는 김 형제님입니다.”

집사가 종신직이 아니므로 집사로 부르다가 그만 두면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집사라는 호칭을 쓰지 않고 집사 직을 수행하는 형제라고 한다.

이러다 보니 문제가 생긴다.

우리 교회 집사는 대부분 교회의 장로와 기능이 같다. 일반 교회 장로들에 대한 존중

그런데 형제라고 부르다 보니 존중심이 많이 떨어진다.

폐단: 목사 말을 들어야 옳고 그림이 판명이 나지 집사나 집사회의 말은 듣지 않겠다.

“나도 형제, 그도 형제, 왜 내가 그분 말을 들어야 하나?”

아니다! 목사 집사 모두 지역 교회를 위해 하나님이 허락하신 직분이고 기능이 다르다.

형제자매들 간에 발생하는 대부분의 일은 집사회가 처리해야 한다.

그러므로 집사를 존중히 여겨야 한다. 예수님과 그분의 몸 된 교회로 인해서

또 교회 안에는 세상적으로 뛰어난 재능을 보인 분들이 있다. 이런 분들이 좋은 인격과 재능을 가지고 교회에서 집사 등으로 섬기면 너무 좋을 것이다.

즉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세상일뿐만 아니라 교회 일에도 쓰면 좋을 것이다.

결론

지역 교회를 섬기는 일은 매우 엄숙한 일이다.

교회에는 목사, 집사 등의 공적인 직무 수행자가 있고 지역 인도자, 음악, 주방, 주차, 교회 학교 교사, 청소, 미디어 등 다양한 섬김 부서가 있다.

모두가 목사, 집사의 심정으로 교회를 섬기면 좋겠다.

“주인 의식은 갖되 주인 행세는 하지 않는다”는 심정으로

섬김 사역을 맡은 분들이든, 그런 일을 맡지 않는 분들이든 우리 각자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자신이 과연 하나님 앞에 합당한 종인지 스스로 마음을 살펴보아야 한다.

딤편 강해 13

마지막 때 마귀의 교리들: 결혼 기피와 음식 문제

딤편4:1-6

디모데전후서. 디도서는 목회자를 위한 목회 서신이다.

디모데전서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I. 교회와 목사가 전할 메시지 (1장)

- A. 건전한 교리를 가르침 - 1:1-11
- B. 복음을 선포함 - 1:12-17
- C. 믿음을 수호함 - 1:18-20

II. 교회의 구성원들 (2-3장)

- A. 기도하는 남자들 - 2:1-8
- B. 복종하는 여자들 - 2:9-15
- C. 자격 있는 목사들 - 3:1-7
- D. 자격 있는 집사들 - 3:8-13
- E. 교회란 무엇인가, 하나님의 집, 진리의 기둥과 터, 그 진리는 예수님 성육신의 신비 - 3:14-16

지금까지 12시간에 걸쳐 1-3장을 강해함

4장부터는 목사에 대한 이야기가 더 구체적으로 나온다.

III. 교회와 그 사역자 (4장)

- A. 잘못된 교리들을 고치기 위해 말씀을 선포하는 선한 목사 - 4:1-6
- B. 말씀을 실천하는 경건한 목사 - 4:7-12
- C. 말씀 안에서 성장하는 목사 - 4:13-16

오늘 < > 목사가 회피하지 않고 선포해야 할 말씀 중 하나, 위어스비 참조

거짓 교사들의 출현

지금 디모데가 목회하는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약 3년 동안 직접 목회했던 교회 사도행전 20장, 바울은 3차 선교 여행 마지막 부분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 직전 밀레도로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부른다.

그들에게 앞으로 닥칠 일을 말함(행20:29-30)

그는 거짓 교사들이 교회 안으로 침투할 것을 경고했다(사도행전 20:28-31). 그리고 5-6년이 지난 시점에 그들이 실제로 그 교회에 나타났다. 성령님께서 이 거짓 교사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하셨고 (1절), 그 예언은 바울의 시대부터 성취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것은 오늘날에도 분명히 성취되고 있다.

바울은 항상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한 것으로 여기며 믿음 생활을 했다. 그래서 늘 마지막 때라는 생각으로 살았다. 그리스도 이후로 마지막 때(히1:1-2)

1절 문맥은 1. 바울 이후 디모데 시절에 에베소 교회에 나타난 거짓 교사들의 일들

2. 또 동시에 예언의 이중성을 고려할 때 현시대 즉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 예언

거짓 교사들의 특징

1. 그들은 사탄과 그의 마귀들로부터 힘을 받는다(1절 상반절).

목회 서신 가운데서 유혹하는 영들과 마귀들이 언급되는 곳은 바로 여기뿐이다.

에스겔서 28장, 이사야서 14장, 요한계시록 12장은 루시퍼의 타락, 사탄 마귀, 그리고 그를 따르는 천사들이 타락한 것을 기록한다. 그 수는 모든 천사들의 3분의 1

이들은 성경에서 더러운 영들, 부정한 영들, 마귀들, 그리고 유혹하는 영들로 언급되며 사람들을 사탄에게로 이끄는 일을 한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 마귀의 일, 성도들의 마음을 부패시킨다.

4절: 그러면 교회 성도들이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수용하는 일이 생긴다.

13-15절: 사탄 마귀는 그리스도를 모방하며(고린도후서 11:13-15), 자기 사역자들과 자기 교리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을 속이고 유혹하려 한다(고린도후서 11:3).

그러므로 요일4:1, 6, 진리의 영과 오류의 영을 구분하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

사탄이 교회 안에서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 고백하는 사람들을 사용하여 자기 일을 한다는 사실은 어떤 이들에게는 충격일 수 있다. 그러나 사탄은 한때 예수님을 세 번 시험하여 쓰러뜨리려 하였고(마4장), 베드로를 사용하여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막으려 했으며(마태복음 16:21-23), 예루살렘 교회를 속이기 위해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사용했다(사도행전 5장). 그래서 이것은 결코 놀랄 일이 아니다. 고후11:14, 그것은 결코 놀랄 일이 아니니 사탄도 자기를 빛의 천사로 변형하느니라.

2. 거짓 교사들은 사람들을 유혹한다 (1절 하반절)

유혹하다: 피어서 정신을 혼미하게 하거나 좋지 않은 길로 이끌다.

그들의 목적은 성도들을 피어서 건전한 교리를 버리고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배교'이며, 이는 기독교 신앙의 진리로부터 의도적으로 돌아서는 것을 의미한다. 이 거짓 교사들은 교회를 세우거나 사람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께와 더 긴밀히 연결시키려 하지 않는다. 오히려 자기들을 따르는 제자들을 만들고, 자기 집단에 끌어들이며, 자기 프로그램을 확장하려 한다.

여기서 참된 교회와 이단 종파 집단의 차이가 드러난다. 참된 교회는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그들을 영적으로 세우려 하지만, 이단 종파 집단은 (신천지처럼) 다른 곳에서 개종자들을 빼앗아 자기 지도자들의 종, 심지어 노예로 만든다.

그래서 목사는 늘 자기를 돌아보고 성도들을 자기 제자들로 만들려는 의도가 있으면 회개해야 한다.

거짓 교사들, 유명한 교회 목사들이 교회 강단에서 거짓 교리를 가르치고 사람들을 미혹한다. 릭 워렌, 빌 하이בל스, 조엘 오스틴, 로버트 솔러 등, 구도자 교회, 성경이 아니라 사람들의 필요대로 무대를 꾸미고 그들의 입맛에 맞는 예배를 드리게 한다. 이것이 사람들을 유혹하는 것이다.

3. 그들은 위선자들이다(2절)

거짓 교사들은 말로는 이것을 가르치지만 삶에서는 전혀 다른 것을 실행한다. 이것이 위선이다. 겉 다르고 속 다르다. 이것은 한마디로 거짓말이다.

예수님이 오셔서 가장 크게 책망한 대상, 종교 지도자들, 그들의 죄는 위선이다(신약 약 30구절).

"너희가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마태복음 7:15-20).

좋은 나무 좋은 열매, 변질된 나무 변질된 열매

좋은 목사의 표지는 정직과 순전함이다.

정직: 그는 자기가 선포하는 말씀을 스스로 실천한다.

순전함: 죄가 없는 완전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에 스스로 순종하려는

진실한 태도를 뜻한다. 그는 선한 양심을 지키려고 애쓴다(딤후 1:5, 19), 순수한 양심; 3:9 '양심을 뜨거운 인두로 지졌다'는 말은 '양심이 마귀의 교리들로 지져져서 감각이 무뎠던 상태'를 뜻한다.

낙인: 쇠붙이로 만들어 불에 달구어 가죽, 노예, 가구 등에 찍는 기구

사람의 삶이 낙인이 찍혀 굳어지면 감각을 잃을 수 있는 것처럼, 양심도 무뎠질 수 있다.

우리가 입으로는 진리를 인정하면서 삶으로는 부인할 때마다, 우리의 양심은 조금씩 더 둔해진다.

예수님은 종교적인 말이나 심지어 기적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다(마태복음 7:21-29).

거짓 교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한다(3-5절)

1. 혼인을 금한다.

에베소 교회의 거짓 교사들은 동방의 금육주의를 가져와 결혼하지 않는 삶이 결혼하는 삶보다 더 영적이라고 가르쳤는데, 이는 성경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남자가 홀로 있는 것이 좋지 아니하다"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다(창세기 2:18). 예수님도 결혼을 승인하셨다(네 아버자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마태복음 19:19). 바울 역시 결혼에 대한 성경적 기초를 분명히 했다(고린도전서 7장).

물론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결혼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가르치셨고(마태복음 19:10-12) 바울도 혼자 사는 것이 '고유한 선물'이라고 가르쳤다(고전7:7).

그러나 성경은 전체적으로 결혼해서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가득 채우는 것이 인간의 기본 의무임을 보여 준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결혼 제도를 훼손하는 가르침을 경계해야 한다.

이런 금욕주의는 천주교로 들어가 사제들, 수녀들, 수도사들의 독신 제도를 만들어 하나님의 법을 위배하였다.

이것은 현시대에 대한 예언의 말씀으로 볼 때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이다.

마귀가 인간을 무너뜨리기 위해 도입한 정치 체제는 공산주의

공산주의자들의 특징: 건전한 가정,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

동성애, 페미니즘, 트랜스젠더, free sex, 다 결혼을 부인하는 것

지난 150년 정도 이런 추세가 유지되면서 거짓 교사들의 결혼 기피 작전이 성공을 거두고 있다.

특히 대한민국에서는 결혼하지 않는 현상이 이제 새로운 정상이 된 것처럼 보인다.

나는 지금 결혼하지 않은 분들을 징죄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예고된 말세의 사회 현상을 말하는 것이다.

일론 머스크의 말(*) 2026년 1월 8일

머스크는 인류의 미래에 관해 이야기하며 "한 나라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는 신호 중 하나가 아기용 기저귀보다 성인용 기저귀 판매량이 더 많아지는 순간"이라며 "한국은 이미 그 지점을 넘어섰다"고 말했다.

머스크는 "한국 출산율은 인구 대체율의 3분의 1 수준"이라며 "3세대만 지나면 인구가 지금의 27분의 1, 그러니까 현재 인구의 3%가 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한국을) 굳이 침공할 필요도 없다"며 "그냥 걸어 들어오면 될 정도"라고 밝혔다. 젊은 분들은 결혼하는 데 신경을 쓰기 바란다.

2. 음식 문제

에베소의 거짓 교사들은 특정 음식이 부정하다고 가르쳤고, 그것을 먹으면 영적이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모든 창조물을 "좋다"고 하셨다(창 1장).

그들은 음식 규정을 정함으로써 사람들을 지배하는 권력을 얻었다.

특히 현시대 마지막 때에는 육식을 피하고 채식만 해야 한다는 사상이 인기를 얻고 있다.

영성을 얻기 위해 채식을 강조하는 힌두교, 불교의 뉴에이지 사상에서 유래된 것이다.

4절: 하나님의 모든 창조물은 선하며 감사함으로 받으면 거부할 것이 하나도 없다.

음식 규정을 잘못 이해하면 안 된다. 음식 등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는 시대에 따라 발전해 가고 신약 성경이 종결되던 AD 90년에 확고하게 서서 변함이 없다.

1. 아담과 이브 시대: 채소류 채식(창세기 1장 29절)

2. 노아 홍수 이후: 육식 허용(창세기 9장 3-4절)

3. 모세 시대 유대인들: 돼지고기 금지 등 다양한 음식 규정(레 11장 4-8절 등 여러 곳)

4. 신약 바울 시대(이방인들의 시대): 음식의 제한이 없음, 딤후 4장 4-5절

하나님의 모든 창조물은 선하며 감사함으로 받으면 거부할 것이 하나도 없나니 이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그것이 거룩히 구별되기 때문이라.

따라서 채식과 육식, 혼합식 모두 가능하며 음식으로 인해 실족하는 일이 생기면 안 된다.

고린도 교회 음식 문제 폐단: 심지어 바울은 고기를 먹는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거침돌이 되면 영원히 먹지 않겠다고 하였다(고전8:13).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걸려 넘어지게 하면 나는 세상이 서 있는 한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가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하리라.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성경에 따라 채식, 육식, 혼합식 등 다양한 음식을 먹어도 된다.
다만 사람마다 체질이 다르고 노화 및 건강의 정도가 다르므로 개인이 스스로 자기 자신을 관리해야 한다.

음식의 기준은 사람마다 시대마다 다르다.

2026년 1월 8일 미국 식약청(FDA) 국장의 중대 발표, 로버트 케네디 보건복지부 장관(*), 농무부 진짜 음식을 먹어야 한다. 지금까지 알려진 것과는 완전히 다른 이론, 식단 지침(Dietary Guidelines)' 개정

현재 미국은 성인 70%가량이 과체중이거나 비만이며, 12-17세 사이 청소년도 3명 중 1명이 당뇨 위험군에 있다.

해결책: '저지방'을 강조했던 과거 지침은 획기적으로 변했다. '전지 유제품(우유, 치즈, 요거트 등)'을 건강한 지방과 비타민의 주요 공급원이라며 하루 3회 섭취를 권장했다.

조리 시 올리브유, 그리고 버터

근육량 유지와 대사 건강을 위해 기존보다 단백질 섭취를 많이 늘려야 한다.

특히 붉은 고기, 닭, 오리, 달걀 등 동물성 단백질을 많이 먹으라고 함

영적인 싸움을 하는 우리에게 동물성 단백질이 더욱 필요하다. 노아의 홍수 이후 허락됨

3. 그리스도인의 자세

성경 말씀을 믿고 아는 사람들은 율법주의자들의 "하라. 하지 말라"에 흔들리면 안 된다.

특정 음식을 영적 이유로 거부해서는 안 된다.

다만 우리의 자유가 연약한 형제를 실족시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로마서 14장).

우리가 먹는 음식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된다(딤후4:5).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는 평범한 식사조차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섬김으로 만든다(고전10:31).

적어도 세 끼 식사 기도는 해야 한다.

사람들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지 못하면 부끄러운 신자일 것이다.

선한 목사의 특징(6절)

목사는 성도들의 삶에서 일어나는 이런 일들을 말씀 선포로 기억하게 해야 한다.

거짓 교사들, 유혹하는 영들과 마귀들에게 속아 넘어가지 않도록

그 일을 위해서 먼저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과 교리로 충만히 채워져야 한다.

네가 도달한 믿음의 말씀들과 선한 교리의 말씀들(6절)

그러니까 목사는 창세기부터 요한 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조직적으로 이해하고 시대별로 말씀을 구분하고 연구하여 바르게 가르치려고 노력해야 한다.

딤후2:15

따라서 목사는 성도들에게만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읽고 배우고 연구한 믿음의 말씀들과 선한 교리의 말씀들로 양육받는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사역자가 되어야 한다.

즉 목사도 매일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과 교리를 아는 일에 발전해야 한다.

그런 사람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사역자라고 말한다.

사역자는 섬기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나는 나를 포함해서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말씀과 교리, 기도에 앞서가는 사람들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사역자가 되기를 원한다.

딤편 강해 14
중은 목사의 특징:
목사도 영적으로 성장해야 한다

딤편4:7-16

디모데전후서는 목회 서신, 특히 3장에는 목사의 조건과 자격 등이 나온다.

그리고 딤편 4장에는 목사에 대한 이야기가 더 구체적으로 나온다.

교회의 목사 (4장)

- A. 말씀을 선포하는 선한 목사 - 4:1-6
- B. 말씀을 실천하는 경건한 목사 - 4:7-12
- C. 말씀 안에서 성장하는 목사 - 4:13-16

지난 시간, 딤편 4:1-6, 마지막 때에는 결혼을 금하고 특정 음식을 먹으면 안 된다고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이 등장한다고 성령님께서 말씀하심. 이것은 마귀들과 유혹하는 영들의 가르침이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목사는 이런 교리들을 격파하고 성도들을 보호하기 위해 성경 전체를 연구하고 편견 없이 설교하고 가르쳐야 한다고 말한다.

이번 시간 < > 목사도 그리스도의 양, 그분의 말씀을 실천하며 영적으로 성장해야 한다.

오늘 설교는 위어스비, 목회자의 목회자의 주석을 많이 참조함, 나에게 적용하며

목사는 자기가 선포한 말씀을 실천해야 한다(7-12)

목회 서신은 목사를 위한 서신, 바울은 젊고 경험이 부족한 목회자 디모데에게 먼저 하나님의 성품에 이르도록 훈련해야 한다고 명한다(7).

그러면서 운동 경기 선수를 예로 보여 준다. 고대 그리스나 로마의 운동선수는 어떤 것들은 거부하고, 올바른 음식을 먹으며, 필요한 훈련을 해야 했던 것처럼, 그리스도인도(특히 목사는) ‘영적 훈련’을 실천해야 한다. 운동선수가 자기 종목에 쏟는 만큼의 에너지와 절제를 목사(그리스도인이)가 영적 삶에 쏟는다면, 훨씬 더 빠르게 성장하고 하나님을 위해 더 많은 일을 이루게 된다.

세 가지 영적 수준

바울은 여기서 목사와 성도의 세 가지 영적 수준을 말한다.

1. 무익한 것: “속된 것들 즉 늙은 부녀들의 꾸며 낸 이야기들을 따르는 수준”(7절 상반절).

속되다는 말은 하나님의 거룩함이 없다는 말이다.

‘늙은 부녀들’은 특정 성별이나 노인을 비하하려는 말이 아니다. 그리스-로마 세계에서 “늙은 부녀들의 이야기”는 이미 굳어진 관용적 표현이었다.

즉 가정에서 아이들에게 구전되던 미신·괴담·도덕 설화는 주로 노년의 여성들(할머니, 유모)을 통해 전달되었다.

속된 것들은 배교자들의 거짓 가르침과 전통을 가리킨다. 이런 교리들은 성경에 근거가 없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정면으로 모순된다. 즉 어리석은 사람들이나 논할 법한 그런 가르침이다. 분명 이것들은 이미 언급된 거짓 교리들(딤편 4:2-3)과 관련되어 있었을 것이다. 바울은 디모데후서에서도 같은 “꾸며낸 이야기들”(딤편 후 4:4)을 경고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런 헛된 것들을 거부하라고 명령한다.

이미 바울은 6절에서 디모데에게 “네가 도달한 믿음의 말씀들과 선한 교리의 말씀들”(딤편 4:6 하, 직역)에 충실하라고 권면하였다. 그는 또 “꾸며 낸 이야기와 끝없는 족보에 마음을 두지 말라”(딤편 1:4)고 경고했다.

목회자는 원수가 무엇을 가르치는지 알아야 하지만, 거기에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

예를 들어 뉴에이지 기법 등, 만트라, 초월 명상, 관상 기도, 요가 등의 기법이 있다.

그런 기법들이 어떻게 사람을 쓰러뜨리는지 이해하는 것은 좋은데 여기에 자신이 빠지면 안 된다.

2. 조금 유익한 것: 일시적이며 거의 유익이 없는 “육체의 훈련에 매진하는 수준”(7-8절). 이것 역시 운동 경기의 이미지다. 물론 우리는 몸을 돌봐야 하며 운동은 그 돌봄의 일부다.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될 하나님의 성전이며(고전 6:19-20), 그분을 섬기기 위한 도구다(롬 12:1-2). 그러나 육체의 훈련은 한계가 있다. 그것은 이 생애 동안만 유익하다. 반면에 하나님의 성품(경건이 아니라)은 지금과 영원에까지 유익하다.

3. 매우 유익한 것: 모든 일에 유익한 하나님의 성품에 이르는 수준, 하나님의 성품이란 한 마디로 성령님의 열매라고 생각하면 된다. 그것은 모든 일에 유익하다. 영원하다(갈5:22-23),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부드러움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들을 대적할 법이 없느니라.”
4. 바울은 디모데에게 육체의 훈련이나 하나님의 성품,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고 하지 않았다. 하나님은 우리가 둘 다 실천하기를 원하신다. 건강한 몸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쓰실 수 있는 도구이므로 잘 유지해야 한다. 동시에 우리는 거룩함, 하나님의 성품을 이루기 위해 애를 써야 한다.
5. 딤펬전 3장, 목사의 조건과 자격은 한 마디로 인품 혹은 인격이다. 그것을 바울은 여기서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이것은 영원한 것이다(다가올 생명의 약속을 가지고 있다). 위대한 설교 교사 필립스 브룩스는 “삶의 위대한 목적은 하나님의 진리에 의해 그분의 성품이 형성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하나님의 성품과 그에 따른 행실은 골프 트로피나 홈런 기록보다 훨씬 중요하다. 물론 둘 다 가질 수도 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운동선수가 자기 종목에 헌신하듯 하나님의 성품에 이르도록 헌신하라고 도전한다. 우리(목사든 성도든)는 영원을 위해 살고, 영원을 위해 수고한다.

영적 훈련의 유익

9절: 이것은 신실한 말이요 전적으로 받아들이기에 합당한 말이로다(딤펬전1:15).

이것은 8절 말씀, 즉 모든 사람이 받아들여야만 하는 진리이다.

디모데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삶 속에서 경건 훈련을 통해 실천하고 삶에 적용해야만 한다. 그 이유가 바로 9절이다. 즉 8절 말씀은 “신실한 말이며, 전적으로 받아들이기에 합당한 말이다”(딤펬전 4:9). 이러한 “신실한 말들”은 초대교회가 붙들었던 진리를 요약한 것이었다(딤펬전 1:15; 3:1; 딤펬후 2:11; 딤펬 3:8).

영적 훈련의 요소들(10-12)

1. 바울은 고전9장에서 자신의 목회 사역을 설명하고 24-27에서 여기와 비슷하게 운동 경기의 비유를 사용하여 경건한 삶에 필요한 절제를 강조했다. 운동선수가 자기 몸을 절제하고 규칙을 지켜야 하듯, 그리스도인은 몸을 주인으로 삼지 말고 종으로 삼아야 한다. 여름의 뜨거운 햇볕 아래서 선수들이 훈련하는 모습을 보면, 누구나 영적 훈련을 해야 함을 보게 된다.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들에게 속하나니 그들은 자기 감각들을 사용하여 단련받게 함으로써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히 5:14).” 기도, 묵상, 자기 성찰, 교제, 섬김, 희생, 다른 이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 증언 — 이 모든 것들은 성령님을 통해 성도를 더 경건한 사람으로 빛는 데 도움을 준다.
2. 그런데 영적 훈련은 쉽지 않다. 우리는 “수고하며 치욕을 당한다”(딤펬전 4:10 상). 하나님의 성품 측면에서 탁월해지기를 원하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진지하게 수고하고 노력하며 심지어 치욕까지 당해야 한다. 중세 암흑 시대, 프랑스 왈도파, 영국 위클리프와 롤라드, 체코의 얀 후수와 후스파, 그 뒤 재침례교도들, 성경 신자들, 모두 하나님을 신뢰하였기에 치욕을 당하며 수고하였다.
3. 바울이 신뢰한 그 하나님은 누구인가? 살아 계신 하나님이다. 바울은 고통과 고난 속에서도 살아 계신 하나님의 보상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뎌다.
4. 바울은 또한 디모데에게 그 하나님이 바로 구원자이심을 상기시킨다(딤펬전 4:10).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심을 상기시킨다. 딤펬전3:16과 비슷한 구조
예수님이 “모든 사람의 구원자”라는 말은 모든 사람이 자동으로 구원받는다(의미(보편구원론)가 아니다. 바울은 곧바로 ‘그분이 특히 믿는 자들의 구원자’라고 덧붙인다. 사람의 혼을 구원하는 것은 믿음이다(엡 2:8-10).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며(딤펬전 2:4),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자신을 주셨다(딤펬전 2:6). 그러므로 어떤 죄인이라도 그리스도를

신뢰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의 구원자”이므로 누구도 절망할 필요가 없다. 바로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기 때문에 성도들은 수고하고 치욕도 받아야 한다.

5. 목사든 성도든 이것들을 명령하고 가르쳐야 한다(11). 이것들은 7-9절 말씀.

명령이라는 말은 군사 용어로 “지시, 명령”을 뜻한다(딤후 1:3). 지역 교회는 하나님의 영적 군대의 한 부대이며,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권위와 확신을 가지고 선포하고 가르쳐야 한다.

6. 디모데는 젊다는 이유로(12절) 명령들을 가르칠 것을 거부하면 안 되었다. 오히려 그는 군대의 소대장처럼 담대하게 이런 것들을 명령해야 했다(11절).

7. 하나님의 성품에 이르는 훈련은 우리에게만 유익한 것이 아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도 유익하다(딤후 4:10-12). 그것은 우리가 좋은 본이 되게 하여, 다른 이들을 격려한다. 바울은 우리가 본이 되어야 할 여러 영역을 열거한다.

“말 면에서”(딤후 4:12)는 우리의 말이 항상 정직하고 사랑으로 가득해야 함을 뜻한다. 곧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는’(엡 4:15) 것이다.

“행실 면에서”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다스려져야 함을 시사한다. 우리는 디도서에서 바울이 묘사한 위선자들처럼 되어서는 안 된다. 딤후 1:16, 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고백하나 행위로는 그분을 부인하니 그들은 가증하고 불순종하는 자들이요 모든 선한 일에 대해 버림받은 자들이니라.

“사랑 면에서”(아기페)는 삶의 동기를 가리킨다. 우리는 사람에게 박수받기 위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마 6장),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기 때문에 본을 보여야 한다.

“영 면에서”는 하나님의 자녀 안에 있는 내적 열정과 생기를 묘사한다고 볼 수 있다.

영적 선물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영적인 말과 교제에 있어서, 그리고 영적 열심, 곧 하나님의 명예와 구원자의 영광, 그분의 복음과 진리와 규례들이 전파되고 보존되도록 하는 일에 대한 참된 열심을 뜻한다.

“믿음 면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께 신실함을 뜻한다. 참된 믿음은 항상 신실함으로 이어진다.

“순결 면에서”는 이 악한 세대에서 매우 중요하다. 에베소는 성적 부패의 중심지였고, 젊은 디모데는 많은 유혹에 직면해 있었다. 그는 교회 안의 여성들과 정결한 관계를 유지해야 했고(딤후 5:2), 마음과 생각과 몸을 순결하게 지켜야 했다.

성장하는 사역자, 말씀 안에서 성장함(4:13-16)

이 단락의 핵심 사상은 “네가 진보하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 드러나게 하라.”(딤후 4:15)이다. 여기서 진보하다는 말은 군사 용어로, “군대에서 맨 앞에 서는 군인들”을 뜻한다. 즉 부대 앞에 나아가 장애물을 제거하고 다른 이들이 뒤따를 수 있게 길을 여는 병사들을 묘사한다.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목사로서 디모데는 영적으로 성장하여, 온 교회가 그의 영적 진보를 보고 본받게 해야 했다.

인생의 법칙: 아무도 자신이 가보지 않은 곳으로 사람들을 인도할 수 없다.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라”(행 3:6)는 원리는 삶과 사역의 기본 원리다. 성장하지 않는 목회자(혹은 교인)는 사실상 뒤로 가고 있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정체가 없다. 삶과 가르침과 설교와 인도 등에서, 목사는 영적 성장이 분명히 드러나야 한다.

영적 진보의 요인들

1.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연구하는 데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13절). 말씀 사역은 다른 일을 다 한 뒤에 하는 부수적인 일이 아니라, 디모데가 가장 중요하게 해야 할 일이었다.

‘읽는 것’은 지역 교회 공예배에서의 성경 봉독을 의미하기도 하고 개인적인 성경 읽기를 의미하기도 한다. 15절의 네가 진보하는 것이라는 말은 개인적인 성경 읽기와 연구를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권면하는 것’(딤후 4:13)은 문자적으로 “격려”를 뜻하며, 말씀을 성도들의 삶에 적용하는 것을 가리킨다. 목회자는 말씀을 읽고, 설명하고, 적용해야 한다.

‘교리’는 “가르침”을 의미하며, 목회서신의 핵심 주제다. 이 열세 장 안에 “가르침” 혹은 “교리”에

대한 언급이 스무 번 이상 나온다.

목사의 자격 중 하나는 “가르치기를 잘하는 것”(딤후 3:2)이다. 잘 배우는 사람이 잘 가르친다. 성장하는 사역자(혹은 성도)는 반드시 말씀의 학생이어야 한다. 다른 이를 가르치기 전에 먼저 자신을 가르쳐야 한다(롬 2:21). 목사의 영적 성장은 양 떼에게 본이 되고, 다른 이들에게 격려가 된다.

2. 자신의 영적 선물을 사용해야 한다(14절). 기존 성경에 은사로 번역된 말은 그리스어 카리스마로, 단순히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운 선물’을 뜻한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성령님을 받았고(롬 8:9), 성령님으로부터 적어도 하나의 선물을 받았다(고전 12:1-11). 성령님의 선물과 선물은 회심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주신다(고전 12:13 이하).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떤 신자를 특별한 사역으로 부르실 때, 그 사역을 위해 특별한 선물을 주시기도 한다. 디모데가 장로들에 의해 안수를 받을 때,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선물을 받았다.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디모데는 자신의 성장과 사역에 꼭 필요한 이 선물은 제대로 가꾸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후서에서 “내가 안수함으로 네 안에 있게 된 하나님의 선물을 네가 불붙이게 하려고 너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노니”(딤후 1:6)라고 권면한다.

물론 그것이 어떤 선물인지는 잘 모른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뿐 아니라, 자신의 일을 하도록 우리를 갖추어 주신다. 우리 안에는 그분을 섬길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사역은 전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온다(고전 15:9-10; 빌 4:13; 딤후 1:12). 그러나 우리는 수동적이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선물을 가꾸고, 사용하고, 교회와 하나님이 두신 모든 자리에서 발전시켜야 한다.

3. 그리스도께 전적으로 헌신하라(15절). 이것들을 “목상하라”, 이것들은 바울의 교훈들 혹은 13절의 말씀 내용, 그것들을 목상하고 전적으로 그것들에 몰두해야 한다. 즉 “그것들 안에 거하라, 전적으로 자신을 바치라”는 뜻을 포함한다. 디모데의 영적 삶과 사역은 그의 인생을 지배하는 중심이어야 했지 가끔 하는 부업이 되어서는 안 되었다. 온전한 헌신 없이는 진영에서 앞장서는 군인이 될 수 없다. 목사도 사람이기에 취미 생활, 여가, 노후, 부동산, 시민 단체 활동 등에 시간을 쓸 수 있다. 그러나 목회를 신실하게 하려면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가르치고 설교하는 일에 전심을 다해야 한다.
4. 영적 점검을 해야 한다(16절). 목사든 성도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의 마음을 살펴야 한다. 바울이 “교리”보다 “너 자신”을 먼저 언급한 것을 주목하라. 그는 에베소 장로들에게도 작별 설교에서 같은 경고를 했다. “그러므로 너희 자신에게 주의를 기울이라”(행 20:28). 하나님의 좋은 다른 사람을 돕느라 자신과 자신의 영적 걸음을 소홀히 할 수 있다.

결론

나의 고백: 이것은 강해 설교이다. 담전3장에는 목사의 자격이 있고 4장은 좋은 목사가 실천해야 할 것들을 보여 주고 영적으로 성정해야 함을 보여 준다.

오늘 강해를 준비하면서, 내가 이 모든 조건과 자격 갖추지 못했고 더더욱 하나님이 말씀하는 바, 성장하는 목회자가 되기 위해 애를 쓰는 일에 심히 부족함을 느낀다.

그래서 나 자신이 하기 어려운 설교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강해하므로 하나님의 마음을 신실하게 전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가능한 한 나도 노력해야겠다고 다짐한다.

삶이 설교를 따라가지 못해 사역을 떠나는 목사들이 적지 않다. 도덕적 문제, 이혼, 부끄러운 행실들이 하나님의 많은 종들을 무너뜨렸다. 그래서 “선 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전 10:12)는 말씀을 기억하며 이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한다.

구원받은 자를 세우고 구원받지 못한 자를 얻는 것이 목회의 목적이며,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목사나 성도들 통해 효과적으로 일하시기 전에, 먼저 우리 안에서 일하셔야 한다(빌 2:12-13). 선한 목사, 성도는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실천하며, 말씀 안에서 진보를 이루어야 한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나와 같이 이 대열에 합류하기를 원한다.

딤편 강해 15
필립 양시의 불륜:
교회, 목사, 성도의 돌봄의 의무

딤편5:1-16

디모데전후서는 목회 서신, 특히 3장에는 목사의 조건과 자격 등이 나온다.

그리고 딤편 4장에는 목사에 대한 이야기가 더 구체적으로 나온다.

지난 두 시간, 교회의 목사 (4장)

A. 말씀을 선포하는 선한 목사 - 4:1-6, B. 말씀을 실천하는 경건한 목사 - 4:7-12

C. 말씀 안에서 성장하는 목사 - 4:13-16

오늘 < >, 교회 안에 세워진 돌봄의 질서

오늘 본문 디모데전서 5장 1절부터 16절까지는, 교회, 목사, 성도가 어떻게 사람을 돌보아야 하는지를 다루고 있다. 이 본문은 교회를 하나의 제도로 설명하지 않고, 하나의 가족으로 설명하면서, 그 가족 안에서 반드시 지켜져야 할 질서를 보여 준다.

딤편5장, 바울이 디모데에게 준 편지, 교회에 가르치라고.

교회 성도들이 형제, 자매, 과부, 목사들에게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오늘은 먼저 1-16절을 간략히 성경대로 강해하고, 2가지 중요한 토픽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려 한다.

교회 안에 세워진 돌봄의 질서(1-16)

1. 가족으로서의 교회(1-2)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한다. 목사의 힘든 직무 중 하나: 꾸짖는 것(Rebuke), 특히 연장자를 조언: 연로한 남자는 아버지처럼 대하고, 연로한 여자는 어머니처럼 대하라.

젊은 남자는 형제처럼, 젊은 여자는 자매처럼 대하되, 온전히 순결하게 대하라고 말한다.

이 젊은 두 절 안에 교회 이해의 핵심이 들어 있다. 교회는 먼저 조직이 아니라 가족이다. 직분보다 앞서는 것은 관계이며, 규칙보다 앞서는 것은 인격이다. 그러나 가족이라고 해서 아무렇게나 대하라는 뜻은 아니다. 오히려 가족이기 때문에 더 분명한 질서가 필요하다(항상 예의 있게).

바울은 연령과 성별에 따라 관계의 경계를 분명히 그어 준다. 여기에는 자연스럽게 성적 경계와 순결의 원리가 포함되어 있다. 교회 안에서 친밀함은 허용되지만, 무질서는 허용되지 않는다. 교회는 사랑이 있는 공동체이지만, 그 사랑은 항상 순결이라는 울타리 안에 있어야 한다.

2. 참 과부인 자들(3-10)

이제 바울은 과부 문제를 다룬다(현시대 구제 문제). 당시 교회에는 과부들이 맡는 직분이 있었는데, 이들은 집사들의 지도 아래 병든 자들과 연로한 자들을 돌보는 일을 담당하였다. 기독교 교회가 처음 형성되었을 때부터 과부들을 돌보는 일에 큰 관심을 기울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볼 수 있다. 그래서 교회는 사역 초기부터 이런 과부들을 돌보아 왔다.

바울도 분명히 말한다(3절). “참 과부인 자들을 존경하라.” 교회는 약자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바울은 동시에 매우 분명한 선을 긋는다. 교회의 돌봄은 무분별한 구제가 아니다. 감정에 이끌린 긍휼이 아니라, 분별 있는 사랑이어야 한다.

그래서 바울은 “참 과부인 자”의 조건을 제시한다.

돌봄의 기준: 꼭 과부가 아니라도 교회에서 도움을 주어야 하는 분들의 특징(5-6)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신뢰하는 사람(5-6),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한다.

의지할 데가 없는 사람인가,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인가, 경건한 삶의 열매가 있는 사람인가.

이 기준은 교회의 돌봄을 지속 가능하게 하기 위한 기준이다. 모든 사람을 다 책임질 수 없기에, 교회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대상에게 집중해야 한다.

7절: 여기의 그들은 여러 의미로 해석 가능, 1. 과부들(6), 2. 자식들, 3. 교회 직무 수행자들
2나 3이 맞을 것이다.

3: 8절의 핵심 선언: 이 단락의 중심에는 매우 무거운 선언이 있다.

“그러나 누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집 사람들을 부양하지 아니하면 그는 믿음을 부인한 자요 불신자보다 나쁜 자니라.”

이 말씀은 충격적이다. 바울은 가족을 돌보지 않는 것을 단순한 무책임이나 성품 문제로 보지 않는다.

그는 이것을 신앙의 부정이라고 말한다. 더 나아가,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고까지 말한다. 바울은 여기서 교회의 역할보다 먼저, 개인과 가정의 책임을 분명히 세운다. 교회가 대신해 줄 수 없는 책임이 가정에 있다는 것을 강하게 선언하는 말씀이다.

4. 또 하나의 기준(9-10절), 구제의 기준: “한 남자의 아내”였어야 하고, 가정을 잘 돌보았으며, 환대와 자선으로 좋은 평판을 얻은 사람이어야 한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원칙을 배운다. 과거에 넉넉할 때 선한 일에 힘썼던 사람들이 궁핍에 빠졌을 때, 그들을 특별히 돌보는 데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다.

즉 이전에 어려운 자들을 도울 수 있었던 사람이 이제 어려움에 처했을 때, 교회는 그를 도와야 한다.

곤경 중에 긍휼을 얻고자 하는 자는 형편이 좋을 때 긍휼을 베풀어야 한다.

5. 11-15절: 젊은 과부에 대한 지혜(읽고)

바울은 젊은 과부들에 대해서도 말한다. 여기서 우리는 바울이 냉정한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매우 현실적이고 목회적인 사람임을 본다.

선의로 도우려다 보면, 오히려 죄를 키울 수도 있다. 충분한 책임과 역할 없이 지속적인 도움만 줄 때, 게으름이 생기고, 쓸데없는 말과 방황이 생길 수 있다. 바울은 이런 위험을 분명히 경고한다.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은 이것이다.

교회는 선해야 하지만, 순진해서는 안 된다. 긍휼은 지혜와 함께 가야 한다.

12절: 구원을 잃는다는 말이 아니라, 죄책감을 얻는다. 처음 믿음: 5:5, 굳건한 믿음, 세상을 향해 죽어 있음, 하나님만 의지함 등

13절: 자매님들, 교회를 하다 보면 교회에 오는 분들도 있고 떠나는 분들도 있다. 교회 생활을 오래 하다 떠나는 분들 중 13절의 문제가 생기는 것을 많이 본다. 참 힘든 일이다. 특히 자매님들
핵심: 자기는 의롭고 교회의 나머지는 의롭지 않다. 다시 읽자.

교회를 떠날 때의 예절: 교회에 오고 교회를 떠나는 것도 믿음 생활, 성화의 일부분

크리스천으로서 신사답게 해야 한다. (*) 2018년 교회를 떠날 때 예절: 나의 예

5. 16절: 구제의 핵심 원리 요약

바울은 이 모든 내용을 한 문장으로 정리한다.

믿는 과부가 있으면, 자기 집에서 먼저 돌보라.

그래야 교회가 참으로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도울 수 있다고 말한다.

여기서 바울은 교회의 존재 이유를 분명히 한다.

교회는 가정을 대신하기 위해 존재하지 않는다.

이 질서가 무너지면, 교회도 무너지고 가정도 무너진다. 그러나 이 질서가 지켜질 때, 교회는 약자를 돌보면서도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

필립 안시의 불륜

“바울이 디모데에게 준 이 말씀은 단지 1세기 에베소 교회의 행정 지침이 아니다.

이 말씀에는 오늘 교회를 살리는 아주 중요한 균형의 원리가 담겨 있다.”

2저리 목사(모든 남자들)와 젊은 여인 문제

2026년 1월 6일, 필립 안시(1949)의 불륜 고백 이메일(*)

기독교 저자 필립 안시(Philip Yancey)는 크리스챤너터 투데이(CT)에 보낸 이메일 성명에서, 자신이 기혼 여성과 8년 동안 불륜 관계를 맺어 왔음을 고백하며, 글쓰기와 강연 활동에서 은퇴하겠다고 밝혔다.

안시는 1971년(22세)부터 수십 년 동안 CT에 기고했으며, 기자로 활동하다가 이후 정기 칼럼니스트와 편집 고문(editor at large)을 맡았다. *What's So Amazing About Grace?*를 포함한

그의 책들은 전 세계적으로 1,500만 부 이상 판매되었다. 그는 고통과 고난 속에서의 신앙에 대해 자주 글을 써 왔다.

얀시: Yes24 저자 평: 기독교 대학인 휘튼 칼리지 졸업. 예리한 관찰력과 필력을 지닌 작가로, 무엇보다 그의 저술에는 하나님과 영혼들을 깊이 사랑하는 마음이 묻어난다. 특히 그의 글은 경계선 신자들, 회의의 시선으로 교회를 바라보는 이들이 품고 있는 의문들을 잘 헤아리며, 수많은 이들을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오도록 이끄는 데 큰 역할을 했다.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IVP), 《내가 고통당할 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생명의말씀사), 《내가 알지 못했던 예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이상 IVP), 《기도하면 뭐가 달라지나요?》(포이에마)와 같은 책을 저술했다. 미국 ECPA(복음주의출판협의회)에서 골드메달리언을 여러 차례 수상했으며, 그의 책들은 지금까지 전 세계 40여 개 언어로 총 1,500만 부 이상이 인쇄되어 사랑받고 있다.

현재 76세인 얀시는 아내 재닛 얀시(Janet Yancey)와 55년 동안 결혼 생활을 해 왔다.

“나의 큰 수치로 인해 고백한다. 나는 8년 동안 기혼 여성과의 죄악된 불륜 관계에 고의적으로 관여했다. 나의 행동은 결혼에 대해 내가 믿어 온 모든 것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었다. 그것은 또한 나의 신앙과 내가 써 온 글들과도 전혀 일치하지 않았으며, 그녀의 남편과 양쪽 가족 모두에게 깊은 고통을 주었다. 다른 가족에 대한 존중 차원에서 더 이상의 세부 사항은 밝히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과 아내 앞에서 나의 죄를 고백했고, 전문 상담과 책임성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로 헌신했다. 나는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실패했으며, 내가 초래한 파괴 앞에서 깊이 슬퍼하고 있다. 나의 행동이 이전에 나의 글을 신뢰해 왔던 독자들을 실망시키게 될 것임을 알고 있다. 무엇보다도, 나의 죄는 하나님께 불명예를 가져왔다. 나는 깊은 후회와 회개의 마음으로 가득 차 있으며,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 외에는 설 자리가 없다.

이제 나는 55년간의 결혼 생활에서 신뢰를 회복하고 결혼을 회복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나는 스스로를 기독교 사역에서 자격을 상실한 자로 여기며, 이에 따라 글쓰기, 강연, 소셜 미디어 활동에서 은퇴한다. 대신, 남은 생애를 내가 이미 써 놓은 말들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데 사용해야 한다. 내가 상처 입힌 이들의 삶에 치유가 있기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또한 여러분의 용서—를 구하며 기도한다.”

얀시는 아내의 성명도 함께 전했다.

“나 재닛 얀시는 배신을 겪어 본 사람만이 이해할 수 있는 트라우마와 황폐함 속에서 말하고 있다. 그러나 나는 55년 반 전에 거룩하고 구속력 있는 결혼 서약을 했고, 그 약속을 깨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세상의 죄들, 필립의 죄까지도 대속하시고 용서하셨음을 받아들이고 이해한다.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용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바란다. 이 헤아릴 수 없는 트라우마 속에서도 말이다. 우리를 위해 기도해 달라.”

얀시는 2023년에 파킨슨병 진단을 받았다. 그는 이 질병이 자신을 서서히 무력화시키는 과정과, 아내가 돌봄의 여정을 준비해 온 이야기를 CT에 기고한 바 있다.

현재 그의 소셜 미디어 계정들은 삭제된 것으로 보인다.

바울이 젊은 목사 디모테에게 주는 충고(5:2), 젊은 여자들은 온전히 순결하게 자매처럼 대하라.

사실 이 말씀은 젊은 목사, 나이든 목사, 뿐만 아니라 남자 형제들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다. 자매님들도 조심해야 한다. 남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기독교와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욕을 주는 이런 행위, 물론 인간이 연약하기에 일어날 수 있다.

그의 가족 특히 아내가 회복되기를 바라며 그가 온전히 서기를 원한다.

그러나 이런 일을 보면서 늘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한다. 고전10:11-12

부모를 돌보지 않는 자는 불신자보다 나쁜 자(5:4, 8, 16)

오늘 우리는 현시대를 살아가며 점점 더 자주 마주하는 문제 하나를 생각해 보려고 한다. 바로 연로한 부모를 누가, 어떻게 돌볼 것인가 하는 문제다. 평균 수명이 길어지면서 부모를 돌보는 기간이 늘어나고 있다. 동시에 개인의 삶은 더 바빠졌고, 가족은 흩어졌으며, 책임은 제도와 사회로 이전되었다. 요양원, 복지 시설, 국가 제도가 자연스러운 대안처럼 여겨지는 시대다.

문제는 이것이다. “이런 변화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가이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5장에서 매우 단호한 말을 한다.

1. 자식들과 손자들이 효성을 보여야 한다. (5:4)
2. 자기 부모를 돌보지 않으면 불신자보다 나쁜 자 (5:8)
3. 교회가 아니라 자식들이 돌보아야 한다 (5:16)

바울은 예둘러 말하지 않는다. 단도직입적으로 단호하게 말한다.

그는 부모를 돌보지 않는 문제를 선택의 문제, 상황의 문제, 형편의 문제로 다루지 않는다.

바울은 이것을 신앙의 문제로 다룬다. 더 정확히 말하면, 믿음을 부인하는 문제로 다룬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한다.

“형편이 안 된다.” “여건이 어렵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러나 바울은 이런 말들 앞에서 멈추지 않는다. 그는 기준을 분명히 세운다. 그런 말로 부모를 돌보지 않는 사람은 불신자보다 더 나쁘다.

이 말은 너무 강하게 들릴 수 있다. 그러나 바로 그 강함이 이 말씀의 의도다. 바울은 부모 돌봄을 불신자도 알고 있는 도덕의 기준 아래로 떨어뜨릴 수 없다고 말한다. 신앙은 세상의 윤리보다 낫을 수 없다.

이 원리는 성경 전체를 관통한다. 출애굽기 20장에서 하나님은 십계명 가운데 이렇게 명령하신다.

“네 아버지와 네 어머니를 공경하라”(출20:12)

이 명령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명령들 가운데 가장 먼저 등장하는 명령이다.

하나님은 예배의 문제 이전에, 가정의 질서를 먼저 세우신다.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 6장 2절에서 이 명령을 다시 인용하며 말한다.

“(그것은 약속 있는 첫째 명령이니) 이것은 네 일이 잘되고 네가 땅에서 장수하게 하려 함이라.”

부모 공경은 단순한 도덕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달린 명령이다.

예수님께서서는 이 문제를 더욱 날카롭게 다루신다.

마가복음 7장 9-13절에서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고르반’이라는 관습을 책망하신다.

그들은 부모를 돕기 위해 써야 할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고 선언함으로써, 실제적인 부모 돌봄의 책임을 회피하였다.

예수님은 이것을 신앙으로 인정하지 않으셨다.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희가 너희 전통 곧 너희가 전해 준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효가 되게 하며 또 그 같은 일들을 많이 행하느니라”(7:13, 9)

부모를 외면한 채 드리는 예배 혹은 헌금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나 헌금이 아니다.

여기서 우리는 분명히 해야 한다.

부모를 돌보는 문제는 교회 봉사의 다음 단계가 아니다. 부모를 돌보는 문제는 신앙의 출발점이다.

신앙은 교회 안에서 먼저 증명되지 않는다. 신앙은 가정에서 먼저 증명된다.

부모를 버리고, 가족을 외면하면서 “나는 믿음이 있다”고 말할 수는 없다.

바울은 이것을 윤리 문제로 보지 않는다. 그는 이것을 믿음의 부인으로 본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불편하다. 그러나 불편한 말씀이야말로 우리를 살린다. 하나님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신앙적인 사람이 되기를 원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우리가 집 안에서 먼저 신앙적인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

부모를 돌보는 문제는 사랑의 옵션이 아니다. 신앙의 증거다.

부모를 외면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는 없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 각자의 가정과 마음을 비추는 하나님의 빛이 되기를 바란다.

딤편 강해 16
목사의 대우 문제:
청교도 목사 매튜 헨리의 조언

딤편5:17-25

디모데전후서는 목회 서신, 특히 3장에는 목사의 조건과 자격 등이 나온다.

그리고 딤편 4장에는 목사에 대한 이야기가 더 구체적으로 나온다.

지난 두 시간, 교회의 목사 (4장)

A. 말씀을 선포하는 선한 목사 - 4:1-6, B. 말씀을 실천하는 경건한 목사 - 4:7-12

C. 말씀 안에서 성장하는 목사 - 4:13-16

지난 시간 딤편5:1-16, 교회, 목사, 성도의 인간적 돌봄의 의무

오늘 < > ,

딤편 3장, 4장 목사의 인격, 자격, 조건 등 목사에 대한 엄격한 요구 사항들

오늘 딤편5:17-25에는 자격을 갖춘 목사를 교회가 어떻게 대우해야 하는가?

참 이것은 목사로서 설교하기 어려운 주제 중 하나이다.

그러나 강해 설교이므로 나에 대한 적용이 아니라 교회가 목회자에게 어떤 대우를 해야 하는지 하나님의 관점에서 전달하려고 한다.

주관적인 의견이나 강해가 되지 않도록 일단 17-25절을 매튜 헨리의 주석을 이용해서 설명하도록 하겠다.

매튜 헨리(1662-1714): 개신교 역사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청교도 계열 성경 주석가 가운데 한 사람이다.

그의 이름은 오늘날까지도 전 세계 교회에서 널리 사용되는 『Matthew Henry's Commentary on the Whole Bible』로 가장 잘 알려져 있다.

그는 성공회 국교 체제에 순응하지 않은 청교도·비국교도 전통 속에서 자랐고, 국가 교회 중심 구조가 아닌 성경 중심·양심 중심 신앙을 끝까지 고수했다. 이는 그의 주석 전체에 흐르는 중요한 신학적 배경이다.

매튜 헨리의 주석은 단순한 학문적 해설서가 아니라, 목회적·경건적 주석이라는 점에서 독보적이다.

① 신학보다 본문 중심

원어 분석보다 성경 문맥과 교리적 일관성을 중시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게 하는 방식(Scripture interprets Scripture)

② 목회적 적용이 강함

모든 본문을 삶·가정·교회·양심에 적용

“이 말씀이 오늘 성도에게 무엇을 요구하는가?”에 집중

매튜 헨리가 300년이 지난 지금도 읽히는 이유는 분명하다.

시대를 초월하는 성경적 상식, 인간 본성과 교회의 약함을 정확히 꿰뚫는 통찰

은혜와 책임을 동시에 붙드는 균형, 목회자와 성도 모두에게 적용 가능한 주석

그의 주석은 학자보다 설교자, 강단보다 양심, 제도보다 말씀을 중시한다.

이스라엘 대체 신학 등은 걸러서 보기 바란다.

매튜 헨리의 딤편5:16-27절 주석

I. 목회자의 부양에 관하여(17-18)

목회자가 존중을 받으며 유지되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17절).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두 배나 존경할 자로 여기되 특별히 말씀과 교리로 수고하는 자들을 그리 여길지니라. 여기서 ‘두 배나 존경’이란 곧 두 배가 되는 부양을 뜻한다. 이전에 받던 것보다 두 배이거나, 보통 목사들 혹은 다른 목사들이 받는 것보다 두 배라는 의미다. 특히 말씀과 교리로 더 많이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그렇게 해야 한다.

앞뒤 문맥이 이를 확증한다: 위어스비, 반즈 등 동일한 해석, 말로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두 배 존경의 존경은 3절 참 과부들을 존경하라는 말의 존경과 같다. 3절 존경은 부양하라는 말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듯이 이 글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디모데는 받아서 교회에 가르쳐야 한다. 당시 초대 교회 초반부에는 감독, 장로, 목사는 동일한 직분을 가진 사람에게 붙이는 호칭 교회 시대 초기에는 유대교 전통에 따라 복수의 장로들이 다스리고 가르쳤다. 유대인 중심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특별히 교회가 이방인 중심으로 되면서 지역 교회는 감독, 즉 목사와 집사들로 구성됨, 성경은 단수 복수 목사에 대해 따로 규정을 두지 않는다.

매튜 헨리의 말: 주목할 점은, 장로들이 다스렸고, 다스리던 바로 그 사람들이 말씀과 교리에 수고하던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이다. 즉, 어떤 이는 설교만 하고 다른 이는 다스리기만 하는 식이 아니었고, 한 사람이 동일하게 그 일을 감당했다. 대단히 중요한 점

그래서 가르치지는 않고 다스리는 일만 잘하는 장로(목사)들만 ‘두 배나 존경’을 받을 자로 여기라는 것은 이상하다. 바울 사도는 설교를 침례보다 더 우선시했고, 하물며 교회를 다스리는 일보다도 설교를 더 중하게 여겼을 것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초대 교회에는 설교하는 이와 다스리는 이가 따로 있지 않았고, 다스림과 가르침은 같은 사람들이 수행했다. 다만 이들 중 어떤 이들은 말씀과 교리로 더 많이 수고했고 그들을 더 존중히 여기하고 바울은 말한다.

즉 목사의 일은 주로 두 가지다. 곧 잘 다스리는 것과 말씀과 교리에 수고하는 것이다. 이것이 사도 시대 장로들, 곧 장로직의 핵심 사역이었고 현시대 목사들의 핵심 사역이다.

이 일에 게으르지 않고 수고한 이들에게 교회는 마땅히 두 배나 존경을 표해야 한다. 즉 그들은 두 배나 존경, 곧 존중과 부양을 받을 자격이 있다.

사도는 목사들의 부양에 관한 이 명령을 확증하기 위해, 얼핏 보면 무관해 보이는 성경 구절을 인용한다(18절). 이는 모세 율법의 여러 규례들, 특히 “너는 곡식을 밟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신 25:4)는 말씀에 담긴 깊은 의미를 보여 준다. 구약 시대에는 타작 대신 소로 곡식을 밟아 껍질을 벗겼는데, 그 소들은 일하는 동안 먹는 것이 허락되었다. 일할수록 더 먹을 수 있었다. 그러므로 말씀과 교리에 수고하는 장로들도 일을 열심히 할 수록 더 넉넉히 공급받아야 한다. “일꾼이 자기 품삯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마 10:10)는 예수님의 말씀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다음을 배운다.

- (1) 하나님께서는 율법 아래서도, 복음 아래서도, 자신의 일꾼들이 육신의 필요들을 잘 공급받도록 돌보셨다. 하나님께서 소를 돌보시는데, 하물며 자신의 종들을 돌보지 않으시겠는가? 소는 썩을 빵이 되는 곡식을 밟지만, 사역자들은 영원히 남는 생명의 빵을 나눈다.
- (2) 교회 사역자들의 넉넉한 생계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요, 또한 정당한 권리다. 바울의 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을 선포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살 것을 정하셨느니라(고전 9:14), 따라서 교회가 넉넉히 제공하는 것은 일꾼의 품삯과 같다. 사역자들을 굶주리게 하거나 충분히 공급하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훗날 반드시 문으실 것이다.

목회자에 대한 고발에 관하여(19)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 앞에서가 아니면 받지 말라.”(19절). 이는 목사가 어떤 죄로 고발될 때 적용해야 할 성경적 절차다.

반드시 고발이 있어야 한다. 떠도는 소문이나 불확실한 이야기가 아니라, 구체적인 혐의를 담은 고발이 제기되어야 한다. 또한 조사부터 시작해서는 안 된다. 즉 고발당한 사람들에게 스스로 무죄를 입증하게 하거나 자백을 강요하는 종교 재판식 관행과 달라야 한다.

바울의 가르침에 따르면, 먼저 고발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 고발은 신뢰할 만한 두세 증인의 증언이 없이는 받아들여야 안 된다. 또한 고발은 그들 앞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즉, 피고발자는 고발자들을 대면해야 한다. 사역자의 명성은 특별히 섬세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 명성을 조금이라도 손상시키는 일이 있기 전에, 제기된 혐의가 충분히 입증되었는지 매우 신중히 살펴야 한다.

전10:1, 죽은 파리들이 약제사의 향유에서 지독한 냄새가 나게 하는 것같이 작은 어리석음도 지혜와 명예로 명성을 얻은 자를 그렇게 만드느니라.

“죄짓는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다른 자들도 두려워하게 하라.”(20)

고발자든 피고발자는 공개적으로 죄를 지은 자는 공개적으로 책망하라는 뜻이다. 상처가 넓으면 약도 넓게 발라야 하며, 이는 그들의 넘어짐으로 인해 죄에 빠질 위험에 있는 다른 이들이 그 책망을 보고 두려워하게 하려는 목적이 있다.

여기서 우리는 다음을 본다.

- (1) 공개적이고 악명 높은 죄인은 공개적으로 책망받아야 한다. 죄가 공개적이었다면 책망도 공개적으로
- (2) 공개적 책망은 당사자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 율법 아래서도 공적인 범죄자에게 공개적인 형벌을 가한 이유는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악을 행하지 않게 하려는 데 있었다.

사역자의 안수에 관하여

“아무에게나 선뜻 안수하지 말라”(22절). 이는 사역자를 임명하는 일에 적용된다. 충분한 검증 없이, 은사와 은혜, 능력과 자격을 살피지 않은 채 성급하게 임명해서는 안 된다(초신자는 안 된다). 어떤 이들은 이를 사면(해벌)에 관한 말씀으로 이해한다. 즉, 교회의 징계를 받은 자들에게 너무 서둘러 손을 얹지 말고, 회개의 진정성이 충분히 입증될 시간을 두라는 뜻이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의 죄에 동참하게 된다. 교회의 징계를 너무 쉽게 풀어 주는 것은 죄를 묵인하는 것이며, 그 죄에 스스로 연루되는 일이 된다.

- ① 문맥 연결: 19-20절: 장로 고발과 공개 책망, 21절: 편파성 없이 판단, 22절: 성급함 경고 24-25절: 죄와 회개의 드러남, → 전부 ‘교회 권징과 판단’의 흐름이다.
- ② “다른 사람들의 죄에 참여하지 말라”(22)
이 말은 단순히 잘못된 사람을 안수했을 때만 해당되지 않고 회개되지 않은 자를 선불리 용납할 때도 그대로 적용된다.
- ③ 초대 교회의 실제 관행: 회복은 개인적 감정 문제가 아니라 공적 인정 행위였고 거기에는 안수·기도·공적 선언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았다.

교훈: 사역자의 성급한 안수나, 징계를 받은 자의 성급한 사면은 다른 사람의 죄에 참여하는 일이다(22) 하나님 은혜가 우리를 순결하게 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경계와 노력 가운데서 이루어진다.

사면에 관하여 (24-25절)

“어떤 사람들의 죄들은 미리 드러나 먼저 심판으로 가고 어떤 사람들의 경우는 죄들이 그 뒤를 따른다.”(24) 목회자들에게는 다양한 죄와 죄인을 다루는 데 큰 지혜가 필요하다. 어떤 사람들의 죄는 너무 분명하여 별도의 조사 없이도 교회의 징계 대상이 된다. 이런 죄들은 심판으로 앞서 간다. 반면 어떤 죄들은 철저한 조사 이후에야 드러난다.

회개의 증거 역시 마찬가지다. “이와 같이 어떤 사람들의 선한 행위들도 먼저 밝히 드러나며 그렇지 아니한 것들도 숨겨질 수 없느니라.”(25)

그러므로 누가 사면을 받아야 하고 누가 받아서는 안 되는지는 결국 분명해진다.

여기서 우리는 다음을 본다.

죄에는 은밀한 죄와 드러난 죄가 있다. 교회는 죄인들을 동일하게 다루어서는 안 된다.

교회 징계의 결과는 사람마다 다르다. 어떤 이는 징계를 통해 겸손해지고 회개하여 선한 행위가 드러나지만, 어떤 이는 그렇지 않다.

고칠 수 없는 자는 결국 드러난다. 하나님께서 어둠의 숨은 것들을 밝히시고 모든 마음의 계획을 드러내시기 때문이다.

디모데 자신에 관하여

직무에 대한 엄숙한 명령이다. “내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선택받은 천사들 앞에서 네게 명하노니 너는 어떤 것도 편파적으로 행하지 말고 편견 없이 이것들을 준수하라.”(21절).

목사가 사람을 차별하거나, 세속적인 이유로 한 사람을 다른 사람보다 앞세우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사역자들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자신의 직무에 대해 반드시 회계보고 해야 한다. 세속적

인 계산으로 편파적으로 사역했다면 화가 있을 것이다.
건강에 대한 권면이다. “더 이상 물만 마시지 말고 네 위장과 잦은 병을 위해 포도즙을 조금 쓰라.”(23절)
디모데는 감각적 쾌락을 절제하는 사람이었고, 체질도 강하지 않았다. 그래서 바울은 그의 위장과 잦은 병을 위해 포도즙을 조금 쓰라고 권한다. 어쩌면 그는 모든 포도를 금하는 나사르 사람처럼 살았을지도 모른다. 그래서 심지어 포도즙도 먹지 않고.

그의 건강을 위해 포도즙을 조금 마시라.

포도주로 보는 견해도 많다. 매튜 헨리도. 그러나 포도주가 위장과 병에 좋은지는 알려져 있지 않다. 더욱이 딤편3:3, 목사는 자기를 순에 내주지 않아야 한다. 여기의 술도 원래는 포도주이다. 감독 목사의 자격은 술과 별별하는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포도즙이 맞을 것으로 보고 또 좋은 포도주는 위장을 강하게 한다는 보고도 있다.

교훈: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자기 몸을 적절히 돌보기를 원하신다. 몸을 주인으로 삼아서도 안 되고, 노예처럼 혹사해서도 안 된다. 하나님을 섬기는 데 가장 합당하도록 사용해야 한다.

목사의 대우(사례)

내가 교회를 (2008년부터 2026년까지)18년 하면서 느낀 것

목사에게 가장 곤혹스러운 것: 사례비 후생 복지 문제, 또 성도들이 가장 관심을 두는 것이 이 문제이다. 성도들에게는 트라우마가 있고 목사에게도 있다.

대다수 성도들의 트라우마: 대형 교회 목사들의 비리, 독재, 공금 횡령 등 신문 기사

그런데 이것을 일반화하면 안 된다. 이런 특혜 목사는 전체 목사의 1%도 안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 목회자들 소득이 낮은 편임

1. 한국 목회자 월 평균 사례비는 216만 원 정도로 조사되었다.(*).

사례비 외 기타소득을 합친 총소득은 약 302만 원으로,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56% 수준이다. 특히 교인 49명 이하 소형 교회 담임목사는 월 평균 153만 원 수준으로 최저임금보다 낮다.

이는 교회 절반 이상이 소형 교회라는 현실을 감안하면 상당수 목회자가 저소득층에 속함을 시사한다.

2. 부목사 사례비 현실: 업무량이 많은데도 사례비가 너무 적다

부목사 월 평균 사례비는 약 260만 원대이며, 작은 교회일수록 적은 사례비를 받는 경향이 있다.

3. 한국 목회자 사례비는 일반 근로자보다 낮다는 연구

→ 한국 현실에서는 많은 목회자가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실증적 통계가 있다.

가장 큰 고민, 성장의 어려움, 경제적 어려움, 건강

목회자 10명 중 6명, ‘자녀가 목회자 되는 것 원치 않는다!’

미국도 사정은 비슷하다. 목사도 사람이다(지미 도드, 래리 맥누선), 이 책이 담고 있는 이야기는

목사들은 차마 입 밖으로 내어 말하지 못하는 것들, 하지만 집사든 성도든 교회를 섬기며 목사를 접하는 모든 사람들이 꼭 알아야만 하는 것들이다. 결국 목사들도 사람이다.

목사도 사람이다: 목회자 처우(2023년 4월 9일)

결론

“성경은 잘 다스리고 말씀과 교리에 수고하는 사역을 교회가 가볍게 여기지 말라고 분명히 말한다. 이것은 사역자가 자기 권리를 주장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 교회가 말씀 사역을 존중하도록 주신 질서의 말씀이다.”

목회자의 교육, 나이, 경력, 기여 등을 고려해서 교회는(집사회) 합리적으로 상식적인 선에서 목사, 교회 직원들의 사례비, 후생 복지를 결정해야 한다.

특히 가르치는 것을 잘하고 교회를 잘 다스려서 교회를 부흥시킨 목사는 두 배나 존중히 여겨야 한다. 또 성도들은 한 사람의 일방적인 주장에 의거하여 목사의 인격과 일을 망치는 데 동참하지 말아야 한다. 그것은 교회를 망치는 일에 동참하는 것이며 회계 보고해야 할 일 중 하나이다.

목사든 집사든 지역 인도자든 리더든 성도든 늘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상식선에서 합리적으로 교회 일을 처리하면 좋겠다. 그것이 모두를 위해 교회의 앞날을 위해 꼭 필요하다.

딤편 강해 17
하나님이 목적인가, 수단인가?
번영 복음, 기복 신앙, 오순절 신비주의

딤편6:1-10

디모데전후서는 목회 서신, 편지의 목적: 딤편3:15 자기의 아들 디모데에게 교회에서 이렇게 처신해야 한다는 것을 알려줌. 즉 이렇게 목회해야 한다.

그리고 그는 목사, 집사, 교회의 연장자들과 젊은 사람들 대하기, 또 과부들을 포함해서 교회가 도움을 주어야 하는 사람들 등을 다 설명함

오늘 < >

디모데전서 6장은 설교하기 쉽지 않은 본문이다.

돈 이야기, 사회 구조 이야기, 그리고 성도들 안의 거짓된 동기 이야기가 한꺼번에 나온다.

그래서 많은 경우 이 본문을 피하려 한다. 그러나 이 본문은 부수적인 문제가 아니라 핵심 문제다.

왜? 돈과 신앙의 문제가 교회 혹은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이다.

디모데전서 6장은 겉으로 보기에 종과 주인의 문제, 부와 재물의 문제를 다루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 구절들은 우리의 믿음이 무엇을 향하고 있는지, 신앙의 중심 동기가 무엇인지를 점검하게 하는 말씀이다. 이러한 문맥을 염두에 두고 이 장을 읽을 때, 본문은 단순한 윤리 지침을 넘어 신앙의 본질을 드러내는 강력한 경고로 다가온다.

주인과 종 문제(1-2)

바울이 편지를 쓰던 당시의 상황을 먼저 이해해야 한다.

여기서 종이라는 말은 주인의 소유인 노예를 말한다.

일부 역사가들은 로마 제국 인구의 절반가량이 노예였다고 추정한다.

이들 가운데 상당수는 교육을 받았고 교양도 있었지만, 법적으로는 사람으로 취급되지 않았다.

노예는 주인의 재산이었고 사회적·법적 권리는 전혀 보장받지 못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의 구원과 자유를 선포하는 복음의 메시지는 바로 이 계층에게 강한 호소력을 가졌고 그 결과 많은 노예들이 믿는 자가 되었다.

노예 성도들은 가사 노동에서 벗어날 수 있을 때마다 지역 교회 모임에 참석하여 교제했는데, 그곳에서는 노예라는 신분이 장애가 되지 않았다.

교회 안에서는 종과 자유인의 구분이 무너졌고,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두가 형제자매로 받아들여졌다(갈 3:28).

복음은 이들에게 전혀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은 단순히 주인의 소유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였고, 교회의 지체였다.

그러나 바로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했다.

어떤 노예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이 새로운 자유를 핑계로 삼아 자기 주인에게 순종하지 않거나 심지어 공개적으로 대항하기까지 했다.

그들은 영적 자유가 곧바로 사회적 신분의 변화로 이어져야 한다고 생각했다.

즉 5절처럼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이득이라고 생각함

그러나 바울은 이들이 반드시 배워야 할 한 가지를 분명히 한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영적 자유는 사람의 내적 신분과 하나님 앞에서의 위치를 바꾸지만, 사회적 위치를 즉시 지워 주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노예 제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러나 인간의 죄와 부패, 탐욕으로 인해 수천 년간 이어져옴

복음이 들어가서 이것을 몰아내는 데는 시간이 걸림, 역사는 1800-1900년이 걸림을 보임

1. 믿지 않는 주인을 둔 노예들(1절)

신앙의 자유를 잘못 인식하고 믿지 않는 주인에게 종이 대항하면 심히 부정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었다.

그러한 반항은 개인의 문제로 끝나지 않고, 복음 전체에 수치를 가져올 위험이 있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이름”과 그분의 교리가 모독을 받게 된다(롬 2:24).

만일 바울과 초기 선교사들이 사회 제도를 전복하는 구호를 앞세웠다면, 교회는 즉시 사회 질서를 무너뜨리려는 급진적 집단으로 낙인찍혔을 것이고, 복음의 진전은 심각하게 방해받았을 것이다.

2. 믿는 주인을 둔 노예들 (2절)

그러나 주인이 믿는 자일 경우에는 또 다른 위험이 있었다. 믿는 노예가 자기 주인을 믿는 형제라는 이유로 이용하려는 태도를 가질 수 있었기 때문이다.

“내 주인은 내 형제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동등하다면, 그가 나에게 이래라저래라 할 권리가 없다”라고 주장할 수도 있었다.

즉 5절처럼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이득이라고 생각함

이러한 생각은 겉으로는 복음의 평등성을 강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가정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심각한 혼란을 일으킬 수 있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 노예들이 믿는 주인을 더욱 존중하고 이용하지 말아야 하는지 이유를 제시한다.

첫째, 이 형제 됨은 영적인 특권과 관련된 것이지, 외적인 지위나 권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다.

자기 신앙을 핑계로 자신이 맺고 있는 관계 속에서의 의무를 부정하는 자들은 종교를 오해하고 남용하는 자들이다. 오히려 그들은 더 열심히 섬겨야 한다. 왜냐하면 그 주인들은 신실하고 사랑받는 자들이기 때문이다.

둘째, 순종을 통해 주인과 종 모두가 복음의 유익을 얻기 때문이다. ‘은택에 참여하는 자들’이라는 표현은 어느 한쪽만을 가리키지 않는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서로 섬길 때, 그 관계는 착취의 구조가 아니라 상호간의 복의 통로가 된다.

2절 끝: 디모데는 이러한 일들을 가르치고 권면하도록 임명되었다. 사역자들은 모든 성도에게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일반적 의무들만 설교해서는 안 되며, 각기 다른 관계 속에서 요구되는 구체적인 의무들 또한 선포해야 한다.

다른 교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다(3-5)

바울은 디모데전서를 시작하면서부터 이미 거짓 교사들에 대해 경고했고(딤후 1:3 이하), 그들의 위험한 가르침 가운데 일부를 직접 반박하기도 했다(딤후 4:1 이하). 여기서도 거짓 교사가 등장한다(3).

바울은 3절에서 ‘다른 식의 가르침 혹은 교리’를 언급한다.

무심코 보면 1-2절과 3-10절이 연결성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

그런데 1-10절의 전체 주제는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느냐, 혹은 영광을 받느냐에 대한 것이다.

1-2절은 이렇게 살아야 하나님의 이름과 복음이 비방을 받지 않는다.

3-10절: 이렇게 가르치고 살면 하나님의 이름과 복음이 비방을 받는다.

바울이 말하는 다른 교리는 복음의 방향을 틀어버리는 가르침이다.

그 결과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게 된다.

거짓 교리들의 특징:

1. 거짓 교리의 첫 번째 특징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말씀들과 하나님의 성품에 따른 교리”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점이다(딤후 6:3). 온전한 말씀들은 하나님의 성품을 따르는 삶을 낳는다.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건전한 말씀들의 틀”을 굳게 붙들어야 한다(딤후 1:13).

2. 거짓 교리의 구체적인 특징은 교만이다(4). 겉으로는 영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자기중심적이다. 이들은 말다툼과 논쟁을 즐긴다. 왜냐하면 진리를 따르기보다 이기고 싶기 때문이다. 결과는 언제나 같다. 시기, 다툼, 비방, 욕설, 악한 추측, 끊임없는 마찰이다.

3. 바울은 이 모든 왜곡의 핵심을 한 문장으로 꿰뚫는다(5). “그들은 하나님을 따르는 삶 즉 신앙생활을 이득의 수단으로 여긴다.” 여기서 문제는 단순히 돈이 아니다. 신앙의 목적이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의 이득 혹은 자기 성취로 이동한 것이다. 이 경우 하나님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 된다.

4. 대표적인 사례 신약의 기록 유다, 구약의 발람(민22-24장)은 이 구조를 가장 잘 보여 주는 인물이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보상에 기울어 있었다. 결국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부정하지도, 온전히 따르지도 못한 채 파멸로 향했다.

왜 바울은 이 문제를 편지의 마지막에 두었는가?

디모데전서의 앞부분에서 바울은 교회의 구조를 세운다. 직분자의 자격, 말씀 사역자의 삶, 목사와 성도의 관계를 차근차근 다룬다. 그러나 마지막에 이 문제를 둔 이유는 분명하다. 신앙은 단순히 이런 구조로만 유지되지 않기 때문이다.

사람은 교리를 고백할 수 있다. 제도를 따를 수도 있다. 그러나 이익이 걸리는 순간, 신앙의 진짜 주인이 드러난다.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에서(마6:24) 하나님과 맘몬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선언하셨다. 바울은 이 문제를 통해 성도들의 심장을 진단한다. 믿음 생활이 하나님을 향한 헌신인가, 아니면 어떤 이득이나 이익을 얻기 위한 투자였는가? 내 꿈을 이루기 위한 수단인가? 이 질문은 시대를 초월한다.

참된 이득에 대한 성경적 정의(6-8)

바울은 신앙생활의 '이익' 혹은 '이득'을 성경적으로 정의한다.

6절, 만족하면서 하나님을 따르는 삶, 그런 신앙생활이 큰 이득이라고 말한다.

그 이유가 7절이다. 우리가 이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음이 확실하기 때문이다. 이는 세상의 계산법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선언이다.

광야의 만나는 같은 교훈을 준다.

하나님은 날마다 필요한 것을 주셨고, 더 쌓으려는 마음은 불순종으로 드러났다.

이런 만족의 결과가 8절이다. “떡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우리가 그것으로 만족할 것이니라.”

여기서 만족함은 가난을 미화하는 개념이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나의 몫이 되셨다는 신앙 고백이다. 빌4:12-13

하나님만 있으면 충분하다는 믿음이 있을 때, 사람은 더 많이 가지지 않아도 무너지지 않는다.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이끄는 종착지(9-10)

9절의 '부유하게 되려는 자들'은 8절을 부인하는 사람들을 말한다. 즉 만족함이 없는 사람들 중요한 사실: 성경은 부 자체를 정죄하지 않는다. 아브라함, 다윗 등 부자도 많다.

그런데 성경은 사람이 탐욕을 부리며 부를 추구하려 하면 반드시 패망함을 보여 준다.

필요 이상으로 '부자가 되려는 자들'에게는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

이 마음은 사람을 시험에 빠뜨리고, 울무에 걸리게 하며, 해로운 욕심을 통해 결국 파멸과 멸망으로 끌고 간다.

그 이유가 10절이다. 무서운 말: 믿음에서 떠나는 일, 이러면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이득이라고 생각함 믿음에서 떠나는 일은 갑작스럽게 일어나지 않는다. 그것은 마음의 중심이 서서히 이동한 결과다.

현 시대 적용

바울이 경고한 문제는 1세기 에베소 교회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오히려 이 문제는 교회의 외형이 커지고, 자유와 선택지가 많아질수록 더 정교한 모습으로 반복되어 왔다. 바울은 이것을 “하나님을 따르는 것을 이득이라고 생각하는 것” 즉 '신앙생활을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수단으로 여기는 것'이라고 한 문장으로 정리했는데, 이 구조는 오늘날 교회 안에서 여러 형태로 되살아나 있다.

1. 기복 신앙: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 라는 단순화

사머니즘 기복 신앙은 가장 오래되고 가장 널리 퍼진 형태다. 이 신앙은 말한다. “하나님을 잘 믿으면 복을 받는다.” 겉으로 들으면 틀린 말처럼 보이지 않는다.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분이 라고 말한다. 문제는 복이 목적이 되고 하나님이 수단이 될 때 발생한다.

기복 신앙 안에서는 신앙의 질문이 이렇게 바뀐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가?”가 아니라, “이 신앙이 내 삶에 어떤 복(이득)을 주는가?”다. 그래서 고난이 오면 신앙은 즉시 흔들린다(마 13:22, 가시나무들 사이에 씨를 받은 자 또한 말씀을 듣되 이 세상 염려와 재물의 속임수가 말씀을 숨 막히게 하므로 열매 맺지 못하게 되는 자니라.

왜냐하면 하나님을 따른 이유가 하나님 자신이 아니라, 안정과 형통이었기 때문이다.

기억해야 한다: 하나님을 따르며 거룩한 백성으로 사는 삶이 목적이 아니라, 복을 얻기 위한 도구가 되는 순간, 신앙은 이미 방향을 잃는다.

2. 변영 복음: 신앙은 성공을 끌어오는 기술이 된다

변영 복음은 기복 신앙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간다. 여기서 복이 법칙이 된다.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잘된다”, “헌금하면 몇 배로 돌려받는다”, “긍정 선언이 현실을 바꾼다”는 논리가 등장한다.

이 구조에서 신앙은 더 이상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 아니다.

신앙은 결과를 보장하는 시스템이 된다. 하나님은 자기 성취의 공식이 된다.

그러나 바울은 분명히 말한다. 필요 이상으로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다(10).

변영 복음이 위험한 이유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붙들고 있으면서도 실제로는 다른 주인을 섬기게 만들기 때문이다. 겉으로는 신앙이 유지되지만, 중심은 이미 재물과 성공으로 옮겨진다.

3. 목적 중심 신앙: 목적이 하나님보다 앞설 때

목적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니다.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인간을 목적 없이 창조하지 않으셨다고 말한다. 그러나 현대 교회 안에서 목적이라는 개념은 종종 하나님을 가리키기보다 자기실현을 돕는 언어로 사용된다.

질문이 이렇게 바뀐다. “하나님이 누구신가?”에서 “내 삶의 의미가 무엇인가?”로 이동한다. 그 결과 신앙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이 아니라,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도구가 된다. 하나님은 목적이 아니라 목적을 이루는 힘으로 이해된다.

4. 구도자 중심 교회: 불편한 진리는 제거된다

구도자 중심 모델은 사람들을 교회로 초대하는 데 큰 효과를 보였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중요한 진리들은 점점 뒤로 밀려났다. 죄, 회개, 자기 부인, 십자가의 대가는 불편하다. 대신 위로, 공감, 실용적 조언이 중심이 된다.

구도자 신앙은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 아니라, 사람을 모으는 수단이 된다. 숫자와 영향력이 성공의 기준이 되고, 신앙의 깊이보다 반응의 크기가 중요해진다. 이러면 말다툼과 분열, 헛된 논쟁이 생겨난다. 신앙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결과이기 때문이다.

5. 오순절 신비주의: 능력과 체험이 신앙의 척도가 될 때

신비주의적 흐름에서는 성령님의 능력이 강조된다. 그러나 능력이 신앙의 기준이 되면 문제가 생긴다.

체험이 없는 성도는 부족한 사람처럼 느끼게 되고,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는 믿음이 약한 사람으로 오해받는다. 모두 방언해야 한다. 뒤로 쓰러져야 한다. No!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을 따르는 믿음을 능력이 아니라 만족함으로 평가한다(6).

신앙이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경험을 얻기 위한 수단이 될 때, 그것은 이미 방향을 잃은 경전이다.

결론

바울이 경고한 것은 돈 그 자체가 아니다. 그는 하나님을 따르는 삶이 어떤 이득이나 이익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바뀌는 순간을 경고한다. 하나님이 목적인가? 수단인가?

아브라함, 모세, 다윗, 예레미야 등을 보라

예수님,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하나이다, 하시니(눅22:42)

그래서 오늘 본문은 오늘 우리에게 묻는다.

나는 하나님을 따르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통해 무언가를 얻으려 하는가?

하나님을 이용하여 내 꿈을 실현하려 하는가?

이 질문 앞에 솔직하게 설 때, 우리는 다음 말씀을 들을 준비를 하게 된다.

“그러나, 오 하나님의 사람아, 너는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하나님의 성품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추구하라.”(11절)

딤편 강해 10
거짓 교사들을 물리치는 법
교회와 목사의 생존전략

딤편6:11-19

디모데전후서는 목회 서신, 딤편3:15 자기의 아들 디모데에게 교회에서 이렇게 처신해야 한다는 것을 알려줌. 즉 이렇게 목회해야 한다는 것을 글로 기록함. 3-5장 교회의 구조, 직분자, 사명 등 디모데전서 6장에는 돈 이야기, 사회 구조 이야기, 그리고 신앙생활의 거짓된 동기 이야기가 한꺼번에 나온다. 그래서 이 본문은 설교하기 쉽지 않은 본문이다.

그러나 편지의 결론이니 가장 중요한 부분

먼저 디모데전서 6장 1-10절에서 바울은 두 가지 문제를 동시에 다루었다. 하나는 종과 주인이라는 사회적 관계 속에서 복음이 어떻게 드러나야 하는가 하는 문제였고, 다른 하나는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이 어떻게 왜곡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였다.

종과 주인의 관계에서 바울이 강조한 것은 단순한 윤리가 아니라 복음의 명예였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가 어떤 자리에서든 하나님의 이름에 누가 되지 않게 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점이 핵심이었다. 이어서 바울은 곧바로 거짓 교사들의 문제로 넘어간다. 그들은 믿음 생활을 자기 성취나 이득의 수단으로 삼았고 복음을 돈과 결합시켜 교회를 병들게 했다.

교훈: “신앙이, 하나님이 아니라, 어떤 이익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바뀌는 순간 교회는 무너진다.” 오늘 < >, 거짓 교사들의 거짓 교리를 막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으려면 목사가 올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를 하고 본을 보여야 한다.

11-19절이 나오는 이유

디모데전서 6장 11-19절은 앞부분과 별개의 주제가 아니다.

바울은 6장 1-10절에서 교회 안의 병을 진단하고, 11-19절에서 그 병을 이길 처방을 제시한다. 앞부분은 “무엇이 교회를 무너뜨리는가”, 뒷부분은 “무엇이 교회를 세우는가”를 보여 준다. 그러므로 11-19절은 덧붙임이 아니라 결론이며, 경고의 뒤에 반드시 따라오는 명령이다. 이번 시간은 이런 대조를 통해 말씀을 강해하려 한다.

1. 11절의 “그러나 오 하나님의 사람아, 너는”은 글의 방향을 돌리는 공식이다

바울은 1-10절에서 거짓 교사들, 즉 마음이 부패한 자들, 신앙생활을 이득의 수단으로 여기는 자들, 부자가 되려는 욕망에 붙잡힌 자들에 대해 말한다. 바울은 그들의 특징을 매우 냉정하게 해부한다.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이 교회를 내부에서 무너뜨리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서 11절에서 갑자기 “그러나 오 하나님의 사람아, 너는”이라고 말하며 방향을 바꾼다. 이것은 단순한 화제 전환이 아니다. 바울이 의도적으로 대비를 세우는 문장이다.

“그들은 그런 사람들이지만 너는 그러면 안 된다.”

즉, 바울은 거짓 교리들로 인한 교회의 문제를 말한 뒤에, 곧바로 목회자 한 사람을 세워 그 문제와 맞서게 한다. 거짓 교사를 물리치는 가장 실제적인 방식은 논쟁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다운 삶을 지속함으로써 거짓의 동기를 드러내는 것이다.

바울은 교회를 지키는 일의 최전선이 디모데 같은 목회자에게 있음을 안다. 그래서 “그러나 오 하나님의 사람아, 너는”으로 진단에서 처방으로 옮겨 간다. 이때 처방은 프로그램이 아니라 인격이고, 제도가 아니라 영적 전쟁이다.

2. 앞부분은 “거짓 신앙생활 혹은 믿음”을 드러내고, 뒷부분은 “참된 신앙 생활 혹은 믿음”을 제시한다.

1-10절에서 바울이 겨냥한 핵심은 “신앙생활 = 이득의 수단”이라는 구조다. 여기서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따르는 삶이 아니라, 종교를 이용하여 무엇인가를 얻어내려는 외형적 신앙의 포장을 뜻한다. 그래서 바울은 4절에서 이런 사람들의 내면을 “교만”, “무지”, “논쟁, 말다툼”, “시기와 분쟁”으로 드러낸다. 5절: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이득이라고 생각함. 그들의 문제는 지식 부족이 아니라 동기 자체가 왜곡되어 있다는 점이다.

그러면 질문이 남는다. 참된 신앙생활은 무엇인가. 그 답이 11-19절에 나온다. 바울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요구되는 것이 무엇인지, 한 단어씩 구체적으로 보여 준다(11-12절), 피하라, 추구하라, 싸우라, 붙들라. 참된 신앙생활은 자기 이득을 추구하는 종교적 기술이 아니라, 죄와 거짓을 피하고 의와 사랑을 추구하며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인격적 삶이다.

따라서 1-10절만 설명하면 “하지 말라”로 끝나고 성도는 결국 공허해진다.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는 반드시 “그러나 너는”으로 넘어가 참된 신앙생활의 내용을 채워 넣는다. 이것이 문맥적으로 11-19절이 반드시 이어져야 하는 이유다.

3. 1-2절의 ‘관계 윤리’와 11-12절의 ‘인격 명령’은 한 줄로 연결된다.

앞부분에서 바울은 종과 주인의 관계를 말한다. 겉으로는 사회 구조 이야기지만 실제로는 “복음이 구원받은 사람의 태도를 어떻게 바꾸는가”를 보여 주는 말씀이다. 기독교는 사회 구조를 즉시 바꾸지 않지만, 구조 안에서 바르게 행동하게 한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종은 자기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지 않게 해야 한다.

바울은 이 원리를 목사인 디모데에게 적용해서 더 분명하게 설명한다. 디모데는 교회 안에서 말과 가르침과 삶으로 본을 보여야 하는 사람이다. 종이 사회의 자기 자리에서 복음을 드러내야 한다면, 목회자는 더더욱 목회하는 자기 자리에서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보여야 한다. 사회 관계의 질서를 말한 뒤, 바울은 곧바로 목회자의 인격과 싸움으로 이것을 끌고들어간다. 왜? 교회 공동체의 질서는 결국 지도자의 인격에서 무너지고, 지도자의 인격에서 세워지기 때문이다.

4) 3-10절의 ‘거짓 교사’와 11-16절의 ‘목회자’ 대비를 보라.

거짓 교사들은 교리의 언어를 사용하지만 목표는 교회가 아니라 자기 이익이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의 특징을 논쟁과 분열, 탐욕의 구조로 설명한다.

따라서 디모데를 포함한 모든 목사는 거짓 교사와 같은 길에 자신도 빠질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교만, 논쟁, 돈, 사람의 인정, 자리, 영향력은 디모데를 포함한 모든 목사에게도 유혹이 된다. 그래서 바울은 11절에서 디모데 개인을 붙들고 말한다. “너는 이것들을 피하라.” 여기서 “피하라”는 말은 단지 거짓 교사를 멀리하라는 뜻이 아니라, 거짓 교사들이 가진 죄의 원리, 곧 탐욕과 교만과 분쟁의 체질을 네 안에서 끊어 내라는 명령이다.

따라서 11-16절은 ‘거짓 교사’를 대적하기 위한 ‘목회자 개인의 영적 경계령’이다. 바울은 앞부분에서 경고를 주고 뒷부분에서는 목회자가 실제로 실행할 삶의 태도를 제공한다. 경고만으로는 교회가 보호되지 않는다. 경고가 목회자의 삶에 적용될 때 비로소 교회가 보호된다.

5) 17-19절은 9-10절의 균형을 잡아 주는 ‘완성의 말씀’이다

9-10절에서 바울은 “부유하게 되려는 자들”, “돈을 사랑하는 마음”을 정면으로 경고한다. 이것만 읽으면 어떤 사람은 “그럼 돈은 악인가? 부자는 다 문제인가?”라는 오해로 갈 수 있다.

그래서 바울은 17-19절에서 균형을 준다. 문제는 돈의 존재가 아니라 돈에 대한 태도다. 돈을 사랑하고 그것만 의지하면 파멸로 가지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부(돈)를 선한 일에 사용하면 그것은 영원한 것을 쌓는 도구가 된다. 바울은 부자들에게 “마음을 높이지 말라, 불확실한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 나누라, 선한 일을 하라”고 명령한다.

즉 17-19절은 9-10절의 경고를 ‘균형 있게 보완’한다. 바울은 교회를 극단으로 몰지 않는다. 돈을 우상으로 만드는 것도 문제지만, 돈 자체를 악으로 단정하여 성도를 비현실로 몰아넣는 것도 문제다. 17-19절은 성도가 현실 속에서 재물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참된 경건의 실천 방향을 제시한다. 그래서 11-19절은 1-10절이 던진 질문에 대한 성경적 답이다.

6) 신학적으로, 11-19절은 “교회의 생존 방식”을 제시한다.

교회는 세상 속에 존재한다. 그러므로 교회는 언제나 세속적 가치가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압력을 받는다. 그 압력은 박해보다 더 위협할 때가 많다. 박해는 교회를 외부에서 공격하지만, 세속적 욕망은 교회를 내부에서 변질시킨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가 바로 이 위협 앞에서 있음을 안다. 그래서 그는 마지막에 디모데에게 말한다.

교회를 지키는 길은 화려한 전략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피할 것은 피하고, 추구할 것은 추구하고, 싸울 것은 싸워서 지키고 붙들어야 한다. 그리고 성도가 재물 앞에서 마음을 지키고, 재물을 나눔과 선행으로 돌리는 것이다. 이것이 교회의 생존 방식이며, 교회의 승리 방식이다.

11-19절 상제 강해

11절: “그러나 오 하나님의 사람아, 너는”

이 표현은 단순한 호칭이 아니다. 앞선 사람들과의 의도적인 대비다.

거짓 교사들은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었지만, 디모데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바울은 이미 많은 것을 말했지만, 이제 시선을 교회 전체가 아니라 목회자 개인, 더 정확히는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에게로 돌린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분명하다. 교회의 타락은 언제나 한 사람의 타협에서 시작되기 때문이다. 제도가 무너져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더 이상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될 때 문제가 시작된다. 그래서 11-19절은 앞선 모든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해답이다. 신앙생활을 이익의 수단으로 바꾸는 사람들에게 대한 해답은 더 정교한 제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의 태도와 싸움이다.

좋은 성도, 좋은 목회자는 구체적으로 네 가지를 실천해야 한다(11-16절).

피하라, 추구하라, 싸우라, 붙들라

이것은 목회자의 일상적 자세이자, 모든 성도가 배워야 할 영적 전쟁의 방식이다.

1. 피하라: 도망하라 - 떠남의 용기(11절)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것들을 피하라”고 말한다. 이것들은 6:3-10절에 열거된 거짓 교리, 왜곡된 신앙 생활, 탐욕의 구조 전체를 말한다.

바울은 6장 5절에서 “그러한 자들로부터 떠나라”고 권면하였고 다시 여기서 다시 반복된다.

하나님의 사람은 거짓 교리와 경건하지 않은 관행 앞에서 분명히 거리를 둘 줄 알아야 한다. 단, 이것은 성경적 확신에서 나와야 한다.

2. 추구하라 - 피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11절)

도망만 하면 고립이 된다. 그래서 바울은 동시에 “추구하라”고 말한다. 의와 하나님의 성품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추구하라.

의는 인격의 정직함이고, 하나님의 성품은 인격이 실제 삶에서 드러나는 것이다. 믿음은 확신 혹은 신실함을 말한다. 사랑은 얻으려는 사랑이 아니라 희생하는 사랑이다. 인내는 어려운 자리에서도 물러서지 않는 지속성이다. 온유란 절제된 힘을 말한다.

하나님의 사람은 단순히 무엇을 반대하는 사람이 아니라 무엇을 추구하는지가 분명한 사람이어야 한다.

3. 싸우라 - 선한 싸움 (12-16절)

바울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말한다. 이 말은 “계속 싸우라”는 뜻이다.

이 싸움은 성도와 성도 사이의 싸움이 아니다. 하나님의 사람과 그를 둘러싼 죄와 거짓, 그리고 보이지 않는 대적과의 싸움이다.

바울은 자신의 생애 말년에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웠다”고 기록했다(딤후 4:7).

4. 이 싸움을 가능하게 하는 근거는 세 가지다(12절).

첫째, 우리는 이미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있으며, 그것을 붙잡아 실제 삶 속에서 누려야 한다
둘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

셋째, 우리는 사람들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했다.

5. 또 이 싸움을 위한 큰 격려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이다. 그분은 본디오 빌라도 앞에서 선한 고백을 하셨고 물러서지 않으셨다. 그분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살리시는 분임을 알고 계셨다. 이 사실이 디모데의 두려움을 이길 힘이 된다.

6. 바울은 13절에서 군대 용어를 사용해 “내가 네게 명한다”고 말한다. 언젠가 주님께서 나타나실 것이며, 그때 하나님의 사람은 맡은 사명을 보고해야 한다.

7. 그래서 14절의 명령은 분명하다. 점도 없이, 책망 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피하라, 추구하라, 싸우라, 붙들라)을 지키라는 것이다.

8.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대한 장엄한 고백 (15-16절)

바울은 여기서 시선을 자기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들어 올린다.

15-16절의 그분은 14절의 예수 그리스도이다. 즉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신다(15절). 자신의 때에 오신다.

15절: 이 하나님은 유일하신 권능자시며, 왕들의 왕이시며 주들의 주이시다. 세상의 권력자들은 자신이 권력을 가졌다고 생각하지만,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 속해 있다.

16절: 하나님만이 본질적으로 불멸하신 분이시다. 인간은 죽음에 종속되어 있지만, 하나님은 생명이시며 생명의 근원이다. 지금 우리는 죽을 몸을 입고 있지만,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그분의 불멸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16절: 하나님은 접근할 수 없는 빛 가운데 거하신다. 그분의 거룩함 앞에 죄인은 설 수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는 그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야곱은 구약에서 하나님의 현현 가운데 그분을 보았고(창 32:30),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의 일부를 보도록 허락받았다(출 33:18-23). “아무도 하나님을 보지 못하였다”(요 1:18)는 말씀은 하나님의 본질, 곧 그분의 영적 실체를 본 적이 없다는 뜻이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본질을 본다.

16절: “그분께 존귀와 영존하는 권능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바울이 이 장엄한 신학 고백을 하는 이유는 단 하나다. 디모데가 싸움을 포기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17-19절: 부자들에게 주는 권면과 최종 결론

바울은 마지막으로 이 세상에서 부한 자들에게 명한다. 교만하지 말고, 불확실한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선한 일을 하며 나누기를 좋아하라고 한다. 이것은 부를 정죄하는 말이 아니라, 부를 영원한 생명을 위해 사용하는 법을 가르치는 말씀이다.

결론

딤후 6장 1-10절이 교회를 병들게 하는 문제를 드러냈다면, 11-19절은 교회를 살리는 길을 보여 준다.

그 길은 제도가 아니라 사람이다.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사람이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묻는다.

나는 무엇을 피하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가.

나는 어떤 싸움을 싸우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무엇을 붙들고 있는가.

“그러나 오 하나님의 사람아, 너는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하나님의 성품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추구하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영원한 생명을 붙들라.”

이 명령의 말씀이 오늘 우리 각자에게 다시 올려 퍼지기를 바란다.

딤편 강해 14
영지주의를 대적하라
진화론은 거짓 과학

딤편6:20-21

디모데전후서는 목회 서신, 편지의 목적: 딤편3:15 자기의 아들 디모데에게 교회에서 이렇게 처신해야 한다는 것을 알려줌. 즉 이렇게 목회해야 한다.

18번 강해를 하면서 양심이 투명하게 목회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가를 뼈저리게 느낌
다른 어떤 강해보다 힘들고 어려움

특별히 지난 2 시간 디모데전서 6장 강해는 더더욱 힘들었다.

디모데전서 6장은 설교하기 쉽지 않은 본문이다.

돈 이야기, 사회 구조 이야기, 그리고 신앙생활의 거짓된 동기 이야기가 한꺼번에 나온다.

그런데 이 본문이 서신의 결론부에 나온다. 즉 매우 중요한 말씀이다.

디모데전서 6장은 우리의 믿음이 무엇을 향하고 있는지, 신앙의 중심 동기가 무엇인지를 점검하게 하는 말씀이다.

5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이득 창출의 수단으로 여기면 안 된다.

개인의 꿈 실현, 자아 성취 등이 하나님 이상의 목표가 되면 그것은 패망하는 길이다.

목사들의 꿈: 큰 교회, 그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이상이 되면 그의 목회는 실패한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 내부의 양심과 동기를 보신다.

부와 지식, 재능 등이 나쁘지 않다.

우리에게 주어진 부와 지식, 재능 등을 청지기로서 선을 이루는 데 써야 한다.

그런 차원에서 6:17-19절을 다시 깊이 묵상해 보기 바란다.

오늘 < >, 바울의 마지막 당부, 거짓되게 과학이라 불리는 것이 무엇인가? 영지주의, 진화론 등에 빠지면 믿음 면에서 파선한다.

목회자가 지켜야 할 것들(20)

오 디모데야, 속되고 헛된 말장난과 거짓되게 과학이라 불리는 것의 반론들을 피하며 네게 맡겨진 것을 지키라.

A. 속되고 헛된 말장난을 피해야 한다. 딤편1:4, 꾸며 낸 이야기 족보 이야기, 딤편4:7, 속된 이야기 즉 늙은 부녀들의 꾸며 내 이야기 등,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 주는 일보다 오히려 논쟁을 일으킨다. 우리의 대화 중에 이처럼 속되고 헛된 말장난이 있는지 늘 점검해야 한다.

B. 거짓되게 과학이라 불리는 것들의 반론들을 피해야 한다.

디모데전서 6장 20절에 나오는 '과학'(science)이라는 말은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기술적 의미의 과학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 더 좋은 지식(특별히 영적 지식)을 뜻한다. 바울은 여기서 자신들이 '특별한 영적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던 이단 집단, 곧 영지주의자들(gnostics)의 가르침을 염두에 두고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과학'에 해당하는 '그리스어'는 그노시스(gnosis)이다.

영지는 영적 지식

그 당시 영지주의자들은 환상과 각종 체험을 통해 자기들이 '특별한 영적 지식'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구약 성경, 특히 족보들 속에서 '숨겨진 진리'를 찾아냈다고 주장했다. 그들은 물질을 악한 것으로 보았고, 하나님과 인간을 연결하는 여러 단계의 '유출 혹은 발산(emanations)'이 있다고 가르쳤다.

1. 영지주의 사고:

1. 가장 위에는 완전한 신적 존재가 있다.

2. 그로부터 영적 존재들이 차례로 흘러나온다(유출). 발산되어 나온다.

3. 그 밑으로 갈수록 점점 불완전해진다.

4. 가장 아래 단계가 물질세계다.
5. 물질은 본질적으로 악하다.
2. 영지주의 주장: 예수 그리스도는 이러한 유출들 가운데 가장 위대한 존재일 뿐이라고 말했다. 여호와의 증인들, 아리우스파의 주장과 비슷함: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한 신, 미가엘 천사장이다.
3. 위험한 이유: 영지주의에 빠지면 1. 극도의 영적 교만, 2. 도덕과 윤리가 무너진다.
영지주의는 언제나 동일한 전제에서 출발한다. 곧 ‘육체와 현실’은 본질이 아니라는 생각이다. 이 전제는 겉으로는 영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도덕과 윤리를 근본에서부터 무너뜨린다. 육체와 현실을 본질이 아니라고 규정하는 순간, 인간의 행위와 책임은 구원의 핵심에서 밀려난다. 그 결과 윤리는 두 갈래로 치닫는다.
한 갈래는 방종이다. 육체가 중요하지 않다면 육체의 행위도 중요하지 않다. 죄는 도덕적 반역이 아니라 단지 무지의 결과가 된다. 결국 “몸이 무엇을 하든 상관없다”는 결론에 이르고, 성적 방종과 책임 회피, 도덕의 상대화가 정당화된다. 죄는 회개해야 할 실체가 아니라, 낮은 차원의 현상으로 격하된다. 죄를 가볍게 여긴다. 죄를 짓고도 죄의식을 갖지 않는다.
다른 갈래는 금욕이다. 육체를 본질이 아니라고 보는 데서 더 나아가, 육체를 더럽고 악한 것으로 규정한다. 현실은 영을 가두는 감옥이 되고, 영을 해방하기 위해 육체를 억눌러야 한다는 사고가 생긴다. 그 결과 극단적인 절제가 미덕이 되고, 결혼과 음식과 일상이 영성을 방해하는 요소로 부정된다. 심지어 고통 자체가 영성의 증거처럼 여겨진다.
성경적 구원은 육체를 회피하거나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를 통해 십자가 아래로 내려가 죽이고 다시 살리는 방식으로 다룬다.
4. 그래서 사도들은 반복해서 말한다. 이것은 “다른 복음”, “거짓 지식”, “헛된 철학”, “속이는 말” 왜냐하면 영지주의는 복음을 더 깊게 만드는 게 아니라, 복음을 다른 것으로 바꾸기 때문이다.
5. 그래서 바울은 이 모든 가르침을 단 한마디로 요약한다. 곧 “속되고 헛된 말장난”이다.
6. 디모데는 왜 이런 가르침들을 피해야 하는가? 그 가르침들에 빠진 사람들이 “믿음에 관해 잘못을 범하였기” 때문이다(딤후 6:21). 돈에 대한 욕심이 사람을 믿음에서 떠나게 만들 수 있고(딤후 6:10), 또한 잘못된 가르침도 동일한 결과를 낳는다. 이런 거짓말들은 서서히 사람의 생각과 마음속으로 스며들고, 어느새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진리의 길에서 벗어나 방황하게 만든다.

C. 네게 맡겨진 것을 지키라.

하나님께서서는 진리(교리)를 바울에게 맡기셨고(딤후 1:11), 바울은 그 진리를 디모데에게 맡겼다. 이제 디모데의 책임은 그 맡겨진 진리를 지키고, 또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 주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들은 다시 또 다른 이들에게 그것을 전해 주어야 했다(딤후 2:2). 이것이 하나님께서 진리를 보호하시고 온 세상에 퍼지게 하시는 방식이다. 우리는 믿음의 교리들을 맡은 청지기들이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의 복음을 신실하게 나누기를 기대하신다. 사역자들이 자기에게 맡겨진 것을 지키려면 헛된 말장난을 피해야 한다. 그것들은 헛되고 속되기 때문이다.

“은혜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21)

이것은 짧지만 매우 포괄적인 기도다. 은혜 안에는 선한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은혜는 영광의 시작이요, 또한 영광의 보증이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반드시 영광도 따라오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는 모든 선한 것이 주어진다.

현시대의 잘못된 과학

바울 당시에는 영지주의가 과학 혹은 지식이 아닌데도 ‘거짓되게 과학’이라 불렸다.

현시대에는 진화론이 과학이 아닌데도 과학이라 불리며 전 세계 사람들의 마음을 훔쳐가고 있다.

히브리 사람들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의 차이

히브리 사람들: 여호와 하나님이 계심을 아고 믿고 있다. 하나님의 천지 창조, 노아의 대홍수, 바벨탑 사건, 민족들의 갈라짐 등 복음을 받아들이는 데 필요한 기본 정보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대다수 이교도들에게는 이런 지식이 없다. 특히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지식이 거의 없다. 그래서 행17장, 아테네에서 바울의 전도 핵심, 너희가 알지 못하고 섬기는 하나님을 내가 알려주겠다.

한 하나님이 계신다. 그 하나님이 우주와 지구와 인간을 무에서 유로 창조하신 분이다. 그 뒤에 인간의 죄, 대신 속죄의 필요성, 예수 그리스도 등
현시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도 바로 이것이다.

한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6일의 특별 창조로 우주와 세상 만물을 만드셨다는 지식
그래서 모든 사람이 설계자가 의도한 목적대로 사는지 심판받을 날이 온다는 사실
그리스도인들은 거짓되게 과학이라 불리는 진화론의 반론들을 적극적으로 대적해야 한다.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차이

우리가 기독교를 믿는다고 이야기할 때는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아주 확실한 차이가 있음을 알아야 한다.

그 차이는 우리의 믿음 체계에는 창조가 있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특별 창조란 지금부터 약 6,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지금과 같은 24시간의 하루를 여섯 번 사용하셔서 온 우주 공간의 모든 것을 무에서 유로 창조하셨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창조의 개념이 없으면 구원이 이루어지기 어렵다.

예수님의 구원은 믿는데 하나님의 창조는 믿을 수 없다는 것은 그리스도교의 믿음이 아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에는 하나님의 특별 창조와 사람의 타락,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사람의 부활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인본주의 신학교에서 창조가 틀렸다고 하거나 유신론적인 진화론이 맞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원래 고릴라 같은 종류를 만들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이것이 사람이 되었다고 가르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구원과 사람의 부활을 믿지 않는 것이다.

다시 한번 강조한다: 올바른 구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선 올바른 창조 신앙이 확고히 서야 한다.

기원에 대한 결론은 무엇인가?

우주와 그 안의 모든 것들이 어떻게 생겨났느냐, 기원 문제다. 이것이 확실해야 믿음 생활할 수 있다. 이 세상에는 기원에 관한 한 창조와 진화라는 두 개의 믿음 체계만 있다.

미국 하버드 대학의 교수로 1967년도에 생리학 의학 분야에서 노벨상을 수상한 생물학자 조지 왈드(G. Wald) 박사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 「사이언티픽 아메리칸」이라는 잡지는 미국에서 나오는 여러 잡지 중에 가장 인본주의적인 잡지로서 하나님과 기독교를 공격하는 데 맨 앞장을 서고 있다. 1967년에 왈드 박사는 그 잡지에서 ‘나는 불가능한 것을 믿는다.’라는 제목을 붙여 놓고 이렇게 썼다.

“생명이 어떻게 발생하는지에 대해서는 오직 두 가지 가능성이 존재한다. 한 가지 가능성은 자발적인 발생 곧 진화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행위이다. 셋째 가능성은 없다. 그런데 자발적인 발생론, 즉 진화론은 이미 120년 전에 파스퇴르와 다른 과학자들에 의해 거짓으로 탄로가 났고 그래서 불신임을 받았다. 이로써 우리에게 한 가지 논리적인 귀결, 즉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행위로 생명이 발생했다는 결론만 남게 되었다. 그러나 나는 철학적 관점에서 이러한 결론을 수용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기로 작정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는 내가 아는 것을 과학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믿기로 작정을 했다.

이것은 세상에서 가장 좋다고 하는 하버드 대학교의 교수로 노벨상을 수상한 사람이 쓴 글이다.

무슨 말인가? 그는 스스로 생명이 어떻게 생겨났는가를 진지하게 살펴보았으며 그 결과 진화론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노벨상을 받은 생리학 박사의 말이다.

그러면 왜 그는 하나님을 믿지 않을까? 그의 믿음 때문이다. 만일 하나님을 믿으면 결국 자기의 창조자 하나님 앞에서 나중에 심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는 자기 위에 누군가가 있어서 자기를 만들고 나중에는 심판한다는 개념 자체를 철학적으로 수용할 수 없다고 말한다. 그래서 그는 무엇을 믿기로 했는가? 그는 ‘불가능한 것’을 믿기로 했다.

그러면 그가 말한 ‘불가능한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진화론이다. 그래서 그는 진화론이 허구임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심판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그 거짓 시스템을 믿기로 그렇게 마음속에 작정을 했다.

사실 이 사람은 상당히 솔직하다. 물론 학식도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학교에서 진화론이

맞는다고 배웠기 때문에 원숭이에서 사람이 나오고 오랜 시간만 주어지면 자연히 무생명에서 생명이 나오며 아메바가 사람이 될 것이라고 막연히 생각한다.

그러나 그냥 생기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제 간단하게 몇 가지를 생각해 보자. 만물이 그냥 생겼다고 주장하는 사람, 즉 자연 발생설을 믿는 사람은 1. 무지한 사람이다. 2. 양심을 속이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은 사실 불가능을 믿고 있다. 모든 것은 설계가 있어야 가능하다.

이제 사람의 눈을 한번 보기 바란다. 부부가 같은 곳에 있으면 남편은 아내의 눈을 보고 아내는 남편의 눈을 보기 바란다. 아이들이 있으면 아이들하고 서로 눈을 바라보기 바란다. 기가 막히지 않은가? 오랜 시간 그냥 두었더니 흙탕물에서 눈이 나왔다고 누가 말하면 그 사람이 미쳤다고 하지 않겠는가? 그런데 이 세상 대부분의 사람들이 미쳤다. 거의 모든 사람이 실제로 생기는 것이 불가능한 진화론을 진리로 믿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 주변에는 하나님의 창조를 보여 주는 사례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 곁에 널려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창조를 증언한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이런 명백한 증거를 거부하고 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한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 안에서 진리를 붙잡아 두는 사람들의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모든 것과 불의를 대적하여 하늘로부터 계시되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그들 속에 분명히 드러나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그분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분의 영원하신 권능과 신격은 세상의 창조 이후로 분명히 보이며 만들어진 것들에 의해 이해될 수 있으므로 그들이 변명할 수 없느니라(롬1:18-20).

참된 과학

과학(science)의 정의: 과학이란, 동일한 조건 아래서 반복 가능한 실험과 관찰을 통해 검증할 수 있는 자연 법칙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1. 관찰 가능해야 한다: 보거나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
2. 실험으로 검증 가능해야 한다: 가설이 맞는지 틀린지 실험으로 시험할 수 있어야 한다.
3. 재현 가능해야 한다: 누구든 같은 조건에서 하면 같은 결과가 나와야 한다.
4. 반증 가능해야 한다: 틀렸음을 증명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어야 한다.

이 네 가지가 빠지면, 그건 과학이 아니라 추정·철학·이야기다.

과학의 간단한 예

예 1. 순수한 물은 100℃에서 끓는다

조건: 1기압, 누구나 실험 가능, 언제 어디서나 같은 결과

예 2. 중력은 물체를 아래로 끌어당긴다, 지금 관찰 가능, 실험 가능, 계산 가능

과학이 아닌 것의 예 (대조)

예 1. 수십억 년 전에 단세포가 사람으로 진화했다

관찰 불가, 실험 불가, 재현 불가, 반증 불가, → 과학 아님 (역사적 추정)

예 2. 무생물에서 생명이 자연 발생했다

실험 반복해도 실패함, 재현된 적 없음

그러면 진화론은 왜 과학이 아닌가

진화론은 과학의 기본 정의를 충족하지 못한다.

진화론이 다루는 핵심 사건들은 모두 과거에 단 한 번 일어났다고 누가 주장한 사건들이다.

생명의 기원, 종의 변화, 공통 조상의 존재, 장구한 시간에 걸친 점진적 변화는 그 누구도 관찰한 적 없고 실험으로 재현할 수도 없다.

같은 조건에서 다시 시험할 수 없고, 실패 여부를 판별할 수도 없다면 그것은 과학이 아니라 과거에 대한 해석일 뿐이다.

즉 진화론은 관찰 과학이 아니라 역사적 해석의 영역에 속한다.

더 나아가, 이러한 역사적 해석은 중립적이지 않다.

진화론은 처음부터 “자연 현상으로 모든 것이 설명되어야 한다”는 전제를 가지고 출발한다.

이 전제는 실험으로 증명된 사실이 아니라 선택된 세계관이다. 왈드 박사처럼 따라서 진화론은 증거가 결론을 낳은 체계가 아니라, 결론이 증거 해석을 지배하는 체계다. 바로 이 점에서 진화론은 과학이 아니라 ‘거짓되게 과학이라 불리는 거짓 지식’에 해당한다.

결론

바울은 총 6장; 디모데전서를 써서 아들 디모데에게 보내며 마지막 결론을 이렇게 맺는다.

20 속되고 헛된 말장난과 거짓되게 과학이라 불리는 것의 반론들을 피하며 네게 맡겨진 것을 지키라.

21 그것을 내세우던 어떤 자들이 믿음에 관하여는 잘못을 범하였느니라.

교회와 목사와 성도들은 속되고 헛된 말장난과 거짓되게 과학이라 불리는 것의 반론들을 피하며 우리에게 맡겨진 것을 지켜야 한다. 이 일을 하지 못하면 믿음 면에서 파선한다.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전적인 진리(Total truth)를 가르쳐야 한다. 하나님은 과학, 정치, 경제, 문화 모든 면에서도 유일한 진리이시다. “주여 무조건 믿습니다”, “복 주세요”, “록 음악 등의 세뇌”에서 멈출 것이 아니라 인간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위대함을 알리고 가르치는 일을 해야 한다. 그 일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

딤펑 강해 20
진짜 과학과 가짜 과학
거짓 과학 진화론 격파하기

딤펑6:20-21

디모데전후서는 목회 서신, 편지의 목적: 딤펑3:15 자기의 아들 디모데에게 교회에서 이렇게 처신해야 한다는 것을 알려줌. 즉 이렇게 목회해야 한다.

핵심은 인격에 있다. 그러므로 목회자뿐만 아니라 성도들도 딤펑후를 잘 읽고 적용하면 큰 도움
오늘 딤펑 6:20-21, < >, 바울의 마지막 당부, ‘거짓되게 과학이라 불리는 것’이 무엇인가? 이런데 빠지면 믿음 면에서 파선한다. 이번 시간은 진화론에 집중한다.

진짜 과학, 가짜 과학, 거짓 과학(?) 진화론 무너뜨리기

많은 분들의 오해

다수의 사람들은 진화론이 높은 수준의 과학이라 반박이 어렵다고 생각한다. 정말로 그럴까?

히틀러의 선전 이론에 따르면, 거짓말은 단순하고 클수록 대중이 더 쉽게 받아들인다.

MIT, 하버드 대학 출신의 과학자가 말한다고 해서 과학이 아니다.

세상 지식이 많지 않은 할머니 할아버지라도 금세 그들의 주장을 일축할 수 있다.

정신을 차리고 현실과 사실을 직시하면 진화론은 곧바로 거짓임이 드러난다.

이게 당신의 조상입니까? 대다수가 그렇다고 말한다. 깊이 생각해 보라.(*)

에너지 보존의 법칙: Total energy, available energy(가용 에너지) (*)

총에너지 E는 그대로인데, 가용에너지 B는 시간에 따라 줄어든다(줄어든 만큼은 비가용에너지로 누적).

시간을 되돌려 시간이 0일 때로 가면 총 에너지는 어디에서 생겼을까?

그냥 생길 수는 없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창1:1). ‘

시간이 0일 때, 하나님께서 에너지와 물질을 생성하심, 무에서 유로

그 이후에 물질과 에너지는 보존된다. 그리고 무질서도가 증가한다. 그래서 썩는다. 퇴보한다.

우리가 구원을 받아 예수님처럼 영적인 몸을 입게 될 때는 질서도 보존된다.

썩는 것, 퇴보하는 것이 없어진다.

오늘은 진짜 과학, 진화론은 왜 가짜 과학인가? 하나님의 창조의 확실한 증거 몇 가를 보여 주려고 한다.

아주 쉽게, 아이들도 이해할 수 있게

진짜 과학은?

1. 생명에서 생명이 난다.

살아 있지 않은 것에서 생명이 생겨나는 것은 관찰된 적이 없다.

2. 같은 종에서 같은 종이 난다.

개는 개를 낳고, 고양이는 고양이를 낳는다.

3. 생명은 설계된 정보 없이 존재하지 않는다.

모든 생명체 안에는 DNA라는 것이 있다. DNA는 단순한 물질이 아니라 정보다.

이 정보에는 언제 자라야 하는지, 어떤 모양이 될지, 어떻게 기능해야 하는지가 정확히 기록되어 있다.

쉽게 말하면 DNA는 요리책이나 설계도와 같다.

요리책이 없으면 음식이 만들어지지 않듯이, 설계도가 없으면 집이 세워지지 않듯이, DNA라는 정보 없이는 생명이 만들어질 수 없다.

우리는 지금까지 설계도 없이 저절로 생긴 기계를 본 적이 없다.

그러나 생명은 기계보다 훨씬 복잡하다.

그렇다면 생명이 정보 없이 생겼다는 말은 요리책 없이 요리가 저절로 완성됐다는 말과 같다.

4. 질서는 스스로 증가하지 않는다.

— 아메바에서 사람으로 발전하는 것이 왜 불가능한가? (*)

아메바는 구조가 아주 단순한 생명체다.

사람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복잡하고 질서도가 높은 존재다.

진화론은 말한다. “질서도가 낮은 생명에서 질서도가 훨씬 높은 생명이 자연스럽게 생겨났다.”

하지만 우리가 관찰하는 진짜 과학의 법칙은 정반대다.

① 질서는 가만히 두면 늘지 않는다.

방을 예로 들어 보자. 아무도 손대지 않으면 방은 점점 정리될까, 아니면 어질러질까?

경험상 답은 분명하다. 어질러진다.

질서가 생기려면 반드시 누군가가 개입해야 하고 목적을 가지고 정리해야 한다.

자연에서는 이 원리가 더 분명하다.

② 자연 법칙은 질서를 만들지 못한다.

자연 법칙은 이미 있는 것을 유지하거나 무너뜨릴 뿐,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 내지 못한다.

뜨거운 커피 잔, 다음 날 되면 차가워진다. 낮은 질서로 간다.

열은 퍼지고 구조는 붕괴되고 정보는 손상된다.

이것이 우리가 매일 관찰하는 현실이다.

③ 아메바 → 사람은 ‘질서의 폭발적 증가’를 요구한다.

아메바에서 사람으로 가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새로운 기관, 새로운 기능, 새로운 정보, 훨씬 높은 조직도와 통제 시스템

즉, 질서와 정보가 폭발적으로 증가해야 한다.

그런데 자연에서 질서도가 저절로 증가하는 현상은 관찰된 적이 없다.

④ 그래서 문제는 ‘시간’이 아니다.

진화론은 말한다. “시간이 충분히 있으면 가능하다.”

하지만 시간은 질서를 만들지 않는다.

시간은 오히려 무질서를 키운다.

어질러진 방을 백만 년 동안 놔둔다고 저절로 궁전이 되지 않는 것과 같다.

⑤ 결론: 아메바에서 사람으로의 진화는 과학이 아니다.

질서도가 낮은 존재가 외부의 설계 없이 질서도가 훨씬 높은 존재로 발전한다는 주장은

관찰된 적 없고 실험된 적 없고 자연 법칙과도 맞지 않는다

따라서 이것은 과학이 아니라 믿음을 요구하는 주장이다.

5. 자연 법칙은 생명을 보존하지, 창조하지 않는다.

중력·화학 법칙은 이미 존재하는 것을 유지할 뿐이다.

중력은 물건을 아래로 끌어당긴다. 떨어지게는 하지만 새로운 물건을 만들어 주지는 않는다.

자연 법칙은 이미 살아 있는 생명이 잘 움직이고 유지되도록 도와줄 수는 있다.

하지만 죽은 것에서 생명을 만들어 주지는 못한다.

6. 관찰되는 변화는 한계 안에서 일어난다.

변이는 있어도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

생물은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 키가 크거나 작아질 수 있고, 색깔이나 모양이 조금 바뀔 수 있다.

하지만 본질은 바뀌지 않는다.

개는 여전히 개이고, 고양이는 여전히 고양이다. (*)

아무리 달라져도 다른 생물이 되지는 않는다.

7. 돌연변이는 정보를 만들지 않는다.

돌연변이는 책에서 글자가 바뀌거나 빠지는 것과 같다.

책에서 글자가 틀리면 내용이 더 좋아지기보다 망가진다.

우리가 관찰한 돌연변이도 대부분 그렇다.

새로운 기능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있는 기능을 약하게 하거나 잃게 만든다.

그래서 돌연변이는 정보를 늘리는 힘이 아니라 정보를 망가뜨리는 변화다.

관찰되는 돌연변이는 대부분 손상이나 퇴보다.

8. 복잡한 체계는 단순한 단계들의 우연한 합쳐진 것이 아니다. 처음부터 설계되어야 한다.

복잡한 것은 여러 가지가 한꺼번에 있어야 제대로 움직인다.

예를 들어 자전거를 생각해 보자.

바퀴만 있어도 안 되고, 체인만 있어도 안 된다.

모든 부품이 동시에 있어야 자전거가 된다.

생명도 마찬가지다.

눈, 심장, 뇌 같은 것은 하나라도 없으면 작동하지 않는다.

그래서 복잡한 것은 하나씩 우연히 모여서 생기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함께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성경 신자 입장에서 본 진화론의 거짓 주장들

1. 무에서 질서가 저절로 생긴다는 주장: 무생명에서 생명이 나온다는 주장
2. 우연이 정보를 만들어 낸다는 믿음, 믿음 체계
3. 자연선택이 창조적 능력을 가진 것처럼 포장되는 오류: 자연선택이란, 주어진 환경에서 생존과 번식에 유리한 특성을 가진 개체들이 더 많이 살아남고 번식하게 되는 과정이다. 자연선택은 새로운 특성을 만들어 내지 않는다 단지 이미 있는 것 중에서 고르는 과정이다. 결코 창조를 할 수 없다.
4. 실험으로 재현되지 않는 과정을 과학이라 부르는 모순
5. 생명의 기원을 설명하지 못한 채 출발하는 체계: 진화론은 “생명이 이미 존재한다”는 가정에서 시작한다. 그러나 생명이 처음 어떻게 시작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답하지 못한다.
6. DNA 정보의 기원을 회피하는 침묵: 모든 생명에는 DNA라는 정확한 정보가 있다. 하지만 그 정보가 어디서, 어떻게 생겼는지에 대해서는 설명을 피한다.
7. 종 내 변이를 종 간 진화로 둔갑시키는 논리
8. 중간 화석의 부재를 이야기로 메우는 서사: 진화가 사실이라면 중간 단계의 화석이 많이 발견되어야 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런 화석이 거의 없어서, 빈자리를 이야기와 추측으로 이어 붙인다.
9. 그림과 상상으로 증거를 대신하는 교과서 관행: 교과서에는 실제 증거보다 상상으로 그린 그림이 먼저 나온다. 그림을 보면 사실처럼 느껴지지만, 그것은 증거가 아니라 설명용 상상이다. (*)
10. 죽음을 창조의 도구로 미화하는 세계관: 진화론은 죽음을 나쁜 결과가 아니라 더 나은 생명을 만들기 위한 필요한 과정으로 설명한다. 수많은 생명이 실패하고 죽어야 조금 더 나은 존재가 남는다는 것이다. 즉, 죽음이 발전을 이루는 도구가 된다.
11. 아담 이전의 죽음을 당연시하는 비성경적 역사: 진화론은 아담이 있기 전부터 수많은 생명이 태어나고 죽었다고 말한다. 죽음은 처음부터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성경은 다르게 말한다. 죄로 인해 죽음이 들어왔다고 증언한다. 그래서 아담 이전의 죽음을 당연하게 만드는 역사는 성경의 구속 이야기와 맞지 않는다.

왜 창세기가 맞는가?

1. 창1:1,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시간, 공간, 에너지가 다 들어 있다. 무에서 유로 모든 것을 창조하심
2. 종류대로(8번, 창1:11,12, 21, 24, 25, 6:20; 7:14; 8:19)
3. 생명은 말씀으로 창조되었다 (창 1장 반복 구조)
“하나님께서 이르시되”(God said)라는 선언이 창조의 원인이다(9회, 창1:3, 6, 9, 11, 14, 20, 24, 26, 29), 질서와 정보가 지성에서 나온다는 설명이다.

4. 생명은 단계를 거치지 않고 완성된 상태로 등장한다
식물, 동물, 사람이 기능을 갖춘 채로 등장한다. 미완성·실패 단계가 없다.
5. 빛이 태양보다 먼저 창조되었다 (창 1:3, 16)
빛의 근원을 태양에 한정하지 않는다. 에너지가 물질에 종속되지 않음을 보여 준다.
6. 인간은 동물과 구별된 존재로 창조되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 인간의 존엄과 도덕 책임의 근거를 제시한다.
7. 죽음은 창조의 일부가 아니다 (창 1:31)
창조는 “심히 좋았더라”로 마무리된다. 죽음은 타락 이후의 결과다.
9. 창세기의 설명은 관찰 과학과 충돌하지 않는다
반복 실험되는 자연 법칙과 조화를 이룬다.
충돌하는 것은 자연주의적 해석이지 본문이 아니다.

몇 가지 뼈박 증거

최신 진화론의 주장:

- 우주: 138억 년 전 생성
- 지구: 46억 년 전
- 최초 생명: 40억 년 전
- 복잡한 생명: 5억 년 전
- 사람: 20만 년 전

성경: 모든 것 6,000년 전, 지구만 따지면 46억 년은 6,000년의 77만 배

1. 인구 증가,
0.5%(과거 0.3-0.5%)
100만년
현재 인구: 10^{2100} 명
우주를 채울 수 있는 전자의 수: 10^{130} 개
노아의 대홍수 약 4,500년, 노아의 3아들과 세 며느리(총 6명)로 인해 지금의 인구가 나옴 약 80억
0.5% 복리로 계산하면 320억 명
0.45%로 하면 32억 명, 즉 이것이 합리적인 통계이다.
2. 유성 먼지
근래에 과학자들은 우주로부터 지구의 대기권 안으로 들어오는 우주 먼지 입자의 양이 거의 일정함을 발견했다. 결국 이러한 먼지 입자들은 지구의 표면에 가라앉아 쌓이게 된다. 피터슨(Hans Petterson)은 먼지 입자의 유입량을 정확히 측정하였고 지구가 연간 약 1,400만 톤의 먼지를 받아들인다고 결론지었다.
진화론자들이 주장하고 있는 바와 같이 지구의 나이가 약 50억 년이라고 가정한다면 전 세계에는 약 60m 정도의 두께를 가진 유성 먼지층이 있어야만 한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이러한 먼지층은 지구 어느 곳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진화론자들은 사람의 활동 때문에 먼지 층이 없어졌다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사람이 살지 않는 달에서는 어떤가? 적어도 이러한 두께의 먼지 층이 있을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는 달에서조차도 우주 비행사들은 결코 이런 흔적을 발견하지 못했으며 약 1mm(약 83,000년)두께의 먼지층만 발견되었다. 달의 먼지 층 역시 달의 생성 연대가 매우 젊음을 입증한다.
3. 지구 자기장 붕괴 속도
지구의 자기장은 지속적으로 약해지고 있다.
현재 감소 속도를 거꾸로 계산하면, 지구의 나이는 수만 년 이상 될 수 없다.
수십억 년을 가정하면 과거에는 생명체가 존재할 수 없을 정도로 강했어야 한다.
4. 헬륨의 대기 중 축적 문제

지구 내부에서 방사성 붕괴로 헬륨이 계속 생성되고 일부는 우주 밖으로 빠져 나간다.
 지구가 수십억 년 되었다면 대기 중 헬륨은 훨씬 많이 쌓여 있어야 한다.
 그러나 실제 측정치는 매우 적다 → 지구 연대가 짧다는 뜻이다.

5. 바다의 염분 증가 문제

강과 지하수는 계속 소금을 바다로 운반한다.
 바다는 소금을 제거하는 효율적인 방법이 없다.
 수십억 년이 지났다면 바다는 이미 생명체가 살 수 없을 만큼 짜야 한다.

6. 에베레스트 산 꼭대기에서 발견되는 바다 조개 화석

에베레스트 산 정상 부근에서 바다 생물의 조개 화석이 발견된다.
 이것은 그 지역이 한때 바다 속에 있었고, 이후 급격한 지각 변동으로 융기되었음을 뜻한다.
 느리고 점진적인 변화보다 격변적 사건, 즉 대규모 물의 작용과 훨씬 잘 맞는다.

8. 대륙 내부에 존재하는 염해(소금 호수와 소금 평원)

염해는 바닷물이 증발하고 남은 소금 퇴적물이다. (미국 유타주) 그레이트 솔트 레이크
 북미 대륙 한가운데 위치한 거대한 염수 호수다. 과거에 이 지역이 대규모 바다 물로 덮였음을 시사한다.
 사하라 사막 염전 지대 (아프리카) 그런데 이런 염해가 바다에서 멀리 떨어진
 대륙 한가운데에 존재한다.

9. 세인트 헬레네스 화산 폭발이 의미하는 것: 세인트 헬레네스 화산은 미국 워싱턴주 남서부, 캐스캐이드 산맥에 있다. (*)

1. 수천·수백만 년이 필요하다고 여긴 지형이 ‘순식간에’ 만들어질 수 있다 (*)
 1980년 5월 18일(46년 전), 폭발 이후 몇 시간~며칠 사이에 깊은 협곡과 복잡한 지형이 형성되었다.
 느린 과정만이 답이라는 가정을 무너뜨렸다. 그랜드 캐년(*)
2. 지층은 반드시 오랜 시간이 필요하지 않다
 화산재와 퇴적물이 짧은 시간에 여러 층으로 쌓였다.
 지층의 존재 자체가 ‘장구한 시간’을 증명하지 않는다.
3. 물의 급격한 작용은 강력한 침식을 일으킨다
 눈과 얼음이 녹아 생긴 대량의 물 흐름이 단시간에 깊은 계곡을 파냈다.
 “물 + 에너지”가 있으면 침식은 매우 빠르다.
4. 지층과 협곡은 동시에 형성될 수 있다
 지층이 쌓인 뒤 오랜 시간이 지나 파인 것이 아니라,
 퇴적과 침식이 같은 사건 안에서 함께 일어났다.
5. 현재 관찰된 사실이 과거 해석을 재고하게 만든다
 직접 관찰된 현대 사건이 “반드시 오래 걸려야 한다”는 기존 해석을 수정하게 한다.
 해석은 관찰보다 앞설 수 없다.

결론

거짓되게 과학이라 불리는 진화론을 대적해야 한다.
 하나님의 특별 창조를 믿어야 복음을 수용할 수 있다.
 우연히 먼지에서 진화된 인간에게 무슨 구원이 필요한가?
 성경대로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한다.

딤후 강해 미
두려움이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권능과 사랑과 건전한 생각의 영

딤후1:1-7

디모데전후서는 목회 서신, 편지의 목적: 딤후전3:15, 자기 아들 디모데에게 교회에서 이렇게 처신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 즉 이렇게 목회해야 한다.

두려운 마음으로 20번 강해를 마쳤다. 바울을 통해 목사와 성도가 어떤 인격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 알려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

오늘부터 디모데후서를 강해하려고 한다.

1. 상황의 변화: 바울이 디모데후서를 쓸 당시 그의 처지는 극적으로 달라져 있었다. 그는 이제 로마의 죄수가 되었고 스스로 자기의 죽음이 확실함을 알고 있었다(딤후 4:6).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함께 사역하던 동역자들의 대부분이 떠났고, 오직 누가만 사도의 곁에서 그를 돕고 있었다(딤후 4:11). 에베소 교회 성도들 다수도 그를 버렸다(딤후1:15). 참으로 어두운 시간이었다.

2. 그러나 이 시점에도 바울의 가장 큰 관심은 자기 자신이 아니었다. 그의 관심은 디모데와 복음 사역의 성공에 있었다. 디모데전서에서와 마찬가지로, 바울은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동역자인 디모데에게 신실할 것을 권면한다.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디모데는 성격적으로 담대한 인물이 아니었다. 그는 본래 소심한 기질을 지니고 있었고(딤후 1:7), 잦은 질병과 위장병이라는 육체적 약함도 안고 있었다(딤후전 5:23). 더구나 그는 비교적 젊은 나이에 목회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기에 나이가 많고 경험이 앞선 사람들이 쉽게 얽잡아 볼 수 있는 처지에 놓여 있었다(딤후전 4:12). 이런 현실 속에서 디모데는 자신의 직분에 합당한 권위를 적극적으로 세우기보다는, 갈등을 피하고 사람들에게 끌려다니는 선택을 할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다.

3. 바울은 디모데가 로마로 와서 자신과 교제할 수 있도록, 두기고를 에베소에 보내 디모데를 대신하게 했다(딤후 4:9, 12). 하나님께서는 이제 곧 바울을 무대에서 물러나게 하실 것이고, 디모데가 그 자리를 이어받아 교회들에 영적 지도력을 계속 제공해야 할 상황이었다. 이는 디모데에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지만, 주님의 도움 안에서 디모데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었다. 바울은 첫 장에서 복음 사역의 성공을 위해 디모데가 반드시 지녀야 할 몇 가지 필수 요소를 제시한다.

오늘 < > 하나님의 복음 사역, 전도, 기도 등 목회 사역과 신앙생활에 필요한 여러 요소들을 설명하려 한다.

바울의 자기 소개(1절)

바울은 또다시 자기가 사도임을 밝힌다.

사도는 어떤 존재가 어떤 일을 하라고 보내는 사람(특사), 특정 임무를 위해 파송을 받은 사람 예수님도 우리 신앙 고백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시라고 불린다(히3:1)

바울은 늘 자신을 사도라고 부름: 서신서들, 로마서, 고전, 고후, 갈, 에베소서, 골로새서, 딤후전, 딤후, 딤후, (빌립보서, 살전, 살후, 빌레몬은 예외)

바울은 디모데전서와 후서의 첫머리에서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밝히지만, 그 사도직의 근거와 강조점은 분명히 다르다. 즉 예수님이 보낸 자

디모데전서 1장 1절: 바울은 “우리 구원자 하나님과 우리 소망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의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바울”이라고 자신을 소개한다.

여기서 바울은 자신의 사도직이 하나님의 명령에 근거한 직분임을 강조한다. 이 서신은 에베소 교회의 거짓 교사들을 바로잡고, 교회 질서를 세우며, 목회적 권위를 분명히 해야 하는 상황 속에서 기록되었다. 그러므로 바울은 자신의 사도직을 개인적 소명이나 경험이 아니라, 구원자 하나님과 소망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이라는 객관적이고 공적인 근거 위에 세운다. 이는 디모데가 흔들림 없이 교회를 다스릴 수 있도록, 그의 사역 뒤에 있는 목회자의 권위를 분명히 해 주기 위함이다.

반면 디모데후서 1장 1절에서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에 따라 하나님의 뜻에 의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바울”이라고 자기를 소개한다.

여기서 강조점은 더 이상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생명의 약속이다. 바울은 이제 로마의 감옥에 있으며, 자신의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다. 이 마지막 서신에서 바울은 사도직을 교회 행정이나 권위의 문제로 설명하지 않는다. 그는 자신의 사도직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 곧 죽음을 넘어서는 영원한 생명의 약속과 연결한다. 이는 자신의 사역이 단지 이 땅의 직분이 아니라, 죽음조차 무너뜨릴 수 없는 하나님의 구속 계획 안에 있음을 선언하는 것이다.

이 점에서 바울의 사도직은 단순한 직함이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으로 시작되었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수행되었으며, 마침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으로 완성되는 사명이다. **나를 포함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점을 기억해야 한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1절)

사람이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가? 그 근본적인 이유는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다.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 단순히 오래 사는 생존의 연장이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속한 생명, 곧 죽지 아니하는 불멸의 생명이며, 하나님 자신의 생명에 참여하는 것을 뜻한다.

성경은 이 생명이 모든 사람에게 자연스럽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한다. 이 생명은 약속이며, 그 약속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다(딤후 1:1). 바울은 생명의 약속을 어떤 도덕적 노력이나 종교적 체험, 민족적 특권과 연결하지 않는다. 그 약속의 위치를 분명히 한 곳에만 둔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이다.

이 말은 곧, 그리스도 밖에는 이 생명이 없다는 뜻이다. 생명은 교회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의식이나 전통 속에 있는 것도 아니다.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지 않고서는, 아무리 종교적이고 선해 보여도 이 생명을 이룰 수 없다.

이 점에서 예수님은 유일한 구원자다. 왜냐하면 그분만이 생명의 근원이시기 때문이다. 요1:4는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고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더라.”라고 증언한다. 생명은 예수님께서서 전달하는 무엇이 아니라, 그분 자신에게 본질적으로 속한 것이다.

따라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말은, 어떤 보상을 받는다는 뜻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님과 연합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분 안에 거할 때에만 하나님의 생명이 주어지고, 그 생명만이 죄와 죽음을 이긴다. 바울이 죽음을 눈앞에 두고도 흔들리지 않았던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의 사도직은 세상의 인정 위에서 있지 않았고, 그의 소망은 이 땅의 연장에 있지 않았다. 그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 위에서 있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천국에 가기 위한 선택이 아니다. 그것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결정적인 전환이며, 오직 예수님 안에서만 가능한 구원이다. 이 때문에 성경은 타협하지 않는다. 다른 길도, 다른 이름도, 다른 생명의 근원도 없다고 선언한다. 생명의 약속은 오직 한 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다. **우리는 이것을 확신하는가?**

바울의 사랑 (2절)

“나의 극진히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야”라는 표현은 “믿음 안에서 나의 아들인 디모데”(딤후 1:2)라는 말보다 훨씬 더 강한 표현이다. 바울의 생이 끝을 향해 갈수록, 그는 디모데가 자신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더욱 깊이 깨닫게 되었다.

바울은 자신의 상황이 매우 어려웠지만 크게 낙심하지 않았다. 그는 그리스도의 대사(“사도”)였고, 주님께 서 자신을 돌보실 것을 알고 있었다. 어떤 일이 일어나든 그것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었기에 두려워할 이유가 없었다. 더 나아가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죽음을 이기셨다(딤후 1:10). 그러므로 외적으로 어둠 속에 있던 바울이 디모데에게 “은혜와 긍휼과 화평”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당연한 일이다. 참고로 바울은 목회자들에게 편지를 쓸 때마다 인사말에 “은혜와 화평” 외에 “긍휼”을 덧붙인다(딤후 1:2; 딤후 1:2; 딤후 1:4). 바울은 목회자들에게 특별히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힘든 일이다.**

바울의 기도 (3-4절)

위대한 사도가 자신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은 디모데에게 큰 격려가 되었다. 디모데의 약점과 문제를 잘 알고 있던 바울은, 분명한 목표와 진정한 부담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었다. 자신이 곧 죽게 될 것을 알았던 바울은, 마지막 교제의 시간을 위해 디모데가 로마로 오기를 간절히 바랐다. 너는 곧 내게 오도록 힘쓰라.(4:9) 그것은 바울의 마음에 큰 기쁨을 가져다줄 일이었다.

바울은 조상들로부터 이어진 신앙 가운데서 순수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겼다. 바울은 “히브리인 중의 히브리인”(빌 3:5)으로서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알고 자랐다. 그의 조상들은 정통 유대 신앙을 그에게 물려주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 바울은 유대교 신앙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될 것을 예비한 단계였음을 깨닫게 되었다.

그는 자신이 받은 빛의 범위 안에서 순수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겼고, 양심에 거리낌이 없도록 사는 것을 날마다 힘썼다(행 24:1516).

바울이 양심을 많이 거론하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선한 양심(행23:1, 딤후1:5; 1:19, 히13:18), 순수한 양심(딤후3:9; 딤후1:3)

고후1:12, 우리가 세상에서 생활할 때에 단순함과 하나님께 속한 순전함으로 하였고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였으며 너희를 향해서는 더욱더 그리하였노니 이것이 우리의 기쁨이요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라.

이 순수한 양심은 그의 기도에 능력을 더해 주었다.

바울은 디모데를 다시 만나기를 간절히 바랐다(4). 그 이유 중 하나는 마지막 이별 때 디모데가 흘렸던 눈물을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디모데는 바울과 헤어질 때 슬퍼하며 울었고 바울은 그 눈물을 통해 디모데의 진실한 사랑을 보았기에 다시 만나기를 원했다. 디모데의 순수한 마음을 읽는다. 이런 청년이 교회를 맡아서 목회하는 것을 생각하며 바울은 늘 기도하였다.

디모데의 꾸밈없는 믿음(5절)

바울은 오랜 동안 디모데의 삶과 사역을 지켜보았다. 그는 디모데의 믿음이 진짜임을 확신했다. 디모데는 경건한 가정에서 자랐고, 위대한 사도의 훈련을 받았으며, 주님을 섬길 수 있는 놀라운 기회들을 부여받은 복된 유산을 가진 사람이었다.

‘꾸밈없는 믿음’: 이것은 참되고 진실한 믿음이었다. 그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렀고, 그의 믿음은 하나님과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사랑으로 일하였으며, 선한 행위가 뒤따르는 믿음이였다.

즉 위선과 가식이 없는 순수한 믿음이였다.

이 믿음의 출발은 디모데의 외할머니 로이스, 그녀가 먼저 그리스도께로 인도되었고, 이어서 그의 어머니 유니게가 회심한 것으로 보인다. 어머니와 외할머니는 디모데에게 성경을 가르쳤고(딤후 3:15), 이것은 디모데가 복음을 받아들이는 데 큰 밑받침이 되었다. 바울이 1차 선교 여행 중 루스드라에 왔을 때, 디모데는 이런 영향으로 인해 회심하였을 것이다.

아이들과 손자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로이스와 유니게가 한 일은 특별한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자녀에게 성경을 가르쳤고, 말씀을 삶 속에서 들려주었으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을 일상 속에서 보여 주었다. 그 결과 디모데는 복음을 들었을 때 낯설어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마음이 준비된 사람이 되어 있었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 매우 분명한 교훈을 준다. 아이들과 손자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유산은 물질도, 학벌도, 성공의 기술도 아니다. 믿음이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과 성경을 두려움과 사랑으로 대하는 태도,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마음, 이것이 다음 세대를 살리는 진짜 유산이다.

신앙은 자동으로 전수되지 않는다. 교회에 다닌다고, 부모가 믿는다고 저절로 이어지지 않는다. 의도적으로 가르쳐야 하고, 반복해서 들려줘야 하며, 삶으로 보여 줘야 한다. 로이스와 유니게가 그랬듯이, 말씀을 아이들의 기억 속에, 마음속에, 양심 속에 심어 주어야 한다. 그 씨앗은 당장 열매를 맺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그 말씀은 반드시 살아 움직인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도 같다. 우리는 다음 세대를 대신해 믿을 수 없다. 그러나 다음 세대가 믿을 수 있도록 준비시킬 수는 있다. 아이들과 손자손녀들이 언젠가 복음 앞에 서게 될 때, 그 말씀이 낫설지 않도록, 하나님의 이름이 가볍게 되지 않도록, 성경이 생소한 책이 되지 않도록 지금 심어야 한다.

신앙의 유산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원히 남는다.

그리고 그 유산을 남기는 일은, 어느 세대에게나 하나님께서 맡기신 가장 거룩한 책임이다.

디모데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6-7절)

여기에는 디모데에게 그의 의무를 알려주고 권면하면서 격려하는 말씀이 나온다(6절).

“내가 너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노니.” 가장 뛰어난 사람들에게도 중요한 것을 상기시켜 줄 필요가 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도 다시 일깨워져야 한다. 베드로후서 3장 1-2절을 기억하라.

1.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선물(은사)을 다시 불붙이라고 권면한다. 그 선물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다. 아마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음 전도자의 사역을 감당하도록 주신 선물과 은혜, 성령님의 선물들, 특히 사도의 안수를 통해 부여된 특별한 선물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디모데는 이런 선물을 사용함으로써 다시 일깨워야 했고, 그렇게 사용함으로써 더욱 자라게 해야 했다. 하나님의 선물을 사용하는 것이 곧 선물을 늘리는 길이다. 디모데는 모든 기회를 붙잡아 이 선물들을 사용해야 했고, 그것이 곧 선물을 불붙이는 최선의 방법이었다.

2. 디모데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을 불붙이지 않으면 쇠퇴하게 된다. 더 나아가, 이 선물은 사도의 안수를 통해 디모데 안에 있었는데, 이것은 장로회의 안수로 이루어진 그의 임직과는 구별된다(딤후 4:14).

3. 사도 시대에는 안수가 일반적인 관행이었지만(행 6:6; 13:3), 오늘날 어떤 신자도 사도들과 동일한 권위와 특권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 이제는 더 이상 사도가 없다. 오늘날의 안수는 상징적인 행위이며 반드시 특별한 영적 은사를 전달하는 것은 아니다.

4. 하나님의 선물을 유익하게 사용하는 것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는 두려움이다.

그러므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것을 경고한다. “하나님께서서는 우리에게 두려움의 영을 주지 아니하셨느니라”(7절). 마25장 달란트 비유, 일 달란트를 받은 악한 종이 자기 달란트를 땅에 묻은 것도 바로 이 두려움 때문이었다(마 25:24-25).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반복해서 말씀하심으로 우리를 두려움의 영으로부터 무장 해제시키셨다.

수1:8-9, 여호수아에게 반복해서 주시는 말씀도 두려워하지 말라.

“사람의 얼굴을 두려워하지 말라. 네 의무의 길에서 마주칠 위험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려움의 영이 아니라, 권능과 사랑과 건전한 생각의 영을 주셨다.

5. 여기의 영은 성령님 자체를 가리킨다기보다, 성령님께서 구원받은 사람 안에서 만들어 내시는 성향, 기질, 지배 원리를 가리킨다.

권능의 영: 어려움과 위험을 맞서 이겨 내는 담대함과 결단의 영이다. 하나님의 사역자나 성도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의 이름으로 말한다.

사랑의 영: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사람에게 대한 두려움과 사람이 우리에게 가할 수 있는 모든 해악과 반대를 이겨내게 한다. 또한 이것은 영혼을 향한 사랑이다. 이 사랑이 모든 사역 가운데 사역자들을 불타게 해야 한다.

건전한 생각의 영: 이것은 마음의 평온과 안정을 뜻한다. 우리는 종종 스스로 만들어 낸 상상과 환상 때문에 사역과 길에서 낙심하는데, 맑은 정신으로 건전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런 것들을 미리 막아 주고 쉽게 바로잡아 준다. 사역자는 바르게 생각하고 진리와 절제의 말을 해야 한다.

로저 윌리엄스

요즘 교회사 시리즈 강해, 교회사 책, 무료로 다운받기 바란다. [더 보기 링크](#)

지난 금요일 1638년에 미국 최초로 침례교회를 세운 로저 윌리엄스 이야기

1600년경, 영국 국교도 탄압, 신앙의 자유를 찾아 미국 신대륙에 청교도들 이주

매사추세츠 주에서 청교도 신정 국가 건설, 오직 청교도 신앙만 허용함

1631년 28살의 로저 윌리엄스 매사추세츠에 도착함, 성경을 읽고 급진적 주장을 펼침

1. 정교분리: 교회와 국가는 분리되어야 한다. 국가는 시민적 문제를 다루고, 교회는 영적 문제를 다룬다. 둘은 서로의 영역을 침범해서는 안 된다.
2. 양심의 자유: 각 사람은 자신의 양심에 따라 하나님을 예배할 권리가 있다. 이는 하나님께서 주신 양도할 수 없는 권리이다.
3. 신자 침례: 침례는 믿는 자들에게만 주어져야 한다. 유아 세례는 성경적이지 않다.
4. 성경의 최종 권위
5. 원주민의 권리: 아메리카 원주민들은 그들의 땅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 유럽인들은 그들의 땅을 빼앗을 권리가 없다.

이 원리들은 처음에는 극소수만 받아들였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그 지혜를 인식하게 되었고 150년 후 이 원리들은 미국 헌법의 기초가 되었다. 1791년 미국 헌법 수정 조항 제1조로 정착함

1638년 미국 최초의 침례교회 설립, 프로비던스 도시, 로드아일랜드에서 세계 최초로 양심의 자유를 선포하고 실행함

로저 윌리엄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려움의 영을 주지 아니하시고 권능과 사랑과 건전한 생각의 영을 주셨다(딤후1:7).

이런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바꾸는 사람이 되자.

나와 우리 교회, 성경대로 믿기 원하는 분들이 이런 담대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 한국을 바꾸는 일을 해야 한다.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딤후 강해 2권
하나님의 권능에 따라
복음의 고난에 참여하라

딤후1:8-12

디모데후서는 바울의 유언이다. 그것이 목회하는 디모데에게 목회 서신으로 주어졌다, 이 당시 바울은 로마의 죄수로 자유를 잃고 죽음 앞에 놓여 있음을 알고 있었다(딤후 4:6).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함께 사역하던 동역자들의 대부분이 떠났다. 대다수 성도들도 그를 버렸다. 외적으로는 참으로 어두운 시간이었다.

바로 이런 시점에 바울은 디모데와 복음 사역에 초점을 맞추고 어두운 감옥에서 유언의 편지를 쓰고 있다.

지난 시간, 딤후1:6-7, 그러므로 내가 안수함으로 네 안에 있게 된 하나님의 선물을 네가 불붙이게 하려고 너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노니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움의 영을 주지 아니하시고 권능과 사랑과 건전한 생각의 영을 주셨기 때문이라.

디모데에게 주는 격려의 글: 하나님이 주신 영적 선물을 다시 불붙이고, 두려워하지 말고 권능과 사랑과 건전한 생각으로 목회 사역을 신실하게 감당하라.

나와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좋을 것이다.

오늘 < > 하나님의 권능에 따라 복음의 고난에 참여해야 한다. 약 30년 간 온 세상을 돌아다니며 갖은 고난을 겪으며 복음을 선포한 그가 복음의 고난에 참여하라고 디모데에게 권면한다.

우리 주의 증언과 그분의 죄수인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라(8).

딤후 1장에서 핵심적으로 반복되는 말은 “부끄러워하지 말라”이다. 바울은 자신을 부끄러워하지 않았고(딤후 1:12), 디모데에게도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권면했으며(딤후 1:8), 오네시보로가 바울의 사슬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고 증언한다(딤후 1:16).

디모데는 본성이 소심한 사람, 그래서 그는 고난이 따르는 상황이 생기면 쉽게 피하려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는 사람, 그래서 바울은 아버지로서 다시 한 번 아들자에게 꼭 필요한 격려를 준다.

본성적으로 고난을 즐기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심지어 우리 주님께서도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눅 22:42)라고 기도하셨고, 바울 역시 자신의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달라고 세 번이나 기도했다(고후 12:7-8). 그러나 고난은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일부가 될 수 있다. 이것이 신약 성경의 명백한 가르침이다.

그리스도인들은 잘못을 저질러서 고난을 받아서는 안 된다(벧전 2:20; 3:17). 오히려 때로는 옳은 일을 하고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 우리가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는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며(빌 3:10), 교회를 대신하여 고난을 받는 것이다(골 1:24). 딤후3:12, 참으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모든 자는 핍박을 받는다.

자 왜 디모데는 부끄러워하면 안 되는가?(8)

1. 복음이 우리 주님의 증언이기 때문이다.

주님의 증언은 주님이 하신 증언이기도 하지만 주님에 대한 증언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 즉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님과 성경이 우리 주님에 대해 증언하신다(하나님, 구원자, 십자가, 부활, 메시아 심판자 등)

하나님께서서는 주님에 대한 증언인 복음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다.

따라서 디모데가 주님의 증언인 복음을 부끄러워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을 부끄러워하는 것이다.

2. 바울이 주님으로 인한 죄수이기 때문이다(엡 4:1). 그는 악한 일을 하지 않았다. 바울의 고백(행 25:11), 만일 내가 범죄자이거나 죽을 짓을 하였다면 죽는 짓을 마다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들이 나를 고소하는 이 일들 중에 그런 것이 없다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넘겨줄 수 없나이다. 내가 카이사르에게 청원하나이다, 하니, 바울은 죄 때문인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증언한 결과로 감옥에 있었다.

그러므로 바울의 사슬은 부끄러움의 표시가 아니라, 충성의 표였다. 부끄러워할 이유가 없다.

3. 복음(진리)이 공격받을 때, 복음(진리)과 함께 고난받는 사람들과 거리를 두는 것은 안전해 보일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곧 복음과 거리를 두는 선택이 된다(대다수 에베소 성도들, 딤후1:15).

그래서 바울은 디모테에게 복음 때문에 고난받는 자들과 함께 고난받으라고 권면한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다.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받는 이들과 자신을 동일시하는 것을 부끄러워하거나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하나님의 권능에 따라 복음의 고난에 참여하라(8).

이 말씀은 “복음을 전하면 고난이 있다. 그것을 각오하며, 이 세상에서 고난받는 성도들과 함께 고난의 몫을 함께하라”는 뜻이다. 다시 말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는 것이다. 단지 고난받는 이들을 동정하는 데 그치지 말고, 그들과 함께 고난받을 준비를 하라는 말이다.

만일 성경과 그리스도의 복음이 박해·무시·억압을 받는 처지에 놓인다면, 성경 신자들은 자기의 안락을 택하지 않고, 복음과 성경으로 인한 고난에 기꺼이 참여해야 한다.

1. 모든 그리스도인들, 특히 사역자들은 복음 때문에 고난과 박해를 당할 것을 각오해야 한다.
2. 그러나 그 고난은 하나님의 권능에 따라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조절될 것이다(고전 10:13).

복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위대한 일들 (9-10절)

우리의 구원과 성화는 하나님께서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정하신 크고 영원한 계획의 일부다.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끝을 아신다. 그분께서는 자신의 영광을 위해 백성들이 이루어야 할 목적들을 가지고 계신다. 그리고 고난은 그 목적의 일부다.

바울은 디모테가 복음 사역 가운데 피할 수 없는 고난을 맞이할 것을 알았기에, 그 고난에 대비하도록 미리 권면한다. 이를 위해 복음이 얼마나 위대하고 영광스러운지를 상기시킨다.

1. 복음의 목적은 우리의 구원이다.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9)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으로 인해 고난받는 것을 이상하게 여길 이유가 없다. 우리 몸이 영화롭게 되는 것은 미래에 이루어질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직 완성되지 않은 것도 이미 된 것처럼 말씀하신다(롬 4:17). 그래서 “이미 구원하셨다”고 말한다.
2. 복음의 또 다른 목적은 우리의 성화이다.
“하나님은 거룩한 부르심으로 우리를 부르셨다.” 구원받은 성도는 반드시 거룩함을 추구한다. 구원받자마자 성화의 길로 들어서게 된다.
3. 9절의 강조점은 은혜에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지, 우리가 스스로를 구원한 것이 아니다(엡 2:8-9; 딤후 3:5).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선한 행위를 근거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자신의 은혜에 근거해 부르셨다. 우리가 이루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목적이며, 그 목적에 고난이 포함되어 있다면, 우리는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며 하나님의 뜻이 최선임을 신뢰할 수 있다. 이것은 운명론이 아니라, 은혜로우신 하늘 아버지의 지혜로운 계획에 대한 신뢰다.
4. 이 모든 은혜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졌다(9). 우리는 그것을 돈으로 살 수 없고, 공로로 얻을 수도 없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
5. 그 은혜가 우리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 즉 초림으로 이제 분명히 드러났다(10). 십자가의 죽음, 단번 속죄, 대신 속죄의 은혜
6.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죽음을 이기셨다(10)

우리가 소심해지는 이유는 두려움 때문이다. 우리는 무엇을 두려워하는가? 고난과 죽음인가? 바울은 이 편지를 쓸 때 이미 죽음을 마주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마지막 원수인 죽음을 이기셨음을 확신하고 있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것을 이기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로 말미암아 죽음을 폐하셨다
폐하다. abolish, 완전히 파괴하다.

이제 죽음은 더 이상 우리의 원수가 아니라, 고통 많고 죄 많은 세상에서 완전한 평안과 거룩함의

- 세계로 들어가는 문이 되었다. 믿는 자들은 죽음에게 패배하지 않고 오히려 죽음을 이긴다.
6. 그리스도께서는 복음을 통해 생명과 죽지 아니함 즉 불멸을 밝히 드러내셨다.
“죽지 아니함, 불멸”은 썩지 아니함을 뜻하며 이는 부활의 몸을 가리킨다. 현재의 몸은 썩을 몸이지만, 우리가 그리스도를 빌 때 입게 될 영광의 몸은 썩거나 죽지 않는다(고전 15:49-58; 빌 3:21). 더 나아가 우리가 받을 하늘의 상속유업은 “썩지 아니하고 더럽지 않으며 사라지지 아니하는 것”(벧전 1:4)이다.
 7. 이 땅에 오심으로써(10절) 예수님은 이전 어떤 시대보다도 더 분명하게 천국과 그것의 복을 보여 주셨다. 복음은 생명과 불멸을 단지 보여 주는 데 그치지 않고 그것을 우리에게 취하라고 제안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을 그 어느 때보다 귀하게 여겨야 한다. 복음은 우리가 영광과 존귀와 불멸을 추구하도록 강력한 동기를 제공한다.

복음을 위해 고난받은 바울 자신의 본 (11-12절)

비록 죄수의 몸이었지만, 바울은 옥에서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하고 있었다. 안타깝게도 대다수 에베소 사람들은 바울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를 버렸다(딤후 1:15). 그들 중 많은 사람은 로마에 와서 바울을 변호할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 오히려 옥에 갇힌 바울 사도를 부끄러워했다. 디모데가 그들과 보조를 맞추었다면, 그의 에베소 사역은 훨씬 수월했을 것이다. 그러나 바울은 그에게 신실함을 지키라고 권면한다. 바울은 디모데가 자신과의 연관성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할 데 가지 이유를 제시한다.

1. 바울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선포자이다(11절).
다마스쿠스 길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바울을 만나 복음 사역으로 부르셨다(행 9장). 그는 왕의 공식 전령과 같은 복음의 선포자였다. 아시아의 자칭 신자들이 그를 거부한다고 해서 그의 부르심이나 메시지가 변하지는 않는다.
2. 바울은 사도다: 위임을 받아 파송된 자다.
모든 그리스도인이 사도는 아니었다. 사도는 특정 자격을 갖추고, 주님께 직접 선택받아야 했다.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표했으며 사도를 거절하는 것은 곧 주님을 거절하는 것이었다.
3. 바울은 이방인들의 교사였다.
이 사실 때문에 그는 처음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행 22:21 이하). 아시아(에베소)의 이방인 신자들은 바울에게 감사하며 그를 지지했어야 했다. 그러나 그들은 오히려 그를 부끄러워하며 거리를 두었다.
4.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12절).
바울은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이유는 분명하다. “나는 내가 믿어 온 분을 알고 있다.”
구원은 단순히 교리를 믿어서 생기는 결과가 아니다(교리는 중요하지만). 죄인은 인격체이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바울은 자신의 영혼을 구원자의 손에 맡겼고, 그분께서 자기가 맡긴 것을 그 날까지 지키실 것을 확신했다. 중요한 것은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가 아니라, 그 날,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종들에게 보상해 주시는 날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다.
5.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는 그리스도께 신실하게 서서,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분을 위해 고난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우리는 바울처럼 감옥에 갇히지는 않을지라도, 다른 방식의 고난을 겪는다. 친구를 잃거나, 승진에서 제외되거나, 고객을 잃거나,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는 일 등이다.
6. 바울의 고난, 행 24:14-16, 고후11:23-30

신약 교회 역사, 2부

스위스 재침례교도들, 만츠, 그라벨, 블라우룩 등 수장 화형 당하면서도 성경이 옳고 츠빙글리 등 국가 교회를 하면서 양심의 자유를 억압하는 사람들은 옳지 않다.

화형당하면서도 시편 23편을 낭송하며 죽어갔다.

영국 침례교, 존 스미스, 토마시 헬위스, “필멸의 왕은 결코 인간 영혼의 주인이 아니다. 인간 영혼의 주인은 한 분 하나님밖에 없다.” 유아 세례, 국가 교회, 사람의 전통이 아니라 성경이 최종 권위다.

역시 많은 고난과 핍박을 당했다.

미국 매사추세츠 주 정교도 신정 국가

1631년 2월 로저 윌리엄스의 등장(28살)

그는 성경에 근거하여 명확하게 주장했다.

1. 국가는 교회의 신앙을 강요할 권리가 없고, 교회는 국가 권력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것,
2. 양심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며 그 어떤 인간 권력도 그것을 억압할 수 없다는 것,
3. 그리고 유럽인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원주민들의 땅을 빼앗는 것은 명백한 죄라는 것이었다.

청교도 지도자들은 이것을 위험한 사상으로 보았다.

정교분리와 양심의 자유는 곧 청교도 신정 질서의 붕괴를 의미했기 때문이다.

결국 매사추세츠 당국은 로저 윌리엄스를 체포하여 영국으로 송환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1636년 1월(33세), 로저 윌리엄스는 체포되기 직전, 한겨울의 매서운 추위 속에서 쫓겨나듯 공동체를 떠났다.

그는 보호도 없었고, 집도 없었으며, 식량도 거의 없었다.

당시 뉴잉글랜드의 겨울은 오늘날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가혹했다.

눈은 허리까지 쌓였고, 바람은 뺏속까지 파고들었다. 숲은 길이 아니라 장벽이었다.

그는 14주 동안 광야와 숲을 떠돌았다.

낮에는 얼어붙은 땅을 헤치며 이동했고, 밤에는 나무 아래나 임시로 엮은 피난처에서 몸을 웅크려 잠을 청했다. 불을 피우는 것조차 들킬 위험이 있었기에, 추위는 그대로 견뎌야 했다.

그를 살린 것은 신앙과 양심,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원주민들의 도움이었다.

이 광야의 시간은 도피가 아니었다. 그것은 신앙의 대가였다.

국가 교회에 타협하지 않고, 양심을 팔지 않고, 복음의 자유를 포기하지 않은 사람이 감당해야 했던 값이었다.

그러나 바로 이 고난의 여정 끝에서, 로저 윌리엄스는 프로비던스 도시와 로드아일랜드 주를 세웠고,

그곳에서 세계 역사상 처음으로 양심의 자유가 제도로 선언되고 실제로 보장되는 공동체가 탄생했다.

그는 고난을 피하지 않았다. 고난 속에서 진리를 버리지 않았다.

그는 결코 그 길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는 자기 선택을 사람들에게 맡기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는 자기 생명과 사명, 그리고 양심을 하나님께 맡겼다.

바울의 고백이 바로 이것이다(딤후1:12).

“그런 까닭으로 나 역시 이 일들로 고난을 당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내가 믿어 온 분을 내가 알며 또 내가 그 날을 대비하여 그분께 맡긴 것을 그분께서 지키실 수 있는 줄 확신하기 때문이다.”

바울은 이렇게 말한다.

“나는 내가 지금까지 믿어 온 분을 안다.” 그래서 고난 속에서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로저 윌리엄스도 같았다.

그는 자기 안전을 하나님께 맡겼고, 자기 미래를 하나님께 맡겼고, 자기 양심을 하나님께 맡겼다.

그래서 그는 고난을 당했지만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결론

신앙은 고난을 피하는 기술이 아니다. 신앙은 고난 속에서도 우리 영혼과 양심을 맡길 분을 아는 것이다. 우리가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다.

그분께서 우리가 맡긴 것을 그 날까지 지키실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두려움의 영이 아니라, 권능과 사랑과 건전한 생각의 영으로 사는 사람의 믿음이다.

우리 모두가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한다.

딤후 강해 3
바울이 전한 건전한 말씀들
그 동일한 것들을 가르치고 선포해야 한다

딤후1:13-14, 2:1-2

지난 2시간 디모데후서 1장 1-12절 강해

디모데후서는 바울의 유언이다. 당시 바울은 로마의 죄수로 자유를 잃고 죽음 앞에 놓여 있음을 알고 있었다(딤후 4:6).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함께 사역하던 동역자들의 대부분이 떠났다. 성도들의 대다수가 그를 버렸다. 외적으로는 참으로 어두운 시간이었다.

바로 이런 시점에 바울은 디모데와 복음 사역에 초점을 맞추고 어두운 감옥에서 유언의 편지를 쓰고 있다.

디모데에게 주는 격려의 글(6-7절): 하나님이 주신 영적 선물을 다시 붙붙이고, 두려워하지 말고 권능과 사랑과 건전한 생각으로 목회 사역을 신실하게 감당하라.

바울의 경험: 나는 복음을 접한 뒤로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선포했다(11절)

그 이유 12절, 나 역시 이 일들로 고난을 당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내가 믿어 온 분을 내가 알며 또 내가 그 날을 대비하여 그분께 맡긴 것을 그분께서 지키실 수 있는 줄 확신하기 때문이다.

지금 나는 어두운 감옥에서 죽음을 기다리지만 그분을 신뢰한다. 그분께서 내 혼을 지키실 수 있음을 확신한다.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 어둡고 앞이 캄캄하다. 우리는 그분을 신뢰한다. 우리 교회, 성경 사역, 개개인의 앞날, AI 시대, 무엇 하나 의지할 데가 없다. 우리는 그분만을 신뢰한다.

오늘 < > 바울이 선포한 건전한 말씀들이 무엇인가? 성령님을 의지하여 그것들을 지켜야 한다. 개인, 가정, 교회, 국가를 위해 이 일이 가장 중요하다. 특히 목사는 이것을 명심해야 한다.

건전한 말씀들의 틀(13-14).

디모데전후서는 목회 서신, 목사가 어떻게 건전한 교리를 가르쳐야 하는가를 알려주는 것

딤후3:16, 모든 성경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 주어진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교훈이 아니라 교리

하나님께서서는 영적 진리의 건전한 교리를 바울에게 맡기셨고(딤후전 1:11), 바울은 그것을 디모데에게 맡겼다(딤후전 6:20). 이제 디모데에게는 그 귀중한 기독교 교리의 말씀들을 “굳게 붙들고”(딤후 1:13), “지키며”(딤후 1:14),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수해야 할 엄숙한 책임이 있었다(딤후 2:2).

여기서 ‘말씀들의 틀’(form)이라는 말(딤후 1:13)은 ‘설계도면’을 뜻한다. 초대 교회에는 분명한 교리의 틀이 있었고 그것이 모든 교리를 시험하는 기준이었다. 만일 디모데가 이 틀을 바꾸거나 버린다면, 다른 교사들과 설교자들을 분별할 기준 자체를 잃게 된다. 오늘날 우리도 같은 이유로 바울이 가르친 것들을 굳게 붙들어야 한다.

딤후1:14-18은 바울의 고립된 상황 설명, 15절, 바울의 인간적인 슬픔과 고통을 보여 준다.

이 부분은 딤후 4장에서 그와 함께 하던 다수의 사역자들이 그를 떠난 것과 함께 한 단원으로 강해하려 한다. 사실 딤후1:14-18은 괄호 부분, 건전한 말씀들의 틀을 지키라고 하고는 갑자기 자기가 당하고 있는 고난이 떠올라 자신의 현황을 이야기한 것이다.

그 뒤에 다시 딤후2:1-2로 가면서 ‘건전한 말씀들의 틀’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보여 준다.

딤후2:1-2, 동일한 것들을 전달하라

현시대 많은 사람들이 겪고 있는 위기 중 하나: 정체성의 위기, 내가 누구인가?

바울은 디모데가 그런 정체성의 위기를 겪지 않기를 바랐다. 그래서 그는 2장에서 목회자가 무엇이든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매우 분명하게 설명해 준다. 물론 이 원리들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 바울은 먼저 사역자와 그리스도인을 ‘말씀을 맡은 청지기’로 묘사한다.

목회 사역, pastoral ministry, minister는 섬긴다는 뜻이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섬기는 일을 해야 한다. 그것을 우말 성경에서는 사역이라고 부른다. 그리스도인의 사역은 우리 자신만을 위해 간직하는 것이 어떤 것이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영적 보물을 관리하는 청지기다. 우리의 책임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을 지키는 데서 끝나지 않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의 삶 속에 투자하는 데 있다. 그리고 그들은 또다시 다음 세대의 신자들에게 그것을 전달해야 한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처음 받은 이 보물이 하나님의 말씀들이라는 점이다.

우리는 현시대의 모든 것,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들, 특히 바울을 통해 주어진 진전한 말씀들의 틀로 시험해야 한다. 꿈, 환상, 직통 계시 등은 다 인간의 창작품,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성경의 완성 이후에 하나님은 성경 이외의 다른 계시를 주지 않는다. 하나님의 모든 뜻은 성경에 있다. 개인의 체험 등이 있을 수 있지만 그 모든 것은 진전한 말씀들의 틀로 시험해야 한다. 그 틀에 맞아야만 하나님의 것이다.

바울의 확신(2:2)

내가 **많은 증인들 가운데서** 내게 들은 것들 바로 그것들을 신실한 사람들에게 맡기라.

1. 좁은 의미: 딤후4:14, 여러 장로들과 성도들 앞에서 목회자로 임명될 때 그가 바울에게서 들은 것들 아마도 디모테를 임명할 때 바울 사도는 기독교 교리의 요약물 제시했을 것이고 디모테에게 그것을 신실하게 붙들고 지키라고 권면했을 것이다.

2. 그러나 “디모테가 바울에게서 들은 것들”을 그렇게 좁게 이해하기보다는, 훨씬 더 넓은 의미로 보는 것이 더 적절하다. 그것은 단순한 신앙 고백의 범위를 훨씬 넘어선다. 지금 바울은 사역을 마무리하는 단계, 그러므로 자기가 가르친 것들을 확고하게 디모테에게 상기시켜 주어야 한다.

따라서 디모테가 많은 증인들 가운데서 ‘들은 것들’은 분명히 바울의 가르침 전체, 곧 바울 신학의 총체적 개념이었다. 오랜 세월 동안 사도의 친밀한 동역자이자 신뢰받는 제자였던 디모테는, 이제 그것을 다음 세대의 신자들에게 전해 주어야 했다.

그것은 사실상 “나의 복음”이라 부른 바울의 복음이었다(2:8). 즉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복음을 집약한 교리들이었다.

그것들은 과거에 로마서나 에베소서, 히브리서 등 바울 서신들에 담겨 있었던 신학이었다.

디모테는 그것들을 여러 번 들었다. “많은 증인들”에는 이방인과 유대인, 부자와 가난한 자, 배우지 못한 이방 죄인들, 예루살렘과 알렉산드리아의 학문 학교에서 훈련받은 랍비들까지 포함된다.

즉, 바울의 복음은 특정 집단만이 아니라, 모든 계층과 모든 배경의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선포된 진리였다.

디모테는 유대인들 앞에서, 그리스도인들과 그들의 장로들 앞에서, 우상 숭배자들로 구성된 집회들 앞에서, 자기 스승이었던 바울 사도가 간절하고 설득력 있는 음성으로 수많은 증인들 가운데서 선포하는 것을 반복하여 들었다.

이제 죽음 앞둔 바울은 디모테에게 바로 ‘그것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맡기라고 말한다.

가장 중요한 단어: The same

디모테가 반드시 유념해야 하는 한 단어가 2장 2절에 기록되어 있다. (*)

The same, 복수, 내게 들은 것들, 바로 그 동일한 것들을 성도들에게 가르쳐야만 한다.

개역성경 등에는 이 중요한 단어가 빠져 있다. NIV 등 현대 역본 다 동일함, 유일하게 KJV에만(*) 즉 디모테는 바울이 가르친 것들, 선포한 것들과 동일한 것들만 가르치고 선포해야 한다.

“the same”은 내용의 동일성, 교리의 연속성, 복음의 변질 금지를 선언하는 단어이다.

디모테는 바울이 가르친 것과 바울이 선포한 것과 바울이 고난 가운데 지켜 낸 것과 조금도 다르지 않은 동일한 것들만 전해야 한다.

다른 것을 추가해서도 안 되고, 빼서도 안 되며, 부드럽게 만들기 위해 수정해서도 안 된다.

복음은 개선의 대상이 아니라 전달의 대상이다.

바울의 복음을 개선하면 다 성경에서 벗어난 것들이 된다.

바울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가르치고 선포하였을까?

조직 신학의 관점에서 설명하자.

1. 성경론 — 계시된 말씀(딤후 3:16)

“모든 성경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 주어진 것이다”

바울이 전한 것은 철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다.

복음은 사람의 사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다.

디모데는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주신 말씀들을 동일하게 전해야 했다.

2. 신론 —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딤후 1:9)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거룩한 부르심으로 부르신 것은 우리의 행위에 따른 것이 아니요, 자신의 목적과 은혜에 따른 것인데”

구원은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과 은혜에서 시작된다. 구원은 인간의 작품이 아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그는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믿고 가르치고 선포하였다(엡 4:4-7).

3. 인간론 — 인간의 전적 죄성(롬 3:23)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엡 2:1, “범법들과 죄들 가운데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께서 살리셨도다.”

바울의 복음은 인간을 높이지 않는다. 인간의 전적인 타락, 부패

인간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존재이다. 구원자를 필요로 한다.

4. 그리스도론 — 그리스도의 신성과 사역

딤후 3:16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셨고...”, 그가 아니라 하나님이다.

딤후 1:10: “우리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사 사망을 폐하시고 복음을 통해 생명과 죽지 아니함을 밝히 드러내셨느니라.”

고후 5:21,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 못한 그분을 우리를 위해 죄가 되게 하신 것은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는 하나님이며 처녀탄생을 통해 육체로 오셨고 대속의 죽음으로 죽으셨으며 사망을 폐하셨다. 이것이 바울의 복음의 핵심이다.

5. 성령론 —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 성령 침례

고전12:13, 우리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매인 자든 자유로운 자든 모두 한 성령에 의해 침례를 받아 한 몸 안으로 들어왔고 모두가 마시게 되어 한 성령 안으로 들어왔느니라.

성령님의 내주

고잔6:19, 무슨 말이나? 너희 몸이 너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6. 구원론 — 은혜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인정받는다.

엡 2:8-9,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구원은 믿음을 통해 은혜에 의해 거저 주어지는 선물이다, 인간의 기여는 0이다. 100% 하나님의 선물이다.

성화, 반드시 오게 되어 있다. 엡2:10,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서 그 선한 행위를 미리 정하신 것은 우리가 그 행위 가운데서 견제 하려 하심이니라.

7. 교회론 — 진리의 위탁

딤후 3:15 “하나님의 집 곧 살아 계신 하나님의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딤후 2:2, “바로 그것들을 신실한 사람들에게 맡기라.”

교회는 새 교리를 만드는 곳이 아니라 진리를 보존하고 전달하는 곳이다.

신약 교회: 신자 침례, 유아 세례 No! 구원받은 자들만의 교회, 회중 통치, 칼빈 루터 등의 국가 교회 No! 정교 분리(국가 교회 No!), 개인 양심의 자유

8. 종말론 — “그 날”

딤후 1:12, “내가 그 날을 대비하여 그분께 맡긴 것을 그분께서 지키실 수 있는 줄 확신하기 때문이라” 부활과 휴거(고전15:50-54)

살전4:16-17

주님의 보상: 딤후 4:7-8,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끝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므로 (4:8) 이후로는 나를 위해 의의 왕관이 예비되어 있나니 주 곧 의로우신 심판자께서 그 날에 그것을 내게 주실 것이요, 내게만 아니라 그분의 나타나심을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도 주시리라.

바울은 현재가 아니라 “그 날”을 바라보며 복음을 전했다.

지옥(살후1:8-9),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타오르는 불로 징벌하실 때에 이루어질 것이며 그때에 그들은 주의 얼굴 앞과 그분의 권능의 영광에서 떠나 영존하는 파멸로 형벌을 받으리라.

디모데에게 주는 권고(2:1)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데에는 힘이 필요하다. 우리는 성경이라는 풍성한 광산 속에서 숨겨진 “금과 은과 보석”을 캐내야 한다(잠 2:1-10; 3:13-15; 8:10-21; 고전 3:10-23 참조). 이 힘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부터만 나온다. 바울의 위대한 사역의 비결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지금의 내가 되었으니 내게 주어진 그분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그들 모두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그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라(고전 15:10).

말씀을 연구하고, 이해하고, 가르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다. “가르치기를 잘하는 자”(딤후 3:2; 딤후 2:24)는 목회자에게 요구되는 중요한 자격 중 하나다. 가르치기를 잘한다는 것은 곧 배우기를 잘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청지기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연구하는 학생이어야 한다.

바울의 또 다른 권고(딤후1:13-14)

디모데의 바른 교리는 “믿음과 사랑”으로 조절되어야 했다.

1. 그리스도에게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어야 한다.
2.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라”(엡 4:15)는 것이 하나님의 방식이다. 믿음을 지키려는 열심 때문에 쉽게 공격적으로 변하거나, 문제를 만들어 내는 이단 사냥꾼이 되기 쉽다.
3. 이 진리를 디모데에게 맡기신 분은 성령님이시며(14절), 그분께서 그것을 지키도록 도우신다. 성령님의 사역이 없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일에서 우리는 어둠 속에 있다. 말씀을 가르치시는 분도 성령님이시며(요 16:13), 그 진리를 지키고 다른 이들과 나누게 하시는 분도 성령님이시다.

인류 역사의 처음부터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해 왔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그렇게 말씀하셨느냐?”(창 3:1)는 말이 사탄의 첫 질문이었고, 그는 지금도 같은 질문을 던진다. 교회 역사 전반에 걸쳐 하나님의 말씀은 수없이 공격을 받아 왔는데, 그 공격은 종종 교회 안에서 나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은 오늘까지 서 있다.

왜 그런가? 바울과 디모데처럼 헌신된 사람들이 자기들이 맡은 건전한 말씀들의 틀을 그대로 동일하게 다음 세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신실하게 넘겨주었기 때문이다.

우리가 해야 할 일: 바울이 가르친 동일한 것들을 후대에게 가르치고 맡겨야 한다.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그는 저주를 받는다.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선포한 복음 외에 다른 어떤 복음을 너희에게 선포하면 그는 저주를 받을지어다(갈1:8).

이 동일한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맡기는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성령님을 의지하여 이 일을 감당하는 저와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원한다.

딤후 강해 44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
깊이 생각하고 깨닫는 사람

딤후2:3-7

디모데후서는 바울의 유언이다. 당시 바울은 로마의 죄수로 자유를 잃고 죽음 앞에 놓여 있음을 알고 있었다(딤후 4:6).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함께 사역하던 동역자들의 대부분이 떠났다. 성도들의 대다수가 그를 버렸다. 외적으로는 참으로 어두운 시간이었다.

바로 이런 시점에 바울은 디모데와 복음 사역에 초점을 맞추고 어두운 감옥에서 유언의 편지를 쓰고 있다. 혹시 그가 목회자의(성도의) 정체성을 잃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에 바울은 2장에서 디모데에게 목사는 어떤 사람인가를 일곱 가지를 들어 설명한다.

1. 청지기(1-2), 2. 군인(3-4), 3. 운동선수(5), 4. 농부(6-7), 5. 일꾼(14-18), 6. 그릇(19-22), 7. 종(23-26)

지난 시간, 목사는 청지기이다. 성도도 마찬가지이다. 어떤 청지기? 건전한 말씀들을 받아서 지키고 전달하는 청지기. 어떤 말씀들, 바울이 전한 말씀들과 동일한 것들(2)

신약 시대 교회와 목사가 전해야 할 것들은 바로 이것들이다(딤후2:2). 절대 다른 것 전하면 안 된다. 오늘 < >, 목사와 성도는 군사, 운동선수, 농부, 깊이 생각하고 깨닫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3-4)

바울은 자신의 서신들에서 종종 군사적 비유를 사용하였다(고후10:3-5; 엡6:10-17 등). 그가 군사 국가에 살았고, 또한 자신이 감옥에 있었기 때문에 이는 놀라운 일이 아니다.

오늘 딤후2:3-4 구절들에서도 그는 목사와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어야 함을 말하며 이런 군사의 특징을 설명한다.

1. 왜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인가?

군사의 정체성은 “누구의 군사인가”에 달려 있었다.

로마 군사는 로마 황제의 군사였다.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라는 말의 의미

너는 교회의 군사가 아니다. 너는 사람의 군사가 아니다. 너는 바울의 군사가 아니다.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이다.

목회의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것이다.

나는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 사람에게 속하면 사람의 평가에 흔들린다.

그러나 그리스도께 속하면 그분의 명령이 최종 기준이 된다.

모든 군사는 자기를 군사로 불러 준 이에게 충성하고 그의 명령을 듣는다(4)

따라서 모든 목회자와 성도는 자기를 군사로 불러 주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충성하고 그분의 명령을 듣는다.

그래서 2:8절이 연결되면 나온다.

기독교적 군사 정신은 부활하신 그리스도께 충성하는 삶이다.

2. 왜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인가?

바울은 “도덕적으로 착한 군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범적이고 합당하며 품위 있는 군사”를 말한다.

임무에 충실한 군사, 훈련을 견디는 군사, 명령에 복종하는 군사, 고난을 감수하는 군사

3. 좋은 군사는 고난을 견디어 낸다(3).

많은 사람들은 목회 사역이 편한 직업이라고 생각하고 그 길로 들어선다. 한때 인기 있는 직업 그러나 헌신된 그리스도인 사역자는 영적 인내를 요구하는 전쟁 가운데 있다.

엡 6:10-17 이하에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치러야 하는 영적 전쟁과 무기가 들어 있다.

그런데 특별히 목회자는 보통 성도들보다 더 큰 전쟁을 치러야 한다.

목사는 왜 고난을 피할 수 없는가?

1. 그는 진리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다.
진리를 지키면 세상과 충돌하게 된다. 타협하지 않으면 공격을 받는다.
2. 그는 영적 전쟁 한가운데 서 있다.
딤후 1:18, 6:12 “선한 싸움을 싸우라.” 믿음의 선한 싸움
목회는 관리직이 아니라 전투직이다.
3. 그는 사람을 기쁘게 하지 않고 주님을 기쁘게 한다.
딤후 2:4, “자기를 군사로 모집한 이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사람을 기쁘게 하지 않으면 많은 경우 사람에게서 상처를 받는다.
4. 그는 복음을 희석하지 않는다.
죄를 죄라 하고, 은혜를 은혜라 하고, 심판을 심판이라 하면 사람들의 반발은 자연스럽다.
5. 그래서 목회는 결국 인기를 얻는 길이 아니라 신실함을 지키는 길이다.

디모데에게 주어진 고난 신학

바울이든 디모데든 목사든 성도든 영적 전쟁을 치르는 자들에게 고난은 예외가 아니라 정상이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고난을 피하라고 말하지 않는다. 오히려 고난에 참여하라고 말한다.

1. 고난은 복음의 일부이다.
딤후 1:8 “복음의 고난에 참여하라.”
복음은 피와 고난의 십자가를 중심에 둔다. 십자가 없는 사역은 바울의 복음이 아니다.
2. 고난은 군사의 삶이다.
딤후 2:3 “좋은 군사로서 고난을 견디어 내라.”
군사는 편안함을 기대하지 않는다. 전쟁을 예상한다.
3. 고난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일의 필연적 결과이다.
딤후 3:12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자는 모두 핍박을 받으리라.”
고난은 실패의 증거가 아니라 신실함의 흔적이다.
4. 고난은 영광으로 이어진다.
딤후 2:12 “우리가 참으면 또한 그분과 함께 통치할 것이요.”
고난은 끝이 아니라 영광의 통로이다.
5. 디모데에게 주어진 고난 신학의 핵심은 이것이다.
고난은 복음을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고난은 사역의 실패가 아니라 사역의 본질이다.”
나와 우리 교회 복음의 고난에 참여해야 한다.

좋은 군사는 자기 일에 집중하는 군사이다(4).

여기서 말하는 것은 세상일을 전혀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다.

거기에 정신을 집중해서 얽매이지 말라는 뜻이다.

군사는 전쟁 중에 사업을 확장하지 않는다. 투자에 몰두하지 않는다. 사적인 이익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다. 왜냐하면 전쟁이 우선이기 때문이다.

목회도 그렇다. 우선순위가 흐려지면 군사의 정체성이 사라진다.

때로는 교회가 목회자를 충분히 지원하지 못하기 때문에 목회자나 사모가 직업을 가져야 하는 경우도 있다. 이것은 희생이며 사역을 위한 투자이다. 그러나 충분히 지원받는 목회자는 관심을 분산시키고 사역을 약화시키는 부업에 빠져서는 안 된다. 군사로 부름 받은 목사와 성도의 목표는 자신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다.

운동선수 (딤후 2:5)

바울은 씨름(엡6:12), 권투(고전9:26), 달리기(고전9:24-27), 훈련(딤후4:7-8)과 같은 운동 비유를 자주 사용하였다. 그리스 사람들, 로마 사람들은 스포츠에 열정적이었다. 올림픽과 이스트미아 경기들

은 중요한 행사였다. 이런 경기에서 우승하면 승리의 왕관이 주어진다.

이기려고 애쓰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이제 그들은 썩을 왕관을 얻기 위해 그 일을 하지만 우리는 썩지 아니할 왕관을 얻기 위해 하느니라.(고전9:25)

그런데 경기에서 승리하고 왕관을 얻으려면 규칙을 지켜야 한다. 그리스 운동 경기에서는 심판들이 규칙을 엄격히 집행하였다. 선수는 자국의 시민이어야 하고 평판이 좋아야 하며 준비 과정에서도 기준을 따라야 했다. 규칙을 어기면 실격되었다.

인간적으로 보면 바울은 패자였다. 아시아에 있는 모든 자들이 그를 떠났고(딤후 1:15), 그는 감옥에 있었다. 그러나 그는 승자였다. 그는 말씀의 규칙을 지켰기 때문이다. 그는 보상을 받을 것이다. 그는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 달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기 위해 달렸다.

농부 (딤후 2:6-7)

목회든 무슨 사역이든 사역의 열매는 시작한 다음 날 즉시 다 드러나지 않는다.

농부가 씨를 뿌린 날에 곧바로 수확하지 못하는 것과 같다.

농부는 오늘 씨를 뿌리고 내일 수확을 기대하지 않는다.

씨는 땅속에서 보이지 않는 시간을 거친다.

어둠 속에서 자라고, 뿌리를 내리고, 싹을 틔운다. 그러므로 농부는 조급해하지 않는다.

목회 사역 포함 그리스도인의 모든 사역이 다 그렇다.

어떤 설교는 10년 후에 열매를 맺는다.

어떤 가르침은 목사가 세상을 떠난 뒤에 열매를 맺는다.

즉 궁극적인 열매는 하나님의 최종 심판의 날, 곧 “그 날”에 완전히 드러난다(딤후 4:8)

씨를 뿌린 농부처럼 목회자는 조급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고린도전서 3장 5-9절에서 그는 목회자를 씨를 심고 물을 주는 자로, 교회를 그들이 경작하는 밭에 비유하였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나니...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목사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는 씨를 뿌린다.

그러나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이것이 그리스도인 사역의 신학이다.

우리는 자라게 하지 못한다. 우리는 생명을 만들지 못한다. 우리는 변화의 능력을 만들지 못한다.

수고하는 농부 — 인내는 게으름이 아니다(6)

그냥 농부가 아니라 수고하는 농부여야 한다.

즉 하나님의 일을 하는 모든 성도와 목사는 열심히 일해야 한다.

우리는 심어야 한다. 우리는 물을 주어야 한다. 우리는 밭을 돌보아야 한다.

밭을 그냥 두면 잡초만 자란다. 잠언 24장 30-34절은 게으른 자의 밭을 보여 준다.

돌담은 무너지고, 가시덤불이 가득하다.

밭은 방치하면 자동으로 열매를 맺지 않는다.

잡초는 저절로 자라지만 곡식은 수고 없이는 자라지 않는다.

사역도 마찬가지이다.

교회를 그냥 두면 건강한 열매가 아니라 세속성, 무질서, 영적 무감각이 자란다.

그러므로 사역은 힘든 일이다.

목회자와 성도는 농부처럼 부지런히 일해야 한다.

수확의 몫 — 하나님은 수고를 잊지 않으신다(6)

본문은 또 하나의 놀라운 원리를 말한다. “수고하는 열매들을 가장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다.”(6)

여기에는 정당성의 언어가 있다. “마땅하다.”

농부는 수확의 몫을 받을 자격이 있다.

바울은 디모데전서 5장 18절에서 말한다. “일꾼이 자기 품삯을 받는 것은 마땅하다.” 이것은 단지 영적인 원리만이 아니다. 실제적인 원리이다.

교회는 신실하게 수고하는 사역자를 존중해야 하고 합당하게 지원해야 한다. 하나님은 수고한 자에게 몫을 주시는 분이시다.

그러나 이 몫은 물질적 보상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말씀을 전하는 자들은 먼저 그 말씀의 복을 누린다.

설교자와 교사는 듣는 자들보다 더 깊이 말씀을 파고들고 더 오래 씌름하고 더 많이 기도한다.

그 과정 속에서 그들은 먼저 은혜를 받고 먼저 깨달음을 얻고 먼저 위로를 받는다. 내 경험
깊이 생각하라 — 깨달음은 주님이 주신다(7)

“내가 말하는 것을 깊이 생각하라. 주께서 모든 일에 내게 깨달음을 주시기 원하노라.”(2:7)

바울은 디모데에게 군사, 운동선수, 농부의 세 가지 비유를 연속해서 말한다.

그리고 갑자기 이렇게 말한다. “내가 말하는 것을 깊이 생각하라.”

왜 이런 말을 덧붙였을까? 단순한 예화라면 설명하고 끝냈을 것이다.

그러나 바울은 여기서 멈춘다. 그리고 디모데에게 사색을 요구한다. 이 구절은 단순한 권면이 아니다. 이것은 사역의 핵심을 여는 열쇠이다.

1. 깊이 생각하라.

이 말은 계속해서 곰곰이 숙고하라는 뜻이다. 걸으며 듣고 지나가지 말라는 것이다.

군사는 고난을 견딘다. 운동선수는 법대로 경기한다. 농부는 수고하고 인내한다.

걸으며 보면 단순한 비유이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한 교훈이 아니다. 이것은 목회 신학이다.

사역은 전쟁이다. 사역은 절제의 경기이다. 사역은 땀과 기다림의 농사이다.

이것은 감정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분석하고, 묵상하고, 깊이 이해해야 하는 일이다.

왜냐하면 우리의 본성은 고난을 피하고 싶고, 규칙을 줄이고 싶고, 즉각적인 열매를 보고 싶어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바울은 말한다. “깊이 생각하라.”

2. 바울은 여기서 더 놀라운 말을 덧붙인다. “주께서 모든 일에 내게 깨달음을 주시기 원하노라.”

그는 “이해했지?”라고 묻지 않는다. 그는 “주께서 깨닫게 하실 것이다”라고 말한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원리이다.

교리는 설명할 수 있다. 비유는 가르칠 수 있다.

그러나 참된 통찰은 주님께서 주셔야 한다.

성령님의 조명이 없으면 우리는 군사의 고난을 오해하고, 운동선수의 규칙을 율법주의로 바꾸고, 농부의 인내를 게으름으로 바꿔 버릴 수 있다.

이런 깨달음은 인간 지능의 결과가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다.

3. 왜 갑자기 이 말을 지금 하는가 — 디모데가 낙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편지는 바울이 감옥에서 쓴 편지이다.

아시아의 모든 사람들이 떠났다. 대다수 사역자들이 그를 떠났다.

그가 처음 변론할 때 아무도 함께하지 않았다.

외형적으로 보면 그는 실패한 사람처럼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그는 고난을 견디라, 법대로 경기하라, 수고하고 인내하라, 이 말을 하는 것이다.

목적: 디모데가 낙심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정체성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

바울은 말한다.

깊이 생각하라. 눈에 보이는 결과가 전부다 아니다. 지금의 외로움이 결론이 아니다.

지금의 고난이 실패를 의미하지 않는다.
깊이 생각하면 하나님의 경륜이 보인다.
사역은 단순하지 않다 — 그래서 생각과 기도가 함께 가야 한다. 목회는 공식이 아니다.
언제 참고 견뎌야 하는가?
언제 싸워야 하는가?
언제 기다려야 하는가?
이것은 자동으로 답이 나오지 않는다.

그래서 바울은 말한다.

깊이 생각하라. 그러나 동시에 깨달음은 주께서 주신다.
여기서 중요한 균형이 있다.
생각하라 — 인간의 책임.
깨닫게 하신다 — 하나님의 은혜.
사색과 기도가 함께 가야 한다.
묵상과 성령님의 조명이 함께 가야 한다.

결론

바울은 삶의 모든 일에 단순한 지식을 요구하지 않는다.

깊은 이해를 요구한다. 사역은 감정의 일이 아니다.

깊이 사고하는 일이다. 그리고 그 사고는 성령님의 조명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이다.

말씀을 피상적으로 듣지 말라. 깊이 생각하라.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라. “주여, 제가 깨닫게 하소서.”

주님께서 깨닫게 하실 때 고난의 의미가 보이고, 인내의 가치가 보이고, 수고의 보상이 보인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 끝까지 우리를 군사로, 운동선수로, 농부로 불러주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충성할 수 있다.

메시아는 여자의 씨일뿐만 아니라 통치자이다.

하나님의 약속은 다윗에게 이르러 왕권 언약으로 확정된다.

사무엘하 7장 12-13절: “네 날들이 차서 네가 네 조상들과 함께 잘 때에 내가 네 배 속에서 나올 자 곧 네 뒤를 이을 네 씨를 세우고 그의 왕국을 굳게 세우리니 그는 내 이름을 위해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국의 왕좌를 영원토록 굳게 세우리라.” 1차 솔로몬, 2차 예수님
메시아는 단지 구원자가 아니라 왕으로 오신다. 그래서 바울은 딤후 2:8에서 “다윗의 씨에서 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강조한다. 예수님은 약속된 왕이다.

4. 그 약속은 때가 충만히 찼을 때에 완전하게 이루어졌다(갈4:4).

하나님의 약속은 아니라 정확한 시간표 속에서 성취되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그러나 때가 충만히 찼을 때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있게 하셨나니”

여자의 씨로, 아브라함의 씨로, 다윗의 씨로 오실 그분은 역사 속에서 실제로 오셨다.

구속은 신화가 아니라 역사적 사건이다. 하나님의 계획은 정확히 성취되었다.

5. 복음의 핵심은 다윗의 씨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덤을 이기고 일어나신 것이다.

딤후 2:8은 이 모든 약속의 절정을 선언한다. “ ”

복음의 핵심은 단순히 그분이 오신 것이 아니라 부활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죽으셨고, 실제로 무덤을 이기고 일어나셨다. 부활은 그분이 약속된 메시아이심을 입증하는 하나님의 선언이다.

로마서 1장 4절: “그분은 거룩함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심으로써 권능 있게 하나님의 아들로 밝히 드러나셨느니라.”

즉 부활은 하나님의 공적 선언이다.

6. 이것으로 그분은 옛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셨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셨다. “여자의 씨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이 약속은 십자가와 부활에서 성취되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발꿈치를 상하게 한 사건이었지만, 부활은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한 결정적 승리였다.

히브리서 2장 14절은 말한다. “ ”

성육신 하신 것은 죽음을 통해 죽음의 권능을 가진 자 곧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로마서 16장 20절은 이 승리를 교회에 적용한다.

“화평의 하나님께서 곧 사탄을 너희 발밑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리스도의 부활은 사탄의 패배를 확정했다.

우리는 승리를 얻기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루어진 승리 안에서 싸운다.

6.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분의 사명의 위대한 증거이며, 기독교 신앙의 진리를 입증하는 가장 큰 증거이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깊이 묵상하는 것은 우리가 그 신앙을 위해 고난을 받을 때 우리를 격려한다. 그래서 고난받는 성도들은 이것을 기억해야 한다.

우리는 믿음의 창시자이시며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 그분은 자기 앞에 놓인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건디시고 수치를 떨시하시며 이제 하나님의 왕좌 오른편에 앉으셨다(히 12:2).

나의 복음

여기서 “나의 복음”이라는 표현은 바울이 복음을 자기 소유물처럼 주장하는 말이 아니다. 복음은 바울이 만들어 낸 사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받은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이다. 그는 갈라디아서 1장 12절에서 자신이 전한 복음이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밝혔다. 그러므로 “나의 복음”은 창작이나 소유를 의미하지 않는다.

이 표현은 오히려 위탁과 책임, 그리고 동일시를 의미한다. 바울은 복음을 맡은 자였다. 그는 복음을 위하여 살았고,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당했으며, 복음을 위하여 감옥에 갇혀 있었다. 복음은 그의

사역의 중심이었고, 그의 존재의 이유였다. 그래서 그는 그것을 “나의 복음”이라고 부른다. 그것은 그가 받은 복음이고, 그가 전하는 복음이며, 그가 끝까지 지키고자 하는 복음이다. 또한 이 표현은 당시 교회 안에서 복음의 핵심을 흐리거나 왜곡하려는 거짓 교사들에 대한 분명한 선언이기도 하다. 바울은 자신이 전해 온 복음, 곧 역사적 성육신과 실제적인 부활을 분명히 붙들고 있었다. 그것이 그의 복음이었다. 그 복음은 변형되거나 희석될 수 없는 진리였다. 따라서 “나의 복음”이라는 말은 사도의 교만한 소유 선언이 아니라, 생명을 걸고 지켜 온 진리에 대한 책임의 고백이다. 그것은 복음과 자신의 삶을 분리하지 않는 사람의 언어이다. 바울에게 복음은 단지 가르침이 아니라 존재의 중심이었고, 고난을 견디게 하는 능력이었다. 그래서 그는 담대히 말한다. 이것은 나의 복음이다.

우리 모두 이 복음을 나의 복음이라고 고백하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

바울 자신이 본이 되었다는 사실이 또 하나의 격려이다(9). 복음을 선포하면 반드시 고난을 당한다. 사도는 어떻게 고난을 받았는가(9절). “이 복음으로 인해 내가 악을 행하는 자처럼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당하나” 감옥에 속박되어 결국 참수형으로 죽는다.

따라서 디모데는 아들로서 아버지인 바울보다 더 나은 대우를 기대해서는 안 된다. 바울은 선을 행하는 사람이었지만 악인처럼 취급받았다. 그러므로 우리가 선을 행함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악한 대우를 받는 것을 이상히 여겨서는 안 된다. 가장 선한 사람들이 가장 나쁜 대우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바울이 받은 위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결박되지 않았다는 사실이었다.** 박해하는 권세가 사역자를 묶고 침묵시킬 수는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에 일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 말씀은 어떤 인간적 힘으로도 묶일 수 없다.

이 사실은 디모데가 예수의 증언 때문에 결박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격려한다.

그리스도의 말씀은 자유나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기 때문이다.

설교자들은 종종 묶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묶이지 않는다.

디모데에게 기억하라고 한 이유(10)

바울의 말: “나나, 혹은 우리 중 누구든지 그분의 겸손한 종들은 한동안 짓밟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잠시뿐이다. 구원과 영원한 영광은 그분의 능력 안에서 확실히 보장되어 있다.”

영원한 영광: 영원한 생명, 영존하는 생명, 영화로운 몸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것: “죄에서 해방되어 죄 자체를 모르는 삶”

이것이야말로 참으로 남자답게, 용기 있게 고난을 견디며 사는 이유이다.

또 다른 격려는 장차 올 상태에 대한 소망이다(11-13).

11-13절은 한 덩어리이다. 여기서 반복되는 단어는 “우리”이다(4번).

바울은 불신자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신자 공동체 안에서 자신과 디모데를 포함한 “우리”에 대해 말하고 있다.

무슨 말: 신실한 말, 확실한 말, 믿어도 되는 말(11), 그 내용이 11-13절에 있다.

11절은 이미 분명히 선언한다.

“우리가 그분과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것이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표현은 로마서 6장 3절에서 말하는 구원받은 자의 연합을 가리킨다.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우리가 다 그분의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은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분과 함께 죽은 자는 이미 생명 안에 있는 자이다.

이것이 바로 8절의 부활, 그리스도의 부활은 나의 부활을 보장한다.

따라서 11-13절의 문맥은 구원 여부를 결정하는 장면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의 삶과 인내, 그리고 장차 있을 통치와 보상에 관한 말이다.

11- 12절의 구조를 보자.

1. 죽으면 → 살 것이다
2. 고난을 견디면 → 통치할 것이다
3. 부인하면 → 부인당할 것이다

여기서 두 번째 것 즉 12절이 핵심이다.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서 참고 견디면 또한 그분과 함께 통치할 것이다”

통치는 구원과 동일한 개념이 아니라, 구원 이후의 영광과 왕권적 참여를 말한다.

그러므로 “부인하면 부인당한다”는 말도 생명의 취소가 아니라 통치의 부인, 보상의 상실과 연결되어 이해하는 것이 문맥상 자연스럽다.

왜 그럴까? 11절이 이미 ‘구원받은 자의 연합’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런데 12절을 구원 취소로 읽으면 논리가 꼬인다.

그리고 13절이 그 해석의 균형을 잡아 준다.

“우리가 믿지 아니하여도 그분은 항상 신실하시니 그분은 자신을 부인하실 수 없느니라.”

여기서 바울은 분명히 말한다. “우리가 믿지 아니하여도”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지라도”의 뜻이다.

그래도 그분은 신실하시다. 그분은 자신의 언약을 취소하지 않으신다.

약속: 요3:16, 롬10:13

영생은 행위로 얻은 것이 아니며, 고난을 완벽히 견딘 대가로 유지되는 것도 아니다.

바울이 13절을 12절 다음에 붙여 “균형”을 잡는 방식은, “정죄를 확정”하는 방향이 아니라, ‘우리의 언약함이 있어도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이 더 크다’는 방향으로 흐른다.

고린도전서 3장 15절은 보상의 손실을 이렇게 말한다.

“어떤 사람의 일이 불타면 그는 보상의 손실을 당하리라. 그러나 그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에 의해 받는 것같이 받으리라.”

그리스도인의 구원은 유지되지만 그의 보상은 손실될 수 있다.

신자들의 믿음은 때때로 매우 약해질 수 있다.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믿음의 작용이 약해질 수 있고, 장차 누릴 영광과 복에 대한 확신이 흔들릴 수 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그들을 위하여 세우신 언약의 모든 약속에 신실하시다. 그분은 그들을 영광에 이르게 하실 것이며, 그들의 복에 관한 모든 약속을 반드시 이루신다.

“그것은 신실한 말이로다.”(11절)

그분은 그들을 향한 사랑에서 변함이 없으시며, 그분의 피와 의와 희생물의 효력도 변하지 않는다. 그분의 구원은 영원하고 변치 않는 구원이다. 성도들이 그 구원에 참여하는 것과 그 구원 안에서 안전한 것은 그들의 믿음의 행위나 감정 상태에 달려 있지 않다. 그것은 믿음의 대상이신 그리스도의 견고함과 변치 않음에 달려 있다.

“그분은 자신을 부인할 수 없느니라.”(13절)

그분은 자신의 말씀에 반하는 행동을 하실 수 없다. 만일 그렇게 하신다면 그것은 자신의 본성과 완전하심에 반하는 일이 될 것이며, 곧 자신을 부인하는 것이 된다. 그러나 그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성도들의 믿음이 그 작용에 있어 약해질지라도, 그분의 신실하심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

결론

바울은 디모데에게 고난을 견디라고 권면하면서, 동시에 그의 언약함을 알고 있었다. 디모데는 담대한 성품의 사람이 아니었고, 두려움과 위축을 경험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 사역의 무게와 박해의 현실 앞에서 그의 믿음이 흔들릴 수도 있었다. 바울은 그것을 부정하지 않았다. 오히려 인정했다.

그러나 바울은 거기에서 멈추지 않는다. “우리가 믿지 아니하여도 그분은 항상 신실하시니 그분은 자신을 부인하실 수 없느니라.” 우리의 믿음은 때로 약해질 수 있고, 우리의 마음은 낙심할 수 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은 변하지 않는다. 우리의 구원과 소망은 우리의 결심이나 감정의 강도에 달려 있지 않다. 그것은 자신을 부인하지 않으시는 주님의 변하지 않는 성품에 달려 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단순한 교리 설명이 아니라 고난 속에 있는 디모데를 붙드는 닳과 같은 위로이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다. 우리가 흔들릴 수는 있어도, 주님은 흔들리지 않으신다. 우리가 연약해질 수는 있어도, 그분은 신실하게 남아 계신다. 그러므로 고난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끝까지 서라. 우리의 소망은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신실하신 그리스도 자신이기 때문이다. 이러 말씀들을 기억하며 하늘의 영원한 영광을 소망하며 사는 우리가 되자.

딤후 강해 16
신약과 구약, 교회와 이스라엘을
구분하는 올바른 성경 연구

딤후2:15

성경의 증언: 딤후전후 목회 서신, 성경대로 살면 고통과 고난 모욕 등을 당하게 된다. 참 기독교에는 세상의 칭찬, 변영 신학, 기복 신앙 등이 들어설 자리가 없다. 왜 세상이 진리를 미워하므로 바울의 권고, 그래서 목사, 성도 모두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기억해야 한다(2:8). 최종 소망 성도는 때여도 하나님의 말씀은 때이지 않는다(2:9).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그분과 함께 통치한다(2:12).

오늘 < > 기독교의 핵심은 성경 말씀을 바로 아는 것, 성경을 읽되 바르게 읽어야 한다.

딤후2:15 성경대로 믿고 가르치려는 미국 교회 목사들이 가장 많이 인용하는 구절 중 하나 특히 목사 교사 등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는 사람은 반드시 이 구절을 잘 알아야 한다.

1. 성경은 진리의 말씀이다. 2.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야 한다. 3. 그래야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자로 드러난다. 4. 그 일을 위해 열심히 연구해야 한다.

진리의 말씀

‘진리의 말씀’(the word of truth)이란 곧 진리의 성경을 가리킨다. 성경은 인간의 철학이나 종교적 사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신 계시의 말씀이며, 그 내용은 100% 진리로만 이루어져 있다. 이런 의미에서 이 표현은 다니엘이 10장 21절에서 말한 “진리의 성경기록”과 같은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

왜 진리의 성경기록? 하나님이 진리이시기 때문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신 분이시며, 그래서 그분의 말씀도 거짓이 없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아들이 아니시니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는 도다. 그분께서 말씀하셨으니 그것을 행하지 아니하시리오? 그분께서 이르셨으니 그것을 실행하지 아니하시리오?(민23:19)

딤후1:2 거짓말하실 수 없는 하나님

롬3:4, 참으로 하나님은 진실하시되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라 할지이다.

요17:17 “아버지의 진리로 그들을 거룩히 구별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이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진리이시다(요14:6).

성경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증언하는 책이다. 성경 전체의 중심은 그리스도이며, 구약은 그분의 오심을 예언하며, 신약은 그분의 사역과 구속을 기록한다.

요5:39, 성경기록들을 탐구하라. 너희가 그것들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로 생각하는데 그것들은 나에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들이니라.

또한 성경은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의 인도 아래 기록된 말씀이다.

요16:13 “그러나 그분 곧 진리의 영께서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벧후1:21 “대언은 옛적에 사람의 뜻에 의해 나오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은 성령님께서 자기들을 움직이시는 대로 말하였느니라.”

성경은 진리의 하나님에게서 나오고, 진리이신 그리스도를 증언하며, 진리의 영이신 성령에 의해 기록된 말씀이다. 따라서 그 안에는 단 하나의 거짓이나 오류가 없고 오직 하나님의 진리만 담겨 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꾼이 되라고 명령한 것이다.

바르게 나누어야 한다.

사도 바울은 직업 면에서 천막을 만드는 사람이었다. 행18:3

바울이 고린도에서 만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도 같은 직업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바울은 그들과 함께 지내며 일을 했다. 바울의 고향은 길리기아의 다소였는데, 이 지역은 천막 산업으로 유명한

도시였다. 특히 염소 털로 만든 거친 천이 유명했는데, 이것으로 천막을 만들었다. 때로는 가죽을 사용하여 천막을 보강하거나 제작하기도 했다.

천막을 만들기 위해서는 재료를 정확하게 재단해야 한다. 천이나 가죽을 아무렇게나 찢어 찢어 자르면 천막이 제대로 만들어질 수 없다. 반드시 칼로 재질을 곧게 자르고, 바르게 재단하는 일이 필요하다. 조금만 잘못 잘라도 천막의 모양이 어긋나고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딤후2:15의 “바르게 나누어”(rightly dividing)라는 표현은 천막을 만드는 사람이 천이나 가죽을 정확하게 재단하여 자르듯이, 하나님의 말씀도 정확하게 나누어 다루어야 한다는 뜻이다.

성경을 바르게 나누는 것은 말씀의 적용 대상과 시대를 정확하게 구분하는 것을 의미한다. 하나님께서는 역사 속에서 서로 다른 시대와 대상에게 말씀하셨다. 예를 들면 어떤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어진 것이고, 어떤 말씀은 교회에게 주어진 것이다. 어떤 말씀은 율법 시대에 해당하고, 어떤 말씀은 은혜 시대에 해당한다.

돼지고기, 유대인들에게는 금지. 지금은 아무 문제가 없다.

구약 시대 양과 염소 소 등을 끌고 제사장에게 감. 지금 그런 일 하지 않음

이러한 구분을 하지 않으면 성경의 여러 말씀들이 서로 뒤섞여 혼란이 생긴다. 율법과 은혜가 섞이고, 이스라엘과 교회가 구분되지 않으며, 하나님께서 각 시대에 주신 경륜이 흐려지게 된다. 그래서 성경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원리가 바로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는 것”이다.

1. 구약과 신약을 구분해야 한다.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나뉘어 있으며, 두 시대의 경륜과 적용에는 차이가 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약 시대가 예수님이 태어나신 때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하지만, 성경적으로 보면 진정한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후에 시작된다.

히브리서 9:16-17

신약은 예수님의 죽음으로 세워진 언약이기 때문에(갈4:4), 십자가 이전의 사복음서 시대는 여전히 구약 체제 아래 있는 전환기라고 볼 수 있다. 이 사실을 구분하지 않으면 율법과 은혜의 관계를 혼동하게 되고 성경 해석이 혼란스러워진다.

2. 교회와 이스라엘을 구분해야 한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하신 이스라엘 민족과, 오순절 이후 성령님에 의해 태어난 교회가 분명히 구분되어 나타난다. 이 둘을 동일하게 보게 되면 흔히 말하는 이스라엘 대체 신학이 생기게 된다. 즉 교회가 이스라엘을 대신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약속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말한다.

로마서 11장을 보기 바란다. 1절, 11절

이스라엘과 교회를 구분하지 않으면 구약의 이스라엘에 대한 약속들을 교회에 억지로 적용하게 되고, 그 결과 성경의 예언과 약속들이 서로 맞지 않는 것처럼 보이게 된다. 그러나 이 둘을 분명히 구분하면 성경의 약속들과 하나님의 계획이 훨씬 더 질서 있게 이해된다.

3. 이 점에서 세대주의(Dispensationalism)의 핵심도 바로 여기에 있다. 세대주의는 성경을 임의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계시하신 서로 다른 경륜과 적용 대상을 구분하여 이해하려는 노력이다. 특히 이스라엘과 교회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한 원리로 강조된다. 이 구분이 분명할 때 성경의 약속들과 교훈들이 서로 충돌하지 않고 조화롭게 이해된다. 성경 바로 보기 책(*)

4. 따라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라’고 명령한 것은 단순한 성경 연구 방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해석하고 올바른 대상에게 적용하는 책임을 말하는 것이다. 마치 천막을 만드는 사람이 재료를 정확하게 재단해야 하듯이, 하나님의 일꾼은 성경을 바르게 나누어 사람들에게 올바르게 전해야 한다. 그렇게 할 때 비로소 그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꾼이 될 수 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드러난다.

우리 모두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것이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주는 권고: 딤후2:15,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드러나야 한다.

이 말씀은 단순히 목회자나 사역자에게만 주어진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신자에게 중요한 원리를 보여 준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 되기를 소망한다.

즉 그리스도인들은 다 하나님의 일꾼이다. 그런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 되어야 한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부끄럽지 않은 일꾼’의 조건은 분명하다. 그것은 말씀을 바르게 나누는 사람이다. 성경을 잘못 나누고 서로 다른 시대와 대상에게 주어진 말씀을 구분하지 못하면, 아무리 열심히 가르쳐도 결국 사람들에게 혼란을 주게 된다. 율법과 은혜가 뒤섞이고, 이스라엘과 교회가 구분되지 않으며, 하나님께서 각 시대에 주신 말씀의 적용이 흐려진다. 그렇게 되면 말씀을 전하는 사람도 결국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일꾼이 되고 만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단순히 무조건 열심히 설교하고 가르치하고 하지 않았다. 먼저 말씀을 바르게 나누는 사람이 되라고 명령하였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꾼은 화려한 사람이나 뛰어난 능력을 가진 사람일 필요는 없다. 그러나 그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바르게 나누어 전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이 점에서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는 것”은 단순한 성경 연구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꾼이 되기 위한 필수 조건이다. 말씀을 바르게 나눌 때에만 성경의 진리가 혼란 없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뜻이 정확하게 전달되기 때문이다.

연구하라

하나님께 인정받고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드러내려면 무엇보다 연구해야 한다(Study).

NIV는 do your best라고 번역함

여기서 “연구하라”(study)는 말은 단순히 책을 조금 읽는 정도를 의미하지 않는다. 이 말의 뜻은 ‘힘써 노력하다, 열심을 다하다, 부지런히 자신을 준비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다시 말해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일꾼이 되기 위해 열정을 가지고 부지런히 매진하라는 뜻이다. 그게 연구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는 일은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성경을 깊이 읽고, 묵상하고, 비교하고, 이해하려는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말씀을 대충 읽거나 피상적으로 이해해서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눌 수 없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부지런히 자신을 준비하라고 권면한 것이다.

이러한 연구에는 여러 요소가 포함된다. 먼저 성경을 꾸준히 읽고 깊이 생각해야 한다. 또한 말씀을 서로 비교하고 전체 흐름 속에서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기도도 함께 따라야 한다. 이런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점점 더 정확하게 이해하게 된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꾼은 우연히 만들어지지 않는다. 그는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 시간을 들이고, 마음과 열정을 다해 연구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매진할 때 비로소 그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는 일꾼, 곧 하나님께 인정받고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드러나게 된다.

어떻게 연구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성경을 올바른 방법으로 이해하고 해석하려는 태도가 필요하다.

0. 성경에 대한 확신

1. 성경은 인간의 생각이나 철학으로 설명해야 하는 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이기 때문에 성경 자체가 성경을 설명하도록 해야 한다. 그래서 성경을 연구할 때 가장 중요한 원리 가운데 하나는 성경은 성경으로 풀고 이해한다는 것이다. 사람의 말이 아니라 성경으로(행17:11 베레아 사람들)
2. 성경의 한 구절을 이해하려 할 때에는 성경 전체의 다른 구절들과 비교하며 살펴보아야 한다. 같은 주제나 같은 단어가 다른 곳에서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찾아보면 그 의미가 더 분명해진다. 이런 작업을

위해 많은 사람들이 콘코던스(Concordance)를 사용한다. 콘코던스는 성경에 나오는 단어나 표현이 어디에서 사용되었는지를 찾아볼 수 있게 해 주는 도구로, 같은 단어가 성경 여러 곳에서 어떻게 쓰였는지를 비교하며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준다. 이렇게 성경 구절을 서로 비교하면서 이해하면 인간의 추측이 아니라 성경 자체가 의미를 설명해 주는 방식으로 해석하게 된다.

예: 천국, 지옥의 위치

3. 성경을 해석할 때는 반드시 문맥을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 한 구절만 떼어 놓고 해석하면 본래의 의미와 전혀 다른 뜻으로 이해될 수 있다(QT의 문제). 따라서 그 구절이 기록된 앞뒤 문장과 문단, 그리고 전체 책의 흐름 속에서 의미를 살펴보아야 한다. 문맥을 무시하면 성경의 뜻이 쉽게 왜곡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앞뒤 문맥과 전체 문맥 속에서 말씀을 이해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다.
4. 성경 해석의 또 하나의 중요한 원리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문자 그대로 이해하는 것이다. 성경에는 비유나 상징이 사용되는 부분도 있지만, 그것이 분명하게 나타나지 않는 한 말씀을 억지로 상징적으로 해석하려고 할 필요는 없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가장 자연스러운 해석이 된다.
5. 성경을 올바르게 이해하려면 성경의 기본 틀을 항상 기억해야 한다. 성경 전체를 통해 분명하게 나타나는 진리는 구원이 모든 시대에 오직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 주어진다라는 것이다. 사람의 행위나 공로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에베소서 2:8-9

히11장 전체 믿음 장

이 원리는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된다. 구약 시대든 신약 시대든 구원의 근본 원리는 변하지 않는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여겨지는 길은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을 통해 이루어진다. 따라서 이 기본 틀을 벗어나면 성경의 여러 구절을 잘못 이해하게 되고, 결국 올바른 해석에 도달할 수 없다.

6. 또한 성경을 해석할 때 하나님의 예정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도 균형 있게 이해해야 한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며 그의 계획 가운데 예정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한다. 그러나 그 예정은 언제 하나님의 미리 아심에 근거한 것이다.

벧전1:2

이 구절은 하나님의 예정 선택이 하나님의 미리 아심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보여 준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사람의 믿음과 반응을 미리 아신다. 그러나 성경 어디에서도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무조건 구원받도록, 어떤 사람은 무조건 멸망하도록 정하셨다는 식의 무조건적인 이중 예정을 가르치지 않는다.

예1, 살전1:4, 사랑하는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너희를 선택하셨음을 우리가 아노라.

예2, 행13:48 이방인들이 이 말을 듣고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에 영광을 돌리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정해진 자들은 다 믿더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며, 누구든지 믿음으로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복음을 주셨다.

딤후2:4 “그분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려면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시며 그의 계획 안에 예정이 있지만, 동시에 사람에게 믿고 응답할 책임을 주셨다. 이러한 성경의 균형을 지킬 때 우리는 말씀을 왜곡하지 않고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는 해석에 이르게 된다.

7. 성경을 해석할 때 또 하나 중요한 원리는 다수의 명백한 구절들로 기본 틀을 세우고, 소수의 희미하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구절들은 그 틀 안에서 이해하려는 태도이다. 성경에는 매우 분명하고 반복적으로 가르치는 진리들이 있다. 이런 구절들은 여러 곳에서 동일하게 나타나며 의미도 명확하다. 따라서 성경을 해석할 때에는 먼저 이런 분명한 말씀들로 전체적인 교리와 원리를 세워야 한다.

어떤 구절이 이해하기 어렵거나 의미가 모호하게 보일 때에는 그 구절을 따로 떼어 새로운 교리를 만들려고 하기보다 이미 분명하게 드러난 성경의 가르침 안에서 이해하려고 해야 한다.

성경 해석에서 흔히 생기는 오류는 바로 이 원리를 거꾸로 적용할 때 나타난다. 즉, 몇 개의 어려운 구절을 중심으로 교리를 만들고, 오히려 많은 분명한 구절들을 그에 맞게 억지로 해석하려 할 때 문제가 생긴다. 그러나 올바른 해석은 그 반대이다. 분명한 말씀들이 기준이 되고, 어려운 구절들은 그 기준 안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이 원리를 따르면 성경 전체의 가르침이 서로 충돌하지 않고 조화를 이루게 된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서로 모순되지 않으며, 성경 전체가 하나의 통일된 진리를 증언한다. 따라서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은 항상 명백한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이해하기 어려운 구절들을 그 틀 안에서 겸손하게 해석하려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성경의 진리를 왜곡하지 않고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는 해석에 가까이 나아가게 된다.

결론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은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꾼임을 보여 주며 하나님의 일꾼이 어떤 자세로 말씀을 대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 준다.

이 말씀의 핵심은 세 가지이다.

첫째 성경 기록은 진리의 하나님이 주신 진리의 말씀이다. 오류나 거짓이 하나도 없다. 지금 우리 손에 있다.

둘째, 하나님의 일꾼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사람들의 칭찬이나 명예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셋째,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야 한다. 성경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올바르게 적용하여 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꾼의 모습이다.

성경을 바르게 나누지 못하면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일꾼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말씀을 사랑하고 부지런히 연구하며 성경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전하려고 힘쓰는 사람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꾼이 된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무엇보다 먼저 연구하고 말씀을 바르게 나누는 일에 힘쓰라고 권면하였다.

결국 하나님께 인정받고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 되는 길은 다른 데 있지 않다. 그것은 진리의 말씀을 사랑하고, 부지런히 연구하며, 그 말씀을 바르게 나누는 삶에 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사용하신다.

